

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I

- 일제 훈포상 자료를 통해 본 협력조선인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I

초판 1쇄 발행 2009년 10월 30일

발행인 || 성대경

발행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5층
- 전화 02)2180-2409 • 팩스 02)2180-2423
- 홈페이지 www.pcic.go.kr

제작유통 || 도서출판 선인

- 전화 02)718-6252
- 팩스 02)718-6253
- E-mail sunin72@chol.com

정가 || 비매품

발간 등록번호 11-1560010-000003-10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I

- 일제 훈포상 자료를 통해 본 협력조선인 -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발간사

이제 마침내 우리 위원회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발족된 이래 4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간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40년간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제1기는 러일전쟁에서 3·1운동까지(1904~1919년), 제2기는 3·1운동 이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1919~1937년), 제3기는 중일전쟁부터 8·15해방까지(1937~1945년) 입니다.

그러나 8·15해방 후 6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린 터여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찾아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심의자료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반민족행위의 경중을 가려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 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최종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논의와 고민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2006년과 2007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1기와 제2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동안 확정된 301명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를 수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지금은 제3기 조사결과를 비롯하여 지난 4년 반 동안 있었던 위원회 전체 활동을 수록할 종합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과 재작년에 제1기와 제2기 조사과정에 참조했던 사료들을 묶어 모두 일곱 권의 사료집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3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사료들을 선별하여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료집을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료집은 제8권에서 제16권까지 총 9권이며, 제8권에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전시총동원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총독의 훈시와 법령을 비롯하여 조선인 노동력 동원과 병력동원 관계 자료와 친일언론의 전쟁지원 논설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9권에는 1937년 이후 전시체제에 조선인을 적극 동원하기 위해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등 친일단체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제10권에는 일제의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조선인의 글을, 제11권에는 1937년 이후, '만주국'의 조선인 통제와 해외에서의 친일협력 자료를, 제12권에는 일제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한국인(조선인)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또 제13권에는 유교계의 친일협력 글과

친일 한시를 모으고, 지금껏 번역되지 못하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경학원, 조선유도연합회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제14권에는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친일협력의 주제로 기독교·천주교·불교·천도교의 친일관련 자료를 담았습니다. 제15권에는 문화예술계의 식민화 정책과 관련 조직들의 자료를 묶었습니다. 끝으로 제16권에는 조선인이 친일협력을 목적으로 쓴 시와 소설, 희곡과 시나리오, 악보와 가사, 미술작품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용제의 친일 시집 3권 『아세아시집』, 『서사시어동정(敍事詩御東征)』, 『보도시첩』은 조선인이 일본어로 시를 써서 단행본 시집으로 묶어낸 희귀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료집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함께 발간하는 마지막 사료집입니다. 그래서 제3기에 조사 관련 사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1차 사료집(2007년)과 2차 사료집(2008년)에 실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자료로 활용했던 조선인 훈포상 자료, 종교관련 자료, 문학예술관련 자료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발간한 사료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편찬하는 9권의 사료집뿐만 아니라 이미 간행한 7권의 사료집 내용도 함께 디지털화하여 CD에 담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신 시민사회와 학계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사료집을 연구와 교육에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과거사 가운데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정의로운 미래 사회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발간된 사료집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10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 대 경

◆ 일 러 두 기 ◆

1. 이 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전체 사료 중에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크거나 특별한 중요성 또는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이 책에 수록된 사료는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혹은 특정 한자어 등 원 상태로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는 한자나 원어를 () 속에 병기하였다. 풀어 쓴 단어, 외국인명의 원음 표기, 필명이나 창씨개명의 본명 등의 경우에도 ()로 병기하였다.
3. 사료의 특정 부분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역사적 배경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각주는 ‘번역자 주’나 ‘편집자 주’에 해당됨을 밝혀둔다.
4.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의 표기법은, 사료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 사료의 표기를 따르고자 했다. 특히 친일적인 인사들이나 단체에서 나온 글의 경우, 그 ‘친일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어 천황, 내지, 반도, 지나, 국어, 지나사변, 대동아전쟁 등이다.
5. 장·절 등을 구성하고 있는 제목의 경우, 가급적 원 사료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원 제목이 그 의미를 집약해서 드러내지 못하거나 신문기사 등 여러 개의 관련사료를 동시에 묶어 수록할 경우 적절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필자명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경우, 제목 왼쪽에 표기하고 ‘,(콤마)’로 연결했다.
단행본명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은 경우, 『 』로 표시하고 연도를 병기했다.
6. 이 책에 수록된 ‘해제’의 역사용어나 개념, 서술내용 중 일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7.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찾아보기’는 인명, 단체 및 기관명, 사건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차례

* 발간사	4
* 해제 : 친일행위에 대한 ‘공인인증서’ - 훈포상과 공적조서	11

I. 러일전쟁 조선인 ‘공로자’

1. 박영철(朴榮喆) 외 27명 서훈 및 사급	31
박영철(朴榮喆), 유동열(柳東說), 박두영(朴斗榮), 김응선(金應善), 김기원(金基元), 이갑(李甲), 남기창(南基昌), 전영헌(全永憲), 최석하(崔錫夏), 김진옥(全眞玉), 강필성(姜弼成), 유희길(俞喜吉), 손진원(孫震元), 이범익(李範益), 이인식(李人植(植)), 민기호(閔岐鎬), 강홍대(康洪大), 홍순찬(洪淳瓚), 김윤구(金倫求), 최상돈(崔相敦), 강영우(姜永祐), 팽한주(彭翰周), 백락삼(白樂三), 박중양(朴重陽)	
2. 이순창(李順昌) 외 7명 서훈	53
이순창(李順昌), 김정원(金正元), 고운봉(高雲峯), 강희원(康希元), 석삼봉(昔三鳳), 한용락(韓龍樂), 백무요(白無曜), 김병엽(金丙葉)	
3. 윤갑병(尹甲炳) 외 105명 서훈 및 사급	58
조병교(趙秉敎), 이근풍(李根豐), 서상대(徐相大), 신기선(申箕善), 박혁준(朴奭俊), 최석조(崔錫肇), 이영식(李永植), 홍태윤(洪泰潤), 이해성(李海盛), 이종환(李鍾煥), 김종중(金鍾重), 김만현(金萬鉉), 이우영(李宇榮), 최재호(崔載浩), 유맹(劉猛), 이태정(李台玟), 강종우(康鍾祐), 엄하영(嚴夏永), 이석기(李碩基), 김기준(金基俊), 명제태(明濟泰), 김만희(金萬熙), 허환(許緩), 김치(金燧), 김남일(金南一), 이순재(李舜在), 이민후(李敏厚), 최태원(崔泰源), 이석영(李寔永), 이희두(李熙斗), 조성근(趙性根), 어담(魚潭), 노백린(盧伯麟), 김태원(金泰元), 유강열(劉康烈), 유철영(柳哲永), 신우균(申羽均), 장기원(張璣遠), 황학수(黃學秀), 장태진(張泰鎭), 박동원(朴東元), 유기성(柳冀聖), 이범승(李範承), 권승록(權承錄), 권영탁(權寧鐸)	
4. 신기선(申箕善) 외 47명 서훈 및 사급	93
신기선(申箕善), 권중현(權重顯), 이중하(李重夏), 박승조(朴承祖), 조병교(趙秉敎), 이종완(李鍾完), 신흥모(申珩模), 홍순욱(洪淳旭), 박기호(朴淇昊), 이영식(李永植), 조길하(趙吉夏), 김유직(金裕稷), 김응룡(金應龍), 신대균(申大均), 고영철(高永喆), 권직상(權直相), 김영걸(金永杰), 이종형(李鍾滢), 고원식(高源植), 이병구(李秉九), 최종악(崔鐘岳), 김규명(金圭明), 이봉종(李鳳鐘), 윤정대(尹鼎大), 김순석(金淳碩), 김용계(金容濟), 이중철(李重轍), 윤시병(尹始炳), 유학주(俞鶴柱), 염중모(廉仲模), 홍궁섭(洪肯燮), 이근상(李謹相), 윤태중	

(尹泰仲), 한교서(韓教序), 김정곤(金貞坤), 천상하(千象河), 유필근(柳苾根), 김창복(金昌福), 김순거(金舜巨), 안경복(安景福), 김중엽(金重燁), 홍석현(洪奭鉉), 이봉여(李鳳汝), 김학구(金學九), 최상익(崔相益), 한성오(韓成五)

5. 정치국(丁致國) 외 4명 서훈 및 사급 107
 정치국(丁致國), 김성진(金聲振), 김윤복(金允福), 김명숙(金明叔), 김내선(金乃善)

II. 만주사변 · 중일전쟁 조선인 ‘공로자’ 사례

1. 관료 115

1) 고궁명(高巨明)	115	2) 구자경(具滋璟)	116
3) 권중환(權重煥)	121	4) 김규년(金圭年)	124
5) 김대우(金大羽)	126	6) 김동훈(金東勳)	128
7) 김병태(金秉泰)	128	8) 김영묵(金永默)	132
9) 김영배(金永培)	134	10) 김우용(金雨龍)	136
11) 김창선(金昌善)	139	12) 박용섭(朴庸燮)	139
13) 박재홍(朴在弘)	141	14) 박제륜(朴濟輪)	142
15) 박 철(朴 澈)	146	16) 박호근(朴浩根)	148
17) 손영목(孫永穆)	152	18) 송문헌(宋文憲)	153
19) 송찬도(宋燦道)	155	20) 엄창섭(嚴昌燮)	158
21) 오종표(吳鍾表)	160	22) 원의상(元宜常)	161
23) 원진희(元晋喜)	163	24) 유만겸(俞萬兼)	164
25) 이기방(李基枋)	166	26) 이성근(李聖根)	169
27) 이원보(李源甫)	175	28) 이원창(李源昌)	177
29) 이창근(李昌根)	179	30) 이희순(李熙淳)	188
31) 장수길(張壽吉)	191	32) 정연기(鄭然基)	194
33) 정운성(鄭雲成)	195	34) 정찬선(鄭燦先)	197
35) 조경하(趙鏡夏)	199	36) 조두섭(趙斗燮)	201
37) 주시헌(朱時憲)	202	38) 최만달(崔晚達)	203
39) 최창홍(崔昌弘)	206	40) 최항묵(崔恒默)	207
41) 최형직(崔炯稷)	211	42) 한정석(韓定錫)	214
43) 허 섭(許 燮)	215		

2. 경찰 217

1) 강태만(姜泰萬)	217	2) 계광순(桂光淳)	220
3) 고정순(高正淳)	221	4) 김덕기(金惠基)	225

5) 김병련(金秉連)	229	6) 김상섭(金相燮)	231
7) 김시옥(金時昱)	233	8) 김우선(金羽銑)	235
9) 김재열(金在烈)	236	10) 김종구(金鍾球)	237
11) 김진탁(金晉卓)	240	12) 김찬욱(金燦旭)	241
13) 김찬희(金贊灑)	242	14) 김철홍(金哲弘)	245
15) 김홍육(金弘六)	248	16) 노주봉(盧周鳳)	249
17) 박근수(朴根壽)	250	18) 박명석(朴命石)	251
19) 박명진(朴明鎭)	253	20) 박을수(朴乙守)	254
21) 송희주(宋希胄)	256	22) 양익현(梁益賢)	257
22) 오병욱(吳炳旭)	258	23) 오세윤(吳世尹)	260
24) 유진후(俞鎭厚)	261	25) 이경화(李景和)	262
26) 이관호(李官浩)	263	27) 이명흠(李明欽)	267
28) 이민호(李敏浩)	269	29) 이벽송(李碧松)	270
30) 이병식(李秉植)	272	31) 이영수(李榮洙)	274
32) 이중수(李仲秀)	275	33) 이태순(李泰淳)	277
34) 임병식(林炳湜)	278	35) 임학래(林學來)	278
36) 정봉한(鄭鳳漢)	280	37) 정재범(鄭載範)	282
38) 정재춘(鄭在椿)	285	39) 정충원(鄭忠源)	288
40) 조연진(趙然軫)	289	41) 조종춘(趙鍾春)	290
42) 조종훈(趙鐘勛)	292	43) 최두천(崔斗天)	293
44) 최석현(崔錫鉉)	296	45) 최 연(崔 燕)	298
46) 최인범(崔仁範)	299	47) 최일환(崔日煥)	300
48) 최 탁(崔 卓)	304	49) 한중건(韓鍾建)	306
50) 허 준(許 俊)	307	51) 홍순봉(洪淳鳳)	313
52) 황금룡(黃金龍)	314		

Ⅲ. 일제 말 침략전쟁 협력관계 포장(褒章) 사례

1) 국채옹(鞠琛雄)	325	2) 김기태(金琪泰)	329
3) 김기홍(金基鴻, 金川基鴻)	332	4) 김낙선(金樂先)	334
5) 김연수(金季洙)	338	6) 김종필(金鍾弼)	344
7) 박기효(朴基孝)	347	8) 윤덕영(尹德榮)	351
9) 이갑용(李甲用, 大田一夫)	361	10) 조상옥(趙尙鈺, 高山尙鈺)	365
11) 최상현(崔相鉉)	368	12) 최준집(崔準集, 丸山隆準)	372
13) 최창학(崔昌學, 松山昌學)	375		

IV. 박영효의 육일대수장(旭日大綬章) 수여 ‘공적조서’(1939)	
.....	379
* 찾아보기	393

해제 :

친일행위에 대한 ‘공인인증서’ - 훈포상과 공적조서

윤상원(국가보훈처 연구원)

1. 일제의 훈포상과 공적조서

1904~1905년에 걸친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실히 한 제국주의 일본은 마침내 1910년 한일합방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을 자신의 식민지로 삼았다.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가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군대를 동원하여 민족해방운동을 폭압적으로 진압하는 방법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내에 식민통치의 협력자를 만들어 그들의 통치를 대리하게 하거나 적어도 동의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 세력은 식민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되었던 반면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세력들은 식민권력에 기생하며 일신상의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일제는 이들 친일협력자들에게 각종의 물질적, 신분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체제 내로 포섭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이용된 것이 각종 훈장과 포상 그리고 그에 따라 주어진 물질적 보상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병합기념장(韓國併合記念章)’이었다. 1912년 한일합방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병합기념장’은 한일합방에 관계한 대한제국의 왕족을 비롯하여 일반 관리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수여되었다.

한편 ‘한국병합기념장’이나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이 당시 직위에 따라 수여됐던 것과는 달리 특정 사건에서 행한 실제 공적에 따라 수여된 훈장과 포상도 있었다. 러일전쟁의 승전을 기념해 주어진 ‘러일전쟁 공로자 포상’과 ‘만주사변행상(滿洲事變行賞)’, ‘지나사변행상(支那事變行賞)’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훈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그들의 활동에 대한 공적조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따라서 그들의 실제 활동상을 기재한 「공적조서(功績調書)」 또는 「훈적명세서(勳績明細書)」가 작성되었다.

이 「공적조서」, 「훈적명세서」는 일제가 자신들의 통치에 협력한 실제 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평가하여 기록한 서류이다. 따라서 「공적조서」에 나타난 공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상자의 친일행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적조서」에 드러난 대상자들의 행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친일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러일전쟁 공로자 포상’, ‘만주사변행상’ 그리고 ‘공문잡찬(公文雜纂)’에 수록되어 있는 「공적조서」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시기 친일협력자들의 친일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 보도록 하자.

2. 러일전쟁 공로자 포상

1) 러일전쟁 관련 서훈과 한인

1904년 2월 8일 일본함대가 선전포고도 없이 뤼순(旅順)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함대를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러일전쟁은 1905년 5월 27~28일 대한해협에서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가 이끄는 일본함대가 러시아 발틱함대를 전멸시킴으로써 일본의 완승으로 끝났다. 전쟁의 결과 그해 9월 5일 포츠머스강화조약이 조인되어 일본은 한반도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었으며 아울러 남만주로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일본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곧바로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한 일본은 2월 23일 한국정부를 강압하여 공수동맹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를 체결했다.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대한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한국정부는 일본에게 군용지를 포함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한일의정서에 근거해 전쟁 수행을 위한 군용지, 군량, 군마, 수송인력 등을 징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를 실질적인 식민지로 삼았다.

러일전쟁이 끝난 후 일본정부는 러일전쟁에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서훈(敍勳)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일본군에 협력한 한인들도 포함되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에 협력한 한인 공로자에 대한 훈포상은 1908년 2월 26일에 2건 36명,¹⁾ 1908년 11월 7일에 2건 154명,²⁾ 1909년 3월 6일에 1건 5명³⁾ 등 총 3차례 5건에 걸쳐 195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 195명의 한인에 대한 훈포상 기록은 『주한일본공사관 기록』⁴⁾과 일본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

1) 「韓國陸軍騎兵參領朴榮喆外二十七名敍勳及賜金ノ件」, 「韓國人李順昌外七名敍勳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卷4(外國人二).

2) 「韓國檢事尹甲炳外一百五名敍勳及賜金ノ件」, 「韓國宮內府特進官申箕善外四十七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卷7(外國人五).

3) 「韓國人丁致國外四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二年 敍勳』卷3(外國人一).

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5권, 第13號, 第14號, 統發第6810號, 統發第151號, 機密統發第170號.

는 『서훈』 문서⁵⁾에 남아있다. 이 중 일본국립공문서관의 『서훈』 문서에는 훈포상 내역뿐 아니라 자세한 개인별 「훈적명세서」를 포함하고 있어 러일전쟁 당시 포상자의 활동까지 확인할 수 있다.

위 『서훈』 문서에 기재된 195명에게 수여된 훈장은 육일장(旭日章) 35명, 서보장(瑞寶章) 140명이었다. 사금(賜金)을 받은 사람은 총 34명이었는데 이 중 육일장과 서보장을 받은 사람 중에 사금을 함께 받은 사람은 14명이었다. 이상 훈포상을 받은 사람들의 신분구성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195명의 신분구성과 훈포상 내역⁶⁾

직업	인원	훈포상	인원	직업	인원	훈포상	인원	직업	인원	훈포상	인원
경찰	7	육일장	3	지방관	27	육일장	10	기반시설 관련 관료	9	육일장	2
		서보장	4			서보장	17			서보장	7
		사금	0			사금	0			사금	0
군	27	육일장	12	지역관리	5	육일장	1	회사 및 조합	6	육일장	0
		서보장	9			서보장	4			서보장	6
		사금	6			사금	0			사금	0
밀정	8	육일장	2	지역향장	5	육일장	0	일진회	31	육일장	2
		서보장	6			서보장	5			서보장	29
		사금	0			사금	0			사금	0
중앙관료	6	육일장	1	통역	22	육일장	0	직종미상	42	육일장	2
		서보장	5			서보장	8			서보장	40
		사금	0			사금	14			사금	0
합계						195					
육일장	35	서보장	140	사금	20						

이 표에 따르면 일진회원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관과 군이 27명씩이었고 통역이 22명으로 뒤를 잇는다. 그런데 지방관과 지역관리, 지역향장을 포함하는 지방관료가 37명인 데 비해 중앙관료는 6명에 불과하다. 이로 보아 전쟁수행과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이들을 중심으로 포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반시설 관련 관료(9명)와 회사 및 조합원(6명)이 상당수 포상을 받았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이 밖에 훈포상의 등급과 당시 관직을 비교한 김윤희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에 따르면 훈포상 수여 시 중앙관료와 관찰사의 경우는 대한제국 관직 등급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함경남도관찰사 신기선은 훈1등 육일대수장을, 평안북도관찰사 이근풍은 훈3등 육일중수장을, 육군부장 권중현은 훈1등 육일대수장을, 평안남도관찰사 이증하는 훈2등 육일중광장을 받았다. 그러나 육일장 수여가 많았던 군인 12명과 지방관료 37명의 관직을 보면 서보장을 받았던 군인과 지방관료에 비

5) 위 주 1), 2), 3)항 참조.

6) 김윤희, 「러일전쟁기 일본군 협력 한인 연구-일본정부의 훈포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35호, 2009, 300쪽에서 인용.

해 대한제국 관직 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평양전보사 주사와 안주전보사 주사는 훈6등 단광 욱일장을 받은 반면 안주전보사 사장은 훈6등 서보장을 받았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밀정의 경우도 8명 중 2명이 욱일장을 받았다. 이는 훈포상 수여시 대체적으로 관직 등급보다는 협력의 적극성과 공로 정도가 더 고려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⁷⁾

이는 이후에 살펴볼 「만주사변행상」과 「지나사변행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1912년 8월에 수여된 「한국병합기념장」처럼 훈장 수여 당시 관직에 따라 일괄적으로 포상되던 훈포상과 달리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당시 수여된 훈포장은 그들의 실제 활동에 근거하여 포상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훈적명세서와 공적조서에 기재된 포상자들의 활동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닌 실제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훈적명세서와 공적조서에 기재된 그들의 활동은 그들의 친일행위에 대한 명확한 공인인증서라 할 수 있다.

2) 훈적명세서에 드러난 친일행위의 유형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서훈』 문서에 포함된 훈적명세서에는 서훈 수여자들의 공적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들의 공적을 당시 신분 및 참여활동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군과 함께 실제 전투에 참가하여 공적을 올린 경우이다. 일본군은 1904년 5월 1일 압록강 양안지역인 의주와 안동전투에서 승리하여 만주로 진격하였다. 압록강을 넘은 일본군은 구연성(九連城), 봉황성(鳳凰城), 수암(岫巖), 분수령(分水嶺) 등지에서 러시아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과 동행하며 일본군의 전투수행에 협력한 자는 군인 12명과 통역 3명이었다.

이들 중 박영철, 유동열, 박두영, 김응선, 김기원, 이갑, 남기창, 김영현 등 8명은 일본사관학교 15기 동기생으로 러일전쟁 발발 직전 일본군에 종군하였다. 이들은 일본군을 따라 1904년 3월 16일 진남포에 상륙한 이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보병과 기병 참령 등에 임명되어 대한제국 군인이 되었다. 이들 중 김영현을 제외한 7인은 모두 욱일장을 받았다.⁸⁾ 이들 8명은 1904년 7, 8월 대한제국정부에 소환되어 귀국한 후 모두 승진하였다. 이후 김기원과 김응선은 일본군인으로 승승장구 했으며, 박두영은 중추원 참의까지 올랐고, 박영철은 금융계의 거두로서 일제의 식민지배에 협력했다. 한편 이들과는 반대로 유동열과 이갑은 병합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이후 일본군 소장까지 지냈던 김응선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총장과 참모총장을 지낸 유동열의 훈적명세서를 살펴보도록 하자.

김응선은 근위보병 제1연대에 속해 1904년 3월 12일 진남포에 상륙한 이래 식량 매입, 도로정찰 및 러시아밀정의 정찰 심문, 현지인의 사역 등에 복무하였으며, 5월 1일 압록강전투, 6월 5일 수암전투, 6

7) 위의 논문, 299~300쪽.

8) '1904,5年 戰役 韓國人勳績名簿', 「韓國陸軍騎兵參領朴榮喆外二十七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 卷4(外國人二).

월 28일 분수령전투, 7월 31일 양자령전투에 전령으로 참여하여 공적을 세웠다.⁹⁾

유동열은 1904년 3월 16일 진남포에 상륙한 이래 정주, 압록강, 사리새(沙里塞), 수암의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1904년 3월 28일 정주성 남문 바깥에서 러시아군의 접근을 탐지하여 고사카(小坂) 대위와 나쿠라(名倉), 미타(箕田) 장교에게 알려 적의 포위를 면하게 한 이후 연대와 함께 정주성 전투를 치렀다. 4월 11일에는 우치야마(内山) 소위와 함께 한국인의 옷을 입고 압록강 내 대마도(大馬島, 일명 威化島)에 잠입하여 러시아군을 정탐하기도 했다.¹⁰⁾

한편 대한제국 군인 장인근, 김홍남, 윤치성, 김관현 등 4명은 1904년 6월 통역으로 종군하여 1905년 3월까지 만주에서 일본군의 전투를 지원했다. 이들은 주로 식량과 탄환 등 일본군에게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일을 맡았다. 그 외에 전투지와 숙영지를 정찰하는 것도 이들의 임무였다.¹¹⁾

이들 외에 군인이 아니면서 통역으로 러일전쟁에 참여해 포상을 받은 이들로는 최석하 등 22명이 있다.¹²⁾ 이들 중 일본군과 함께 만주지역까지 진출한 이들은 손진원, 이인직, 김명숙 등 3명이었다.

이 중 신소설의 작가로 잘 알려진 이인직은 1904년 2월 22일 관입대우 육군통역으로 제1군사령부에 배속되어 각지 병참사령부에 출장하여 통역으로 숙사의 설비와 인부 모집 등의 일을 하였다. 특히 1군사령부가 만주 봉황성으로 이동한 후에는 군헌병에 배속되어 러시아군의 간첩으로 체포된 한인을 취조할 때 그 심문의 통역을 했으며, 기타 한국 관아로 보내는 조회문의 기초를 작성하는 일을 하였다. 이 공적은 훈공 갑으로 인정되어 사금 80원을 받았다.¹³⁾ 이후 그는 대한신문사 사장이 되어 한일합방 조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둘째, 일본군대의 밀정으로 활약한 이들이 있다. 『서훈』 문서에서 밀정으로 포상된 이들은 이순창, 김정원, 고운봉, 강희원, 석삼봉, 한용락, 백무요, 김병엽 등 모두 8명이다. 이들 중 이순창과 김정원은 육일장을, 그 외 6명은 서보장을 받았다.¹⁴⁾ 이들은 모두 함경도 성진 또는 덕원 출신으로 함경도의 러시아군대를 정탐하여 일본군에 보고하거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원산 부근 거류 일본인의 피신을 도운 공로로 훈장을 수여받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함경도 덕원부를 중심으로 밀정활동을 한 석삼봉, 한용락, 백무요, 김병엽 등은 모두 블라디보스톡을 왕래하며 러시아군을 정탐하였다.¹⁵⁾

셋째,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당시 일본군 접대위원으로 활동한 이들이다. 1904년 2월 16일 일본

9) '훈적명세서 한국육군정위 김응선(金應善)', 『韓國陸軍騎兵參領朴榮喆外二十七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 卷4(外國人二).

10) '훈적명세서 한국육군기병참위 유동열(柳東說)', 『韓國陸軍騎兵參領朴榮喆外二十七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 卷4(外國人二).

11) '훈적명세서 한국육군보병부위 장인근(張寅根)', 『韓國陸軍騎兵參領朴榮喆外二十七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 卷4(外國人二).

12) '1904,5年 戰役 韓國人勳績名簿', 『韓國陸軍騎兵參領朴榮喆外二十七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 卷4(外國人二); '韓國人勳績名簿', 『韓國人丁致國外四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二年 敍勳』 卷3(外國人一).

13) '훈적명세서 육군통역 관입대우 이인직(李人植)', 『韓國陸軍騎兵參領朴榮喆外二十七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 卷4(外國人二).

14) '한국인 훈적열차명부', 『韓國人李順昌外七名敍勳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 卷4(外國人二).

15) 위 '한국인 훈적열차명부'.

군 12사단 2만 명이 서울을 점령하자 일본공사는 한성판윤에게 일본병사의 숙영지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의 주요 관공서 학교 등이 일본군의 숙영지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2월 18일부터 일본군 접대위원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중 훈장을 받은 접대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그중 접대위원장 이희두를 비롯한 13명은 군인이었고 나머지 2명은 경찰이었다.¹⁶⁾

이 중에 한일합방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총장을 지낸 노백린은 당시 고종이 서울의 일본군에게 하사한 임시마사를 설치하는 데 공로를 세워 육일장을 받았다.¹⁷⁾ 노백린 외에 육일장을 받은 이는 유기성, 장기원, 황학수 등 3인으로 이들은 모두 고종이 하사한 임시마사 설치에 공로를 세운 이들이었다. 그 외 한국 주둔 일본군의 편의를 봐주고 일본군의 숙사를 마련하는 데 공로를 세운 이희두 등 9명은 서보장을, 배일과 동향파악의 공로를 인정받은 어담과 조성근은 사금 700원을 받았다.¹⁸⁾ 이들 중 노백린을 제외한 대부분은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적극 협력하였다.

넷째, 일본군이 주둔하거나 지나가는 지역에서 일본군을 위해 인력과 물자를 징발하고 정탐활동을 펼친 경우이다. 여기에는 <표 1>에 나타난 지방관료(지방관+지역관리+지역향장) 37명과 경찰 중 일본군 접대위원을 제외한 3명과 기반시설 관련 관료 9명이 해당한다.

이들 중 먼저 일본북진군대접응원(日本北進軍隊接應員)으로 훈장을 받은 이들 8명이 있다.¹⁹⁾ 주로 일본군의 행군로에 위치한 지역의 군수이거나 지방관료였던 이들은 일본군을 위해 인력과 물자 징발, 러시아군 정탐, 한인 러시아간첩의 적발, 동요하는 민심수습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들 중 북관지대 소속 경무사였던 서상대는 경성군수 서리를 하면서 물자징발뿐 아니라 한인 러시아간첩을 체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3등 육일장을 받았다.²⁰⁾ 서상대 외에 선천군수 백낙삼과 영흥군수 홍순욱이 육일장을, 나머지 5명은 서보장을 받았다.

군이 접응관원이 아니라도 일본군 주둔지나 행군로상에 있던 지역의 지방관들 역시 일본군 지원에 동원되었다. 접응원이었다가 군수가 된 4명을 포함해 일본군 지원공로로 훈장을 받은 지방관료 37명은 관찰사가 3명, 군수 19명, 감리 3명, 부윤 2명, 지역의 관리 5명, 지역향장 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역시 대규모 인력과 물자가 징발되었던 평안도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함경도가 9명으로 뒤를 이었다. 황해도 이남지역은 5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일본군의 이동로에 면해 있는 모든 지역의 관리들이 포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도록 하자.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본군의 이동에 따라 주요지역에 병참부가 설치되었는데, 평안도 지역의 주요 병참부는 30개였다고 한다. 그런데 훈포상을 받은 자들의 관할지역은 평안도가 12개 지역, 함

16) '한국인 추가서훈 명부', 『韓國檢事尹甲炳外一百五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卷7(外國人五).
 17) '견인증서 한국육군보병정위 노백린(盧佰麟)', 『韓國檢事尹甲炳外一百五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卷7(外國人五).
 18) 앞의 '한국인 추가서훈 명부'.
 19) 이들의 명단은 申羽均, 洪淳旭, 李永植, 朴承龍, 徐相大, 李碩基, 崔泰源, 白樂三 등이다(위 '한국인 추가서훈 명부'; '한국인 훈적명부', 『韓國宮內府特進官申箕善外四十七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卷7(外國人五)).
 20) '훈적조사서 서상대(徐相大)', 『韓國檢事尹甲炳外一百五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卷7(外國人五).

경도가 7개 지역 등 모두 19개 지역이었다. 이를 토대로 김윤희는 병참이 설치된 지역관료가 모두 훈포상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역으로 훈포상을 받은 관료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였다.²¹⁾

위 행정관료 이외에 운산군 수순교(首巡校) 이민후 등 경찰들은 지역 주둔 일본군을 위해 인력과 물자조달을 지원했다.²²⁾ 또한 평양과 안주의 전보사 사장인 이종형과 김영걸, 평양전보사 주사였던 이병구는 일본군 작전을 위한 전신의 가설과 개보수에,²³⁾ 농상공부 철도국장 최상돈과 철도국 기사 김윤구, 강영우 그리고 임시군용철도 검찰사 강홍대, 홍순찬은 경의선과 경원선 공사에 인력을 동원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로²⁴⁾ 모두 서보장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인물들이 대한제국정부의 관료들이거나 최소한 정부에 고용된 인물이었던 데 반해 민간인 신분으로 일본군에 협력한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경우가 있다. 일본어가 가능한 자들은 통역으로 일본군에 고용되어 일본군을 위해 인력과 물자조달 임무를 맡거나 정탐과 한인간첩의 취조 심문에 참여하였다. 인력 및 유통회사 관련자로 훈장을 받은 자는 6명이었다. 이 중 대한협동우선주식회사 지점장 정치국과 회사소유 선박 현익호(顯益號)의 선장인 김성진은 부산, 원산, 독진, 성진, 임명 등 항구를 왕래하면서 군인과 군수품 수송을 수행한 공로로 서보장을 받았다.²⁵⁾

러일전쟁 공로자로 포상을 받은 민간인 중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 31명의 포상자를 낸 일진회이다. 일진회는 수압식 경편철도 수송반을 조직하여 무급으로 수송업무에 참여하여 28명이 훈장을 받았다. 이 외에 일진회 회원을 동원한 회장 윤시병과 일진회 간접주임으로 북관지대에서 8개월간 간첩으로 활동하면서 또한 간첩에 적임인 일진회 회원 50여 명을 추천하여 첩보에 사용한 박혁준이 육일장을, 일진회 평의원이었던 유학주가 서보장을 받았다.²⁶⁾

3. 만주사변행상재가서

1) 만주사변행상과 조선인경찰

1920년대 말 당시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의 물결은 멀리 유라시아 대륙의 극동지역에도 어김없이 밀려들어왔다. 이미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던 일본 역시 대공황의 거센 파고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자본주의 국가 일본에게 통로는

21) 김윤희, 앞의 논문, 210쪽.

22) 「韓國檢事尹甲炳外一百五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 卷7(外國人五止).

23) 「韓國宮內府特進官申箕善外四十七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 卷7(外國人五).

24) 「韓國陸軍騎兵參領朴榮喆外二十七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 卷4(外國人二).

25) '훈적조사서 정치국(丁致國), 김성진(金聲振)', 「韓國人丁致國外四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二年 敍勳』 卷3(外國人一).

26) '한국인 추가서훈 명부', 「韓國檢事尹甲炳外一百五名敍勳及賜金ノ件」, 『明治四十一年 敍勳』 卷7(外國人五).

단 하나 해외침략밖에 없었다. 이미 조선을 식민지화하여 식량을 비롯한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광활한 중국대륙으로 눈을 돌렸다. 그 결과 일어난 사건이 바로 '만주사변'이다.

1931년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유조구(柳條溝)에서 만철 선로를 스스로 폭파한 관동군은 이를 중국 동북군벌 장쉬에량(張學良) 군대의 소행으로 몰아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다. 승승장구하며 만주 침략 5일 만에 랴오둥(遼東), 지린(吉林省)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이후 헤이룽장(黑龍江省)까지 점령하여 만주에서 완전히 실권을 장악한 일본 관동군은 마침내 이듬해인 1932년 3월 1일 괴뢰국가인 만주국 건국을 선포하고 옛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를 황제로 삼았다.

이를 계기로 만주 일대에서는 반만항일운동(反滿抗日運動)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장학량의 동북군벌에 속한 부대나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가 이끄는 중국공산당 계열의 군대뿐 아니라 만주 곳곳에 퍼져 있던 조선인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일제 당국에 의해 비적(匪賊) 또는 병비(兵匪) 등의 이름으로 불린 이들 반만항일군의 활동은 만주에서뿐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 연안 국경지대에서도 이루어졌다. 만주에서 반만항일군이 맞닥뜨린 상대가 관동군과 이들이 지원한 만주군이었다면 국경지대에서 항일유격대가 맞닥뜨린 상대는 바로 국경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경찰관주재소와 출장소에 근무하던 조선총독부 경찰들이었다.

일본제국주의 당국은 만주사변이 일단락되고 만주국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되자 만주사변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이 포상은 군과 행정 각 분야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서 항일유격대와 맞서 싸웠던 조선총독부 경찰에 대해서도 역시 포상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에 대한 내용을 일본국공립문서관에 소장 중인 『만주사변행상재가서』(이하 재가서)라는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재가서』 중에서 조선총독부경찰에 관한 부분은 23권에서 35권까지 13권 7344장으로 된 만주사변 1차 행상에 관한 자료와 177권에서 181권까지 5권 1415장으로 된 만주사변 3차 행상에 관한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1차 행상과 3차 행상이 있었다면 2차 행상 또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주사변 2차 행상에 경찰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경찰에 대한 공적조서가 1차 행상과 3차 행상에만 실려 있고 그 대상기간이 1931년 9월 18일부터 1934년 3월 31일(1차)과 1934년 4월 1일부터 1936년 7월 9일(3차)까지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에 대한 행상은 1차와 3차에만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재가서』 중 1차 행상 관련 문서는 1935년 7월 15일 작성되었다.²⁷⁾ 제목에 보이는 시라이시(白石廣治郎)는 당시 평안북도경찰부장으로 있던 평안북도 경찰의 수장이었다. 즉 이 『재가서』는 평안북도경찰부장 시라이시(白石廣治郎) 외 2,690명의 조선총독부 경찰에 대한 공적조서이다.

제목에 평안북도 경찰의 수장 이름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 『재가서』의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 즉 『재가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두고 만주국과 국경을 맞댄 지역의 경찰 2,691명을 포상하는 공적조서인 것이다. 이는 2,691명 경찰의 근무지역을 보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그들은 일부 관동청에 응원하러 파견된 경찰들을 제외하면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변에 위치한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경찰들이

27) 이 문서의 제목은 「朝鮮總督府道事務官白石廣治郎外二千六百八十九名勳等年金及賜金ノ件」이다.

다. 1차 행상으로 포상을 받은 2,691명 중 조선인 경찰로 추정되는 수는 623명이다. 이 중 평안북도가 354명, 함경북도가 162명, 함경남도가 52명을 차지한다. 나머지 55명이 관동청 응원이다.

그런데 평안북도, 함경남·북도라고 해서 모든 경찰서가 포상대상은 아니었다. 포상대상은 국경 일대에 자리잡고 있어 실제적인 활동을 했던 경찰서에만 해당되었다.

1차 행상의 대상기간 만료일인 1934년 3월 당시 평안북도에는 총 24개의 경찰서가 있었다. 그런데 1차 행상의 대상이 된 경찰서는 신의주, 용암포, 의주, 창성, 삭주, 벽동, 초산, 위원, 후창, 동흥, 중강, 자성, 만포 등 13개 경찰서이다. 나머지 경찰서 중 후창경찰서에 응원대를 파견한 강계, 북진, 희천, 정주, 전천 등 5개 경찰서에는 포상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성, 박천, 선천, 영변, 철산, 태천 등 6개 경찰서에는 포상자가 없었다.²⁸⁾

같은 시기 함경북도에는 19개의 경찰서가 있었다. 이 중 1차 행상의 대상이 된 경찰서는 경흥, 경원, 신아산, 온성, 훈용, 회령, 종성, 무산, 삼장 등 9개 경찰서이고 나남, 부령, 성진, 서수라 등 4개 경찰서에서 응원대로 파견을 간 경찰이 포상되었으며, 길주, 명천, 어대진, 연사, 웅기, 청진 등 6개 경찰서에서는 포상자가 없었다.

함경남도에서는 21개 경찰서 중 국경선에 자리잡고 있던 해산, 신갈파, 호인 등 3개 경찰서만이 대상이 되고 나머지 18개 경찰서(갑산, 고원, 단천, 문천, 북청, 삼수, 신흥, 안변, 영흥, 원산, 이원, 장진, 정평, 풍천, 하갈, 함흥, 홍원, 흥남)에는 포상자가 없었다.

그런데 만주사변행상 관련 공적조서가 있는 자료가 또 하나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조선총독부 기록물>로 소장되어 있는 조선총독부 문서 중 『경무원』에 들어있는 「서류철」이 그것이다.²⁹⁾ 여기에 들어있는 만주사변 1차 행상 관련 개별 공적조서는 『재가서』의 공적조서와 동일하다. 포상은 공적조서를 각 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조선총독부에서 취합하여 상신을 한 후 재가를 받아 포상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각 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총독부에 취합된 공적조서가 「서류철」에 있는 공적조서이고, 재가를 받은 최종 공적조서가 『재가서』의 공적조서로 추정된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류철」에 있는 공적조서의 수가 『재가서』 공적조서의 수보다 훨씬 많다. 더구나 「서류철」에는 국경지대의 경찰서뿐만 아니라 경기, 경남·북, 충남·북 등 남부지역의 경찰서들과 평남 평양경찰서, 평북 강계, 구성경찰서 등 북부지방이지만 국경지대에 위치하지 않은 경찰서의 경찰에 대한 공적조서가 다수 들어있다.

이상으로 보아 만주사변 행상에 대한 경찰의 상신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재가를 받고 실제로 포상한 대상은 국경선에서 근무하며 만주지역의 항일유격대와 실제로 전투를 벌였거나 최소한 그들에 대한 경비업무를 맡은 이들로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차 행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만주사변 관련 제3차 행상은 1938년 3월 30일에 이루어졌다. 『재가서』에는 4개 문서에 포함 787명의 경찰에 대한 공적조서가 있다.³⁰⁾ 이 중 조선인경찰로 확인되는 자들은 함경남도 해산경찰서 경부 양의

28) 태천경찰서와 영변경찰서에는 관동청에 응원간 순사 각 1명씩 포상자가 있었다.

29) 이 문서의 제목은 「功勞賞二關スル書類綴」(이하 서류철)이다.

30) 각 문서철의 명칭과 대상인원수는 『朝鮮總督府道警視河野彌平外三百四十一名賜金ノ件』(342명), 『朝鮮總督

현을 비롯하여 총 179명이다. 지역별로는 평안북도가 111명, 함경남도가 19명, 함경북도가 49명이다.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경지대에 위치한 경찰서의 경찰들이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경지대에 위치한 경찰서의 경찰 모두가 포상이 되었을까?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당시 각 경찰서에 근무하던 순사들 명단이 없기 때문이다. 각 경찰서에 소속된 주재소와 출장소에 몇 명의 일본인 순사와 조선인 순사가 근무했는지에 대해 아직 알 수가 없다. 때문에 포상을 받은 경찰이 그 경찰서 전체 경찰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고위경찰, 즉 경부보 이상의 경찰 명단을 알려주는 『조선총독부직원록(朝鮮總督府職員錄)』이 있다. 경부보 이상 경찰의 포상여부를 통해 포상대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경지대에 있는 경찰서가 13개에 달하는 평안북도의 경우 평안북도경찰부와 위 13개 경찰서에 근무하였던 경부보 이상 경찰은 평안북도경찰부 고등경찰과장 김덕기를 비롯하여 신의주경찰서 경부 이신규, 용암포경찰서 경부보 최기석, 의주경찰서 경부보 송병주, 창성경찰서 경부보 김진영, 초산경찰서 경부 홍순봉, 위원경찰서 경부보 남궁염, 후창경찰서 경부보 주경송, 중강경찰서 경부 선우박, 자성경찰서 경부보 김동순, 만포경찰서 경부 최두천 등 11명이었다. 이들 중 김덕기, 김진영, 홍순봉, 남궁염, 주경송, 선우박, 김동순, 최두천 등 8명이 각각의 공로에 따라 포상을 받았다.

다음으로 국경지대에 있는 경찰서가 9개에 달하는 함경북도의 경우 함경북도경찰부와 위 9개 경찰서에 근무하였던 경부보 이상 경찰은 함경북도경찰부 고등경찰과 경부보 이근섭과 보안과 경부보 박응표를 비롯하여 경원경찰서 경부보 백인덕, 온성경찰서 경부보 김상섭, 종성경찰서 경부보 김정암 등 5명이었다. 이들 중 박응표, 백인덕, 김상섭 등 3명이 포상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국경지대에 있는 경찰서가 3개인 함경남도의 경우 함경남도경찰부와 위 3개 경찰서에 근무하였던 경부보 이상 경찰은 함경남도경찰부 고등경찰과 경부 정해인과 보안과 경부 강원수를 비롯하여 혜산경찰서 경부 양익현, 신갈과경찰서 경시 조중훈과 경부 양형건 등 5명이었다. 이들 중 조중훈, 양익현 2명만이 포상을 받았다.

그러나 평안북도, 함경남북도 3개도의 국경지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부보 이상 경찰 중 평안북도의 이신규, 최기석, 송병주, 함경북도의 이근섭, 김정암, 함경남도의 정해인, 강원수, 양형건의 이름은 『재가서』는 물론 「서류철」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물론 이들의 공적조서가 어느 과정에서인지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꼼꼼하게 정리된 『재가서』와 「서류철」의 내용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누락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따라서 이들이 해당 시기에 국경지대에서 한 활동이 포상조건에 맞지 않아서 포상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재가서』에 실려 포상을 받은 경찰은 단순히 지역과 직위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이 『재가서』에 이름을 올린 경찰은 해당기간 국경선에서 항일유격대에 맞서 이룩한 실제적인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府平安北道巡查山口德藏道外十四名敍勳並賜金ノ件』(14명), 『朝鮮總督府道事務官古川兼秀外六十七名敍勳並賜金ノ件』(67명), 『朝鮮總督府平安北道巡查中島聖心外三百四十六名敍勳並賜金ノ件』(364명)이다.

2) 공적조서에 나타난 친일행위의 유형

① 훈격별 분류

만주사변행상 관련 훈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훈공(勳功), 훈로(勳勞), 공로(功勞)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 훈격별로 갑, 을, 병, 정 네 단계가 있었다. 만주사변행상 1차와 3차의 지역별 훈격구성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만주사변행상 1차 지역별 훈격 구성

		평북	함북	함남	기타	계
훈공	갑	2				2
	을	5	1			6
훈로	갑	11	1			12
	을	17	4	2	1	24
	병	27	10	2		39
	정	76	48	2	8	134
공로	갑	104	68	31	5	208
	을	69	18	14	16	117
	병	49	12	1	19	81
계	훈공	7	1			8
	훈로	131	63	6	9	209
	공로	222	98	46	40	406
	합계	360	162	52	49	623

<표 3> 만주사변행상 3차 지역별 훈격 구성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계
훈공	갑	3			3
	을	1			1
훈로	갑	12			12
	을	7	3		10
	병	28	4		32
	정	26	4	4	34
공로	갑	18	15	4	37
	을	9	8	5	22
	병	7	15	6	28
계	훈공	4			4
	훈로	73	11	4	88
	공로	34	38	15	87
	합계	111	49	19	179

먼저 1차 행상에서 조선인 경찰에 부여된 훈격은 훈공이 8명, 훈로가 209명, 공로가 396명이었다. 전체 623명 중 훈공이 8명으로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훈공은 굉장히 높은 훈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훈공을 받은 이는 평안북도 후창경찰서 순사 허준, 이관호가 훈공 갑을 받았으며, 창성경찰서 순사 이영수, 위원경찰서 경부보 남궁염, 강계경찰서 순사 고정순, 조승복, 후창경찰서 김철홍, 함경북도 삼장경찰서 순사 김홍육이 훈공 을을 받았다.

훈공 갑을 받은 2명이 모두 후창경찰서 순사이고, 훈공 을을 받은 이들 중 1명인 김철홍도 후창경찰서 순사임에 주목하자. 나아가 훈공 을을 받은 강계경찰서 순사 2명 역시 해당 기간 후창경찰서로 파견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훈공을 받은 8명 중 5명이 후창경찰서에서 근무하며 활동한 이들이다. 후창경찰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들의 공적조서를 보면 “1932년 6월 이후 후창경찰서 대안 임강현(臨江縣), 장백현(長白縣)에 자칭 구국애민철갑군(救國愛民鐵甲軍) 총사령 대도회(大刀會) 노사 여해정(呂海亭)의 일파 대도회비 약 1,000

명이 봉기하여 이주선인을 살상, 능욕, 약탈하는 것 외에 선내침입을 기도하여 50명 내지 300명의 10대로 나누어 압록강안에 진출 준동하였으므로 엄중 경계하던 중³¹⁾ 국경을 침탈하는 항일유격대들에 맞서 압록강안 또는 압록강을 월경하여 만주지역에서 전투를 하여 공적을 세운 횡수가 허준은 무려 26회에 이르고,³²⁾ 이관호는 23회에 이르렀다.³³⁾ 또한 고정순, 조승복은 각각 19회, 김철홍은 18회에 이르렀다. 후창경찰서는 1932년 8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1달 가까운 기간 동안 거의 매일이다시피 항일유격대와 전투를 벌였다. 특히 “강계수비대 제1중대장 보병대위 김인옥이 집성 1개 중대를 지휘하여 포평에 도착 월강하여 적의 근거지를 공격 그들을 일거에 전멸시키려고 9월 4일 오전 2시 포평 주둔의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가 이끄는 1개 분대를 선두로 포평경찰관주재소 상류 약 10정의 지점으로부터 월강하였을 때³⁴⁾ 위의 순사들은 이 군대와 동반 월경하여 항일유격대와 직접 전투를 치렀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들은 가장 높은 훈공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역시 훈공 을 받은 창성경찰서의 순사 이영수,³⁵⁾ 위원경찰서 경부보 남궁염,³⁶⁾ 함경북도 삼장경찰서 순사 김홍육³⁷⁾의 경우에도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만주 경내로 들어가 항일유격대와 직접적인 전투를 벌여 전과를 올린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훈공은 대안지역에 출몰하는 항일유격대와의 전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경찰에게 주어졌다. 즉 전투에 참여한 횡수가 20회 가까이 될 정도로 많든지, 어떤 전투에서 항일유격대의 한 부대를 괴멸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든지 하는 경우에 공훈의 훈격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양상은 3차 행상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3차 행상에서 공훈 감을 받은 벽동경찰서 순사 최찬길, 우영훈, 초산경찰서 순사 김영길은 모두 만주에서 항일유격대와 교전하던 중 전사한 이들이었다.³⁸⁾

훈료와 공로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1:2 정도 된다. 그렇다면 훈료와 공로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실제 전투 참가 여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차례라도 항일유격대와 교전을 치른 적이 있는 경찰의 경우에는 훈료를 수여받았던 반면, 직접 전투를 치르지는 않고 경비에만 복무하였다든지, 군대의 수송업무를 원조하거나 피난민의 구제사업을 하는 등 실제 전투가 아닌 전투를 지원하는 일을 하였던 경우에는 공로를 수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항일유격대와 직접적인 교전이 없었던 신의주경찰서와 용암포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공로를 수여받았던 데 반해, 항일유격대와 직접적인 교전이 가장 많았던 후창경찰서의 경우에는 훈공과 훈료를 수여받은 이가 24명이고 공로를 수여받은 이가 10명으로 다른 곳에 비해 훈공, 훈료의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훈격과 계급 사이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31)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許俊」, 『滿洲事變行賞裁可書』 27권.

32) 위의 功績調書.

33)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李官浩」, 『滿洲事變行賞裁可書』 27권.

34) 위의 功績調書.

35)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李榮洙」, 『滿洲事變行賞裁可書』 25권.

36)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警部補 南宮焱」, 『滿洲事變行賞裁可書』 26권.

37)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金弘六」, 『滿洲事變行賞裁可書』 33권.

38)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崔燦吉」,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禹永勳」,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金榮吉」, 이상 『滿洲事變行賞裁可書』 27권.

차 행사에서 포상을 받은 경찰 중 경부보 이상 고위경찰은 평안북도 고등경찰과장 경시 김덕기를 비롯하여 경시 2명, 경부 4명, 경부보 7명이었다. 이들 중 훈공의 훈격을 받은 이는 위원경찰서 경부보 남궁 염뿐이었다. 경시인 김덕기와 초산경찰서 경부 홍순봉, 중강경찰서 경부 선우박, 만포경찰서 경부 최두천, 함경북도경찰부 보안과 경부보 박응표, 경원경찰서 경부보 백인덕 6명이 훈로의 훈격을 받았다. 나머지 신갈과경찰서 경시 조종훈, 후창경찰서 경부보 주경송, 자성경찰서 경부보 김동순, 창성경찰서 경부보 김진영, 온성경찰서 경부보 김상섭, 혜산경찰서 경부 양익현 등 6명은 공로 훈격을 받았다.

훈로와 공로 훈격이 각각 6명으로 전체 비율과 비교해 훈로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들이 각급 경찰서의 지휘관으로 활동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즉, 만주사변 행사에서 훈격은 계급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실제 활동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② 공적내용의 유형

『재가서』에 수록되어 있는 공적조서의 내용을 분석하면 만주사변 당시 한인 경찰의 활동을 몇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항일유격대와의 직접적인 전투이다. 이는 공적조서에서 제시된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항일유격대와 직접 전투에 참가한 적이 있는 경찰은 최소 훈로 이상의 훈격을 받았다. 나아가 전투 참여횟수와 전투의 규모, 전과 등을 고려하여 공적이 큰 경찰은 훈공의 훈격까지도 받았다.

전투의 내용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만주국의 영역으로 월강하여 유격대를 토벌, 진압하는 공세적 전투와 유격대의 공격에 대응해 강안 일대에서 응전하는 수세적 전투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훈공 수여자들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 없이 공세적 전투에 참가한 경우이다. 이 외에도 평안북도 중강경찰서 경부 선우박과 함경북도 훈용경찰서 순사 이정원을 예로 들 수 있다. 선우박은 중강경찰서 대안 임강현에서 활동하던 항일유격대를 토벌하러 출동한 조선군 보병 제77연대의 안내를 맡아 그들과 함께 군사행동을 펼쳐 토벌 진압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로 병의 훈격을 받았다.³⁹⁾ 이정원은 훈용경찰서 장덕경찰관주재소에 근무하던 순사 장리들을 저격한 항일유격대를 추격하여 소탕하기 위해 편성된 경찰대에 참가하여 월강 토벌전을 벌인 공적을 인정받아 훈로 정의 훈격을 받았다.⁴⁰⁾

이상 공세적 전투는 월강토벌군대와 합동작전을 펼치는 경우와 경찰대 단독으로 월강전투를 벌이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월강군대와 합동작전을 펼치는 경우 전투는 대체로 그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참가한 경찰들은 주로 군대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경우와 같이 엄호를 넘어 직접 돌격작전에 투입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수세적 전투는 공세적 전투와 달리 항일유격대의 습격에 대응하는 형태로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 강안에 위치한 경찰관주재소, 출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안북도 자성경찰서 순사 최

39)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警部 鮮于樸」, 『滿洲事變行賞裁可書』 28권.

40)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李丁元」, 『滿洲事變行賞裁可書』 32권.

기주⁴¹⁾, 함경북도 회령경찰서 순사 박치목⁴²⁾, 함경남도 신갈파경찰서 순사 강윤무⁴³⁾ 등은 각기 항일유격대의 습격을 받자 강안 참호나 부근 고지에서 응전을 하여 습격을 격퇴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이들은 각기 훈로 갑, 훈로 정, 훈로 을의 훈격을 받았다.

이 수세적 전투의 특징은 이 전투가 단지 수세적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박치목의 사례에서 보듯 강안에서 응전하여 항일유격대를 격퇴한 후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곧바로 월강하여 항일유격대를 추격하는 공세적 전투로 전환하였다.

둘째, 국경지대 경찰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인 강안 일대의 정세 탐사이다. 이를 위해 이 지방 경찰들은 때로는 밀정을 고용하여 파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월강하여 정보수집을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경찰부 고등경찰과에 근무하던 순사 오동주는 훈춘(琿春)에 주재하면서 대안 지역 정보수집에 노력하여 성과를 얻어 훈로 갑의 훈격을 받았다.⁴⁴⁾

또한 정보수집 활동 외에 조선 내에서 조직된 공산당 조직을 비롯한 민족해방운동 단체를 단속하는 것도 이들의 중요한 업무였다. 특히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소련으로부터 파견되어 공산당재건운동을 하고 있던 한인 사회주의자들을 검거하는 것은 함경북도 국경지대 경찰들의 중요 업무였다. 조공재건운동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로 정의 훈격을 받은 함경북도 경원경찰서 순사 한운국이 그 한 예이다.⁴⁵⁾

셋째, 국경 경비 임무이다. 항일유격대와 실제 전투를 치르고 국경지대의 정세를 탐지하는 것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경찰에게 주어진 임무였다면 국경 경비는 국경지대 경찰들에게 주어진 기본 임무였다.

만주사변 이후 반만항일유격대들의 조선 내 침입의 움직임이 계속되었으므로 국경지대 경찰들은 항상적으로 국경 경비임무에 종사하였다. 『재가서』에 수록된 공적조서의 내용 중 가장 일반적으로 서술된 용어가 “적의 침입을 미연에 방지하였다”이다. 물론 항일유격대와 실제 전투를 치른 경찰들도 일상적인 시기에는 국경 경비에 복무했으며,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경찰들은 국경경비에 종사함으로써 대부분 공로의 훈격을 받았다.⁴⁶⁾

넷째, 만주사변의 발발과 함께 중국으로 파견된 군대에 대한 수송과 군대의 활동을 위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는 것 또한 이 지역 경찰들의 중요 임무였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군대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운송수단의 준비와 보호 경계, 그리고 군대의 숙영에 따른 제반 편의 제공이다.

운송수단의 준비와 보호 경계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철도와 전신, 전화 등의 보호 경계이다. 이는 경의선을 통해 안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위치한 신의주경찰서 경찰들에게 주어진 임무였다.⁴⁷⁾

41)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崔基柱」, 『滿洲事變行賞裁可書』 29권.

42)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朴治穆」, 『滿洲事變行賞裁可書』 32권.

43)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康潤武」, 『滿洲事變行賞裁可書』 34권.

44)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吳東周」, 『滿洲事變行賞裁可書』 31권.

45)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韓雲國」, 『滿洲事變行賞裁可書』 31권.

46)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金道乙」, 『滿洲事變行賞裁可書』 22권.

또한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경찰서에서는 군대 수송을 위한 선박과 마필의 준비에 주력했는데 이는 토벌군대가 월강하던 장소인 중강경찰서와 중성경찰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⁴⁸⁾ 그리고 중강경찰서와 중성경찰서처럼 토벌군대가 월강하던 장소에서는 운송수단인 선박과 마필의 준비 뿐 아니라 토벌군대의 출동과 귀환에 맞춰 숙영지를 준비하는 것도 경찰의 임무였다. 이러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공적내용에 기재되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재가서』에 수록된 공적조서의 내용 중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 만주사변 발발 이래 혼란한 대안 정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던 월경적주민의 보호와 항일유격대를 피해 조선 내로 피난해 온 월경 조선인 및 만주인의 구제였다.⁴⁹⁾

4. 일제 말 침략전쟁 협력자 포상

1) 공문잡찬과 조선인

1937년 7월 7일 노구교(蘆溝橋)사건을 발미로 일본은 중국 관내로까지 침략전쟁을 확대하였다.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본격적인 총동원체제로 돌입하였다. 총동원체제하에서 많은 조선인 지도자들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친일의 길을 걸어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의 결과 그들은 일제로부터 훈포상을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협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우리는 일본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식민지시대 일본정부의 문서철인 『공문잡찬(公文雜纂)』에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조선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일본국립공문서관에는 메이지 초기부터 1945년까지 일본정부의 중심기록인 태정관과 내각에서 작성된 4가지의 주요 기록인 『태정류전(太政類典)』, 『공문록(公文錄)』, 『공문류취(公文類聚)』, 『공문잡찬(公文雜纂)』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 『공문잡찬』은 『공문류취』에 수록된 자료 이외에 내각의 내부 부국의 문서 및 내각에서 접수한 문서를 각 부처별, 연도별로 편집한 것이다.⁵⁰⁾ 이 『공문잡찬』에 일제에 협력하여 훈포상을 받은 조선인에 대한 공적서류들이 있다.

『공문잡찬』의 공적서류는 대부분 「공적상신서」와 「신분조사서」, 「이력서」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일정 금액을 기부한 공로로 포상을 신청하였다면 「기부취조표」와 「영수증」 등이 첨부되는 식이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의 경우 「공적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기의 『공문잡찬』을 들여다보면 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

47)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申成道」, 『滿洲事變行賞裁可書』 22권.

48)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安鍾燁」, 『滿洲事變行賞裁可書』 29권.

49) 동흥경찰서 수사 이시언은 이 임무를 잘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아 공로 감의 훈격을 받았다. 「功績調書 朝鮮總督府 道巡查 李始彦」, 『滿洲事變行賞裁可書』 29권.

50) 아시아역사자료센터 홈페이지(<http://www.jacar.go.jp>) 참조.

한 기구에 다액의 기부를 한 공적으로 훈포상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담양지방금융조합장을 역임했던 국채웅은 1937년 전라남도 농촌중견부인양성소 건축비로 15,000원을 기부하여 1938년 6월 감수포장 서훈이 신청되었다.⁵¹⁾ 또한 광산업을 경영하던 박기효는 1940년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생도교양시설비로 10,000원을 기부하여 역시 감수포장 서훈이 신청되었다.⁵²⁾

또한 사회 각 방면에서 일제의 정책수행에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에 대해 훈포상을 한 공적서류들도 있다.

예를 들면 경성방직주식회사 김연수는 “진취적 기업심이 넘쳐나 일찍이 각종 기업을 경영하여 조선 산업의 진전에 공헌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조선민중의 지도계몽에 노력을 다하여 그 행위가 공업가로써 일반의 모범”이 되었다는 이유로 1943년 녹수포장 서훈이 신청되었다.⁵³⁾ 이 공적서류에 첨부된 공적조서에는 김연수의 실업가로써 활동뿐 아니라 그동안 그가 받았던 훈포상이 나열되어 있다. 즉, 김연수는 1989년 1월 17일 중일전쟁에 재산을 기부하여 목배(木杯) 1개를 하사받았으며, 1939년 10월에는 재단법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사업자금 3만 원을 기부하여 1940년 9월 감수포장을 하사받았고, 1939년 12월에는 시정25주년기념박물관 건설자금으로 10,000원을 기부하여 1942년 4월 감수포장 식판(飾版)을 하사받았음이 기재되어 있다.

김연수와 같은 상류층 인사 외에도 일반인 가운데서도 모범인물을 뽑아 포상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김낙선은 “천지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며 확고한 신념으로 50년 동안 온갖 난관을 극복하며 초지일관 매진함으로써 자신의 집안을 훌륭하게 함과 함께 농업의 개량에 기여한 공적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하여 타의 모범이 되기에 부족이 없으므로” 1940년 녹수포장 서훈이 신청되었다.⁵⁴⁾

2) 공문잡찬에 나타난 윤덕영의 친일행위

『공문잡찬』에 수록된 인물들 중에는 중추원 참의와 같은 거물급 인사들도 많이 있다. 그중 중추원 고문 및 부의장을 지낸 윤덕영에 대한 공적서류를 살펴봄으로써 『공문잡찬』에 한인들의 친일행위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일단을 엿보도록 하자.

1910년 한일합방 당시 대한제국 시종원경(侍從院卿)으로 합방에 큰 공을 세워 자작에 추증되었던 윤덕영은 합방 이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과 부의장으로 일제의 조선 통치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윤덕영은 이미 1907년 10월 서보장을 받았으며, 1912년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1924년에는 육일대수장을 받은 적이 있었다.⁵⁵⁾ 그는 1925년부터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이 되었고, 1940년 8월 26일에는 박영효를

51) 鞠琛雄 공적조서, 『公文雜纂』 卷17, 1938.

52) 朴基孝 공적조서, 『公文雜纂』 卷26, 1940.

53) 金季洙 공적조서, 『公文雜纂』 卷65, 1943.

54) 金樂先, 『公文雜纂』 卷36, 1940.

이어 중추원 부의장이 되었다.⁵⁶⁾

윤덕영은 1940년 10월 18일 사망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윤덕영의 사망 이후 그의 그동안의 행적을 기려 은배(銀杯) 1개(제2호)를 하사할 것을 일본제국정부에 품의하였다. 이 품의서가 『공문잡찬』에 실려 있는데 그 안에 「공적조서」가 있어 30여 년간 윤덕영이 일제의 통치에 공헌한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공적조서는 윤덕영의 30년간에 걸친 중요 사적을 다음 9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1. 1907년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등극했을 때 순종을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어(移御)시켰다.
2. 한일합방 당시 순종을 설득시켜 합방을 완수하였다.
3. 합방 후 순종의 동경행을 실행시켰다.
4. 왕세자와 이방자(李方子)의 결혼을 성공시켰다.
5. 이왕직 찬시로서 이왕가에 충성을 다하여 왕가 및 조선 통치를 위해 공헌했다.
6. 만주사변 이후 선만일여(鮮滿一如)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홍만회(紅卍會) 신앙에 노력하였다.
7. 경학원 대제학에 취임하여 정무총감을 총재로 받들고 유도연맹(儒道聯盟)을 만들어 사상의 선도와 민풍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8.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출정 황군의 위문에 분주하였으며, 부인을 내세워 애국금차회(愛國金叉會)를 만들어 애국금을 모집하여 군대에 헌납하였다.
9. 1925년 중추원 고문, 1940년 동 부의장을 맡아 15년간에 걸쳐 총독시정에 참가하여 공헌한 바가 크다.

이상 9가지의 중요 사적을 나열한 후 공적조서는 “윤자작은 1906년 보호정치 이래 제국의 최고위로서 또한 중요한 국책의 해결에 항상 일신을 버리고 일을 맡아 모든 일을 성공시킴으로써 제국의 대륙정책 및 조선통치에 기여,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였는데 70여 인의 작위자 중에 다른 이에게 비할 바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⁵⁷⁾

이와 같이 『공문잡찬』에 수록된 윤덕영의 「공적조서」는 30년간에 걸친 그의 친일행위를 일본제국의 입장에서 가감 없이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일본제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적이었겠지만 식민지 조선민중에게는 나라를 팔아 일신의 영달을 꾀한 반민족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55) 「이력서」(尹德榮 공적조서, 『公文雜纂』 卷29, 1940).

56) 1939~1945년 중추원 부의장 및 고문은 다음 표와 같다. 김윤정, 『조선총독부 중추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9, 72쪽 참조.

	부의장	고문
1939~1941	박영효, 민병석, 윤덕영, 이진호	민병석, 윤치호, 한상룡, 박중양
1942	박중양, 이진호	박중양, 이진호, 김윤정
1944~1945	이진호	김윤정, 윤치호, 이범익, 한상룡

57) 尹德榮 공적조서, 『公文雜纂』 29, 1940.

5. 맺음말

식민지시기 일제의 통치에 협력했던 한인들에 대한 훈포상은 ‘한국병합기념장’이나 ‘대례기념장’과 같이 당시 직위에 따라 수여받는 것과 그들의 실제활동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여받는 경우가 있었다. 후자의 경우 훈포상을 위해 「공적조서」나 「훈적명세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실제 친일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그 행위에 대해 일제당국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공적조서」가 작성되어 그에 따라 훈포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위나 계급보다는 그들의 실제활동이 평가의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항일운동자에 대한 단속과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고 훈격 또한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공적조서」에 나타나는 실제활동이 단순한 협력행위를 넘어서서 반민족행위였음이 드러난다. 즉 일제당국에 의해 작성된 「공적조서」는 바로 친일행위에 대한 ‘공인인증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明治四十一年 敍勳』 卷4(外國人二).
『明治四十一年 敍勳』 卷7(外國人五).
『明治四十二年 敍勳』 卷3(外國人一).
『朝鮮總督府道事務官白石廣治郎外二千六百八十九名勳等年金及賜金ノ件』, 『滿洲事變行賞裁可書』.
『朝鮮總督府道警視河野彌平外三百四十一名賜金ノ件』, 『滿洲事變行賞裁可書』.
『朝鮮總督府平安北道巡查山口德藏道外十四名敍勳並賜金ノ件』, 『滿洲事變行賞裁可書』.
『朝鮮總督府道事務官古川兼秀外六十七名敍勳並賜金ノ件』, 『滿洲事變行賞裁可書』.
『朝鮮總督府平安北道巡查中島聖心外三百四十六名敍勳並賜金ノ件』, 『滿洲事變行賞裁可書』.
『支那事變行賞裁可書』
『公文雜纂』
김영모, 『일제하 한인지배층 연구』, 고현, 2009.
김윤정, 『조선총독부 중추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9.
김윤희, 「러일전쟁기 일본군 협력 한인 연구-일본정부의 훈포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35
김정은, 「1920~30년대 경찰조직의 재편-내용과 논리-」, 『역사와 현실』 39호, 2001.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I. 러일전쟁 조선인 ‘공로자’

1. 박영철(朴榮喆) 외 27명 서훈 및 사금

한국 육군 기병참령(騎兵參領) 훈5등 박영철 외 27명 서훈 및 사금(賜金)의 건

위에 대해서 삼가 재가를 바랍니다.

1908년 2월 26일

내각총리대신 후작 사이은지 킨모치(西園寺公望) (望, 사인)

상훈국 상신 제54호, 63호 2월 26일 재가

1908년 2월 17일

내각총리대신 (사인) 상훈국(賞勳局) 총재 (인)

한국 육군 기병참령 훈5등 박영철 외 27명 서훈 및 사금의 건을 별지와 같이 의논하여 정하였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바랍니다.

추가로 본건은 일반 행상(行賞)의 날짜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재가일로 시행하고 싶다는 것을 첨부하여 아웁니다.

상훈 의안 7호

1908년 2월 4일

상훈국 총재 (인), 서기관 (인) (인)

의정관 가(可) (인)(인)(인)(인)(사인)(사인)(사인)(사인)(사인)
부(否)

의안

한국 육군 기병참령 훈5등 박영철(朴榮喆) 외 27명

위의 사람들은 1904, 1905년 전역에서 공적이 있는 자들로서 서훈 및 사금의 건을 통감에게 상주함에 따라 심의하였는데, 당시 아군을 따라 직접 전투에 참여하거나 혹은 정찰을 하거나 혹은 통역을 하거나, 기타 제반 군무를 맡았고, 또는 철도관리로서 군용철도의 건설에 조력하거나 혹은 지방관으로 물자

의 조달과 수송에 진력하는 등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하여 이에 훈등 및 사금을 의의(擬議-헤아려 의논함)한 것이 다음과 같다.

	서사(敍賜)		관	소유 훈장	씨명
	훈등	사금			
		500	한국육군 기병참령	5(육)	박영철(朴榮喆)
작기(作記)	육5등(旭5等)	350	한국육군 기병참령	6(육)	유동열(柳東說)
작기	육6등(旭6等)	350	한국육군 포병참령		박두영(朴斗榮)
		500	한국육군 보병참령	4(서)	김응선(金應善)
작기	쌍광욱일장 (雙光旭日章)	350	한국육군 공병참령	5(서)	김기원(金基元)
작기	쌍광욱일장 (雙光旭日章)	350	한국육군 보병참령	5(서)	이갑(李甲)
		500	한국육군 보병참령	5(육)	남기창(南基昌)
작기	서4등(瑞4等)	250	한국육군 보병부령	5(육)	전영헌(全永憲)
작기	쌍광욱일장 (雙光旭日章)	350	한국육군 보병정위	5(서)	장인근(張寅根)
작기	육6등(旭6等)	350	한국육군 보병정위		김홍남(金鴻南)
작기	욱일소수장 (旭日小綬章)	200	한국육군 기병부령	4(서)	윤치성(尹致誠)
		1,000	(전 한국육군 보병정위)	4(육)	김관현(金寬鉉)
작기	서8등(瑞8等)	70	(육군통역)		최석하(崔錫夏)
작기	서8등(瑞8等)	80	(육군통역)		김진옥(金眞玉)
작기	서8등(瑞8等)	70	(육군통역)		강필성(姜弼成)
작기	서8등(瑞8等)	70	(육군통역)		유희길(俞喜吉)
작기	서8등(瑞8等)	80	(육군통역)		손진원(孫震元)
		80	(육군통역)	5(서)	이범익(李範益)
		80	(육군통역)		이인직(李人植) ¹⁾
		60	(육군통역)		민기호(閔岐鎬)
서명바람	서3등(瑞3等)		(전 한국임시군용철도검찰사)		강홍대(康洪大)
서명바람	서3등(瑞3等)		(전 한국육군참장 임시군용철도검찰사)		홍순찬(洪淳瓚)
작기	서4등(瑞4等)		한국내부기사		김윤구(金倫求)
작기	서4등(瑞4等)		한국농상공부 철도국장 겸 광무국장	5(서)	최상돈(崔相敦)
작기	서6등(瑞6等)		(전 한국철도국 기사)		강영우(康永祐)
작기	육6등(旭6等)		(전 한국 평양군수)		팽한주(彭翰周)
작기	육6등(旭6等)		(전 한국 평안도 선천군수)		백락삼(白樂三)
작기	서5등(瑞5等)		한국 평양관찰사(육군통역)	6(서)	박중양(朴重陽)

훈 제446호

1904, 1905년 전역에 관해서 한국인 기병참령 박영철 이하 28명은 별책의 훈적명세서와 같이 공적이 현저한 자들이므로, 별지의 훈적명부대로 서훈하고 상을 내릴 것을 분부하셨으면 하여 이와 같이 삼가 아뢰입니다.

1907년 11월 13일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인)

1904, 1905년 전역 한국인 훈적 명부

이번에 상훈하려 서훈	심사위원 소견	조사위원 소견	최후조계관 소견	현 위훈	관명, 씨명	1907년 10월 10일 현 관등 위훈
육5(旭5) 350	훈공 을 소위	훈공 을	훈공 을	정3품 서6	기병정위 박영철(朴榮喆)	기병참령 (1904. 2. 24)
육5(旭5) 350	훈공 을 소위	훈공 을	훈공 을	6품 육6	기병정위 유동열(柳東說)	정3품 기병참령 (1905. 4. 5)
육6(旭5) 350	훈공 을 소위	훈공 을	훈공 을	9품	포병정위 박두영(朴斗榮)	포병참령
육5(旭5) 350	훈공 을 소위	훈공 을	훈공 을	정3품 육6	보병정위 김응선(金應善)	보병참령 (1905. 4. 5)
쌍광(雙光) 350	훈공 병 소위	훈공 병	훈공 병 (육5)	정3품 서9	보병정위 김기원(金基元)	공병참령 (1906. 5. 4)
쌍광(雙光) 350	훈공 병 소위	훈공 병	훈공 병 (육5)	정3품 서5	보병정위 이갑(李甲)	보병참령 (1905. 8. 17)
육6(旭5) 350	훈공 병 소위	훈공 병	훈공 병	9품	보병정위 남기창(南基昌)	6품 보병참령
서4(瑞4) 250	훈공 병 소위	훈공 병	훈공 병 (서4)	9품 육5	보병참령 전영헌(全永憲)	보병부령
쌍광(雙光) 350	훈공 을 소위	훈공 을	훈공 병	서5	한어통역 보병부위 장인근(張寅根)	6품 보병부위
육6(旭6) 350	훈공 을 소위	훈공 을	훈공 병		한어통역 보병부위 김홍남(金鴻南)	6품 보병정위
육일(旭日) 200	훈공 정 소위	훈공 정	훈로 을	육6 서4	한어통역 기병참령 윤치성(尹致誠)	정3품 기병부령
1000	훈공 갑 소위	훈공 갑	훈공 갑		한어통역 보병부위 김관현(金寬鉉)	정3품 구 보병정위

1) 원문에는 李人植이나 당시 '직(植)'을 '식(植)'으로 표기하였으며 이인직과 동일인물임.

서8(瑞8) 70	훈로 을	훈로 을	훈로 을		육군통역 (판임대우) 최석하(崔錫夏)	미상
서8(瑞8) 80	훈로 갑	훈로 갑	훈공 병		육군통역 김진옥(金眞玉)	미상
서8(瑞8) 70	훈로 을	훈로 병	훈공 병		육군통역 강필성(姜弼成)	무관
서8(瑞8) 70	훈로 을	훈로 을	훈로 병		육군통역 유희길(俞喜吉)	무관
서8(瑞8) 80	훈로 갑	훈로 갑	훈로 갑		통역 손진원(孫震元)	무관
서8(瑞8) 80	훈로 을	훈로 병	훈로 병		통역 이범익(李範益)	6품 농상공부서기관 주임 4등
80	공로 갑	공로 을	공로 갑		육군통역 (판임대우) 이인식(李人植) ²⁾	대한신문사원
60	공로 갑	공로 갑	공로 을		육군통역 민기호(閔岐鎬)	미상
서3(瑞3)			훈로 갑 (서2)	종2품	임시군용철도 검찰사 강홍대(康洪大)	무관
서3(瑞3)			훈로 갑 (서2)	종2품	육군참장 임시군용철도 검찰사 홍순찬(洪淳瓚)	무관
서4(瑞4)			훈로 갑 (서3)	정2품	철도국장 김윤구(金倫求)	내부기사 주임1등
서4(瑞4)			훈로 갑 (서2)	정3품 서5	철도국장 최상돈(崔相敦)	농상공부 철도국장 겸 경무국장 주임2등
서6(瑞6)			훈로 갑 (서6)	종6품	철도국기사 강영우(康永祐)	무관
육6(旭6)			훈로 갑 (육6)	정3품 (미확인)	평양군수 팽한주(彭翰周)	무관
육6(旭6)			훈로 정		평안도 선천군수 백락삼(白樂三)	무관
서5(瑞5)			훈로 갑	서6	임시통역 박중양(朴重陽)	6품 평양관찰사 직임3등

훈 제446호

통발(統發) 제6810호

한국인 육군 기병참령 박영철 이하 28명 서훈, 상사(賞賜)에 관한 상주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별지

2) 이인직과 동일인물.

에 기재한 육군 기병참령 박영철, 육군 보병참령 김응선 및 동 남기장은 이번에 황태자 전하가 도한했을 때 각각 서두에 쓴 대로 서훈하였는데, 1904, 1905년 사건의 상사는 훈적명부에 각각 첨부하여 적은 대로 김응선에게만 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별지에서 육군대신의 이첩서를 베껴서 참고하기 위하여 여기에 첨부합니다.

1907년 11월 13일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인)

내각총리대신 후작 사이온지 킨모치(西園寺公望) 귀하(殿)

1904년 훈적 조사위원 의서(擬敘) 1907년 10월 17일 서훈

육5 350	훈5등 육일장	육군기병참위	박영철
육5 350	훈5등 육일장	육군보병참령	김응선
육6 350	훈5등 육일장	육군보병참령	남기장

훈심발(勳審發) 제236호

1904, 1905년 전역에 관해서 기병정위 한국인 박영철 이하 28명 별지의 훈적서와 같이 공적이 현저한 자이므로 상사하는 것이 당연하니 조치해 주셨으면 하고 훈적서 및 열차명부(列次名簿)를 첨부하여 이것을 이첩합니다.

1907년 9월 27일

육군대신 자작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귀하(殿)

※ 추가로 각 공적에 대해서는 열차명부에 주기(朱記)한 대로 상사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또 관동, 위훈 등은 현재 이미 가지고 있는 자는 정정하셨으면 합니다.

1904, 1905년 전역 한국인 훈적명세서

훈적명세서

훈공 을(乙) 한국기병참위 박영철(朴榮喆)

1904년 3월 13일 한국 진남포(鎭南浦) 상륙 이래 정주, 압록강, 수암(岫巖), 분수령의 전투에 참여했을 때 혹은 척후로서, 혹은 첨병으로서 적정을 보고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전투에 종사하였다. 그중 참위는 오로지 통역으로서 노고를 무릅쓰고 한국의 무식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황군의 덕을 느끼게

하여 기꺼이 집을 제공하고, 식량을 나르게 하고, 혹은 간첩을 사역해 적정을 수집하여 아군에게 이익을 준 공적이 크다.

※ 1904년 7월 6일 황기구(黃旗勾)에서 본국으로 귀환

1905년 10월 16일

근위기병연대 제1중대장 육군기병대위 유가미 치사부로우(由上治三郎) (인)

훈적명세서

훈공 을(乙) 한국육군기병참위 유동열(柳東說)

위 사람은 1904년 3월 16일 한국 진남포 상륙 이래 정주(定州), 압록강, 사리새(沙里寨), 수암(岫巖)의 전투에 참여하여 수색근무에 참여한 것이 10회, 시종 제3중대에 속하여 용감하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는 항상 물자의 징발 및 적정 수집에 임하여, 연대 인마(人馬)의 휴양을 풍족하게 하였고, 또 적 상황을 명확히 해서 연대의 행동에 이익됨이 컸다. 특히 1904년 3월 28일 정주 남문 바깥에서 적의 접근을 탐지하여 고사카(小坂) 대위 및 나쿠라(名倉), 미타(箕田) 2명의 척후담당 장교에게 고지하여 적의 포위를 면하게 하였으며, 이후 연대와 함께 정주 성벽의 적과 분투하고, 그해 4월 11일 우치야마(內山) 소위와 함께 한국인의 옷을 입고 압록강 내 대마도(大馬島, 일명 威化島)에 들어가 대마도에 적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마도의 적정을 상세하게 정탐하여 귀환, 복명한 것은 훈적이 현저하다. 이에 그 성적을 훈공 을(乙)로 인정한다.

※ 1904년 8월 18일 청국(淸國) 성경성(盛京省) 한가보자(韓家堡子)에서 본국으로 귀환

1905년 10월 16일

근위기병연대 제3중대장 육군기병대위 노주 시주오(野津鎮雄) (인)

훈적명세서

훈공 갑(甲) 한국참위 박두영(朴斗榮)

위 사람은 1904년 2월 한국학생으로서 당 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동원되어 그해 2월 12일 통역으로 종군을 명받아 연대본부 소속으로 그달 23일 군영을 출발해 그해 3월 13일 우품항(宇品港)을 출발하여 그달 18일 한국 진남포에 상륙한 이래 한국 험로의 오랜 행군을 감내하고 압록강 수암의 전투에 참여하고, 그해 7월 청국 교가보자(敎家堡子) 체재 중 한국 외부의 조회에 의해 귀국을 명령받아, 그달 13일 출발하여 한국으로 귀환했다. 이 사이 참위는 열심히 아군의 군무에 종사하고, 한국 내지를 행군하는 동안 다대한 이익을 아군에 공헌하고, 또 누차 정찰, 전령 근무에 복무하여 그 공적이 적지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아래에 적은 사항은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한다.

- 한국 내지를 행군하는 동안 매일 계속해서 숙영지 정찰, 도로 정찰 등에 부관으로 수행하고, 연대를 숙영하게 하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임무에 열중하여, 완전히 그것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건전하고 뛰어난 체구와 표리부동의 충성으로 분투 노력하였고, 교묘하고 적절한 통역으로 현지인과의 사이에 끼어들어 의사의 소통을 도모하였다. 그 때문에 가장 곤란한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숙영의 배포, 물자의 징집 등이 항상 원활하고 매끄럽게 이루어졌으므로 연대 행군력의 유지와 병력휴양상 공헌한 효과가 매우 크다. 그중에서도 복무의 상황이 추호도 타국인이라는 흔적이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군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특히 확인하는 바이다.

- 1904년 4월 하순 연대가 의주(義州) 부근에 개진이 끝나자 날마다 연대장 부관 또는 여러 정찰 장교를 수행하여 원화동(元化洞), 서호동(西胡洞) 부근의 진지 정찰에 종사하여 그 근무를 도왔는데 그 결과가 양호하였다. 특히 4월 30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구련성(九連城) 부근의 전투에서는 전령 근무에 복무하여 용감하고 침착하게 누차 적의 포화 속을 왕래하며 생사의 땅을 출입하여 사명을 잘 수행하고 그 근무를 완벽히 해서 추호도 소홀하게 하는 바가 없었다.

- 1904년 6월 초순 제1대대의 아사다(淺田)지대에 속해서 수암 방면에 전진하는 때에 이 대대에 분속하여 수암 부근의 전투에서 누차 정찰근무에 종사하고 위험한 곳에 출입해 그 임무를 달성하여 대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

이상 서술한 대로 공적이 자못 현저하여 성적을 훈공 갑(甲)으로 인정한다.

1906년 5월 21일

근위야전포병연대장 하시모토 요시히데(橋本良英) (인)

이력서

한국참위 박두영

- 1904년 2월 12일 근위야전포병연대 배치

- 1904년 3월 13일 참위

위에 적은 대로 틀림없습니다.

1906년 5월 21일

근위야전포병연대장 하시모토 요시히데(橋本良英) (인)

훈적명세서

훈공 갑(甲) 한국육군정위 김응선(金應善)

위 사람은 1904년 3월 9일 근위보병 제1연대에 속해 우품항(宇品港) 출범에 종군하여 그해 3월 12일에 한국 진남포에 상륙한 이래 4월 8일 의주에 도착할 때까지 오로지 식량의 매입, 도로 정찰 및 러시아 정탐의 정찰 심문, 현지인의 사역 등에 주야로 분투하고 노력하여 아군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

의주 체재 중에는 누차 현지인을 안동현(安東縣), 사하진(沙河鎭), 구련성(九連城)에 파견해 직정을 정찰하게 하여 그해 4월 24일 아래와 같은 유익한 보고를 받았다.

1. 사하진에는 현재 적 1천 명이 있는데, 그중 4, 5백 명은 기병이고 나머지는 보병이다. 대포는 4, 5십

문 있었는데 구련성 방면으로 운반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 10문이 남아있다.

2. 원보산(元宝山)에는 적병 약 1만 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하진의 연안에는 초병 참호에 들어가 머리만 내민 감시병들이 여러 곳에 있다.

그해 5월 1일 압록강 전투, 6월 5일 수암(岫巖)전투, 6월 28일 분수령(分水嶺)전투, 7월 31일 양자령(樣子嶺)전투에 참여하여 누차 위험을 무릅쓰고 전령의 임무를 맡아 그 공적이 컸고, 그해 8월 2일 한국으로 귀환했다.

이상의 성적을 훈공 갑(甲)으로 인정한다.

※ 본적지 한국

거주지 한국

1906년 5월 15일

근위보병 제1연대장 육군보병대좌 센다 사다미키(千田貞幹) (인)

훈적명세서

훈공 갑(甲) 한국육군보병참위 김기원(金基元)

위 사람은 1904년 2월 동원명령이 내렸을 때, 우리 대대에 배속되었고, 같은 해 3월 17일 한국 진남포에 상륙한 이래, 자국어를 잘 통역하여 진영을 설치하거나 징발하는 데 노력하여 대대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대대가 가는 곳마다 우민(愚民)을 모아서 그들의 오해를 풀고, 러시아의 횡포를 말하여, 천황 군대의 주의를 설명하고 지방의 물자를 모으게 해서 군대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신속하게 한 것은 그 공이 지대하다고 인정된다.

또 4월 1일 박천(博川) 군사(郡司)가 친로당으로 누차 러시아를 위해 간첩을 보내어 우리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탐지하고 몰래 보고하여 박천에 숙영 중인 제48연대와 함께 협력하여 그 군사 일당을 포박할 수 있었다. 이것을 보면 위 사람은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그 일을 은닉하지 않고, 천황군에게 불리한 자는 바로 보고하여 우리를 유리하게 한 것은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힘써 노력한 것이 명백하다.

다음 같은 해 4월 16일 사단이 의주 부근에 도달하자, 대대를 또한 송장(松長) 소수동(小水洞)에 숙영 시키고, 이때에 누차 김참위는 간첩을 보내어 유익한 보고를 하고, 적 간첩을 방지하였고, 차츰 물자공핍을 알고서 술선수범으로 징발에 나서 소, 돼지, 닭, 야채 등을 매수하여 사졸의 급양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이상의 공적은 훈공 갑(甲)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1905년 8월 18일 출발 귀국

1906년 5월 11일

근위보병 제2연대장 육군보병중좌 오바 지로(大庭二郎) (인)

훈적명세서

훈공 갑(甲) 한국육군정위 이갑(李甲)

위 사람은 1904년 3월 14일 근위보병 제1연대에 속해 우품항 출범에 중군하여 같은 해 3월 14일 한국 진남포에 상륙한 이래, 4월 8일 의주에 도착할 때까지 전심으로 군량을 조달하고, 도로정찰 및 러시아 정탐의 정찰 심문, 현지인의 사역 등에 주야로 노력하여 아군에 많은 이익을 주었다.

의주 체제 중에는 누차 현지인을 시켜 적정을 정찰하고, 4월 22일 현지인에게 압록강 및 애하(愛河)의 상황을 정찰하게 하고, 또한 통군정(統軍亭)에서 스스로 통역을 맡아 여단장의 심문에 대해서 하천에 관한 전술상 유리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공격 전진의 계획을 짜는 데 매우 유리하게 했다. 같은 해 5월 1일 압록강의 전투, 6월 8일 수암전투, 6월 28일 분수령전투, 7월 31일 양자령(樣子嶺) 전투에 참여하여 누차 위협을 무릅쓰고 전령의 임무를 맡아 그 공적이 크다. 같은 해 8월 2일 한국으로 귀환했다.

이상의 성적은 훈공 갑(甲)으로 인정된다.

- ※ 본적지 한국
- 거주지 한국

1906년 5월 15일

근위보병 제1연대장 육군보병대좌 센다 사다미키(千田貞幹) (인)

훈적명세서

훈공 갑(甲) 한국육군보병참위 남기창(南基昌)

1. 1903년 11월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입대하여 제12중대에 편입 교육 중, 1904년 2월 동원명령이 내려와서 제3대대 본부에 배속되었다.

2. 1904년 3월 13일 우품항을 출범하여 17일 한국 진남포에 상륙한 이후, 같은 해 5월 2일까지 오로지 통역업무에 복무하며 숙사와 물자의 징발과 수집 및 현지인의 회유와 단속을 맡았는데 그 주요한 사적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으로 이동하는데 마침 얼음이 녹는 시기라서 도로가 진흙탕으로 행군이 아주 곤란한 때였는데 재료의 부족으로 수리공사를 하는데 곤란한 지경에 빠진 일이 자주 있었다. 본 견습사관은 매번 대대장 가바사키(川崎) 소좌의 명으로 현지인을 설득, 감독하여 재료 수집의 일을 맡아 편익을 준 일이 적지 않다.

2) 한국 이동 중에 촌락이 산골짜기에 드문드문 있고, 가옥이 왜소하였으며, 게다가 지도가 정확하지 않아 촌락의 수색이 곤란할 때에 대대 부관 이하리(井梁) 중위를 따라서 병영을 설치하는 데 종사하여 대대의 행동에 큰 편익을 주었다.

3) 같은 해 4월 중 대대가 운천리(雲川里) 및 삼리동(三里洞) 부근에 주둔하여 도로의 수축에 임하자,

종일 노동한 결과 정량의 양식으로서는 하사, 사졸이 배고픔을 느끼는 상황이었으므로 추가 식량을 배급하려고 하였으나, 병참의 수송이 곤란하여 이것을 후방에 의지할 수 없었는데, 그 지방은 춥고 가난해서 물자가 부족하였으므로 대대장의 명을 받들어 1등 주계 고마쓰 마사시(小松正志)를 따라 백방으로 분주히 뛰어다녀 팔과 소금을 징발하고 수집하여 대대에 편익을 준 일이 적지 않았다.

4) 5월 1일 압록강의 전투에서는 대대의 잔류하물을 감시하려고 비목동(枇木洞)에 잔류하였는데 그 날 아군이 승리하고 귀환하자 신속하게 한인 인부 100여 명을 징집해 잔류하물의 운반에 진력하였다. 대대가 야저원(野豬園) 부근에 주둔하자 4일 대대의 하물 전부의 수송을 마쳤다. 그 신속한 일 처리는 당시 다른 대대와 비교할 수 없었다.

이후 대대본부에 속해 전령 및 행리(行李)하물의 감시를 맡아 7월 12일까지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근무에 종사하였는데 그중 중요한 일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봉황성(鳳凰城)에 주둔하는 동안 위생위원 조수로서 전령 및 청결법 실시의 감시를 맡아 열심히 그 직책을 다하였다.

2) 6월 6일 대대의 아사다(淺田)지대에 속하여 수암(山曲岩)을 향하여 전진할 때에는 병졸 10명을 이끌고 대대 행리의 호위와 중국 마차의 감시를 맡아 누차 도로가 불량한 산지의 험난함을 무릅쓰고 감시와 유도를 적절하게 하여 대대의 행동에 적지 않은 편익을 주었다.

3) 6월 18일 대대가 도가보자(刀家堡子) 부근에 주둔할 때 전초(前哨) 복무 중 전초 중대장 쓰네야(恒屋) 대위를 따라서 전초의 근무를 견습하고 같은 날 밤 척후장교 마에다(前田) 중위를 따라서 소가구(蘇我溝) 방향 적정 수색의 임무를 맡아 그 부근에 적병이 없다는 것과 그 부근의 지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그 요령을 체득하였다.

4) 대대의 아사다(淺田)지대에 속하여 분수령 공격을 위해 수암을 출발하자 하물의 감시 및 환자의 단속을 맡아 엄격하고 열심히 그 직책을 잘 수행하였다.

이상 견습사관의 공적이 현저하여 훈공 갑(甲)으로 인정한다.

1906년 5월 11일

근위보병 제2연대장 육군보병중좌 오바 지로(大庭二郎) (인)

훈적명세서

훈공 갑(甲) 한국육군보병참위 전영헌(全永憲)

위 사람은 1904년 2월 동원명령이 내려졌을 때, 통역관으로 제1대대에 배속되어 3월 13일 우품향을 출발하여 17일 한국 진남포에 상륙한 이래, 누차 숙영지 정찰, 인부의 고역(雇役) 등에 종사하여 대대에 편익을 주었다.

그중에서도 진남포 상륙 당일은 대대부관을 보조해 가증리(佳增里) 부근에서 대대의 설영(設營)에 종사하여 지체됨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또 3월 19일 가증리(佳增里)를 출발하여 용강(龍岡)을 향해 전진하자 추위가 너무 심하여 현지인이 고역에 응하지 않고 게다가 군수품에 말이 부족하여 하물을 운

반하는 데 곤란했지만 진력을 다해 인부를 고용함으로써 대대의 행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이후 평양, 숙천(肅川) 등을 거쳐 3월 28일 용덕리(龍德里)에 이르는 동안에 매번 설영 및 인부의 고역에 종사하였는데 당시 각 대대의 행리운송용 말의 결손이 많아 대대 행동에 지장이 생겼을 때 제1대대 부관이 한국말을 사들이는 것에 종사하자 이것을 보좌하여 편익을 주었다. 4월 7일 다시 행군을 속행하여 의주 부근에 이르자 매번 설영대에 속하여 숙영지의 정찰에 종사하거나 또는 물자의 징발을 보조하고 또한 송장(松長), 소수동(小水洞) 체재 중에 누차 적의 간첩 혐의자 신문의 통역을 하였다.

5월 1일 대대가 압록강 부근의 전투에 참여하였을 때 일반에게 경장(輕裝)을 입히기 위해 불필요한 장구와 하물 등을 비수동에 남겨두자 그것의 감시를 맡고, 또 전투 후에 인부를 징발해 그것을 운반하여 5월 10일 청국 용천구(龍泉溝)에 이르러 대대에 합류시켜 이익을 주었다.

5월 19일 대대가 가세(加瀨)지대에 속해 사리새(沙里塞) 방향으로 전진할 때 및 6월 6일 연대가 아사다(淺田)지대에 속해 수암 방향으로 전진할 때에 봉황성에 잔류하여 하물의 감시를 맡아 6월 29일 하물 감시대와 함께 봉황성을 출발하여 수암에 이르렀고, 7월 12일 귀국의 명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잔류 인마와 하물의 감시를 맡았다.

이상의 공적이 현저하여 훈공 갑(甲)으로 인정한다.

1906년 5월 11일

근위보병 제2연대장 육군보병중좌 오바 지로(大庭二郎) (인)

훈적명세서

훈로 을(乙) 육군통역관임대우 최석하(崔錫夏)

1904년 3월 10일 육군통역을 명받아 같은 날 제1군사령부 근무를 명받고, 같은 해 3월 20일 평양에 도착한 이래 군량향부에 속해 그 부장이 안주(安州)에 이르러 각 병참로의 창고업무 시찰과 그 보조 및 아사다(淺田)지대의 전진에 따른 급식품의 조달을 맡아 먼저 출발하자 그를 수행하여 안주에 이르렀다. 다음에 정주(定州)에 이르러 야전창고를 개설하여 극력 지방 물자의 취집에 착수하려고 하였는데, 완고한 한국 현지인들이 공급에 응하지 않아, 우리 전진지대의 보급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통역은 본래 이곳에서 약 30리 떨어진 곽산(郭山)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방의 사정에 정통하였으므로 향장 신석근(申錫瑾) 및 현지인 유력자를 초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향리의 부친 및 친족을 초대하여 우리 군 출정의 목적을 연설하여 부근의 현지인에게 물자의 공급을 권유, 장려하였다. 또 스스로 부근의 부락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취집에 노력한 결과 아사다(淺田)지대가 다시 전진을 할 때까지 여유있게 급양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4월 1일 야전창고를 철거하고 잔품을 정주 병참사령부에 인계한 뒤에도 여전히 현지인을 모아서 물자의 공급에 응하도록 하였으므로 병참부도 역시 이 때문에 큰 편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후 4월 2일 아사다(淺田)지대가 전진하자 통역은 아사다(蘆田) 주계를 따라서 지방 물자 취집의 임무를 띠고 선주(宣州)로 향하는 島中 곽산으로 우회해서 능히 그 목적을 이루고 취집의 물자

를 갖추어 선주에 도착하였다. 당일 전진해 와서 준비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선주병참사령부에 교부하여 후속부대의 급양(給養)을 채울 수 있었다. 4월 3일 차련관(車輦館)에 야전창고를 개설하고 후방병참에서 보내온 물품과 현지 조달품으로 창고를 충실히 하여 지대의 급양에 충당하려고 하였는데, 그 지방은 철산군수의 관할에 속해 향장은 없고 특히 관민들은 다수가 피난하여 물자를 취집할 수단도 거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통역은 이곳의 서쪽의 봉곡(鳳谷)에 부유하다고 소문난 오희역(吳瀝譯)이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탐지하고 스스로 방문하여 실황을 조사해 물자공급의 뜻을 전달하여 응하게 했다. 또 한편으로는 읍민의 귀래를 촉구하여 물자 취집상 호황을 떨치게 하기에 이르렀다. 4월 10일 또 부장을 따라서 차련관을 출발, 소관관(所串館)에 이르러 이곳의 야전창고에서도 전술한 것처럼 통역에 힘써 열성으로 물자의 취집이 아주 호황이 되게 하였다.

이상 통역이 물자 취집에 진력한 결과 아사다(淺田)지대의 급양을 곤란에 빠뜨리지 않은 것은 그 성적이 훈로 을(乙)에 해당된다고 인정한다.

1905년 10월 20일

제1군 참모장 육군소장 후지이 시게타(藤井茂太) (인)

훈적조서

육군통역 최석하(崔錫夏)

위 사람은 1904년 3월 23일 한국 평양에서 당부에 배속된 이래 6월 1일 청국 봉황성에서 육군통역을 그만둘 때까지 한어통역의 근무에 복무하고 시종일관 상관의 의지를 잘 살피서 성실히 일에 종사하여 그 직책을 다한 결과 당부의 업무를 진척시켜서 인마의 급양에 편익을 준 것이 다대하다. 그리고 이 기간에 훈적이 현저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1904년 3월 24일 통역은 군사령부의 평양 체제 중 본직과 경리부장의 명을 받아 이곳 북쪽에서 병참 창고업무를 실시하여 상당한 지도 또는 조력을 주고 더욱이 당시 안주에 있던 아사다(淺田)지대의 전진에 대한 급양의 보조를 하기 위해 선발대를 수행하였다. 같은 달 26일 안주에 도착했을 때 마침 가교업호의 임무를 맡은 아사다(淺田) 혼성여단이 적정의 변경에 의해 나중에 보내오는 양식과 마초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급양은 지방 물자에 의존한다는 결심으로 전진하려고 하였는데, 본직은 이에 수행하여 그 급양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통역도 역시 이를 수행하였다. 3월 28일 정주 점령의 목적으로 가산(嘉山)을 출발하는 가세(加瀨)지대와 함께 전진하여 지대의 전투 후 동 성안에 들어와서 야전창고를 개설하고 현지 조변에 따라 그 충실을 도모하려고 기도하여 물자의 수집에 착수하였는데, 현지인의 대다수는 난을 피해 떠났고 더구나 완고하고 의심이 많은 한인의 성질상 러일 양군의 강약, 혹은 일본군도 역시 러시아군처럼 약탈을 자행하지 않을까 하는 등의 점에 의심이 가득하여 공급에 응하지 않아 지대의 급양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통역은 당지에서 약 30리 떨어진 광산 출신으로 오래전에 일본 유학 중에 본 전역이 발생하자 스스로 자원하여 육군통역을 명받은 자이므로 피아의 사정에 정통하여 능히 본직의 의도를 헤아리고 향장 신모 및 현지인 유력자를 초빙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사람을 향리 곽산에 보내어 그 친척을 초빙하고 열심히 황군출정의 목적을 연설하여 부근의 현지인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물자의 공급을 권장하고 또 스스로 부근의 부락에서 그 수집에 노력한 결과 4월 1일 창고를 철거하고 그것을 병참에 인계한 뒤까지 현지인이 운집해서 물자를 제공하는 상황이 되었다. 동 여단이 다시 전진을 하는 데 이르자 수집한 물자로 여유로운 여단의 급양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통역의 공헌에 의한 바가 크다.

2. 같은 해 4월 2일 동 여단은 계속해서 전진하기 위해 정주를 출발할 즈음에 본직은 통역을 부원 아시다(蘆田) 주계에게 부속시키고 본도의 왼쪽 길을 취하여 곽산으로 나가 그 지역 부근의 물자를 수집하여 그것을 선천으로 운반하고 그곳에서 본직을 만날 것을 명령하였는데 통역은 동관을 잘 보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수집한 물자를 갖추어서 심야에 동 지역에 도착하여 그것을 당일 전진해 온 병참창고에 교부하여 후속부대의 급양에 필요한 양식과 마초의 보급에 충당할 수 있었다. 이것도 통역의 노력에 의한 바가 크다. 또 다음 날인 3일 본직은 동 여단이 차련관(車輦館)을 향해 전진하는 데 수행하여 동 지역에 야전창고를 개설하여 후방에서 보내온 물품과 현지조달품으로 창고를 충실히 하여 동 여단 및 후속부대의 급양에 필요한 양식과 마초의 보급을 실시하려는 데에 즈음하여 물자 수집의 정황은 거의 정주에서와 동일한 곤경에 빠졌다. 통역은 동 지역 서쪽으로 약 50리 떨어진 봉곡(鳳谷)에 부유한 오모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탐지하고 스스로 방문하여 실황을 조사해 물자의 공급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키기에 이르고, 한편 읍민의 귀래를 촉구했기 때문에 물자의 수집이 날로 호황을 떨치기에 이르렀다. 4월 8일 창고를 철거하고 병참에 인계하기까지 위에 적은 대로 여단의 급양상 크게 편익을 줄 수 있었던 것 또한 통역의 힘이 다대하다.

3. 같은 해 4월 11일 소관관(所串館)으로 전진하여 동 지역 야전창고에서 상관의 지휘하에 전술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방물자의 수집에 노력하고, 같은 달 16일 창고를 근위사단에 인계하여 이에 오로지 동 여단 급양의 임무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통역의 공헌이 적지 않다. 같은 달 22일 본직은 경리부장의 명령에 따라 군의 개진지(開進地) 부근에서 의주군내의 물자를 조달하여 군 전체에 대한 비상준비식량과 마초를 집적할 목적으로 연무동(宴舞洞)에 야전창고를 개설하였는데, 통역은 창고장 아시다(蘆田) 주계 밑에서 5월 1일 구련성 점령일에 이르기까지 복무면서 지방 물자의 수집에 힘을 다하여 기도한 목적의 달성을 용이하게 했다.

이상 그 성적이 훈공 병(丙)이라고 인정한다.

※ 본적지 : 한국 평안북도 곽산 초하리

거주지 : 일본국 동경시 본향구 원정 2정목 66번지 고야나기(小柳) 방

1905년 12월 25일

제1군 양향부장 육군3등주계정 마에카와(前川遜) (인)

이력서

본적지 : 한국 평안북도 곽산 초하리

거주지 : 동경시 혼고쿠(本郷区) 신사초(真砂町) 25반치(25番地)

육군통역판임대우 최석하(崔錫夏)

1. 1904년 3월 10일 육군통역(판임대우)
2. 1904년 3월 10일 제1군 사령부 부
3. 1904년 6월 1일 면 육군통역

위에 적은 바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05년 10월 20일

제1군 참모장 육군소장 후지이 시게타(藤井茂太) (인)

훈적명세서

훈공 병(丙) 육군통역 김진옥(金眞玉)

위 사람은 1904년 2월부터 근위사단 사령부에 배속되어 출정하여 한국 내에 이르는 곳마다 현지인과 군대 간에 생기는 여러 일에 대해 진력하여 편익을 얻은 일은 아주 많아서 그 공적이 적지 않다.

제8사단에 속해서는 동 사단이 역시 내지에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서 공적에 불만한 것이 없었지만 후비(예비)보병 제5여단에 속해서는 그 보병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진력한 공로가 적지 않다.

1905년 4월 후비(예비) 제2사단에 배속된 이후로는 동 사령부 관리부에 배속되어 물자의 징집, 인부의 사역, 숙사의 설비 등에 관해 시종 열심히 그 업무에 힘써 다대한 편익을 준 그 공적이 현저하여 훈공 병으로 인정한다.

이상의 성적에 따라 훈공 병(丙)으로 인정한다.

1905년 11월 1일

후비 제2사단 부관 육군보병대위 사쿠마 고로(佐久間五郎) (인)

이력서

본적지 한국 원산진(元山津) 원시중리(遠市中里)

거주지 아키타현(秋田県) 후나가와코(船川港) 일본우선(郵船)주식회사 출장소 오가와 분사쿠(小川文作) 방

후비제2사단 배속 육군통역 김진옥(金眞玉)

- 1904년 2월 22일 육군통역 판임3등 대우 월급 25원, 근위사단 부
- 1904년 6월 1일 면 근위사단 부
- 1904년 7월 1일 육군통역 월급 30원, 제8사단 부
- 1904년 9월 28일 면 제8사단 부, 후비 보병제5여단 부
- 1904년 10월 28일 면 후비 보병제5여단 부
- 1905년 4월 30일 임시통역으로 후비 제2사단에 고용

- 1905년 8월 23일 육군통역 월급 35원, 후비 제2사단 부
위와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05년 11월 1일

후비 제2사단 부관 육군보병대위 사쿠마 고로(佐久間五郎) (인)

훈적명세서

훈공 병(丙) 육군통역 강필성(姜弼成)

1905년 8월 23일 육군통역으로 제1대대에 배속되어 물자가 결핍되었음에도 군대활동의 시기가 목전에 임박했기 때문에 주계 또는 장교척후를 수행하여 우마의 징집을 맡았고 한인 인부를 감독해서 식량, 마초의 운반에 노력하는 등 험한 도로와 날씨의 불순에도 개의치 않고 예의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같은 해 9월 중 누차 전초에 배속되어 부근의 현지인 혹은 지나가는 한인에게서 유리한 정보를 모으는 등 우리 군의 행동에 다대한 편익을 준 성적이 훈공 을(乙)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

육군통역 배명 이래 공적이 위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본인은 러일전쟁의 초기인 1904년 2월 12일 용병 통역으로 배임되어 보병 제38연대, 보병 제37연대, 후비보병 제45연대를 두루 거쳐 올해 8월 20일 본 연대에 배속되었는데, 한국 우편 전신의 검열에 종사하거나, 한인 인부를 감독하여 원산에서 진지(陣地)를 만드는 데 종사하거나, 함흥 원산 간의 행군 특히 함흥에서 성진으로 향하는 행군에서 탄약, 식량, 마초 등의 휴행 행리가 많아 그 운반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더구나 마침 엄동설한 중이라 인부 중의 일부가 식량과 마초를 버리고 도주하려는 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곤란을 무릅쓰고 솔선하여 그들을 독려하거나 혹은 설득하여 마침내 행리 운반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누차 척후를 수행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가는 한인을 심문하여 유리한 적정을 수집하는 등 그 공적이 현저하다.

1905년 10월 16일

후비보병 제32연대 부관 육군보병대위 오노 카나메(大野要) (인)

이력서

본적지 : 한국 함경남도 원산진(元山津) 와우동(臥牛洞)

거주지 : 상동

후비 제2사단 부 육군통역 강필성(姜弼成)

- 1905년 8월 23일 육군통역 월급 금 30원

- 1905년 8월 23일 후비 제2사단 부 후비 보병제32연대 배속

위와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05년 11월 1일

후비 제2사단 후비보병 제32연대 부관 육군보병대위 오노 카나메(大野要) (인)

훈적명세서

훈로 병(丙) 육군통역 유희길(兪喜吉)

위 사람은 1904년 3월 1일 임시군용철도감부로 배속 명령을 받아 그해 5월 1일 제8공구로 배속되어 그 공구의 공사를 시행하는데 인부 공급, 재료 운반, 기타에 진력한 사실이 적지 않고, 일본인과 한인 가운데서 의지의 소통을 도모하여 한인사역에 주임을 보좌해 잘못이 없도록 하는 데 공이 적지 않다고 인정한다.

1905년 2월 개성 제2보선구 설치 이래 한인 선로부 양성을 맡아서 공이 있었다.

그해 7, 8월에 여러 곳에서 출수 피해의 복구공사로 많은 한인 인부를 모집할 때 군수에게 교섭하여 공사 완성의 기일을 맞춘 공이 적지 않다고 인정한다.

위 성적을 훈로 병으로 인정한다.

1905년 10월 16일

임시군용철도감부 용산보선반장 체신기사 오즈카 우매사부로(大塚樞三朗) (인)

이력서

본적지 : 한국 경상도 동래 부산포 초량(初梁)

거주지 : 상동

임시군용철도감부 부 육군통역 유희길(兪喜吉)

1. 1905년 7월 27일 육군통역 월급 금 25원
2. 동 판임대우
3. 동 임시군용철도감부 부

위와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05년 10월 16일

임시군용철도감부 용산보선반장 체신기사 오즈카 우매사부로(大塚樞三朗) (인)

훈적명세서

훈로 갑(甲) 육군통역 손진원(孫震元)

위 사람은 1904년 2월 육군성 파출원에서 한어통역으로 채용되어 2월 28일 근위사단 제2보조수졸대에 배속되어 3월 12일 진남포에 상륙하였다. 당시 제1군이 계속해서 진남포에 상륙하여 그 혼잡함과 번잡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본인은 대장의 명을 받아 동분서주하며 숙소의 설비, 군수품의 구매를 맡아서 성실히 잘 면려하여 수졸대 수송상 많은 편익을 주었다. 압록강 및 하마탕(蛤蟆塘) 전투 후 한어통역이 필요없게 되자 6월 1일 한국주차병참감부에 배속되어 포천(抱川) 병참지부에 배속을 명받았다. 당시 경성과 원산 간에 병참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 지방관리 및 인민과의 사이에 본인을 필요로 하는 일이 가장 많았는데 피아의 의사를 잘 소통시켜 여러 일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군대의 숙영, 도로의 개수, 기타 식량품(食糧品) 구매 등에 시종 분주하여 그 직책을 잘 수행했다. 1905년 3월

20일 안주(安州) 병참사령부에 배속되고 같은 달 24일 착임한 이래 피아의 의사소통에 힘써 물자수송, 재료 등의 징집을 돕고 병참 업무상 공헌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특히 7월 11일 안주 정주(定州) 간 군용전선(軍用電線)이 불통되었을 때에는 계속되는 비로 청천(淸川), 대령(大寧) 두 강이 범람하여 그 강 유역이 모두 바다가 되어 교통이 두절된 것을 개의치 않고,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안주 군용통신소 작업부들과 협력해 그 회복에 분주하여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다.

이상 전역 간의 성적을 훈로 갑으로 인정한다.

1905년 11월 1일

한국주차군 부관 육군보병소좌 오타와 신수케(大多和新輔) (인)

훈적명세서

훈로 을(乙) 안주병참사령부 부 육군통역 손진원(孫震元)

위 사람은 1905년 3월 24일 당부에 도착한 이래 숙련된 통역으로 열심히 임무에 진력하여 당부의 의지를 명료하게 한국 관민에게 숙지시키고, 또 물자의 수송 및 재료의 징집을 보조하여 병참업무의 진척에 막대한 공헌을 한 바 있다. 특히 1905년 7월 11일 안주 정주 간 군용전선이 불통되었을 때에는 당시 계속되는 비로 청천, 대령의 두 강이 범람하여 그 유역이 홍수가 나지 않은 곳이 없어 교통이 거의 두절된 것을 개의치 않고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안주 군용통신소 작업부들과 함께 그 회복에 분주했다. 성적을 훈로 을로 인정한다.

1905년 10월 27일

안주병참사령부 부관 육군보병중위 하타(波田海藏) (인)

이력서

본적지 : 한국 경상남도 울산군 신복리(新福里)

거주지 : 한국 경상남도 동래군 부산진 대신리(大新里)

한국주차군사령부 부 육군통역 손진원(孫震元)

1. 1904년 2월 10일 임시고용원(한국어통역)
2. 1904년 2월 10일 제1군 병참감부 부
3. 1904년 2월 28일 근위사단 제2보조수졸대에 배속
4. 1904년 6월 1일 한국주차병참감부 부
5. 1904년 9월 17일 한국주차군사령부 부
6. 1905년 8월 9일 육군통역(판임관대우) 월봉 30원

위와 상위없음을 확인함.

1905년 11월 1일

한국주차군 부관 육군보병소좌 오타와 신수케(大多和新輔) (인)

훈적명세서

훈로 병(丙) 육군통역 이범익(李範益)

위 사람은 1905년 2월 24일 한어통역으로 당 군사령부 배속을 명받아 평화 극복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조금도 태만한 모습 없이 통역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같은 해 4월 중 용산군 용지 조사에 종사해서 피차의 의지를 소통하게 하여 그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 훈적이 훈로 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

1905년 11월 1일

한국주차군 부관 육군보병소좌 오타와 신수케(大多和新輔) (인)

이력서

본적지 : 한국 한성 북서 대안동 계고리 정동 36통 41호

거주지 : 상동

한국주차군사령부 부 육군통역 이범익(李範益)

1. 1904년 8월 1일 경성병참사령부 통역
2. 1905년 2월 24일 임시통역
3. 1905년 2월 24일 한국주차군사령부 배속
4. 1905년 9월 27일 육군통역 판임관대우 월봉 35원

위와 상위없음을 확인함.

1905년 11월 1일

한국주차군 부관 육군보병소좌 오타와 신수케(大多和新輔) (인)

훈적명세서

공로 갑(甲) 육군통역 판임대우 이인식(李人植)³⁾

1904년 2월 22일 육군통역을 명받아 그날 제1군 사령부로 배속을 명받고 같은 달 29일 제1군 병참감부에 파견되어 3월 한국에 건너온 이래 3월 30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각지의 병참사령부로 출장하여 통역을 맡아 숙사의 설비, 인부의 소집 등에 분주했다. 3월 30일 군사령부로 귀환한 이후 군사령부가 봉황성에 주둔하고 있을 때까지 오로지 군헌병에 속하여 적(敵) 간첩인 한인을 취조할 때 그 심문의 통역을 했고 기타 한국 관아로 보내는 조회문의 기초 등을 맡아 면려하였다. 그 성적을 공로 갑으로 인정한다.

1905년 10월 20일

제1군 참모장 육군소장 후지이 시게타(藤井茂太) (인)

3) 이인직과 동일인물.

이력서

본적지 : 한국 경기도 음죽군(陰竹郡) 거문리(巨門里)

거주지 : 상동

육군통역 관입대우 이인식(李人植)

1. 1904년 2월 22일 육군통역(관입대우)을 명받음

2. 1904년 2월 22일 제1군 사령부 배속을 명받음

3. 1904년 6월 1일 육군통역을 면(免)함

※ 월봉 40원

위와 상위없음을 확인함.

1905년 10월 20일

제1군 참모장 육군소장 후지이 시게타(藤井茂太) (인)

훈적명세서

공로 을(乙) 육군통역 관입대우 민기호(閔岐鎬)

1904년 3월 3일 육군통역을 명받아 그날 제1군 사령부로 배속을 명받고 3월 20일 평양에 도착한 이래 한국 전진 중에 오로지 군 관리부에 속하여 사령부의 설영 및 물품의 조달, 인부의 소집 등에 분주하여 편익을 주었다. 기타 군헌병이 적 간첩인 한인을 취조할 때 그 심문의 통역을 하여 헌병의 직무 집행에도 편리를 주었다. 그 성적을 공로 을로 인정한다.

1905년 10월 20일

제1군 참모장 육군소장 후지이 시게타(藤井茂太) (인)

이력서

본적지 : 한국 기내 여흥(驪興)

거주지 : 상동

육군통역 관입대우 민기호(閔岐鎬)

1. 1904년 3월 2일 육군통역(관입대우)을 명받음

2. 1904년 3월 2일 제1군 사령부 배속을 명받음

3. 1904년 6월 1일 육군통역을 면(免)함

※ 월봉 40원

위와 상위없음을 확인함.

1905년 10월 20일

제1군 참모장 육군소장 후지이 시게타(藤井茂太) (인)

11월 15일 제2훈심발 제612호
제1군훈 제682호

1906년 11월 15일
제1군 훈적조사위원 (인)
제2훈적심사위원 어중

본월 8일부 제2 훈심발 제673호로 조회한 바 다음 사람에게 대한 봉급액을 두서와 같이 취조하여 회답함
- 하기 -

제1군 사령부 부
40원 육군통역(판임대우) 민기호
40원 육군통역(판임대우) 이인식

철감인갑 제20호

강홍대(康洪大)의 4명 서훈을 조사하고 싶다는 것에 대한 품신

훈로 갑	훈2등 서보장(瑞寶章)	(일본고등관 2등 상당) 강홍대(康洪大)
훈로 갑	훈2등 서보장(瑞寶章)	(일본고등관 2등 상당) 홍순찬(洪淳贊)
훈로 갑	훈3등 서보장(瑞寶章)	(일본고등관 3등 상당) 김윤구(金倫求)
훈로 갑	훈3등 서보장(瑞寶章)	(일본고등관 3등 상당) 최상돈(崔相敦)
훈로 갑	훈6등 서보장(瑞寶章)	(일본고등관 8등 상당) 강영우(康永祐)

위 사람들은 1904년 2월 당 임시군용철도감부가 출정하여 한국에서 철도 건설에 착수한 이래 철도용 지로서 토지의 수용, 한인 가옥의 이전 및 한인 인부의 징집 등에 조력하여 음양으로 당 감부와 한국 조정 및 한국 민중 사이에서 의지의 소통에 진력함으로써 당 부의 철도사업상 다대한 편익을 준 자들이므로 특별서훈의 조사를 하도록 품신합니다.

추가로 앞에 기재한 2명의 검찰사 및 2명의 국장은 신규 임명한 것을 첨가합니다.

1906년 2월 22일
임시군용철도감 야마네 다케수케(山根武亮) (인)
참모총장 후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귀하(殿)

훈적명세서

훈로 갑(甲) 한국 평양군수 팽한주(彭翰周)

위 사람은 1904년 3월 아군 제1군이 평양 지방에 모였을 때 평양군수였다. 본인이 그해 3월 21일 평양 병참사령관으로 명령받아, 제12사단에서 개설한 병참사령부와 교대했을 당시 매일 모여오는 한인 인부는 1,000명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부터 기진포(棋津浦) 정박장 사령부에서는 만경대(평양 하류 20리 조금 더 되는 곳)에 계속 제1군용 식량과 마초를 내려놓아 그것을 평양으로 운반해야만 했으며, 중화(中和) 방면에서는 제12사단에서 남은 식량과 마초, 그 외의 군수품을 육로로 수송해 와서 그것을 다시 순안(順安) 및 구 상원(祥原)의 두 방면으로 수송해야만 했다. 더구나 제1군 참모장으로부터 가능한 지방 수송력만으로 제1군 전부의 식량과 마초 수송을 도모해야 한다는 령이 있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식량, 마초 수송 외에 군수품의 수송도 있었으므로 하루 최소한 6천 명의 인부를 필요로 하였고, 또 수송 거리가 좋지 않은 길로 50리 남짓이어서 약 2배, 즉 1만 2천 명 이상의 인부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군수 팽한주에게 명해 평양 부근 각 촌의 인구에 따라서 과역(課役)하도록 했다. 팽한주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일몰에 이르기까지 병참사령부에서 집무하며 극히 열심히 수단을 다해 인부를 소집했다. 그래서 4, 5일 만에 1만 2천 이상의 인부를 모아 여유있게 군 참모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규율이 없는 다수의 한인 인부에게 식량과 마초를 할당하여 운반하게 하는 일이었던 바, 혼잡이 일어나기 쉬웠으므로 팽한주는 스스로 식량과 마초 집적장에 나와 인부를 지휘하여 혼잡을 없게 했다. 또 평양 주민을 설득하여 아군 숙영의 편익을 도모하거나 혹은 연도의 촌락에 도로의 수리를 부과하고, 전선(電線)의 보호를 명령하는 등 아군 제1군을 위해 진력한 훈적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한다.

1906년 10월 5일

제1군 병참사령관 후지타 세이코(藤田正喬) (인)

훈적확인서

한국 평안도 선천(宣川)군수 백락삼(白樂三)

위 사람은 러일 양국 말에 능통하여 1897년 이래 경성주차대 및 경성공사관 소속 무관의 명을 받아 제반 첩보 근무를 맡았는데, 1903년 7월 이래, 특히 재경성 러시아공사관 소속 무관의 번역관으로 은밀히 정탐하는 일을 맡아 개진 전에 러시아의 의도를 살피는데 극히 유력한 재료를 제공하였다. 1904년 2월 아군이 군사행동을 시작할 때 적정 정찰의 목적으로 2월 24일 경성을 출발하여 안주(安州), 가산(嘉山), 정주(定州) 부근에서 러시아 군대의 행동을 탐지하여 자주 유리한 보고를 아군 기병대장 등에게 보내어 아군의 작전에 편익을 주었다. 같은 해 3월 27일 이래 영변(寧邊)에 주둔하여 현지인을 사용해 러시아 군대의 동정을 탐지함과 동시에 군수품의 조달에 노력하여 병참사령관에 도움을 주었고, 4월 11일 다시 영변을 출발하여 운산(雲山)을 거쳐 창성(昌城)에 도착하여 압록강 상류 방면의 정황을 정찰하여 그 방면의 적정을 정찰, 탐지하는 데 편익을 주었다.

1904년 5월 2일 아군 제1군의 한국 안에서 작전 종료와 동시에 임무에서 벗어나 경성으로 귀환하였다. 같은 해 6월 23일 한국정부로부터 영변부 주사로 임명되었으며, 다음 해인 1905년 2월 다시 선천군수로 전임되었는데, 항상 제국에 호의를 표하며 군대의 숙박, 군수품의 조달, 전선의 보호 등 여러 업무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아군에게 막대한 원조를 주었다.

이상의 훈적이 훈공 정(丁)으로 인정한다.

※ 본적 : 한국 경성 미동(美洞) 제3동 3호

현주소 : 한국 평안북도 선천군

1905년 10월 16일

전 대본영 참모 육군보병대좌 마쓰이시 야수하루(松石安治) (인)

(메모) 한국 선천군수 백락삼의 훈장유무에 관해서는 작년 12월 1일 훈 제411호로써 상급관청에 전달하였고 훈적 서류 중 마쓰이시 대좌의 회답서에 기재하였다.

훈적명세서

훈로 갑(甲) 기 정박장사령부 고용통역 박중양(朴重陽)

위 사람은 별지 다카하시(高橋) 사령관 조사서와 같이 한국 철산(鐵山)반도 연안을 정찰했을 때에 러시아 병사가 각지에 출몰하고, 한국민의 의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던 바, 아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었는에도 박중양은 현지인을 모아서 전쟁의 목적 및 한국민이 명심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여 지방민의 의향을 정하여 아군의 행동에 편의를 주었고, 또 유사포(楡泗浦)를 정찰했을 때는 적의 감시하에 용감히 통변의 일에 복무하여 정찰에 이익을 주었다. 또 네기시(根岸) 사령관의 견인서(見認書)와 같이 용암포(龍岩浦)에서 1904년 5월 1일부터 25일까지 통역을 맡아 점령지 즉 러시아의 경영에 관련된 역사와 목재 은닉자의 취조에 종사하여 열심히 직무에 면려하였다. 그 성적을 훈로 갑으로 인정한다.

※ 본적지 : 한국 경기도 양주

현주소 : 한국 대구 남문 안

1905년 10월 16일

기 정박장사령부 부원 육군기병대위 야마다 겐지(山田健治) (인)

훈적조사서

한국어통역 박중양(朴重陽)

위 사람은 1904년 3월 24일 본직이 한국 철산(鐵山) 반도 연안을 정찰했을 때에 러시아 병사가 각지에 출몰하고, 한국민의 의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던 바, 아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었는에도 박중양은 현지인을 모아서 전쟁의 목적 및 한국민이 명심해야할 사항을 설명하여 지방민의 의향을 정하여 아군의 행동에 편의를 주었고, 또 유사포(掄泗浦)를 정찰했을 때는 적의 감시하에 용감히 통변의 일에 복무하여 경찰에 편의를 주었다.

이상의 성적이 훈로 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1905년 10월 10일

경(庚) 정박장사령관 다카하시 키시치로(高橋喜七郎) (인)

훈적명세서

박중양(朴重陽)

위 사람은 한국인으로서 일본어에 능통하여 1904년 5월 1일 고용 통역으로 명받은 이래 25일까지 통역을 맡아 용암포 점령지, 즉 러시아의 경영에 관련된 역사, 기타 목재 은닉자의 취조를 하면서 잘 명령을 받들고 열심히 그 일에 종사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편의를 주었다. 그 성적을 공로 을로 인정한다.

1904년 5월 30일

기 정박장사령관 육군보병소좌 네기시 사카에(根岸榮) (인)

〈출전 : 「韓國陸軍騎兵參令勳五等朴榮喆外二十七名叙勳及賜金ノ件」, 『叙勳』 卷4(外國人 2), 1908년 2월 26일,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 이순창(李順昌) 외 7명 서훈

한국인 이순창 외 7명 서훈의 건

위 삼가 재가를 청합니다.

1908년 2월 26일

내각총리대신 후작 사이온지 킨모치(西園寺公望) (인)

상훈국 상신 제61호, 65호 2월 26일 재가

1908년 2월 17일

내각총리대신 (인) 상훈국총재 (인)

한국인 이순창 외 7명 서훈의 건은 별지대로 의논하여 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재가를 요청합니다.

상훈의안 14호

1908년 2월 14일

상훈국 총재 (인), 서기관 (인) (인)

의정관 가 (인)(인)(인)(인)(사인)(사인)(사인)(사인)(사인)
부

의안

한국인 이순창 외 7명

위 사람들은 1904, 1905년 전역에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서훈의 건을 통감대리, 부통감에게 상주한 바에 따라 심의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전역 당시 적정 경찰에 종사하여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즉 훈등을 의의(擬議-헤아려 의논함)한 것이 다음과 같다.

(작기, 作記)	옥(旭)8등	한국인	이순창(李順昌)	
작기	옥(旭)8등	한국인	김정원(金正元)	
작기	서(瑞)8등	한국인	고운봉(高雲峯)	1909년 1월 12일 통감부 □□에서 정정 고운봉(高云奉)
작기	서(瑞)8등	한국인	강희원(康希元)	1909년 1월 12일 통감부 □□에서 정정 강희원(康熿元)
작기	옥(旭)8등	한국인	석삼봉(昔三鳳)	
작기	서(瑞)8등	한국인	한용락(韓龍樂)	
작기	서(瑞)8등	한국인	백무요(白無曜)	
작기	서(瑞)8등	한국인	김병엽(金丙葉)	

1904, 1905년 전역에 관해 한국인 이순창 이하 8명은 별지 훈적조서와 같이 공적이 현저한 자들이므로 별지 훈적명부대로 서훈하셨으면 해서 이와 같이 삼가 아뢰입니다.

1908년 1월 31일

통감대리 부통감 자작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인)

한국인 훈적열차명부

상격	관명	씨명
욱(旭)8	밀정	이순창(李順昌)
욱(旭)8	밀정	김정원(金正元)
서(瑞)8	밀정	고운봉(高雲峯)
서(瑞)8	밀정	강희원(康希元)
욱(旭)8	밀정	석삼봉(昔三鳳)
서(瑞)8	밀정	한용락(韓龍樂)
서(瑞)8	밀정	백무요(白無曜)
서(瑞)8	밀정	김병엽(金丙葉)

갑(甲) 이순창(李順昌)

(상략)⁴⁾

부 방화하고 경성(鏡城) 방면으로 물러났으므로 계속해서 북행하여 길주(吉州), 경성 방면의 적정을 정찰해 원산(元山)에서 가와카미(川上) 분관 주임에게 보고하였다. 같은 곳에 체류하며 원산 오오키(大木) 부영사의 명령을 받아 원산 이북 20리 가까이까지 적병이 남하할 때 경성에 이르는 약 100리 정도의 적병들이 주둔하는 곳을 생사를 무릅쓰고 적정을 정찰, 보고한 것이 전후 3회, 그 후 영사의 선발로 북진하던 중 함흥(咸興)에 주둔하던 제32연대장의 명령을 받아 함흥 경성간의 적정을 정탐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성진(城津)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적병 보초에게 발각되어 포박당해 한옥에 구금 중 간수병의 틈을 타 다행히 도주하여 밤낮으로 이동해서 무사히 귀환하여 상세하게 적정을 보고해 그 임무를 다했다. 그 후 1905년 3월 성진 분관의 재설치와 동시에 귀환하여 가와카미(川上) 부영사의 명을 받아 각종 적정 정찰에 노력하며 성심으로 일본군에 진력하였다.

을(乙) 성진부(城津府) 신평(新坪) 상업 김정원(金正元)

위 사람은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길주, 명천(明川), 경성 등의 적정을 보고하였는데, 4월 14일 가와카미(川上) 분관 주임으로부터 경성 방면 적정 정찰의 명을 받아 즉시 출발하여 서둘러 갔다. 마침 길주에서 러시아 병사가 남하하고 있는 것을 조우하여 성진 거류지습격의 정보를 얻어 즉시 길주를 출발하여 밤낮으로 와서 15일 새벽 거류지에 도착하여 바로 정황을 보고하여 거류민 전부를 유감없이 철수시켜 하기노 우라마루(萩之浦丸)에 편승시켜 원산으로 피난시켰다

4) 페이지 누락.

병(丙) 성진부(城津府) 신평(新坪) 상업 고운봉(高雲峯)

위 사람은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거류민 전원이 철수할 때에 이순창과 함께 거류지 가옥 및 남은 물건을 보호하고, 러시아 병사가 공격해 오자 전부를 소각하고 바로 단천(端川)을 향해 급행하여 전보를 치고자 했으나 이미 북청(北靑)으로 철수한 후였으므로 다시 북청으로 나아가서 상세한 양상을 전보를 치고 즉시 돌아와 다시 경성 방면의 적정을 정찰하고 원산에 이르러 상세하게 가와카미(川上) 분관 주임에게 보고하였다. 러시아 병사가 다시 대거 남하하자 러시아 간첩의 밀고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뇌물을 주어 간신히 빠져나와 산속으로 피난하였다. 1905년 일본군이 도착하자 병참사령부의 명령을 받아 신탄(薪炭) 인부 등 물자를 공급했다.

병(丙) 성진부(城津府) 신평(新坪) 상업 강희원(康希元)

위 사람은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가와카미(川上) 분관 주임의 명을 받아 경성을 거쳐 회령(會寧)에 이르러 적정을 정찰하고 그 상세한 적정을 경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馬) 전신국장에 의해 타진하였다. 다시 전령에 따라 경성을 출발하여 북행하는 도중 러시아 병사가 오는 것을 조우하고 그것을 전후하여 경성에 들어와 경성에서 전보를 쳤다. 이때 러시아 병사가 전신국을 습격하여 피난하였는데, 그 후 러시아 병사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보고를 위해 귀환하였으나 일본인이 전부 철수한 후였으므로 원산에 이르러 가와카미(川上) 분관 주임에게 보고했다.

갑의 갑 함경도 덕원군(德源郡) 원산리(元山里) 거주 석삼봉(昔三鳳)

위 사람은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에 능통하였고, 특히 일본어 같은 경우는 아주 교묘하여 재주가 뛰어난 인물인데, 개전 이래 우리 영사관을 위해 오로지 러시아령 포조(浦潮)에 도항하여 그 정황을 보고하고, 또 러시아군 남하의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원산에서 러시아 간첩의 정찰, 기타 각 방면에 파견한 탐정인의 고용 등에 분주히 진력하여 유효한 역할을 한 그 공적이 가장 현저한 것으로 인정한다.

갑의 을 덕원군(德源郡) 원산중리(元山中里) 장촌(場村) 거주 한용락(韓龍樂)

위 사람은 온후하고 착실한 인물로 1904년 8월부터 1905년 5월까지 포염(浦鹽) 지방에 왕래하며 정찰을 수행한 것이 3회, 그 외 러시아군 남하의 정황 시찰을 위해 단천까지 왕래한 것이 1회로 어려운 난관을 무릅쓰고 확실한 보고를 하였다. 더욱이 석삼봉에 비교하면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여러 지방에 파견한 정찰인 중 가장 뛰어난 자로서 그 노고가 현저하다.

갑의 병 덕원군(德源府) 원산중리(元山中里) 거주 백무요(白無曜)

위 사람은 1904년 7월부터 1905년 2월까지 포염(浦鹽) 지방 정황 정찰을 위해 왕복한 것이 2회로 함경

도의 러시아군 남하의 정황도 정찰해 와서 그 공로가 저명하다.

갑의 병 덕원부(德源府) 원산중리(元山中里) 장촌(場村) 거주 김병엽(金丙業)

위 사람은 1904년 7월부터 1905년 3월까지 포염(浦鹽) 지방 정황 정찰을 위해 왕복한 것이 2회로 이것 또한 전자와 같아 그 공로 저명한 것으로 한다.

기밀통발 제151호

1904, 1905년 전역에 관한 한국인 이순창 이하 8명의 서훈 상주서를 진달했습니다.

1908년 1월 31일

통감대리 부통감 자작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인)
내각총리대신 후작 사이온지 킨모치(西園寺公望) 귀하(殿)

훈전(勳戰) 제675호

1904, 1905년 전역에 관한 한국인 이순창 이하 8명은 별지 훈적서와 같이 공적이 현저하므로 상사하셨으면 해서 훈적명세서 및 열차명부를 첨부하여 이것을 이첩합니다.

1908년 1월 9일

육군대신 자작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귀하(殿)

※ 추가로 각 공적에 대해서는 열차명부에 주기한 대로 상사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출전 : 「韓國人李順昌外七名叙勳ノ件」, 『叙勳』 卷4(外國人 2), 1908년 2월 26일,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 윤갑병(尹甲炳) 외 105명 서훈 및 사금

한국검사 윤갑병(尹甲炳) 외 105명 서훈 및 사금(賜金)의 건

위에 대해서 삼가 재가를 바랍니다.

1908년 11월 7일

내각총리대신 후작 가쓰라 타로(桂太郎) (사인)

상훈국 상신 제403호 584호

1908년 11월 5일

내각총리대신 (인) 상훈국(賞勳局) 총재 (인)

한국 한국검사 윤갑병(尹甲炳) 외 105명 서훈 및 사금의 건을 별지와 같이 의논하여 정하였으므로 이
것에 대해서 재가를 바랍니다.

추가로 본건은 일반 행상의 날짜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재가 일로 시행하고 싶다는 것을 첨부하여
아웁니다.

상훈 의안 103호

1908년 11월 4일

상훈국 총재 (인), 서기관 (인) (인)

의정관 가 (인)(인)(인)(인)(사인)(사인)(사인)

부

서훈 및 사금 의안

한국검사 윤갑병(尹甲炳) 외 105명

위 사람들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육군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물자 매수, 차마인부의 징모(徵募)로부터
숙사, 마사의 설비, 기타 운수사업을 보조하거나 혹은 민심의 진무에 노력하였으며, 적정을 정찰 보고하
고, 간첩을 색출하고, 도로와 교량의 수선, 군용전신의 감시, 위생 사무를 보조하는 등 모두 그 공적이
현저하였으므로 부통감의 상주를 감사(勘査)하여 훈등 및 사금을 의의(擬議-헤아려 의논함)한 것이 다
음과 같다.

	훈등 및 사급액	관직	위	한국 훈등	제국 훈등	씨명
작기 (作記)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함경북도 관찰사 검사 (일진회 평의원)				윤갑병(尹甲炳)
서명바람	훈3등(勳3等) 육일중릉장(旭日中綾章)	구 평안북도 관찰사	중2품			이근풍(李根豐)
서명바람	훈3등(勳3等) 육일중릉장(旭日中綾章)	경무사		훈3등		서상대(徐相大)
작기	훈5등(勳5等) 쌍광육일장(雙光旭日章)	(일진회 평의원)				박혁준(朴奕俊)
서명바람	훈3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구 개성부윤		훈4등		최석조(崔錫肇)
사물 삭제	훈5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평의원)				이행민(李行敏)
작기	훈5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평의원)				김진태(金振泰)
작기	훈5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용인군수 (일진회 수송대 500인장)				고청룡(高靑龍)
작기	훈5등(勳5等) 서보장(瑞寶章)	구 단천군수 (일진회 지부회장)				유문경(劉文卿)
서명바람	훈3등(勳3等) 서보장(瑞寶章)	구 양천군수		훈3등		홍태윤(洪泰潤)
작기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구 포천, 해남군수				이해성(李海盛)
작기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구 삼화군수				이종환(李鍾煥)
작기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구 용강군수				김중중(金鍾重)
작기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구 강서군수				이우영(李宇榮)
작기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구 평안북도 가산군수				최재호(崔載浩)
작기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내부 위생국장				유맹(劉猛)
작기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구 중추원 부참의 삼화항 감리	정3품			이태정(李台珽)
작기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구 경무관				강종우(康鍾祐)
작기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구 경위원 경위국장		훈등		엄하영(嚴夏永)
작기	훈7등(勳7等) 청색동엽장(靑色桐葉章)	의주군 호적감 겸 접응감				이석기(李碩基)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함경남도 홍원군 용천시장				김기준(金基俊)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지부회장)			유창일(柳昌一)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지부회장)			최기청(崔基淸)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지부회장)			박영선(朴永善)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지부회장)			이문표(李文豹)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지부회장)			이봉율(李奉律)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명천군수 (일진회 지부회장)			윤상익(尹相翊)
사물삭제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지부회장)			김창원(金昌源)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지부회장)			이문삼(李文三)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지부회장)			안덕원(安德源)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지부회장)			한국정(韓國正)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지부회장)			안기초(安基礎)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지부회장)			김달영(金達永)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지부회장)			백운기(白雲記)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내부 경시 (일진회 지부회장)			최기남(崔基南)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황천군수 (일진회 지부회장)			한정규(韓貞奎)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지부회장)			한태훈(韓泰勳)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지부회장)			한경호(韓景昊)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함경남도 관찰사			한남규(韓南奎)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구 용강군 향장			김만현(金萬鉉)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구 평안북도 영변군 향장			명제태(明濟泰)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구 평안북도 안주군 향장			김만희(金萬熙)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구 평안북도 창성군 향장			허환(許緩)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구 초산군 향장			김치(金燉)
작기	훈8등(勳8等) 백색동엽장(白色桐葉章)	(경성군 독진(獨津))			김남일(金南一)
작기	훈8등(勳8等) 백색동엽장(白色桐葉章)	(구 육군 고용인)			이순재(李舜在)
작기	훈8등(勳8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사무원)			김병규(金炳奎)
작기	훈8등(勳8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사무원)			김몽필(金夢弼)
작기	훈8등(勳8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사무원)			최운섭(崔雲涉)
작기	훈8등(勳8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사무원)			이문화(李文化)
작기	훈8등(勳8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사무원)			한경원(韓景源)
작기	훈8등(勳8等) 서보장(瑞寶章)	(일진회 사무원)			염창순(廉昌淳)
작기	훈8등(勳8等) 백색동엽장(白色桐葉章)	구 운산군 수순교			이민후(李敏厚)
작기	훈8등(勳8等) 서보장(瑞寶章)	구 영변군 수순교			최태원(崔泰源)
작기	훈8등(勳8等) 서보장(瑞寶章)	구 평안남도 안주군 서기			이식영(李寔永)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한규석(韓圭錫)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심기일(沈基一)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김복룡(金福龍)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송병철(宋丙喆)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이도현(李道憲)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박주백(朴周伯)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이기현(李基憲)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방용갑(方容甲)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김택호(金澤鎬)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내부경시			김해룡(金海龍)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부령군수				이근양(李根陽)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박승봉(朴昇鋒)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김송섭(金宋燮)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윤상익(尹相益)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남진학(南鎭學)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최원중(崔元仲)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원광학(元光學)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최기륜(崔基崙)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김재호(金在浩)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박연창(朴淵昌)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박승룡(朴承龍)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김두학(金斗學)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안치경(安致敬)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황한오(黃漢伍)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박봉루(朴鳳樓)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최영락(崔永洛)
작기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강익보(姜翼甫)
사물 삭제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차병혁(車秉赫)
동상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이병문(李炳文)
동상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김경운(金景允)
동상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황봉익(黃鳳翼)
동상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박증필(朴曾弼)

동상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이계삼(李啓三)
동상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이윤희(李允化)
동상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김창순(金昌淳)
동상	훈7등(勳7等) 서보장(瑞寶章)	(경편철도 고용인)				강열희(姜悅熙)
서명바람	훈2등(勳2等) 서보장(瑞寶章)	육군무관학교장 육군참장		훈2등	훈4등	이희두(李熙斗)
	700원	군부 군무국장 육군보병부령		훈3등	훈4등	조성근(趙性根)
	700원	육군포병정령		훈3등	훈4등	어담(魚潭)
작기	훈4등(勳4等) 욱일소릉장(旭日小綾章)	육군보병정령		훈5등	훈6등	노백린(盧伯麟)
작기	훈5등(勳5等) 서보장(瑞寶章)	육군보병정위				김태원(金泰元)
작기	훈5등(勳5等) 서보장(瑞寶章)	육군보병정위				유강렬(劉康烈)
작기	훈5등(勳5等) 서보장(瑞寶章)	육군보병정위				유철영(柳哲永)
작기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육군보병참령				신우균(申羽均)
작기	훈6등(勳6等) 단광욱일장(單光旭日章)	육군2등군사				장기원(張琪遠)
작기	훈6등(勳6等) 단광욱일장(單光旭日章)	육군보병부위				황학수(黃學秀)
작기	훈6등(勳6等) 서보장(瑞寶章)	육군보병참위				장태진(張泰鎭)
작기	훈6등(勳6等) 서보장(瑞寶章)	(군부 부속) 육군보병참위				박동원(朴東元)
작기	훈6등(勳6等) 단광욱일장(單光旭日章)	(군부 부속) 육군보병부위				유기성(柳冀聖)
작기	훈6등(勳6等) 서보장(瑞寶章)	(군부 부속) 육군보병참위				이범승(李範承)
작기	훈6등(勳6等) 단광욱일장(單光旭日章)	(군부 부속) 동 포병정위				권승록(權承錄)

기밀통발 제306호

1904, 1905년 전역에 관해서 한국인 윤갑병 이하 106명 서훈 상사 상주서를 진달합니다. 그리고 이들

은 별지의 육군대신 이첩서사와 같이 동 대신으로부터 각각 의서(임시 서훈)를 붙여 당부에 이첩한 바 그 관직에 대해서 의서가 너무 낮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경정하여 상주서의 부속 명부와 같이 개서하고 또 육군대신 이첩서 중에 있는 함경남도 함흥군수 조병교, 궁내부 특진관 신기선 및 군수 이영식은 별도의 서훈 상주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삭제하고, 그 외는 모두 육군대신의 의견과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이와 같이 삼가 아뢰입니다.

1908년 3월 6일

통감 대리 부통감 자작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내각총리대신 후작 사이온지 킨모치(西園寺公望) 귀하(殿)

1904, 1905년 전역에서 한국인 윤갑병 이하 106명은 별책의 훈적명세서와 같이 공적이 현저한 자들이므로, 별지의 훈적명부대로 서훈하고 상을 내릴 것을 분부하셨으면 해서 이와 같이 삼가 아뢰입니다.

1908년 3월 6일

통감대리 부통감 자작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한국인 추가훈적 명부

상사	위훈 공작	관	씨명
서4(瑞四)		검사, 일진회 평의원	윤갑병(尹甲炳)
육3(旭三)	종2품	평안북도 관찰사	이근풍(李根豊)
육3(旭三)	훈3	경무사	서상대(徐相大)
육5(旭五)		일진회 평의원	박혁준(朴奕俊)
서3(瑞三)	훈4	한국 개성부윤(일 고등관3등)	최석조(崔錫肇)
서5(瑞五)		일진회 평의원	이행민(李行敏)
서5(瑞五)		일진회 평의원	김진태(金振泰)
서5(瑞五)		일진회 수송대 500인장	고청룡(高靑龍)
서5(瑞五)		일진회 지부회장	유문경(劉文卿)
서3(瑞三)	훈3	양천군수(일 고등관 4등)	홍태윤(洪泰潤)
서4(瑞四)		포천군수, 현재 해남군수(일 고등관7등)	이해성(李海盛)
서4(瑞四)		삼화군수(일 고등관 7등)	이종환(李鍾煥)
서4(瑞四)		용강군수(일 고등관 8등)	김종중(金鍾重)
서4(瑞四)		강서군수(일 고등관 8등)	이우영(李宇榮)
서4(瑞四)		평안북도 가산군수	최재호(崔載浩)
서4(瑞四)		평북 안주군수, 현 내부 위생국장(일 고등관 2등)	유맹(劉猛)
서4(瑞四)	정3품	한국 삼화항 감리(일 고등관 6등)	이태정(李台珽)
서4(瑞四)		경무관	강종우(康鍾祐)

서4(瑞四)	훈4	경무관, 경위국장	엄하영(嚴夏永)
육7(旭七)		의주군 호적감 겸 접응감	이석기(李碩基)
서7(瑞七)		함경남도 흥원군 용천사장	김기준(金基俊)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유창일(柳昌一)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최기청(崔基淸)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박영선(朴永善)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이문표(李文豹)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이봉율(李奉律)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윤상익(尹相翊)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김창원(金昌源)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이문삼(李文三)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안덕원(安德源)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한국정(韓國正)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안기초(安基礎)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김달영(金達永)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백운기(白雲記)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최기남(崔基南)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한정규(韓貞奎)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한태훈(韓泰勳)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한경호(韓景昊)
서7(瑞七)		일진회 지부회장	한남규(韓南奎)
서7(瑞七)		용강군 향장	김만현(金萬鉉)
서7(瑞七)		평안북도 영변군 향장	명제태(明濟泰)
서7(瑞七)		평안북도 안주군 향장	김만희(金萬熙)
서7(瑞七)		평안북도 창성군 향장	허환(許緩)
서7(瑞七)		초산군 향장	김치(金燉)
육8(旭八)			김남일(金南一)
육8(旭八)			이순재(李舜在)
서8(瑞八)		일진회 사무원	김병규(金炳奎)
서8(瑞八)		일진회 사무원	김몽필(金夢弼)
서8(瑞八)		일진회 사무원	최운섭(崔雲涉)
서8(瑞八)		일진회 사무원	이문화(李文化)
서8(瑞八)		일진회 사무원	한경원(韓景源)
서8(瑞八)		일진회 사무원	염창순(廉昌淳)
서8(瑞八)		운산군 수순교	이민후(李敏厚)
서8(瑞八)		영변군 수순교	최태원(崔泰源)
서8(瑞八)		평안남도 안주군 서기	이식영(李寔永)
서7(瑞七)			한규석(韓圭錫)

서7(瑞七)			심기일(沈基一)
서7(瑞七)			김복룡(金福龍)
서7(瑞七)			송병철(宋丙喆)
서7(瑞七)			이도헌(李道憲)
서7(瑞七)			박주백(朴周伯)
서7(瑞七)			이기헌(李基憲)
서7(瑞七)			방용갑(方容甲)
서7(瑞七)			김택호(金澤鎬)
서7(瑞七)			김해룡(金海龍)
서7(瑞七)			이근양(李根陽)
서7(瑞七)			박승봉(朴昇鋒)
서7(瑞七)			김송섭(金宋燮)
서7(瑞七)			윤상익(尹相益)
서7(瑞七)			남진학(南鎭學)
서7(瑞七)			최원중(崔元仲)
서7(瑞七)			원광학(元光學)
서7(瑞七)			최기륜(崔基崙)
서7(瑞七)			김재호(金在浩)
서7(瑞七)			박연창(朴淵昌)
서7(瑞七)			박승룡(朴承龍)
서7(瑞七)			김두학(金斗學)
서7(瑞七)			안치경(安致敬)
서7(瑞七)			황한오(黃漢伍)
서7(瑞七)			박봉루(朴鳳樓)
서7(瑞七)			최영락(崔永洛)
서7(瑞七)			강익보(姜翼甫)
서7(瑞七)			차병혁(車秉赫)
서7(瑞七)			이병문(李炳文)
서7(瑞七)			김경운(金景允)
서7(瑞七)			황봉익(黃鳳翼)
서7(瑞七)			박증필(朴曾弼)
서7(瑞七)			이계삼(李啓三)
서7(瑞七)			이운화(李允化)
서7(瑞七)			김창순(金昌淳)
서7(瑞七)			강열희(姜悅熙)
서2(瑞二)	훈2 일본육4	육군참장	이희두(李熙斗)
700	훈2 일본육4	육군보병부령	조성근(趙性根)
700	훈3 일본육4	육군포병부령	어담(魚潭)

육4(旭四)	훈5 일본육6	육군보병부령	노백린(盧佰麟)
서5(瑞五)		육군보병정위	김태원(金泰元)
서5(瑞五)		육군보병정위	유강렬(劉康烈)
서5(瑞五)		육군보병정위	유철영(柳哲永)
서4(瑞四)		육군보병참령	신우균(申羽均)
서6(瑞六)		육군2등군사	장기원(張琪遠)
서6(瑞六)		육군보병부위	황학수(黃學秀)
서6(瑞六)		육군보병참위	장태진(張泰鎭)
서6(瑞六)		육군보병참위	박동원(朴東元)
서6(瑞六)		육군보병부위	유기성(柳冀聖)
서6(瑞六)		육군보병참위	이범승(李範承)
서6(瑞六)		육군보병참위	권승록(權承錄)

사(寫)

훈심발(勳審發) 제3348호

1904, 1905년 전역에 관해서 함경남도 함경군수 조병교(趙秉敎) 이하 109명은 별지 훈적서와 같이 공적이 현저한 자들이므로 상사하는 것이 당연하니 조치해 주셨으면 하고 훈적명세서 및 열차명부(列次名簿)를 첨부하여 이것을 이첩합니다.

1907년 12월 27일

육군대신 자작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 귀하(殿)

※ 추가로 각 공적에 대해서는 열차명부에 주기한대로 상사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 훈적명세서

훈적조사서

함경남도 함흥군수 정3품 훈4등 조병교(趙秉敎)

위 사람은 1905년 5월 함흥군수로 부임한 자로 전임 병참사령관으로부터도 아군을 위해 열심히 진력했다고 들었다. 7월 6일 본직 부임 이래 계속해서 비가 내려 도로와 교량이 누차 파손되었는데 향장(鄕長)을 독려해 바로 수복하고 수선하여 아군 군대의 통과, 군수품의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였고, 특히 식량과 마초를 4회나 크게 수송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령을 받들어 스스로 출장하여

향장, 순검을 독려해 열심히 진력하여 유감이 없게 수송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대개 한인에게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크고 작은 일 가리지 않고 군수에게 명령하였는데 추호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고 금일에 이르기까지 숙사 수선, 전주(電柱) 기부, 기타 아군을 위해 특별히 사용한 돈을 조사하였더니 740월에 달했으며, 사령부에는 순검 3명을 항상 출장하게 하여 아군의 급한 일에 편익을 준 것은 그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한다.

1905년 10월 4일

함흥병참사령관 육군보병대위 니노미야 지로(二宮次郎)

훈적조사서

함경남도 함흥군수 조병교(趙秉敎)

위 사람은 1905년 3월 함흥에 도착한 이래 일본군대를 위해 진력한 것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 1905년 5월 후비 제2사단이 북진할 때, 같은 해 6월 후비 보병 제16여단이 북진할 때, 숙사의 배당 및 송영(送迎)에 대해 크게 호의로써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 그래서 아군이 편익을 얻은 일이 적지 않았다.
- 관할 내 도로와 교량을 수선하여 군대가 행진하는데 크게 편리를 주었다.
- 관리 및 인민을 설유하여 일본군을 위해 진력하고, 노동을 장려하였다. 이를 위해 피난자들을 남김없이 복귀시키고 또 일본군을 위해 운반력을 얻는 편익을 주었다.
- 군정 집행에 대해 보조가 적지 않았다. 또 적정 경찰에 대해 조력하여 적절한 편익을 얻었다.

이상의 동작은 아군을 위해 도움을 준 것이 적지 않으므로 그 공적이 현저하여 훈공으로 인정한다.

1905년 7월 5일 함흥에서

제4사단 제1병참사령관 우노 시게키(宇野重喜)

훈적조사서

한국 경성(京城) 서서(西署) 반석방(盤石坊) 치동(治洞) 18통 9호

평안북도 관찰사 종2품 이근풍(李根豊)

위 사람은 1905년 4월 2일 착임 이래 열심히 아군을 위해 진력하였고 더욱이 수비대같은 국민병에 대해서는 동정을 표하여 때때로 와서 위무하고, 또 군인과 군속 등을 시켜 순시하거나 혹은 통행할 때에는 숙박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위문하여 편익을 도모하였다. 또한 군대의 물자 매수에 관해서는 그 지방 관리에게 명령하여 편익을 주고, 특히 9월중 압록강 군병참 양향부(糧餉部)의 생우(生牛) 매수에 관해서는 각 군(郡)에 명령하여 요구에 응할 수 있게 하여 신속히 공급을 할 수 있었다.

- 6월 중부터 청령(靑寧)선 철도공사 인부 징집에서도 각 군에 명하여 출역(出役)을 독려하여 다수의 인부를 내게 했다.

- 5월 및 9월 중순 러시아병 습격 시 적정에 관해 각 군수로부터 보고가 있을 때는 크든 작든 스스로 와서 보고하게 하여 강계(江界) 및 초산(楚山) 방면의 경계에 대해서는 크게 편익을 주었다.

이상은 아군을 위해 진력한 것으로 공로로 인정한다.

1905년 10월 22일

영변(寧邊)수비대장 육군보병소위 이나 몬키치(伊奈紋吉)

훈적조사서

서상대(徐相大)

1905년 5월 20일 사단이 임명(臨溟)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북관(北關)지대에 배속되어 응접의 사무에 종사했다. 사단이 집중하고 병력이 증가함에 의해 응접사무가 더욱 번잡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잘 대응하여 아군에 편익을 주었다. 사단이 장차 경성(鏡城) 점령의 길에 오르려고 하자 접응관 홍순욱(洪淳旭)은 군수로서 영흥에 있고, 접응위원 이영식(李永植)은 군수 겸 감리로서 성진(城津)에 있어, 각각 일이 있어 사단을 따라 북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접응관의 유무는 사단 행동에 크게 관련이 있으므로 사단은 서상대로 하여금 응접의 사무를 맡게 하여 6월 9일 그를 전위에 파견함과 함께 전진시키니 서상대는 연도의 민심을 진무하고, 차마역부의 공급에 있는 힘을 다하고, 사단에 보급의 길을 확실히 하는 점에서 크게 공이 있었다. 경성 점령 후 전 관찰사 이운재(李允在)는 이미 면직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수(印綬)를 차고 러시아군을 위해 진력함에 따라 그를 거두어서 서리(임시) 관찰사를 명하도록 해서 경성군수 심만택(沈晩澤)에게 교부하도록 했으나, 정부의 명령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인물이 노둔해서 도저히 관찰사로서 아군의 행동을 편하게 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 경성에서 새로 임명된 관찰사 윤충구(尹忠求)는 부임을 달가와 하지 않아서 이에 사단은 서상대를 천거하여 서리 관찰사로 삼았다. 7월 25일 사단이 부령(富寧) 부근에 진군했는데 폭우를 만나 아주 곤란했을 때부터 회령을 점령하고 평화조약의 비준에 의해 사단이 한국을 떠날 때까지, 어떤 때는 전위로 행동하고, 어떤 때는 사단사령부에 있으면서 시종일관 인마(人馬), 차량, 가교, 재료, 연료 등의 공급에 힘쓰고, 또 간첩을 잡아내어 첩보근무에 이바지하는 등 그가 일본군에 수행한 바 공적이 크다. 그래서 이에 특별히 그것을 보고한다.

1905년 10월 18일

후비 제2사단장 육군중장 미요시 시게유키(三好成行)

훈적조사서

함경남도 관찰사 신기선(申箕善)

위 사람은 1905년 4월 함흥에 도착한 이래 일본 군대를 위해 진력한 것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 1905년 5월 후비 제2사단이 북진할 때, 같은 해 6월 후비 보병 제16여단이 북진할 때, 숙사의 배당 및 송영에 대해서 크게 호의로써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 그래서 아군이 편익을 얻은 일이 적지 않

았다.

- 관할 내 도로와 교량을 수선하여 군대가 행진하는데 크게 편리를 주었다.
 - 관리 및 인민을 설유하여 일본군을 위해 진력하고, 노동을 장려하였다. 이를 위해 피난자들을 남김없이 복귀시키고 또 일본군을 위해 운반력을 얻는 편익을 주었다.
 - 군정 집행에 대해 보조가 적지 않았다. 또 적정 경찰에 대해 조력하여 적절한 편익을 주었다.
- 이상의 동작은 아군을 위해 도움을 준 것이 적지 않으므로 그 공적이 현저하여 훈공으로 인정한다.

1905년 7월 5일

제4사단 제1병참사령관 우노 시게키(宇野重喜)

훈적조사서

일진회(一進會) 평의원 박혁준(朴奭俊)

위 사람은 일진회 간첩 주임으로 올해 3월 북관(北關)지대 당시부터 사단이 임명(臨溟)에 집중한 후에 계속해서 최종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8개월간 시종 열심히 면려하여 아군의 요구에 응해 간첩에 적임인 일진회 회원을 추천한 것이 전후 50여 명, 그 사용 총 횟수 100회를 넘어 그 성적이 양호하여 아군의 첩보 근무에 이바지 한 것이 크다는 것을 확인한다.

1905년 10월 20일

후비 제2사단 참모장 오바 니로(大庭二郎)

훈적조사서

한국 개성부윤 최석조(崔錫肇)

위 사람은 1905년 7월 본직이 개성병참사령관 겸장(兼掌) 이래 군사 행동상 성실하고 열심히 종사하여 추호도 태만하지 않고, 우기(雨期) 후 도로와 교량의 파괴가 특히 많았는데 곧 수선을 하였고, 그중에서도 개성시 도로와 교량의 파괴에 대해서는 부민에게 명해도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수선을 게을리 하였는데, 그런 경우에 부윤은 사비를 들여 수선을 하여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한 일, 인마 공급 등에 그 명을 잘 복명하여 실행하게 한 것, 개성부 위생에 대해서는 스스로 솔선하여 부민을 장려하고 위생회비로써 한국돈 100원을 기부하였고, 또 여름의 혹렬한 더위에는 누차 얼음덩어리를 병참부에 보내서 수비대 기타 일반인도 갈증에 조처할 수 있도록 한 것 등 부윤이 아군 군대에 도움을 준 것이 적지 않아 그 공적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한다.

1906년 1월 22일

구 개성병참사령관 요시다 미쓰치카(吉田充親)

훈적조사서

이영식(李永植)

1905년 5월 20일 사단이 임명(臨溟)에 도착했을 때, 접응위원으로서 성진(城津)군수 및 감리를 겸하며 성진에 있었다. 사단이 집중하고 병력이 증가함에 따라 응접의 사무, 차마 물자의 공급이 더욱 번잡해졌는데 열심히 일을 잘 처리하였다. 사단이 장차 경성 점령의 길에 오르려고 하자 임명은 병참의 가장 중요한 곳이 되어 군수의 직무를 하루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 머물러 병참감으로 응접하였다. 이후 더욱 면려하여 아군에게 힘을 쏟은 바 공적이 크다. 그래서 특히 이를 보고한다.

1905년 10월 18일

후비 제2사단장 육군중장 미요시 시게유키(三好成行)

1905년 10월 20일

한국주차군 동부병참감 세나 요시토시(瀨名義利)

한국주차군 사령관 남작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귀하(殿)

이영식(李永植)

1905년 5월 27일 후비 제2사단 병참 설치 이래 접응위원으로서 성진군수 및 감리를 겸장하여 임명 혹은 성진에서 물자의 공급, 지방운반, 재료의 징집에 노력하고 병참업무에 다대한 편익을 주어 아군을 위해 공헌한 것이 적지 않다. 이에 보고한다.

훈적조사서

경성(京城) 남서(南署) 회동(會洞) 거주 이영식(李永植)

위 사람은 1905년 6월 아군이 원산 방면으로 북진하자 현재 영흥군수인 홍순옥은 일본진북군 접응관으로서 특히 한국 조정에서 3품 봉사(奉仕)의 인수를 받아 그 북진군에 종속을 명받았는데 이영식은 다른 동료 2명과 접응위원을 명받았다. 그런데 다른 동료 2명 중 1명은 위원의 명을 받았지만 이름뿐으로 경성을 출발하지 않았고, 다른 1명도 원산까지 북진하자 곧 사퇴해 버려서 홍순옥 접응관과 위원 이영식만 잔류하여 접응의 일을 맡았다. 같은 해 8월 아군이 전진함에 따라 이영식은 아군의 최전위 부대에 수행하여 민정을 탐색해서 지방의 위무에 노력하고, 군사 도로 및 전선의 수축에 진력하거나 혹은 군대 숙영과 군수품 징발을 알선하는 등 주야로 열심히 뛰어다녔다. 아군이 함흥을 점령하여 그 지방에 주둔하여 함경도에 군정을 시행하자 접응관인 홍순옥이 영흥군수로 임명되었으므로 이영식은 그 접응관 대변인으로 함흥에 있으면서 오로지 접응의 사무에 종사하며 한국 지방 관민을 지도하여 아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진력했다. 계속해서 1905년 2월 아군이 함흥을 출발하여 다시 북진할 때에는 제1연대와 함

께 먼저 출발하여 지방 관민을 타이르고 지도하여 직간접적으로 아군의 군사 행동에 편익을 도모하였다. 성진에 도착하자 성진은 러시아군이 오랫동안 근거지로 하였던 지방이라 관리는 러시아군과 함께 도망하거나 혹은 행방을 감추어서 인민들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떼의 모습과 같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민심을 잘 진무하고 질서를 회복하여 아군의 군사 행동에 다대한 공헌을 하였다. 더욱이 2월 27일 아군 군정관으로부터 성진 감리 및 성진군수를 명받은 이래 시종일관 한편으로는 감리 겸 군수로서, 한편으로는 일본군 접응관 대변인으로서 주야 열심히 분주하게 진력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인민에 대해서는 선정을 펴서 덕망이 높고, 아군에 대해서는 열심히 알선하여 아군 군사 행동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그 공적 수훈자로 인정한다.

1905년 6월 13일

한국주차헌병대 함경도 과견 헌병장교 육군헌병중위 수기이치 료헤이(杉市郎平)

훈적조사서

한국 양주(楊州)군수 홍태윤(洪泰潤)

위 사람은 1904년 5월 양주군 의정부(議政府)촌에 병참사령부 출장소를 개설할 때에 홍군수는 일한협약의 요의를 잊지 않고 마음에 두어, 일본은 교전의 일을 맡고, 한국은 이를 방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널리 부근의 인민에게 타이르고, 또 그 지역에 가서는 조용히 혼시하고 스스로 약간의 돈을 내어 촌민을 위무하고 토지와 가옥을 깨끗이 해서 숙사를 제공하였는데, 그때 마침 우기에 들어가 농가가 바쁜 때라서 인마를 사용하기 어려운 때였으므로 군서기와 촌리 등을 시켜 수송 인마를 공급하여 업무를 보조하였다. 또 도로가 변해서 하천으로 되거나 혹은 질퍽한 것이 심해서 교통이 두절되려고 할 때 신속하게 도로를 개수하고 교량을 가설하며, 자주 현지에 출장해서 현지인을 독려하고 산비탈을 개수하여 야포가 지날 수 있는 좋은 길로 만들어서 군사 행동상 장애가 없도록 하였고, 그 경비 같은 것은 지방의 부담으로 하여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수송비의 약간을 줄일 수 있었다. 또 경원(京元)간에 전신이 설치될 때 신속하게 전신주의 매수 및 배치를 하는 데에 주야로 일을 독려하여 빨리 끝마치게 하였다. 또 청나라 봉황성(鳳凰城) 방면에서 제1군의 식량과 마초 수송이 곤란하여 인부를 모집할 때 한국의 조야가 반항했는데도 그 사이에서 조화를 잘 도모하였으며, 각지에서 불온한 움직임이 일어나도 관내를 잘 진무해서 병참업무에 조금의 지장도 생기지 않게 한 것은 군수의 힘이 매우 크다. 이상의 공적이 훈공 을이라고 확인한다.

1904년 10월 30일

경성병참사령관 육군보병대위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훈적조사서

한국 포천(抱川)군수 이해성(李海盛)

위 사람은 1904년 5월 경원(京元) 간에 병참선을 설치하고 포천에 지부를 설치할 때에 진력한 것이 적지 않았다. 특히 토지의 청결, 숙사 공급, 수송의 업무, 도로 개수, 전신 설치 및 그것을 보호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인민을 잘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감수하여 일에 종사하거나 또는 보조하게 하였으며, 몸소 그 일을 하거나 또는 선임 서기를 파견하여 독려해서 도로 같은 경우 야포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개수하여 군사행동상 크게 편익을 주었다. 그 공적이 현저해서 훈로 병으로 확인한다.

1904년 10월 30일

경성 병참사령관 육군보병대위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훈적조사서

삼화(三和)군수 이종환(李鍾煥)

위 삼화군수는 진남포(鎭南浦)를 관할하여 당 부의 업무와 시종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운반, 재료의 징수, 도로의 수선, 숙사의 공급 등 타군에 비해 동관의 손을 거치는 것이 많았다. 그런데 동관은 본직의 의도를 잘 헤아려 부하를 독려하여 실행에 힘써서 군사 행동에 도움이 된 것이 적지 않았다. 그 훈적이 훈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1905년 10월 16일

진남포병참사령관 육군기병소좌 다카하시 키시치로(高橋喜七郎)

훈적조사서

용강(龍岡)군수 김중중(金鍾重)

용강(龍岡)군 향장 김만현(金萬鉉)

위의 두 사람이 아군을 위해 힘쓴 공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파손이 있을 때는 거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수선에 착수하고 또 전신보호를 위해 아군 감시병을 두는 것처럼 군에서 감시자를 파견시켰다.
2. 군대가 통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숙사를 준비하고 할당을 정해서 집마다 숙사 인원을 표시하고, 또 미리 빨감, 약 등을 모아서 급할 때의 소용에 도움이 되는 등 그 처치는 거의 내지 관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다.
3. 인부의 모집, 그 외 운반, 재료의 징수 등이 있을 때는 스스로 관내를 분주하게 다니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군의 요구를 항상 충족시켰다.
4. 군마용 건조의 채취를 명하자 다른 군대에 비해서 술선수범하여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아군의 요

구를 충족시켰다.

이상과 같이 용강군의 아군에 대한 행위가 아주 우수한 것은 군수 및 향장이 성의로 아군의 명령을 준봉하고 심신을 다한 결과이다. 아군의 군사 행동에 도움을 준 그 공적은 훈로 이상이라고 인정한다.

1905년 10월 16일

진남포병참사령관 육군기병소좌 다카하시 키시치로(高橋喜七郎)

훈적조사서

강서(江西)군수 이우영(李宇榮)

위 사람은 작년 한국주차군 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현직에 부임한 이래 본직 및 강서지부장의 명령을 잘 준봉하여 관내에서 도로의 수선, 전신선의 감시를 맡고, 또 군대가 통과할 때에는 지부장의 의도를 받들어 숙사의 공급과 운반, 재료의 징집에 노력하여 그 처치는 군대 행동에 큰 이익을 주었다. 이에 그 공적 훈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1905년 10월 16일

진남포병참사령관 육군기병소좌 다카하시 키시치로(高橋喜七郎)

훈적조사서

한국 평안북도 가산(嘉山)군수 최재호(崔載浩)

위 사람은 올해 3월 본직 부임 이래 숙사 및 물자 운반, 재료의 징발, 군용 전선의 감시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고 돈독하게 노력하고 또 병참도로의 수선 및 군용철도 시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의 공급을 알선하는 등 아군의 군사 행동에 관해서 여러 편익을 준 것은 그 공로가 다대하다고 인정한다.

1905년 10월 5일

안주(安州)병참사령부 가산지부장 후쿠쥬 사부로(福壽三郎)

훈적조사서

평안남도 안주(安州)군수 유맹(劉猛)

1905년 7월 6일 안주군수로 홀로 당지에 착임한 이래 관하의 관민을 잘 계도하고, 물자의 공급 및 수송, 재료의 응모 등 당 사령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특히 경의철도 청령선(淸寧線) 기공에 임해서는 안주군에서 1,200명의 인부를 출역하여 그 공사를 신속히 진척시켰다. 그래서 아군의 행동에 대해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다.

1905년 10월 25일

안주병참사령관 니오(仁尾將)

훈적조사서

한국 삼화항(三和港) 관리 정3품 이태정(李台琹)

위 사람은 작년 11월 당 항구에 착임한 이래 성심껏 본직의 명령을 잘 따라서 도로의 수선, 운반, 재료 및 숙사의 공급 등에 진력하였다. 온순하고 몽매한 지방군수를 불러서 아군의 군사행동의 요지를 설명하여 본직의 명령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그 행위가 크게 아군의 군사 행동에 편익을 준 자로서 그 공적이 훈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1905년 10월 16일

진남포(鎭南浦)병참사령관 육군기병소좌 다카하시 키시치로(高橋喜七郎)

훈적조사서

한국 경무관 강종우(康鍾祐)

위 사람은 1904년 2월 19일 아군 군대 접대위원으로 당부에 파견되어져 당시 제12사단이 경성에 집중하려고 할 때였으므로 병참 숙사 준비로 아주 다망한 때 주로 마포(麻浦) 동막리(東幕里), 공덕리(孔德里), 현석리(玄石里) 방면의 숙사 정찰에 종사하여 고집 세고 어리석은 인민을 타일러서 숙사를 공급하게 하고, 한국 황제폐하께서 임시로 마방을 설치해서 아군에 공급하게 하자 그 설비에 분주하여 업무의 진행에 적지 않은 편익을 제공했다. 그 훈공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증한다.

1904년 11월 6일

경성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훈적조사서

한국 경무관 엄하영(嚴夏永)

위 사람은 1904년 2월 19일 아군 군대 접대위원으로 당부에 파견되어져 당시 제12사단이 경성에 집중하려고 할 때였으므로 병참 숙사 준비로 아주 다망한 때 주로 마포(麻浦) 동막리(東幕里), 공덕리(孔德里), 현석리(玄石里) 방면의 숙사 정찰에 종사하여 고집 세고 어리석은 인민을 타일러서 숙사를 공급하게 하고, 한국 황제 폐하께서 임시로 마방을 설치해서 아군에 공급하게 하자 그 설비에 분주하여 업무의 진행에 적지 않은 편익을 제공했다. 그 훈공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증한다.

※ 주소 : 경성 서서(西署) 인달방(仁達坊) 수성궁(壽城宮) 계남(契南) 정현동(征峴洞) 64동 2호

1904년 11월 6일

경성 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훈적조사서

한국 의주군 호적감 겸 접응감 이석기(李碩基)

위 사람은 1904년 11월 의주군 향장에 임명되고 또 1905년 1월 접응감을 겸임한 이래 아군 군대에 기여한 편익이 적지 않다. 특히 올해 3월 압록강 해빙으로 병참사령부에 정채된 수많은 군수품의 수송에 임해서는 그 명령을 잘 받들어 아주 열심히 인부, 짐, 소, 말 등의 수집에 분주하고 혹은 밤낮으로 비바람을 무릅쓰고 인부를 지도하여 수송을 신속하게 하는 수단을 채택하였다.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조금의 지체없이 수송에 종사하였다. 또한 올해 6월 향장을 그만두고 호적감을 명령받았음에도 접응감을 겸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곤란함을 무릅쓰고 대소사를 불문하고 성의껏 우리 군대에 다대한 편익을 주었다. 그 성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 원적 : 한국 평안북도 의주군 송장면(松長面) 송산동(松山洞) 제150통 3호

1905년 10월 20일

의주병참사령관 육군보병대위 미야케 나오토시(三宅直利)

이력서

- 1885년 정월 양하진(揚下鎭) 별장에 임명
- 10월 체임(遞任)
- 1885년 12월 안민고(安民庫) 도감(都監)에 임명
- 1886년 10월 체임
- 1886년 10월 대동고(大同庫) 도감으로 이임
- 1888년 체임.
- 10월 주사(州司) 도감으로 이임
- 1889년 10월 체임
- 1890년 10월 수검(搜檢)도감으로 이임
- 1891년 3월 체임
- 1891년 11월 공방향소(工房鄕所)에 임명
- 1892년 10월 체임
- 10월 주사도감으로 이임
- 1893년 10월 체임
- 10월 사창(司倉) 도감으로 이임
- 1894년 10월 체임
- 10월 관청도감으로 이임
- 1895년 6월 체임
- 1895년 9월 송장면(松長面) 면장에 임명
- 1896년 2월 체임

- 1903년 2월 송장면 향약유사에 임명
- 1904년 9월 체임
- 1904년 11월 의주군 향장에 임명
- 1905년 1월 접응감 겸임
- 1905년 5월 향장 체임
- 1905년 5월 호적도감으로 이임

훈적조사서

함경남도 홍원(洪原)군 용천(龍川)사장 김기준(金基俊)

위 사람은 1905년 2월 20일 함흥 병참사령부 평포(平浦)지부 개설 이래 그 직에 있는데 성품이 온후하고 독실하여 지부의 명령을 잘 받들어 물자, 차량, 짐, 말, 인부의 징발 같은 관구내의 각사(各社)의 사장(社長) 및 중개인들을 독려하여 신속하게 그 수요에 응하였다. 도로, 교량, 전선 등을 끊임없이 순시하여 파손된 곳은 인민을 독려하여 그 개수공사를 시행하였다. 특히 올해 2월 후비 제2사단 및 6월 후비보병 제16여단이 북진하려고 통과할 때에는 거의 침식을 잊고 전심으로 차량, 인부, 물자 등의 징발에 응하여 조금의 유감도 없게 하고, 기타 아군 군대의 통행 및 군수품의 수송을 용이하게 한 그 공로가 적지 않음은 평포지부장의 상세한 보고에 의해 사실로 인정한다.

1905년 10월 4일

함흥병참사령관 육군보병대위 니노미야 지로(二宮次郎)

훈적조사서

한국 평안북도 영변(寧邊)군 읍내(邑內)면 구아(舊衙)리 영변군 향장 명제태(明濟泰)

위 사람은 1904년 9월 향장에 임명된 이래 열심히 군대를 위해 진력하였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군수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군수대리로서 도로, 교량 등의 개축을 하였으며, 또 수송에 임해서는 인민의 공급에 응하여 편익을 도모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했다. 진실로 아군을 위해 열심히 진력한 공로자로 인정된다.

1905년 10월 15일

영변수비대장 육군보병소위 이나 몬키치(伊奈紋吉)

훈적조사서

한국 평안남도 안주(安州)군 향장 김만희(金萬熙)

위 사람은 1904년 12월 20일 향장의 직위에 취임한 이후 군수를 도와 아군 군대를 위해 필요한 물자 수송, 재료 및 도로, 교량의 개수 등에 진력하였고, 올해 6, 7월 신규 군수 교대로 군수가 부재 중이었으

므로 일시 군무(郡務)를 처리하였는데 아주 열심히 하였다. 특히 경의철도 청령선의 기공에 임해서는 스스로 동서로 분주히 부근 타군의 몇 배인 1,200명의 인부를 부여하여 그 공사의 진척을 신속하게 했다. 그 성적을 공로 을로 인정한다.

1905년 10월 27일

안주병참사령부 부관 육군보병중위 하다 가이조(波多海藏)

훈적조사서

한국 평안북도 창성(昌城)군 향장 허환(許緩)

위 사람은 1905년 4월 이래 아군의 식량, 여물, 군수품의 운반, 기타 노동에 관련된 각종 인부, 마소의 징발 등에 진력하고 시종일관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침식을 잊고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을 받들었다. 창성 수비대를 위해 크고 작은 편리를 주도록 성심껏 충실히 정려하여 아군에 큰 편익을 준 자로 인정한다.

1905년 10월 25일

의주병참사령관 육군보병대위 미야케 나오토시(三宅直利)

훈적조사서

한국 초산(楚山)군 향장 김치(金燧)

위 사람은 1904년 8월 이래 초산군 향장의 직위를 맡아 특히 올해 8월 군수 착임까지는 초산군 전반의 정무를 처리하였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몸소 담당하여 즉 여러 군수품 운반에 필요한 마소, 한국인 인부의 징발, 신탄(薪炭), 계란, 생야채 등의 조달, 기타 통행 부대의 숙사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진력하여 처리함으로써 추후도 아군의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은 그 공적 적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1905년 10월 22일

의주병참사령관 육군보병대위 미야케 나오토시(三宅直利)

훈적조사서

경성(鏡城)군 독진(獨津) 김남일(金南一)

1905년 6월 19일 후비 제2사단이 경성에 들어와 독진에 식량과 여물을 양륙하게 되자 예의 열심히 아군을 위해 부선을 모아 목재를 공급하고, 지방 인부의 징발에 노력하여 양륙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한 바는 결코 영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로 오로지 진심으로 아군을 위해 성실히 편익을 준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에 보고한다.

1905년 10월 20일

한국주차군 동부병참감 세나 요시토시(瀨名義利)

한국주차군 사령관 남작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귀하(殿)

훈적조사서

한국 함경도 성진(城津) 서문 밖 거주 이순재(李舜在)

위 사람은 1904년 4월 러시아군대가 장차 남하하여 성진에 들어오려고 하자, 성진일본영사의 위촉을 받고 길주(吉州)에 도착하여 적정을 탐지해 영사에게 급보하던 바 그 때문에 영사관원 및 일본거류민은 러시아군이 성진에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무사히 성진을 떠날 수 있었다. 그는 잔류해서 성진에 있었으나 러시아군의 지목하는 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자 피난하여 원산으로 왔다. 당시 원산에 있던 우리 부대에 와서 성진 및 그 부근의 러시아군 병력과 정황, 성진과 북청 사이 러시아군의 배치를 보고하여 다대한 이익을 주었다. 뒤이어 우리부대에 고용되어 성진 이북 우수리 방면에서 원산으로 온 자들을 탐지하여 연대로 데리고 온 일이 자주 있었다. 그 때문에 적정을 수집하는 데에 큰 이익을 주었다. 또 적의 간첩이 원산에 잠입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은밀히 탐지하여 그 혐의자 수명을 잡아 와서 심문한 결과 적지 않은 참고가 되는 등의 일이 하나 둘이 아닐 정도로 성실히 그 임무를 다하였다. 그 후 1905년 1월 5일 여순(旅順)항 함락 후에 성진 부근의 적정 정찰을 위해 간첩으로 파견되었는데, 러시아군 및 성진에 있는 친러시아 한인들에게 용모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깊이 적지에 침입하여 성진에서 남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는 거리동(巨里洞)에 도착해서 수일간 그곳에서 몰래 체재하며 성진 및 그 부근의 정황을 상세하게 정찰하여 귀환하였는데, 그 도중에 같은 해 1월 21일 신창(新昌), 북청의 러시아군이 성진을 향해 퇴각하려는 징후를 발견하고 그것을 탐지하여 1월 30일 원산에 돌아와 그 상세한 보고를 하였다. 그 때문에 다른 방면에서 얻었던 정보와 대조 비교하여 그 정황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이후 아군에게 행동상 큰 이익을 주었다. 같은 해 2월 15일부터 연대의 북진을 따라 임명(臨溟)에 도착하였다. 이 기간 행군시 전초로서 한인의 취조에 종사하고 밤낮으로 각고의 노력으로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아군을 위해 진력한 바가 매우 크므로 그 공적 또한 현저하다.

1905년 10월 11일

후비보병 제47연대장 하야타(早田滿卿)

1905년 10월 30일

한국주차군 동부병참감 세나 요시토시(瀨名義利)

한국주차군 사령관 남작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귀하(殿)

일진회 평의원	이행민(李行敏)
동	김진태(金振泰)
동	윤갑병(尹甲炳)
일진회 지부회장	유문경(劉文卿)
동	유창일(柳昌一)
동	최기청(崔基淸)

동	박영선(朴永善)
일진회 지부회장	이문표(李文豹)
동	이봉행(李奉倖)
동	윤상익(尹相翊)
동	김창원(金昌源)
동	이문삼(李文三)
동	안덕원(安德源)
동	한국정(韓國正)
동	안기초(安基礎)
동	김달영(金達永)
동	백운기(白雲記)
동	최기남(崔基南)
동	한정규(韓貞奎)
동	한태훈(韓泰勳)
동	한경호(韓景昊)
동	한남규(韓南奎)
일진회 사무원	김병규(金炳奎)
동	김몽필(金夢弼)
동	최운섭(崔雲涉)
동	이문화(李文化)
동	한경원(韓景源)
동	염창순(廉昌淳)
동수송대 오백인장	고청룡(高靑龍)

위 사람들은 당 방면 경편철도의 수송업무가 개시된 이래 제3수압식 경편철도반에 속해 잘 명을 받고 술선수범하여 여러 곤란을 무릅쓰고 그 반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송을 지체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아군에 힘을 쏟은바 공이 큰 것으로 인정하므로 특히 이에 보고한다.

개전 이래 아군 군대에 편의를 준 한국관민에 대한 보고

운산군(雲山郡) 수순교(首巡校) 이민후(李敏厚) 36세

위 사람은 지난해 3월 28일 아군 군대가 당군에 도착하자 인민들이 각처로 피난하여 읍내가 완전히

적막해져 인마와 물자 징발에 다대한 곤란을 느꼈는데도 항상 백난을 무릅쓰고 잘 그 필요한 바를 충족시켰다. 다음 1차로 병참사령부를 설치하자 식량과 기타의 운반인부, 우마의 징발, 도로 교량의 수선 등 병참사무에 관한 여러 건에 대해 부하관리를 지휘 독려하여 지체하지 않도록 했다. 이후 수비대의 주둔 이래 시종일관 성의껏 아군의 편익을 도모한 것은 각 수비대장의 칭찬이 이를 증명하기에 족하다. 동시에 각각의 칭찬이 모두 그가 공을 생각하는 마음이 두텁고, 청렴해서 이욕을 등한시 한다는 점에 대해 거의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대저 이번의 전투에 관해서 한국관민이 혹은 통역으로, 혹은 밀정으로, 또는 상인으로 아군에 이익을 준 것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다수의 관민은 대개 계약상의 급료, 기타 보수를 받고 그 대가로서 동분서주한 것으로, 말하자면 당연히 해야 할 일, 개인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아무런 계약도 없고 추호의 보수도 없이 오로지 아군을 위해 진력한 것은 그가 관리이든 인민이든지를 막론하고 정말로 일한동맹의 취지를 받든 말하자면 공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이는 일본인이라고 해도 잘 할 수 없는 바이다. 이 지극히 어려운 의무를 수행한 이 이민후 같은 사람을 오랫동안 군수 아래에 두는 것은 진실로 애석하기 짝이 없고, 만약 그에 상당한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한다면 그는 더욱 감격해서 우리 일본을 위해 진력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장을 만들고 시를 짓는 것은 한국 관리들의 특장이지만, 실무를 민활하게 하는 자는 극히 드물다. 저 이민후 같은 사람은 한국 관리 중에는 그런 유형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장래 한국을 일본화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재목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동인의 성행을 약기하고 보고한다.

1905년 10월 6일

운산수비대장 오카자키(岡崎踐)

훈적조사서

한국 평안북도 영변(寧邊)군 읍내(邑內)면 구아(舊衙)리 영변군 수순교(首巡校) 최태원(崔泰源)

위 사람은 1904년 2월 28일 이래 아군을 위해 응접원으로 숙영자에 접대물자의 공급 등 열심히 군대를 위해 진력하였고, 특히 올해 3월 아군이 이 지역에 들어오자 관민이 모두 도주했는데 홀로 남아서 설영에 분주하고 또 물자 징발에 임해서는 신속하게 공급을 함으로써 아군을 도운 그 공적이 현저하여 공로자로 인정한다.

1905년 10월 25일

영변수비대장 육군보병소위 이나 몬키치(伊奈紋吉)

훈적조사서

한국 평안남도 안주(安州)군 서기 이식영(李寔永)

위 사람은 1904년 8월부터 날마다 당 병참사령부에 출사하여 사령부와 한국 관민 사이에 서 직접 교

섭하는 일을 맡아 군수, 향장 등과 함께 아군을 위해 소요물자 및 수송재료 기타 도로와 교량의 개수 등에 진력한 것이 시종일관 한결 같아서 다대한 이익을 얻게 하였다. 그 성적을 공로 을로 인정한다.

1905년 10월 27일

안주병참사령부 부관 육군보병중위 하타(波多海藏)

서(瑞)7	경성(鏡城)	한규석(韓圭錫)
동	단천(端川)군	심기일(沈基一)
동	경성(鏡城)군	김복룡(金福龍)
동	경성(鏡城)군	송병철(宋丙喆)
동	경성(鏡城)군	이도헌(李道憲)
동	이원(利元)군	박주백(朴周伯)
동	경성(鏡城)군	이기현(李基憲)
동	성진(城津)군	방용갑(方容甲)
동	명천(明川)군	김택호(金澤鎬)
동	명천(明川)군	김해룡(金海龍)
동	명천(明川)군	이근양(李根陽)
동	길주(吉州)군	박승봉(朴昇鋒)
동	북청(北靑)군	김종섭(金宗燮)
동	함흥(咸興)군	윤상익(尹相益)
동	부령(富寧)군	남진학(南鎭學)
동	경성(鏡城)군	최원중(崔元仲)
동	길주(吉州)군	원광학(元光學)
동	경성(鏡城)군	최기륜(崔基崙)
동	경성(鏡城)군	김재호(金在浩)
동	경성(鏡城)군	박연창(朴淵昌)
동	이원(利元)군	박승룡(朴承龍)
동	부령(富寧)군	김두학(金斗學)
동	부령(富寧)군	안치경(安致敬)
동	부령(富寧)군	황한오(黃漢伍)
동	부령(富寧)군	박봉루(朴鳳樓)
동	부령(富寧)군	최영락(崔永洛)
동	부령(富寧)군	강익보(姜翼甫)
동	경성(京城)	한남규(韓南奎)

동	단천(端川)군	차병혁(車秉赫)
동	경성(鏡城)군	이병문(李炳文)
동	성진(城津)군	김경운(金景允)
동	갑산(甲山)군	황봉익(黃鳳翼)
서(瑞)7	함흥(咸興)군	박증필(朴曾弼)
동	북청(北靑)군	이윤화(李允化)
동	북청(北靑)군	이계삼(李啓三)
동	정평(定平)군	김창순(金昌淳)
동	경성(鏡城)군	강열희(姜悅熙)

위 사람들은 북관군이 책동 중인 경편철도 수송업무에 종사하며 각각 그 부하를 이끌고 솔선수범하여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수송을 완료하고, 각종의 고장을 배제함으로써 병참업무를 보조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한다.

1907년 5월 1일

한국주차군 사령관 남작 하세가와 (長谷川好道) (인)

견인(見認)증서

한국육군부령 이희두(李熙斗)

위 사람은 1904년 2월 28일 일본군대 접대위원장으로 당 부에 와서 그날 위원장 이하 16명의 위원이 임명되었다는 것을 신고하고, 또 제반 사무를 나의 지시에 따라서 충분히 진력한 바 있다. 당시 제12사단이 경성에 집중하려고 하였는데, 그 선봉대가 이미 경성의 일본 거류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숙영했다. 따라서 후속사단의 숙영은 오로지 한국 가옥에 의탁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었는데 이 교섭이 아직 잘 되지 않았다. 이날 겨우 한국 병영, 관사, 공사립의 여러 학교 등을 빌리게 되었는데 이 일에 관한 제반 크고 작은 교섭사항은 언어 풍속이 다른 한국인과 직접 교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때 이(李) 부령은 잘 피아간을 알선하여 숙사의 계획을 도와 그 준비를 용이하게 하고, 사단이 입정할 때에는 부하 위원들을 독려하여 숙사 안내에 종사하게 했다. 또 마사의 설비에 종사하여 2,400마리 분의 신설 임시 마사를 제공한 후 또 그 재료를 들고 당 부에 와서 교부하여 적지 않은 편익을 주었다. 한편 한국 상황을 살펴서 부대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준 것이 다대하다. 그 사적이 현저하여 특히 훈공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증한다.

※ 북서(北署) 장동(壯洞) 72통 9호

1904년 11월 6일

경성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견인(見認)증서

한국육군 보병참령 조성근(趙性根)

위 사람은 1904년 2월 19일 우리 군대 접응위원으로서 당 부에 와서 능숙하게 일어를 구사하여 병참 업무에 도움을 주었다. 당시 제12사단이 경성에 집중하려고 하여 숙영준비가 가장 번망했을 때 숙영의 정찰, 숙사의 안내에 종사하여 진위대 및 친위 제1대대의 중학교 방면의 설비를 맡았다. 특히 한국 황제 폐하께서 임시 마사를 신설하여 아군의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셔서 한층 바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것을 꺼리지 않고 종종 자비를 들여 인력거를 달려서 분주히 다니며 항상 잘 피아간 알선에 진력하여 언어가 통하지 않고 지리도 잘 모르는 아군의 병사들로 하여금 용이하게 숙사를 잡게 하였다. 사단이 전진한 후 배일파가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온몸으로 일을 맡아 정황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경계상 공헌한 바가 있다. 또 임시 마사가 불필요하게 되자 소요 재료를 수집해 어수선 함을 방지하여 우리에게 교부하는 등 많은 편익을 제공하였다. 그 훈적이 현저하고 그 훈공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증한다.

※ 중서(中署) 누동(樓洞) 45통 3호

1904년 11월 6일

경성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견인(見認)증서

한국육군 포병참령 어담(魚潭)

위 사람은 1904년 2월 19일 아군 접대위원으로서 당 부에 파견된 이래 능숙하게 일어를 해독하여 당시 제12사단이 경성에 집중하려고 그 선발부대가 이미 경성에 있어 사단 숙영준비 때문에 병참업무가 가장 번잡할 때 오로지 숙영의 정찰, 숙사의 안내에 종사하여 주로 남대문 바깥 방면 숙사의 준비를 맡았다. 특히 칙령에 따라 임시 마사를 신설해서 아군이 사용하도록 제공했을 때 그 힘든 것을 꺼리지 않고 여기저기 분주히 다녔으며, 종종 자비를 들여 인력거를 달려서 빨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항상 잘 피아간 알선에 진력하여 언어가 통하지 않고 지리도 잘 모르는 아군의 병사들로 하여금 용이하게 숙사를 잡을 수 있게 하였다. 또 제12사단이 전진한 후 배일당의 불온한 징조가 있었을 때에는 온몸으로 일을 맡아서 사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경계상 공헌한 바가 있다. 그 사적이 현저하고 그 훈공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증한다.

※ 중서(中署) 판정동(板井洞) 67통 8호

1904년 11월 6일

경성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견인(見認)증서

한국육군 보병정위 노백린(盧伯麟)

위 사람은 1904년 2월 아군 제12사단이 경성에 집중하자 당시 한기가 여전히 매서워 군마를 눈속에 세워두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 한국 황제폐하께서 임시 마사를 설치하여 주시자 같은 달 22일 아군 접대위원으로 파견나왔을 때 각소에 마사를 설치하는 일에 종사하며 신속하게 노력하여 많은 군마에게 위생상 다대한 편익을 제공하였다. 그 공로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인증한다.

※ 북서(北署) 원동(苑洞) 공혜(公廨)

1904년 12월 6일

경성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견인(見認)증서

한국육군 보병정위 김태원(金泰元)

위 사람은 1904년 2월 19일 아군 접대위원으로 당 부에 온 이래 잘 일어를 해독하여 오로지 숙영의 정찰, 숙사의 안내에 종사하였다. 제12사단이 전진할 때에 도로가 질퍽하여 행군이 곤란하였는데 경성, 고양(高陽)간의 도로 정찰을 수행하고 또 자주 본관과 접대위원장 사이를 왕복하면서 알선의 수고를 하였지만 추호도 그 노고를 꺼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고 지리를 잘 모르는 아군이 용이하게 숙영을 할 수 있었다. 또 배일파가 발호하려고 하자 항상 피아의 상황을 살펴 병참업무상 공헌한 바가 있었다. 그 사적이 현저하고 그 훈공이 적지 않은 것을 인증한다.

※ 북서(北署) 계동(桂洞) 2통 9호

1904년 11월 6일

경성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견인(見認)증서

한국육군 포병부위 유강렬(劉康烈)

위 사람은 1904년 2월 19일 아군 접대위원으로 당 부에 파견되었다. 당시 제12사단이 경성에 집중하려는 때였으므로 병참과 숙사 준비로 아주 번잡한 때에 접대위원장의 부관으로서 정부와 위원장 및 병참사령관 사이를 왕복하는 한편 숙사정찰, 설비 교섭 등에 종사하였다. 또 한국 황제폐하께서 임시 마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군의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셨을 때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분주하게 진력하여 마필의 위생상 다대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그 훈공이 적지 않다고 인증한다.

※ 남서(南署) 공동(恭洞) 17통 7호

1904년 11월 6일

경성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견인(見認)증서

한국육군 보병부위 유철영(柳哲永)

위 사람은 1904년 2월 아군이 경성에 집중하려고 하자 일본군 접대위원으로 와서 당 부의 업무를 보좌하고 오로지 그 위원장의 직속예하에 속해 중요한 사항을 복행하여 당 부의 사업에 많은 편익을 주었다. 특히 원산수비대 및 제12사단이 전진을 끝마치자 경성에 일본병사로는 겨우 수비대의 일부분만 남아 있어 여러 창고의 위병(衛兵)도 대다수는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일시 거의 그 위압감이 결핍되자 경성의 분위기는 변화무쌍하여 배일파가 그 배후에서 획책을 꾀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에 즈음하여 부위는 침식도 편안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필요한 사항을 미면에 처치하려고 하는 등 당 부의 사업에 공헌한 것이 적지 않다. 이에 훈적자라는 것을 인증한다.

1904년 11월 6일

경성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인)

훈적명세서

한국 의주군수 겸 일본국 진북군대 접응관 육군보병참령 정3품 신우균(申羽均)

1. 위 사람은 1905년 1월 31일 의주군수에 임명되고, 같은 해 3월 18일 일본국 진북군대 접응관을 겸임하였다. 당시 해빙의 계절에 즈음해서 압록강의 도하가 두절되었기 때문에 전진한 여러 부대 및 여러 종류의 군용 식량, 마초, 재료가 정체되었다. 이때 숙사의 공급, 인마의 징발에서 본직의 요구에 응해 추호도 의심하거나 주저하는 일 없이 신속히 수공하여 군아(郡衙)의 직업을 지휘 감독하여 착실하게 성과를 발휘했다. 며칠 후 도하할 수 있게 되자 각 면의 인부, 짐말, 우차 등 대체로 남는 것 없이 운반의 자료를 맡아 의주 및 부근 부락에 체재시키고 많은 긴박한 요구에 응하여 열흘 안으로 그 태반을 운반할 수 있었다. 이상의 상황은 당시 순회한 군 부관 나가노 이쿠마(長野幾磨)가 실제로 본 것이다. 그 후 점차 해로(海路) 수송이 개시되었다고는 하나 안주(安州) 이북 정채하물의 수송은 더욱 번잡해졌고, 또한 당 병참지는 초산(楚山) 방면, 용암포(龍岩浦), 안동현, 장전(長甸) 하구 등 수송력이 분배되는 곤란이 더해졌다. 이때문에 접응관으로서 초산 방면 같은 경우에는 연도의 각 군수보다 먼저 출발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활동한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하였다.

2. 만주 방면의 병참 군량부 부근에는 봉황성, 안동현, 괴인(壞仁), 통화(通化) 등의 아군 군대, 군 관청의 의뢰에 의해 인부 고용, 생우의 구매 등에 쓰려고 정당하게 증명서를 주거나 혹은 군 휘하 관청에 명령하거나 해서 진실로 아군을 위해 대소에 관계없이 편익을 주었다. 그 외 청부상인(소위 어용상인)이 휴대하는 증명서 혹은 명령서에 대해서 편익을 주는 등 그 노고를 들면 적지 않다.

또한 각 기사(鎭)·리(理)·농(農) 등, 박사 등의 순회에 즈음해서 군 휘하 실업자(實業者)를 소개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였다.

3. 군 휘하 민정을 통찰하여 때대로 본직의 참고에 도움이 되었다. 그 일례를 든다면 일본상인들로 병참부 어용이라고 하며 인민의 응낙 없이 오래된 소나무를 벌채하거나 혹은 인부를 사용하고 그 임금

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부당하게 촌락에 다수의 일본인이 수습 일을 숙식하고 그 식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어느 샌가 떠나거나 또 다수의 수송병 같은 자들이 그 부락에서 계란을 약탈하거나 하는 등의 호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에 본직은 특무조장에게 통역을 붙여서 이 방면의 민정시찰을 명했다. 이때 군수는 적당한 관리를 수행시켜 크게 취조상 편익을 주었다.

4. 그 후 사령관이 아래와 같은 이첩문을 냈을 때 크게 동조하고, 곧바로 관계 각 군에 이첩의 수속을 하여 악덕상인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았다.

※ 이첩문

군수 물자가 흩어져서 없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본직의 증명이 없는 것은 처리할 수 없도록 하라.

5. 양계(兩季) 앞 도로의 수리를 요할 때에 오장(伍長) 타케모토(武本)가 통역을 정찰을 위해 파견하였으므로 군수가 관리를 수행하게 해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곧 부근의 면장에게 명해 그 실행을 확실하게 했다.

6. 당 사령부 택지 내에 사방 4간(間-1間=1.8m) 깊이 6척 정도의 웅덩이가 있었다. 여름에 웅덩이의 물이 부패하여 악취가 났을 뿐만 아니라 짐을 운반하는 인마의 출입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그 불편함이 적지 않아서 이 웅덩이의 매립을 명하였는데 속히 쾌락하여 부근 각 면에 명하여 약 3,40명씩 5일간에 걸쳐 준공하였다.

7. 당 시가의 불결한 정도는 한국의 일반적인 시가와 비슷하였는데 도착한 바로 다음인 4월부터 점차 청결해졌다. 진남포에서 당 의주에 이르는 사이 한인들로서 청소도구를 손에 든 자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당 시민은 아침 저녁으로 집 앞을 청소하는 습관을 들었다. 공동변소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우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수선하고, 도살소를 설치하고, 작은 웅덩이를 메우고, 일반 시민에게 위생석탄을 산포시키고, 처마에 등을 달게 하는 등 예전과 비교해서 크게 신면목을 일으켰다. 이 사이에 여러 가지의 구습을 타파하였는데 힘껏 노력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을 성과였다.

8. 10월 초순 개선군대의 통과를 예상하여 사령부는 압록강에 2곳의 도하준비를 시켰는데 군수는 하단동(下端洞)에서 서호(西胡) 사이에 이르는 약 30리의 길을 연도 인민에게 명하여 수리시켰다. 이것은 본직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오로지 군수의 발의에서 나온 것으로 성의 충실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9. 또 종래 신의주와 정주동(正州洞)간 약 20리 사이에는 통로가 없어 밭, 초지, 웅덩이, 소택 등의 주변 좁은 사잇길을 택해서 겨우 의주와 용암포 사이의 도로 정주동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때 신도로를 개설할 것을 재촉했지만 도리어 군수가 평소에 바라던 것이라고 하였다. 그 길의 처음 계획은 사령부가 담당하고 아마하라(天原) 상등 공장으로 그 임무를 맡기기로 하고 그 실행은 군민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군수의 의견이었다.

10. 당 수비대 교련 사격을 시행할 때 경계상 각소에 게시하여 추호도 위험한 우려가 없게 하였다. 실시 당일 군수는 진위대 참위 박동원(朴東元)을 대동하여 시중 현장에서 연습을 관람했다. 끝으로 박동원에게 사격을 하게 하고 4백미터 실거리사격으로 두사람이 서서좌 자세로 표적에 대해서 5발 중 4발을 명중시켰다. 군사에 열심인 것은 불만한 것이 있다.

11. 군수는 한국군인으로서 청렴을 주로 하는 기개가 있다. 약년(32세)라고 해도 교제는 아주 원활하고 언어도 교묘하다.

이상의 성적은 현저한 것으로 확인한다.

1905년 10월 20일

의주병참사령관 육군보병대위 미야케 나오토시(三宅直利)

이력서

남서(南署) 이동(履洞) 66통 8호

대일본제국 진북군 접응관 육군보병참령 정3품 신우군

- 1894년 2월 19일 무과
- 동 11월 14일 통위영대(統衛營隊) 관
- 동월 29일 무관학도 피선(被選) 수업
- 동년 12월 7일 육군보병부위 임용
- 동월 동일 훈련 제1대대 부속(주임 5등)으로 보임
- 1895년 5월 5일 훈련 제3대대 부관 보임
- 동년 8월 14일 일본유학생으로 명받음
- 동년 9월 1일 훈련 제4대대 부관 보임
- 동월 16일 육군 보병정위(주임 4등)으로 임관
- 동월 동일 친위 제1대대 중대장 보임
- 1897년 5월 2일 해미(海美)군수로 임명
- 1898년 7월 2일 무관학교교관 보임
- 1899년 12월 11일 정3품에 오름
- 1900년 9월 26일 육군무관학교 학도대 중대장 보임
- 1904년 3월 26일 헌병 정위에 임관
- 동월 동일 육군 헌병대 중대장 보임
- 동년 9월 22일 육군보병참령(주임 3등)으로 임관
- 동월 23일 진위(鎭衛) 제6연대 제1대대장 보임
- 1905년 1월 30일 의주군수로 임명
- 동년 3월 18일 겸임 일본국 진북군대 접응관

견인(見認)증서

한국육군 보병부위 장기원(張琪遠)

위 사람은 1904년 2월 19일 아군 접대위원으로서 당 군(郡)에 파견되었다. 당시 제12사단은 경성에

집중하려는 때였는데 병참과 숙사 준비로 아주 번잡한 때에 접대위원장의 부관으로 정부와 위원장 및 병참사령관 사이를 교섭, 왕복하는 한편 숙사 정찰, 설비 교섭 등에 종사하였다. 또 한국 황제폐하께서 임시 마사를 설치하도록 해주셔서 아군이 사용하도록 해 주셨을 때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분주하게 진력하여 마필의 위생상 다대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그 훈로가 적지 않다고 인증한다.

※ 서서(西署) 한림동(翰林洞) 78통 9호

1904년 11월 6일

경성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견인(見認)증서

한국육군 보병참위 황학수(黃學秀)

위 사람은 1904년 2월 아군 제12사단이 경성에 집중하자 당시 한기가 여전히 매서웠는데도 군마를 눈 속에 세워두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 한국 황제폐하께서 임시 마사를 설치하도록 해 주시자 같은 달 22일 아군 접대위원으로 파견나와 그때 도처에 마사를 설치하는 일에 종사하여 신속하게 노력해서 다수의 마필 및 병사들에게 위생상 다대한 편익을 주었다. 그 공로가 적지 않다고 인증한다.

※ 중서(中署) 상은동(相恩洞) 28통 1호

1904년 11월 6일

경성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견인(見認)증서

한국육군 보병참위 장태진(張泰鎭)

위 사람은 1904년 2월 아군 제12사단이 경성에 집중하자 당시 한기가 여전히 매서웠는데도 군마를 눈 속에 세워두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 한국 황제폐하께서 임시 마사를 설치하도록 해 주시자 같은 달 22일 아군 접대위원으로 파견나와 그때 도처에 마사를 설치하는 일에 종사하여 신속하게 노력해서 다수의 마필 및 병사들에게 위생상 다대한 편익을 주었다. 그 공로가 적지 않다고 인증한다.

※ 동서(東署) 통내황교(統內黃橋) 7통 9호

1904년 11월 6일

경성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견인(見認)증서

한국육군 보병참위 박동원(朴東元)

위 사람은 1904년 2월 아군 제12사단이 경성에 집중하자 당시 한기가 여전히 매서웠는데도 군마를 눈 속에 세워두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 한국 황제폐하께서 임시 마사를 설치하도록 해 주시자 같은 달 22일 아군 접대위원으로 파견나와 그때 도처에 마사를 설치하는 일에 종사하여 신속하게 노력해서 다수의 마필 및 병사들에게 위생상 다대한 편익을 주었다. 그 공로가 적지 않다고 인증한다.

※ 원적 경기도 양근(楊根)군

현주소 의주 주대(駐隊)

1904년 11월 6일

경성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훈적명세서

한국 의주주둔부대 육군보병참위 박동원(朴東元)

위 사람은 1905년 3월 이래 본직과 군수 신우군 사이에서 통역의 노고를 잘 수행하여 만사에 탈없이 사무를 처리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한다.

1905년 10월 20일

의주병참사령관 육군보병대위 미야케(三宅直利)

이력서

의주주둔부대 소대장 육군보병참위 박동원

- 1894년 3월 진사.
- 1900년 10월 14일 육군무관학교 피선.
- 1902년 7월 1일 졸업증서 받음.
- 동년 6월 6일 육군보병참위 임관.
- 1903년 3월 25일 위 제1연대 제3대대 견습 대기.
- 1904년 4월 17일 일본군대 접응위원으로 임명.
- 1905년 2월 21일 진위 제6연대 제1대대 보임. 3월 1일 당지 시무.
- 동년 4월 18일 진위 보병 제7대대 보임

견인서(見認書)

한국육군 보병참위 유기성(柳冀聖)

위 사람은 1904년 2월 아군 제12사단이 경성에 집중하자 당시 한기가 여전히 매서웠는데도 군마를 눈 속에 세워두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 한국 황제폐하께서 임시 마사를 설치하도록 해 주시자 같은 달 22일 아군 접대위원으로 파견나와 그때 도처에 마사를 설치하는 일에 종사하여 신속하게 노력해서 다수의 마필 및 병사들에게 위생상 다대한 편익을 주었다. 그 공로가 적지 않다고 인증한다.

※ 북서(北署) 계동(桂洞) 1통 7호

1904년 11월 6일

경성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견인서(見認書)

한국육군 보병참위 이범승(李範承)

위 사람은 1904년 2월 아군 제12사단이 경성에 집중하자 당시 한기가 여전히 매서웠는데도 군마를 눈 속에 세워두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 한국 황제폐하께서 임시 마사를 설치하도록 해 주시자 같은 달 22일 아군 접대위원으로 파견나와 그때 도처에 마사를 설치하는 일에 종사하여 신속하게 노력해서 다수의 마필 및 병사들에게 위생상 다대한 편익을 주었다. 그 공로가 적지 않다고 인증한다.

※ 중서(中署) 익동(益洞) 68통 2호

1904년 11월 6일

경성병참사령관 다치나가 쇼사부로(立永勝三郎)

한어통역 권승록(權承錄)

1905년 7월 경성(鏡城) 점령 때부터 사단은 점차 관민과 함께 러시아에 가까운 지역에 들어가 세세하게 민정을 시찰하고, 또한 지방관리의 행동을 감시하여 기밀을 적군에게 알려려는 자를 찾아내고, 또 아군의 위엄을 의지하여 멋대로 전횡하는 자를 제지할 필요가 증가했다. 또 당시 간첩의 출입이 빈번해서 그 임무를 주거나 혹은 그 보고를 조사하기 위해 다소 군사지식이 있고, 사리에 통하고 또 믿을 만한 한인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마침 기병대 소속 한어통역 권승록은 일찌기 우리 사관학교에서 배웠고, 또 기골이 있다는 평이 있어서 그를 사령부에 초치한다는 뜻을 보내 상기의 일에 종사시켰는데 잘 열심히 그 임무를 다하였으며, 관찰사의 행위와 군수의 행동을 시찰 보고하였는데 그 말이 솔직하고 또 실속이 있어서 군정집행 상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적지 않았다. 회령(會寧)을 점령할 때는 적의 패잔병이 아직 출몰하는 사이에 급히 회령에 들어가 회령에 주둔하는 적정을 확인하여 보고하였으며, 그 후 사단사령부에서 첩보근무를 보조하였고, 또 지방관리와 교섭하는 임무를 맡아 그 동작을 감시하

여 아군을 위해 공헌한 바가 자못 많다. 그래서 별지 후보32연대 제2대대 및 독립 기병중대의 공적확인서를 첨부하고 특히 이에 보고한다.

※ 남서(南署) 후동(後洞) 85통 7호

1905년 10월 3일

후비제2사단 참모장 오니와 지로(大庭二郎) (인)
한국주차군 참모장 오타니 키쿠조(大谷喜久藏) 귀하(殿)

공적확인서

경성 초수동(初手洞) 거주(본명 권승록) 한어통역 권영탁(權寧鐸)

위 사람은 1905년 6월 7일 당부대 부속 이래 품행이 방정하고 직무에 열심이었던 자로 같은 달 10일 임명(臨溟)을 출발하여 수성(輸城) 점령에 이르는 기간에 혹은 중대에서, 혹은 척후 혹은 정찰대를 따라 한인을 힐문 혹은 신문하였으며, 각종 적의 정보를 모아서 아군의 수색근무에 다대한 이익을 주었다. 특히 6월 14일 지경장(地境場)에서 귀문관(鬼門關)과 수남(水南)을 거쳐 주촌준장(朱村浚場)으로, 또 7월 1일 초 달동(達洞)에서 용세동(龍世洞)을 거쳐 노통동(盧通洞)으로 통하는 도로의 정찰대에 속하여 노고를 무릅쓰고 그 직책을 잘 수행함으로써 아군의 행동에 지대한 이익을 준 그 공적이 아주 현저하다. 또 설영자 및 경리관의 보조로서 여물과 신탄 등의 수집 및 인부와 수레 등의 징집에 종사하여 그 일에 조금도 유감이 없게 한 것은 그 공적이 실로 지대하다.

요컨대 본인은 한인 중에는 이례적인 인물로 직무에 열심 충실하여 다른 한인통역에 비해 성적 양호하고, 그 공적이 지대하다고 확인한다.

1905년 7월 18일

후비제2사단 후비독립기병중대장 이치노세 오노로(一瀬斧太郎) (인)

공적확인서

경성 초수동(初手洞) 거주(본명 권승록) 통역 권영탁(權寧鐸)

위 사람은 1904년 11월 9일 이래 당부대 통역으로 복무하던 중 품행이 방정하고, 직무에 열심히 근면하게 임했는데, 같은 날 경성을 출발하여 함경도 함흥에 이르는 행군 중 인부, 소, 짐말의 징발과 징수 및 설영 일부의 담임, 인부의 감시 등 번잡한 잡무에 복무하며 열심히 분투하여 우리 부대의 행동에 다대한 이익을 주었다. 함흥에서 적과 대진 중에는 신탄의 징집 그 외 한인의 응대 등에 힘써서 그 공적이 매우 크다.

1905년 2월 17일 함흥을 출발하여 임명(臨溟)역에 이르는 행군 중 운반 재료의 징집, 인부와 화물의 감시 등에 종사하였고, 도중 남갈령(南葛嶺)·마운령(摩雲嶺), 마천령(摩天嶺) 등의 험봉을 넘어 새벽에

나와 밤중에 숙영하며 헌신하여 그 직책을 다함으로써 우리 부대의 행동에 다대한 이익을 주었다.

1905년 3월 30일 전초에 복무한 이래 혹은 전초본대에 혹은 전초중대에 속하여 한인의 취조와 적정의 수집에 종사해 다대한 이익을 준 그 공적이 현저하다.

요컨대 본인은 우리나라(일본)의 사관학교 교육을 받아서 한인 중에서도 상류의 지위에 있고 일가를 들어 일본에 귀의해서 각종의 임무를 받아도 헌신하며 그 책무를 다하여서 다른 한인통역에 비해 성적이 아주 양호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확인한다.

1905년 6월 7일

후비보병 제32연대 제2대대장 가와카미 노부나리(川上信成)

〈출전 : 「韓國檢事尹甲炳外百五名叙勳及賜金ノ件」, 『叙勳』 卷7(外國人 5),

1908년 11월 7일,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4. 신기선(申箕善) 외 47명 서훈 및 사금

한국 공내부 특진관 종1품 훈1등 신기선 외 47명 서훈 및 사금(賜金)의 건

위에 대해서 삼가 재가를 바랍니다.

1908년 11월 7일

내각총리대신 후작 가쓰라 타로(桂太郎) (사인)

상훈국 상신 제104호, 585호 11월 7일 재가

1908년 11월 5일

내각총리대신(사인) 상훈국(賞勳局) 총재 (인)

한국 공내부 특진관 종1품 훈1등 신기선(申箕善) 외 47명 서훈 및 사금(賜金)의 건은 별지와 같이 의논하여 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허가를 바랍니다.

더욱이 본 건은 일반 행사(行賞)의 날짜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재가일로 시행하고 싶다는 것을 첨부하여 아됩니다.

1908년 11월 4일

상훈국 총제 (인), 서기관 (인) (인)
 의정관 가 (인)(인)(인)(인)(사인)(사인)(사인)
 부

서훈 및 사금 의안

한국 궁내부 특진관 종1품 훈1등 신기선(申箕善) 외 37명

위 사람들은 러일전쟁에서 각자 그 지위를 이용해서 아군 군사행동을 돕거나 혹은 도로 교량을 수리하고 군수품의 징발을 촉진하거나 기타 숙사공급, 적정 경찰에 진력하는 등 그 공적이 현저하다.

구 동경외국어학교 강사 한국인 유희근(柳蕊根)

위 사람은 1898년 10월 동경고등상업학교 한어교사가 되고, 1900년 9월 동경외국어학교의 강사가 되었으며, 1902년 1월 주임관 5등 이상의 대우를 받아 1907년 7월까지 근속하였다. 그 기간에 힘써 제자의 훈육에 노력했기 때문에 러일전쟁이 개전했을 때 다수의 적당한 통역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후 이런 역관의 필요가 더욱 시급해지자 더욱 힘써 노력하여 계속 속성자를 내어 출정군에 다수의 편익을 주는 등 그 공적이 현저하다.

구 한어통역 한국인 김창복(金昌福) 외 8명

위 사람들은 러일전쟁 당시 한역통역으로서 군대 또는 임시군용철도공사에 종사하여 열심히 힘을 다해 그 직을 잘 수행하여 이익을 준 바가 적지 않다.

그래서 부통감의 상주를 대조하고 조사하여 훈등 및 사금액을 의의(擬議)한 것이 다음과 같다.

	훈등 및 사금액	관직	위	한국 훈등	제국 훈등	씨명
서명원함	훈1등 육일대수장(旭日大綬章)	제실회계감사 궁내부 특진관, 원경	종1품	1등 8괘		신기선(申箕善)
서명원함	육일대수장(旭日大綬章)	중추원 고문, 군부대신	정2품	1등 태극	1등 서보	권중현(權重顯)
서명원함	육일중광장(旭日重光章)	구 장례원경, 궁내부 특진관	동	2등 8괘	2등 서보	이중하(李重夏)
서명원함	훈3등 육일중수장(旭日中綬章)	구 경무사	종2품	4등 태극		박승조(朴承祖)

작기	훈4등 욱일소수장(旭日小綬章)	덕원부윤	동	동		조병교(趙秉敎)
작기	동 상	구 덕원군수	정3품			이종완(李鍾完)
작기	동 상	구 덕원감리	동			신형모(申珩模)
작기	동 상	구 영흥군수	종2품			홍순욱(洪淳旭)
작기	훈4등 욱일소수장(旭日小綬章)	구 고원군수	6품			박기호(朴淇昊)
작기	훈4등 서보장(瑞寶章)	종성군수	동			이영식(李永植)
작기	동 상	시종원 시종	정3품	4등 8과	5등 서보	이교영(李喬永)
작기	동 상	구 북청군수	동			조길하(趙吉夏)
작기	동 상	구 단천군수	동			김유직(金裕稷)
작기	동 상	구 중화군수	종2품			김응룡(金應龍)
작기	동 상	규장각부제학 구평양감리	정3품			신대균(申大均)
작기	동 상	구 삼화감리	동			고영철(高永喆)
작기	동 상	동래부윤	동			김교헌(金敎獻)
작기	동 상	구 전주군수	종2품			권직상(權直相)
작기	훈5등 서보장(瑞寶章)	구 안주 전보사장	6품			김영걸(金永杰)
작기	동 상	구 평양 전보사장	정3품			이종형(李鍾滢)
작기	동 상	내각서기관 의정부참서관	6품			고원식(高源植)
작기	훈6등 단광욱일장(單光旭日章)	구 평양전보사 주사	9품			이병구(李秉九)
작기	동 상	구 안주전보사 주사	동			최종악(崔鍾岳)
작기	훈6등 서보장(瑞寶章)		동			김규명(金圭明)
작기	동 상	도지부 주사	동			이봉중(李鳳鍾)
작기	동 상	동				윤정대(尹鼎大)
작기	동 상	동				김순석(金淳碩)
작기	동 상	동				김용제(金容濟)
작기	훈6등 서보장(瑞寶章)	구 삼화감리서 주사	6품			이중철(李重轍)
작기	훈4등 욱일소수장(旭日小綬章)	전 병사(구 일진회장)	정3품			윤시병(尹始炳)
작기	훈4등 서보장(瑞寶章)	구 판사(일진회 평의원)	4품			유학주(俞鶴柱)
서명원합	훈2등 서보장(瑞寶章)	내부 위생국장	정3품			염중모(廉仲模)
작기	훈4등 서보장(瑞寶章)	전 의관	6품			홍궁섭(洪肯燮)
작기	훈6등 서보장(瑞寶章)	(구 육군사관)				이근상(李謹相)
작기	동 상	(구 원릉령)				윤태중(尹泰中)
작기	동 상	구 경무청경무관 (개성학교장)				한교서(韓敎序)

작기	동 상	일한협동 전운사 부사장			김정곤(金貞坤)
작기	동 상	맹산군수			천상하(千象河)
작기	훈5등 서보장(瑞寶章)	구 동경외국어학교 강사			유필근(柳苾根)
	금 35원	(구 한어통역)			김창복(金昌福)
	동 상	동			김순신(金舜臣)
	금 50원	동			안경복(安景福)
	금 35원	동			김중엽(金重燁)
	동 상	동 관립 한성고등학교 교장			홍석현(洪奭鉉)
	금 50원	동			이봉녀(李鳳汝)
	금 35원	동			김학구(金學九)
	동 상	동			최상익(崔相益)
	동 상	동			한성오(韓成五)

제115호

기밀통발 제305호

1904, 1905년 사건에 공적이 현저한 한국인 중 전 궁내부 특진관 종1품 신기선 외 47명의 서훈상여상 주서를 진달합니다. 그런데 그중 유필근 이하 9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 외 무대신에게 서훈을 신청(申牒) 하였던 바, 요전에 위에 대해서는 각의의 결과 당부에서 다시 직접 상주 하도록 외무성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에 다시 유필근 외 9명을 추가하여 제출합니다. 이 조서에 열기한 자들은 관리로서 그 담당직무에서 아국(일본)을 위해 진력한 자 및 민간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자진하여 여러모로 진력을 다해 일본에 공헌한 자들입니다. 단지 조서 말장에 열기한 김창복 이하 9명은 우리 군대 또는 임시군용철도에 고용되어 직책상 공적을 올린 자들이므로 위에 적은대로 승낙해 주 시기를 이와 같이 삼가 아웁니다.

1908년 3월 6일

통감대리 부통감 자작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내각총리대신 후작 사이온지 킨모치(西園寺公望) 귀하(殿)

1904, 1905년 사건 당시 한국관민 별책조서에 기재한 바의 전 궁내부 특진관 신기선 외 47명은 우리의 군사행동을 도와서 공적이 현저한 자들이므로 조서대로 서훈하고 상을 내릴 것을 분부해 주시기를 이와 같이 삼가 아웁니다.

1908년 3월 6일

통감 대리 부통감 자작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한국인 훈적 명부

의훈 의상	관직명	위	한국훈등	일본훈등	성명
육일(旭日) 1등	궁내부 특진관	종1품	1등 8괘		신기선(申箕善)
육일(旭日) 1등	군부대신	정2품	1등 태극	서보 1등	권중현(權重顯)
육일(旭日) 2등	궁내부 특진관	정2품	2등 8괘	서보 2등	이중하(李重夏)
육일(旭日) 3등	구 경무사	종2품	4등 태극		박승조(朴承祖)
육일(旭日) 4등	덕원부윤(일 고등관4등)	종2품	4등 태극		조병교(趙秉敎)
육일(旭日) 4등	구 덕원군수(동 8등)	정3품			이종완(李鍾完)
육일(旭日) 4등	구 덕원감리(동 8등)	정3품			신형모(申珩模)
육일(旭日) 4등	구 영흥군수(일 고등관 5등)	종2품			홍순욱(洪淳旭)
육일(旭日) 4등	구 고원군수(동 8등)	6품			박기호(朴淇昊)
서보(瑞寶) 4등	종성군수(동 8등)	6품			이영식(李永植)
서보(瑞寶) 4등	시종원 시종	정3품	4등 8괘	서보 5등	이교영(李喬永)
서보(瑞寶) 4등	구 북청군수(일 고등관 8등)	정3품			조길하(趙吉夏)
서보(瑞寶) 4등	구 단천군수(동 8등)	정3품			김유직(金裕稷)
서보(瑞寶) 4등	구 중화군수(동 8등)	종2품			김응룡(金應龍)
서보(瑞寶) 4등	구 평양감리(동 6등)	정3품			신대균(申大均)
서보(瑞寶) 4등	구 삼화감리(동 6등)	정3품			고영철(高永喆)
서보(瑞寶) 4등	동래부윤(동 3등)	정3품			김교헌(金教獻)
서보(瑞寶) 4등	구 전주군수(동 6등)	종2품			권직상(權直相)
서보(瑞寶) 5등		6품			김영걸(金永杰)
서보(瑞寶) 5등		정3품			이중형(李鍾滢)
서보(瑞寶) 5등	의정부 참서관	6품			고원식(高源植)
육일(旭日) 6등		9품			이병구(李秉九)
육일(旭日) 6등		9품			최종악(崔鍾岳)
서보(瑞寶) 6등		9품			김규명(金圭明)
서보(瑞寶) 6등	탁지부 주사	9품			이봉중(李鳳鍾)
서보(瑞寶) 6등		9품			윤정대(尹鼎大)
서보(瑞寶) 6등		9품			김순석(金淳碩)
서보(瑞寶) 6등		9품			김용제(金容濟)
서보(瑞寶) 6등		6품			이중철(李重轍)
육일(旭日) 4등		정3품			윤시병(尹始炳)
서보(瑞寶) 4등		4품			유학주(俞鶴柱)
서보(瑞寶) 2등	내부 지방국장	정3품			염중모(廉仲模)
서보(瑞寶) 4등		6품			홍공섭(洪肯燮)
서보(瑞寶) 6등					이근상(李謹相)
서보(瑞寶) 6등					윤태중(尹泰中)

서보(瑞寶) 6등				한교서(韓敎序)
서보(瑞寶) 6등				김정곤(金貞坤)
서보(瑞寶) 6등	평양부 학동회, 상선회사장			천상하(千象河)
서보(瑞寶) 5등				유필근(柳苾根)
금 35원(圓)				김창복(金昌福)
동 35원(圓)				김순신(金舜臣)
금 50원(圓)				안경복(安景福)
금 35원(圓)				김중엽(金重燁)
금 35원(圓)				홍석현(洪奭鉉)
금 50원(圓)				이봉녀(李鳳汝)
금 35원(圓)				김학구(金學九)
금 35원(圓)				최상익(崔相益)
금 35원(圓)				한성오(韓成五)

계 48명

조서

의훈 훈1등(勳1等) 옥일장(旭日章)

궁내부(宮內府) 특진관(特進官) 종1품 신기선(申箕善)

현훈 한국 훈1등 팔괘장(八卦章)

위 사람은 사건 중 함경남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그 방면에서 관하 각 지방관을 지휘하여 아군 군사 행동에 직간접으로 유감없이 도움을 주어 그 공적이 가장 현저한 자이다. 동씨는 경력에서 일찍이 참정(參政)대신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 한국에서 지위와 명망 모두 두서의 서훈에 상당한 자로 인정한다.

의훈 옥일장(旭日章)

군부대신 정2품 권중현(權重顯)

현훈 한국 훈1등 팔괘장(八卦章) 일본 훈1등 서보장(瑞寶章)

위 사람은 사건 중 육군부장으로 각부 대신 그 외의 요직에 있으면서 중앙에서 아국 군사행동에 대해서 편익을 주는 데에 크게 진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문사로서 전쟁 중 만주에 가서 그 시찰의 결과를 귀국한 후 상하에 소개하는 등 간접으로 아국(일본) 정책에 공헌한 것이 적지 않다. 동씨는 현재 아국의 훈1등 서보장(瑞寶章)을 받았으므로 본건에 대해 특히 옥일장(旭日章)을 하사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

의훈 옥일장(旭日章)

궁내부 특진관 정2품 이중하(李重夏)

현훈 한국 훈3등 팔괘장(八卦章) 일본 훈2등 서보장(瑞寶章)

위 사람은 제1군 주력이 평양을 통과한 후 바로 평안남도 관찰사로 평양에 착임한 이래 사건 중 선무사를 겸하여 관하 각 지방관을 지도하고 민심의 진무에 힘썼으며, 또 아군에 대해 그 행동에 다대한 이익을 준 공적이 아주 크다. 동씨는 한일의정서 체결시에 외무협판(外務協辦)으로 재직하여 당시 일본 훈2등 서보장(瑞寶章)을 받았으므로 본건 공적에 대해 특히 옥일장(旭日章) 하사의 영예를 얻을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의훈 훈3등(勳3等) 옥일장(旭日章)

종2품 박승조(朴承祖)

현훈 한국훈 4등 태극장(太極章)

위 사람은 사건 중 한성부 소윤(漢城府 少尹)으로 경성에서 아군 군사행동 및 정치적 방면의 아군 행동에 관해 진력한 것이 극히 많고, 평화 극복의 전후에 경찰국장 및 경무사로서 시종 아국 정책의 수행에 편의를 주려고 하여 그 공적이 진실로 현저하다.

의훈 훈4등(勳4等) 옥일장(旭日章)

덕원부윤(德源府尹) 종2품 조병교(趙秉教)

현훈 한국 훈4등 태극장(太極章)

위 사람은 1905년 5월부터 함흥(咸興)군수의 임을 맡았다. 아국 군대가 함경도로 북진할 때에 동씨의 앞선 진력은 아군의 활동에 다대한 편의를 주었고, 이래 우리 사단이 함흥에 주둔할 때까지 계속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호의를 표하고 진력한 공적이 아주 지대하다.

의훈 훈4등(勳4等) 옥일장(旭日章)

정3품 이종완(李鍾完)

위 사람은 개전 전부터 1905년 12월까지 덕원군수의 임을 맡았고 문천(文川)군수 부재중에는 문천군수를 겸임하였다. 그 기간 관하인 원산(元山)항이 아국 북진군의 상륙지점이었으므로 인마, 우차 등의 징발과 기타 군수품 조달의 필요가 아주 절실했는데 분주히 진력하여 아군의 행동을 자유롭게 한 공적이 현저하다.

의훈 훈4등(勳4等) 옥일장(旭日章)

정3품 신형모(申珩模)

위 사람은 덕원(德源) 감리서(監理署) 주사로서 1888년부터 원산항에 재임하던 중 1904년 5월 덕원감리로 승임하여 시종 성실하게 여러 교섭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그 기간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많은 변천이 있었는데도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태도로써 아국에 호의를 표하여 아국에게 편익을 얻게 한 것이 아주 많고, 특히 전시에는 아국 군대를 위해 진력하여 알선한 것이 특히 현저한 사실이다.

의훈 훈4등(勳4等) 옥일장(旭日章)

종2품 홍순욱(洪淳旭)

위 사람은 1904년 중 아국 북진군 접응관으로서 함경도에 파견되어 아국 군대를 위해 분주한 바가 있다. 또 1905년 5월 영흥(永興)군수에 임용되어 부임한 후에는 아국 군대를 위해 인부와 우마의 징발, 군수품의 조달, 기타 군대의 활동에 대해 공헌한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

의훈 훈4등(勳4等) 옥일장(旭日章)

6품 박기호(朴淇昊)

위 사람은 개전 이후 원산에 있으면서 아국 영사를 위해 유익한 각지 정세의 보고를 하는데 그 진력한 것이 적지 않다. 게다가 1904년 9월 덕원항 경무관에 임명된 후에는 특히 아국 군대를 위해 분주히 진력하였고, 다음해 2월 고원(高原)군수에 임명되어서는 1906년 1월까지 고원군수로서 아국 북진군이 왕래하는 길에 재직하면서 인부와 우마의 징발 및 군수품의 조달, 기타 아국 군대를 위해 진력한 그 공적이 적지 않다. 특히 관하 덕지강(德地江)에 일대 교량을 가설하여 아국 군대의 행진에 편익을 준 것은 그중에서도 현저한 것이다.

의훈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종성(鍾城)군수 6품 이영식(李永植)

위 사람은 사건 중 아국 북진군 접응관으로 함경도에 파견되어 성진(城津)에 있으면서 감리를 맡았는데 군수 부재로 인해 임시로 지방관의 사무를 취급하게 되어, 아군의 성진 체재 중에는 물론 북진 후에도 아국 군대를 위해 우마차 및 군수품 인부 등의 조달에 분주하여 그 공적이 현저하다.

의훈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시종원 시종 정3품 이교영(李喬永)

위 사람은 개전 전부터 1905년 7월까지 함흥군수로서 재직하였는데, 아국 군대가 북진하는데 함흥군이 왕래의 길에 해당되어 아국 군대에서 동씨의 협력으로 편익을 얻은 것이 아주 적지 않다.

의훈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정3품 조길하(趙吉夏)

위 사람은 개전 전부터 1906년 봄까지 북청(北靑)군수로 아국 군대가 북진하는 길에서 전자와 마찬가지로 알선의 공로가 자못 지대하다.

의훈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정3품 김유직(金裕稷)

위 사람은 단천(端川)군수로서 재직하면서 이원(利原)군수 부재중에는 이를 겸임하여 아국 군대가 그 지방을 왕래하는 데에 전자와 마찬가지로 진력한 노고가 지대하다.

의훈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중2품 김응룡(金應龍)

위 사람은 사건 당시 중화(中和)군수의 직책에 있었는데, 중화는 평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아국 군대가 그곳을 통과할 때 식량과 여물의 매수, 숙영지의 공급에 관하여 동씨의 분주 진력함은 아군의 행동에 편익을 준 것이 자못 지대하다.

의훈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정3품 신대균(申大均)

위 사람은 사건 당시 평양감리로서 재임하면서 아국 군대의 행동에 대하여 평양군수처럼 직접 분주 진력해야하는 직책에 있지 않았음에도 전시 중 간접적으로 군사, 기타에 관해 호의로써 아국에 편익을 준 것이 자못 다대하다.

의훈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정3품 고영철(高永喆)

위 사람은 개전 전부터 1904년 10월 1일까지 삼화(三和)감리로서 진남포에 재임하였다. 개전 전후 진남포에 있던 아국 영사와 협력하여 그 지방 인심의 진무와 지도에 진력한 것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1군의 주력이 진남포 항구에 상륙할 때에는 혼란의 와중에 한국 선박의 징발과 집합, 속사의 공급, 군수품의 조달 등에 적지 않은 앞선 진력을 한 공적이 아주 현저하다.

의훈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동래(東萊)부윤 정3품 김교헌(金敎獻)

위 사람은 개전 전 옥구(沃溝)감리로서 군산(群山)에 부임하여 아국 군대가 마량(馬糧)과 양식 등의 매수와 운반을 그 지방에서 하는데 앞선하여 편익을 준 공적이 지대하다.

의훈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종2품 권직상(權直相)

위 사람은 전자와 동시에 전주군수가 되어 전자와 마찬가지로의 공적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아국 주둔군대에 대해 호의로써 적지 않게 진력 앞선을 한 사실이 있다.

의훈 훈5등(勳5等) 육일장(旭日章)

6품 김영걸(金永杰)

위 사람은 개전 당시 안주(安州) 전보사장(電報司長)(주임(奏任))으로 재임하여 러시아와 일본이 국교를 단절하자 의주방면에서 안주부근에 이르는 연도(沿道)와 기타 각 지방에서 적정을 평양전보국에 통신하여 아군에 대해서 가득 찬 호의로써 평양 신조(新庄) 부영사에게 적군의 동정을 은밀히 전하였으며 일단 안주국(安州局)이 러시아군에 파괴되자 바로 평양 전보국을 도와 근무하여 적정 정찰에 진력한 것이 실로 다대하다.

의훈 훈5등(勳5等) 서보장(瑞寶章)

정3품 이종형(李鍾澄)

위 사람은 사건 중에 평양전보사장(電報司長)(주임(奏任))으로, 개전 당시에는 휴가를 얻어 상경 중이었는데 사사키(佐佐木) 여단이 평양에 도착한 후 바로 귀임하여 전화가설, 전선수복, 기타 재료공급 등

통신기관의 설비에 다대한 진력을 한 공로가 현저하다.

의훈 훈5등(勳5等) 서보장(瑞寶章)

의정부 참서관(參書官) 6품 고원식(高源植)

위 사람은 사건 당시 평안남도관찰부 주사(主事)로서 평양에 재임하면서 아군에 편의를 주는데 분주히 진력한 바가 많다. 또한 동씨는 일본어에 능통하여 그 후 의정부 참서관으로서 비서관의 직을 받을 때까지 시종 우리에게 후의를 표하고 진력한 것이 적지 않다.

의훈 훈6등(勳6等) 옥일장(旭日章)

9품 이병구(李秉九)

위 사람은 개전 당시 평양전보사(電報司) 주사(主事)의 직에 있으면서 겸하여 사장(司長)의 사무를 대리했다. 도고(東郷) 소좌가 적군에 잡히자 재평양 신조(新庄) 부영사의 요구에 응해 전보의 감시 및 검열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의주와 안주의 전보국으로 하여금 러시아군의 정황을 통신시켜 끊임 없이 이것을 나에게 보고해서 적정 정찰에 이익이 되게 한 것은 실로 막대하다. 그리고 전보사장 이종형(李鍾滢)이 귀임한 후에는 그를 보좌해서 통신기관의 민활을 도모하여 아군을 위해 열심히 공헌한 바가 자못 많다. 구로키(黒木) 제1군사령관은 동씨에 대해 감사장을 주었다.

의훈 훈6등(勳6等) 옥일장(旭日章)

9품 최종악(崔鍾岳)

위 사람은 개전 전부터 안주전보사 주사(主事)의 직에 있었는데 아군 헌병 및 평양, 진남포 영사에게 적정을 은밀히 보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나에게 준 그 공적이 아주 크다. 그중에서도 1904년 2월 20일 러시아군 척후대가 안주에 들어와서 22일 안주전보사를 점령하는 이틀간의 위급한 상황에서 유감없이 적정의 변화를 보고한 공적은 가장 현저하다.

의훈 훈6등(勳6等) 서보장(瑞寶章)

9품 김규명(金圭明)

의훈 훈6등(勳6等) 서보장(瑞寶章)

9품 이봉중(李鳳鍾) 탁지부(度支部) 주사

의훈 훈6등(勳6等) 서보장(瑞寶章)

9품 윤정대(尹鼎大)

의훈 훈6등(勳6等) 서보장(瑞寶章)

9품 김순석(金淳碩)

의훈 훈6등(勳6等) 서보장(瑞寶章)

9품 김용제(金容濟)

위 사람들은 모두 사건 중 평양전보사 주사의 자리에 있었는데 전보사장 대변 이병구를 도와 침식을 잇고 통신사무에 힘써서 적정 통신을 나에게 주는데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1904년 2월 러시아군대가 안주전보사를 파괴하고 계속하여 숙천(肅川) 방면의 전선을 절단하자 곧 그 수복공사를 마쳐 통신에 만반의 신속한 활동을 도모하는 등 그 공이 크다.

의훈 훈6등(勳6等) 서보장(瑞寶章)

6품 이중철(李重轍)

위 사람은 개전 전부터 1905년 9월 까지 삼화(三和)감리서 주사로서 진남포에 재임하며 감리 고영철을 도와 민심의 진무와 지도에 노력하고, 제1군의 주력이 진남포 항구에 상륙할 때 한국배의 징발과 집합, 식사 공급과 군수품의 조달에 관해 주야로 분주히 진력한 공적이 현저하게 크다.

의훈 훈4등(勳4等) 옥일장(旭日章)

정3품 윤시병(尹始炳)

위 사람은 송병준(宋秉峻) 등과 함께 일진회를 창립한 이후 혹은 일진회 회장으로로서, 혹은 부회장이나 평의원으로서 시종 일진회의 사업을 계획하고 참가한 자이다. 이에 두서의 훈장의 하사가 있는 것을 지당하다고 인정한다.

의훈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4품 유학주(兪鶴柱)

의훈 훈2등(勳2等) 서보장(瑞寶章)

내부지방국장 정3품 염중모(廉仲模)

의훈 훈4등(勳4等) 서보장(瑞寶章)

6품 홍궁섭(洪肯燮)

위 사람들은 앞에 기록한 윤시병과 함께 일진회의 평의원 중에 중심이 된 자들로서 일진회의 사업을 계획하고 참여하였으므로 두서의 서훈을 할 만하다고 인정한다.

의훈 훈6등(勳6等) 서보장(瑞寶章)

이근상(李謹相)

위 사람은 평양에 거주하는데 일찍이 육군사관의 직을 받든 일이 있고, 독학(篤學)으로 여러사람의 존경을 받아 그 지역에서 신사로서 앙모(仰慕)되었다. 러일전쟁의 소식이 전해지자 동분서주하며 인심의 수습에 노력하고 아군에 대한 숙사의 공급에 진력하는 등 다대한 호의를 표하였다.

의훈 훈6등(勳6等) 서보장(瑞寶章)

윤태중(尹泰中)

위 사람은 평양 부근 미림동(美林洞)에 거주하는데 일찍이 구 능령(陵令)(주임(奏任))으로 봉직한 일이 있다. 러일전쟁 개전의 소식이 전해지자 인심 수습에 노력하고 그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공병의 숙사를 공급하는 등 그 공적이 심히 크다.

의훈 훈6등(勳6等) 서보장(瑞寶章)

한교서(韓敎序)

위 사람은 개성에 거주하는 개성학당의 장이었다. 전시 중 호의로서 아군에 대해 식량과 여물의 구매, 수송, 숙사 공급 등에 직간접으로 알선에 진력하여 편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도로의 개수, 청결법의 실시 등을 권유하는 데 진력하여 아국 군대의 위생상에 준 공적이 또한 심히 적지 않다.

의훈 훈6등(勳6等) 서보장(瑞寶章)

김정곤(金貞坤)

위 사람은 인천항 화촌동(花村洞)에 거주하는데 현재 일한협동전운사(轉運社) 부사장이었다. 개전 당시에 인천항에서 군수품의 육상 운송 그 외에 필요한 한인 인부의 부족을 알리자 인천 부근의 각 군을 편력하여 촌민을 권유해 4,000여 명의 인부를 모아 주야 구별없이 이를 감독하여 아군에 대해 편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응신청(應信廳)의 명의로써 인부조합을 조직하여 시종 아군에 대한 인부 공급에 진력하여 그 공로가 심히 현저하다. 또 본인은 노동자를 위해 학교를 설치하고, 질병 또는 재해로 죽은 자를 위해 매장지를 준비하고, 소방조를 조직하는 등의 의거가 있었다. 인천 항구에서 명망있는 자이다.

의훈 훈6등(勳6等) 서보장(瑞寶章)

천상하(千象河)

위 사람은 지난 1894, 1895년 사건 당시부터 나에게 같은 동정을 표시하였는데 특히 러일전쟁 전인 1903년 12월경부터 도고(東郷) 소좌의 정찰을 도울 목적으로 자비를 투입해서 의주, 용암포, 안동현 방면으로 출장하여 러시아의 만주와 한국에서의 정황을 조사해 보고하였다. 1904년 3월 제1군이 평양을 통과할 때에는 군용품의 운반에 종사하며 수만 명의 인부를 공급하여 아군의 행진에 도움을 준 이래 우리 평양주둔군을 위해 도로를 수축하여 운수에 편의를 도모하고, 병사(兵畚)의 위생을 위해 대청소를 행하는 등 그 공로가 현저하다.

의훈 훈5등(勳5等) 서보장(瑞寶章)

유필근(柳苾根)

위 사람은 1898년 10월 처음 동경고등상업학교의 한어교사가 되고, 그 후 1900년 9월까지 동경외국어 학교의 강사가 되어 월봉 금 100원을 받았으며, 1902년 1월부터 주임관 5등 이상의 대우를 받아 1907년 7월까지 근속하다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사퇴하고 귀국하였다. 그 기간 결근하는 일 없이 힘을 다해 제자의 훈육에 노력하여 1904년 개전 당시에는 다행히 다수의 적당한 역관을 얻게 하였고, 나아가 그때 역관을 요구하는 일이 더욱 급해지자 주야로 교편을 잡아 학업을 독려하여 계속 속성자를 배출하여 출정군에 다대한 편의를 준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이다.

- 금 35원 김창복(金昌福)
- 금 35원 김순신(金舜臣)
- 금 50원 안경복(安景福)
- 금 35원 김중엽(金重燁)
- 금 35원 홍석현(洪奭鉉)
- 금 50원 이봉녀(李鳳汝)
- 금 35원 김학구(金學九)
- 금 35원 최상익(崔相益)
- 금 35원 한성오(韓成五)

위 사람들은 전시를 당하여 군대 또는 임시군용철도공사에서 한어통역으로 종사하며 열심히 면려하여 그 직무를 잘 수행한 공적이 현저한 자들이다.

〈출전 : 『韓國宮內府特進官從一品勳一等申箕善外四十七名叙勳及賜金ノ件』, 『叙勳』 卷7(外國人 5), 1908년 11월 7일,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5. 정치국(丁致國) 외 4명 서훈 및 사금

한국인 정치국 외 4명 서훈 및 사금(賜金)의 건

위에 대해서 삼가 재가를 바랍니다.

1909년 3월 6일

내각총리대신 후작 가쓰라 타로(桂太郎) (사인)

상훈국 상신 제68호, 79호 3월 6일 재가

1909년 3월 5일

내각총리대신(사인) 상훈국(賞勳局) 총재 (인)

한국인 정치국(丁致國) 외 4명 서훈 및 사금의 건은 별지와 같이 의논하여 정하였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바랍니다.

더욱이 본 건은 일반 행상(行賞)의 날짜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재가일로 시행하고 싶다는 것을 첨부하여 아웁니다.

상훈 의안 20호

1909년 3월 4일

상훈국 총재 (인) 서기관 (인) (인)

의정관 가 (인)(인)(인)(인)(사인)(사인)(사인)

부

서훈 및 사금 의안

한국인 정치국(丁致國) 외 4명

위 사람들은 1904, 1905년 러일전쟁 때에 아국 육군의 명을 받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인마, 차량, 양식, 기타 군수품을 수송하거나 혹은 적정시찰, 지리탐험, 군수품 구입 등 아군의 행동을 도운 일이 다대하여 모두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한다. 이에 부통감의 상주를 조사하여 훈등 및 사금액을 의의(擬議)한 것이 다음과 같다.

	훈등 및 사금액	관직명	씨명
작기	훈6등 서보장(瑞寶章)	대한협동우선(郵船)회사 지점장	정치국(丁致國)
작기	훈6등 서보장(瑞寶章)	대한협동우선회사 소유선 현익호(顯益號) 선장	김성진(金聲振)
	25원(圓)	구 육군통역	김윤복(金允福)
	50원(圓)	구 육군통역	김명숙(金明叔)
	50원(圓)	구 육군통역	김내선(金乃善)

기밀통발 제170호

1904, 1905년 사건에 공적이 있는 한국인 정치국 외 4명의 상여상주서를 진달합니다.

1909년 2월 13일

통감대리 부통감 자작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인)

내각총리대신 후작 가쓰라 타로(桂太郎) 귀하(殿)

1904, 1905년 사건 때 한국인 정치국 외 4명은 별지의 조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전시 수송 및 통역사무에 종사하여 공적이 적지 않은 자들이므로 의상(擬賞)한대로 상을 내릴 것을 분부해 주시기를 이와 같이 삼가 아뢰입니다.

1909년 2월 13일

통감대리 부통감 자작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인)

한국인 훈적 명부

의훈(擬勳) 및 상사(賞賜)	관직명	씨명
서보(瑞寶) 6등	대한협동우선(郵船)회사 총무장	정치국(丁致國)
서보(瑞寶) 6등	대한협동우선회사 소유선 현익호(顯益號) 선장	김성진(金聲振)
25원(圓)	구 육군통역	김윤복(金允福)
50원(圓)	구 육군통역	김명숙(金明叔)
50원(圓)	구 육군통역	김내선(金乃善)

한국인 훈적조서

한국 인천항 내동(內洞)

대한협동우선회사 총무장 한국인 정치국(丁致國)

동 회사 소유선 현익호(顯益號) 선장 한국인 김성진(金聲振)

1. 공로사항

위 대한협동우선회사 소유선 현익호는 등부톤수 444톤의 서양형 선박으로 1904년 10월 10일 인천병참사령부에서 군수품의 수송을 명령받은 이래 1905년 8월 15일에 이르는 약 1년간에 걸쳐 거의 10회 가량 인천항을 기점으로 부산, 원산, 서호(西湖), 삼도(三島), 신창(新昌), 차호(遮湖), 독진(獨津), 성진(城津), 청진(靑津), 임명(臨溟) 등의 사이를 왕복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인마, 차량, 양식, 기타 군수품의 수송을 추호도 명령에 위배되는 일 없이 수행하여 그 공적이 상당한 은상(恩賞)을 내릴만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사적의 대요는 별지와 같다.

이력서

한국 인천항 내동 거주 한국인

대한협동우선회사

총무장 정치국(丁致國)

현익호 선장 김성진(金聲振)

- 1904년 음력 10월 10일 명령에 의해 인천항에서 군용품 1만 500여 개 및 군인 6명을 배에 싣고 가서 같은 달 14일 원산 및 서호에 이르러 뱃짐을 풀
- 1904년 12월 9일 명령에 의해 인천항에서 군용품 18,900여 개 및 군인 3명을 배에 싣고 가서 같은 달 12일 원산에 이르러 뱃짐을 풀고

(하략)⁵⁾

한국 인천항 경성통(京城通) 용강정(龍岡町) 거주 한국인

구 육군통역 김윤복(金允福)

1. 공로사항

위 김윤복은 1904년 2월 9일 인천 앞바다 해전 때 양무함(揚武艦)에 승선하여 아국 해군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함을 시찰하고 난 후 아군을 위해 전기 양무함을 제공하는 등의 공로가 있다. 1904년 2월 27일 육군통역을 명받아 6월 10일 일이 끝나 해직될 때까지 기간에도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 혹은 아국 장교, 병사와 함께 적군의 정찰을 하거나 혹은 군용품의 선적 운반을 하였다. 또 운송 항로의 탐검, 침몰한

5) 페이지 누락.

작은 증기선의 탐색, 표류 군용품의 인수, 중국 정크선의 단속을 하는 등 명령받은 임무를 수행하여 아군의 행동에 도움이 된 것이 적지 않아 그 공로가 상당한 은상(恩賞)을 내릴만 하다고 인정한다. 이에 본인의 약력은 별지와 같다.

이력서

한국 인천항 경성통 용강정 거주 한국인

김윤복(金允福)

- 1904년 2월 9일 양무함에 승선하여 돌아다니던 중 러일전쟁이 개시되자 그날 오후 4시 도야마(土山) 해군 소장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함 와리야쿠, 코레즈의 현상 시찰을 마치고 돌아와서 소장에게 보고했다. 이후에 전기 양무함은 일본해군에 인도되었다.
- 1904년 2월 27일 인천에서 일본육군 한어통역으로 고용되어 월급 금 40원을 받았다. 이날부터 인천항에서 선적의 군용품 단속에 종사하였다.
- 1904년 2월 31일 진남포에 출장을 명받다.
- 1904년 4월 5일 명령에 따라 장교, 병졸과 함께 평안도 서호리(西湖里) 방면으로 적정시찰을 가서 적의 집단을 알아보고 돌아와 사카키바라(榊原)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때 상여로 금 50원을 받았다.
- 1904년 4월 중 나카무라(中村) 사령관 외 수명의 장교, 병사를 수행하여 28척의 선박에 군용품을 싣고 서호리로 향하여 철산(鐵山)방면에 위 군용품을 수송했다. 이때 운송선 중에 풍파 때문에 난파된 것이 있었다. 이에 적당한 운송항로 탐검을 명받아 난파선 표류화물을 수습하여 동장 또는 촌장에게 맡기고 서호리에 돌아와 보고하였다. 이때 상여로 나카무라(中村) 사령관으로부터 금 15원, 기타 장교에게서 금 5원을 받았다.
- 1904년 5월 3일 명령에 따라 진남포로 가다가 황해도 청명동(淸名洞) 부근에서 작은 증기선 2척이 침몰하자 수색을 위해 출장하여 표류물의 처치를 마치고, 일단 귀대하여 사카키바라(榊原)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다시 공작선에 승선하여 그 표류물 인수를 위해 현장에 출장하였다가 5일 지나서 진남포로 돌아왔다.
- 1904년 6월 중순 전쟁 장소인 청나라 영토에 들어갔다가 일이 끝나 해직되어 상여금 20원을 받았다.
- 1906년 4월 1일 부로 1904, 1905년 전역 중의 훈로에 의해 금 30원을 상여하였다.

위에 적은대로 틀림없음.

위 김윤복(金允福)

한국 인천항 외동(外洞) 거주 한국인
구 육군통역 김명숙(金明叔)

1. 공로사항

위 김명숙(金明叔)은 청일전쟁 때에도 아군의 통역으로서 종군했는데,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1904년 3월 5일 다시 아국 제12사단 제14연대 제3대대 본부 소속으로 한어의 통역을 명받은 이래 6월 14일 일이 끝나 해고될 때까지 110여 일간 성실하게 직무에 종사하여 군대의 행진에 따라 평양에서 안주(安州), 박천(博川), 후창성(後昌城)을 거쳐 구련성(九連城)에 이르고, 마침내 봉황성 부근까지 전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후창성, 구련성의 전투에서는 항상 전투부대에 있으면서 열심히 직무에 임하여 군대의 행동을 도운 것이 적지 않아 그 공로가 상당한 은상을 내릴만한 자로 인정한다. 이력의 대요는 별지와 같다.

이력서

한국 인천항 외동(外洞) 거주 한국인
김명숙(金明叔)(33세)

- 1904년 음력 1월 19일 평양에서 야전 제12사단 제14연대 제3대대 본부 소속으로 한어통역 배명.
- 1904년 1월 21일 군수품 구입을 위해 순안(順安)에 출장, 통역사무를 하다.
- 1904년 1월 21일 군수품 구입 통역으로서 숙천(肅川)에 출장.
- 1904년 1월 23일 중대장 이하 50명을 수행하여 대녕강(大寧江)을 건너 가산(嘉山)의 서쪽 각 부락의 정찰을 하였다.
- 1904년 2월 14일 박천(博川)에 가서 체재하던 중 적군에 내통하는 군읍이 있음을 듣고 명령에 따라 그 사실을 탐사하고 돌아와 대장에게 보고했다.
- 1904년 2월 20일 박천을 출발하여 영변(甯邊)에 도착하여 4일간 체재하고, 운산(雲山)에 도착하여 1박하고, 다시 3일후 후창성(後昌城)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전쟁 중에는 시종 전투부대를 따라 통역 사무 및 우마 매입, 양식과 군용품의 수송에 분주했다.
- 1904년 4월 27일 구련성(九連城) 후방에 도착하여 그날 오후 전투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이 통역 사무, 기타의 일로 분주했다. 그날 강을 건너 봉황성으로 전진했다.
- 1904년 4월 28일 구련성으로부터 약 70리 전방의 모 부락에 있던 적병들이 일본군의 전진에 의해 창고에 방화하고 퇴각했기 때문에 청국인들의 약탈을 방지하려고 통역사무에 종사했다.
- 1904년 5월 1일 해고되었다.

위에 적은 대로 틀림없습니다.

위 김명숙(金明叔)

한국 인천항 내동(內洞) 거주 한국인

구 육군통역 김내선(金乃善)

1. 공로사항

위 김내선(金乃善)은 1905년 3월 2일 아국 육군의 한어통역을 명받아 한국 강서(江西)수비대 국민대대에 배속되어 1905년 11월 20일 일이 끝나 해고될 때까지 거의 9개월간 성실하게 직무에 종사하여 용강(龍江), 태평동(太平洞), 청산(靑山), 증산(甞山), 함읍(咸泣) 등 부근의 땅을 왕복하며 혹은 시찰 혹은 수색 혹은 지리탐사를 하거나 또는 군수품의 징발 수송에 종사하여 아국 군대를 위한 공로가 적지 않다. 이에 병참사령부에서 특히 상을 내렸는데, 그 공로가 상당하여 은상을 내릴만한 자로 인정한다. 본인의 약력은 별지와 같다.

이력서

한국 인천항 내동(內洞)

김내선(金乃善)(36세)

- 1905년 음력 3월 2일 일본제국 육군통역으로 명을 받음.
- 1905년 3월 5일 명에 의해 한국강서수비대 국민대대에 배속.
- 1905년 10월 25일 표창 받음.
- 1905년 11월 20일 일본국 육군통역 해고.

재근 중 사적의 개요

1905년 3월 5일 밤 진남포 병참사령부의 명령에 의해 수비대 국민대대에 배속되어 구루수(來栖) 소위 및 국민병 200여 명과 함께 용강으로 향하다가 숙소를 정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6일 구루수(來栖) 소위 및 병졸 2명과 함께 태평동을 수색하러 갔으며, 그 후 자주 장교, 병졸과 함께 시찰 또는 수색으로 출장했다. 요시다(吉田) 대위와 출장할 때에는 온천 2곳, 삼화읍(三和邑), 기타 각지의 지도를 작제해서 돌아왔으며, 또 삼화읍 3, 4십리 바깥에서 적병을 수색할 때에는 적 2명을 포박해서 돌아왔다.

〈출전 : 「韓國人丁致國外四名叙勳及賜金ノ件」, 『叙勳』 卷3(外國人 1),
1909년 3월 6일,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II. 만주사변 · 중일전쟁 조선인 ‘공로자’ 사례

1. 관료

1) 고궁명(高杻明)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3월 24일, 계 8월 18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칠곡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의 공출에 관한 업무

품목	공출할당	공출수량	공출기한	공출연월일
대맥(大麥)	5,800석	5,800석	1937. 10. 31	1937. 10. 31
고(藁)	17,320kg	17,320천	1937. 10. 31	1937. 10. 31
건초(乾草)	5,020kg	5,020천	1937. 10. 31	1937. 10. 31
생돈(生豚)	324두	324두	1937. 12. 31	1937. 12. 31

2. 전상병환자의 위문에 관한 업무

상병군인 육군병원 위문 2회(300원)

3. 군대군인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

유가족 위문	6회(300원)
위문대 모집	450개
영화회 개최	2회
인형극	7회

4. 여론환기와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군사후원 사상보급 강연회 및 간담회 개최

주공기간 : 1938년 3월 25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1월 4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의성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의 공출에 관한 업무

품목	공출할당	공출수량	공출기한	공출연월일
대맥(大麥)	8,800석	8,800석	1939. 8. 31	1939. 8. 31
비마자(蓖麻子)	1,200근	949근	1939. 12. 31	1939. 12. 31
생돈(生豚)	1,200두	852두	1939. 12. 31	1939. 12. 31
생우(生牛)	20두	20두	1939. 12. 31	1939. 12. 31

개가족	2,760매	2,018매	1939. 2. 28	1939. 2. 28
토끼가족	120매	1,215매	1939. 2. 28	1939. 2. 28
대맥(大麥)	11,000석	1,000석	1939. 10. 31	1939. 10. 31
대마(大麻)	250관	265관	1939. 9. 11	1939. 9. 11
돈피(豚皮)	1,600매	1,612매	1939. 12. 31	1939. 12. 31
개, 토끼가족	2,150매	2,129매	1939. 12. 31	1939. 12. 31
생우(生牛)	100두	100두	1939. 2. 28	1939. 2. 28

2.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의 후원 위홀 업무

응소, 입영병 축기	20기
증정, 전별	208월
위문대	702개
격려전보	7통
응소군인 유가족 위문	17회
전사전상자에 대한 조위 타전	9회
군민장비 지번	450월

3. 여론환기와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시국인식강연, 강화회	16회
시국좌담회	18회
애국군사 강화회	2회
시국영화회	2회
무도고취 강연회	1회
실전 강화회	1회

〈출전 : 「功績調書(高巨明)」,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 구자경(具滋璟)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8월 31일, 계 1년 1월 23일

주공관직 : 전라남도 순천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의 공출에 관한 업무

말사료용 건조 46,200kg

말사료용 대맥	257석
군용 모피	1,117매
2. 국방헌금, 애국기 헌납자금 기타 취전 업무	
국방헌금	502원
비행기 헌납자금	3,217원
고사기관총의 헌납금	2,047원
3. 군대, 군인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	
황군위문금	308원
황군위문대	864원
도지(渡支)장병 위문	123원
군사후원비 기부	3,217원

주공기간 : 1938년 9월 9일 ~ 1939년 5월 17일, 계 8월 9일

주공관직 : 전라남도 광산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 공출에 관한 업무

말사료용 대맥	800석
군수통조림용 생돈	2,772두
군용 모피	4,938매

2. 전사자 조위에 관한 업무

1938년 11월 30일 임곡면(林谷面) 출신자 전몰에 대한 군민장을 집행함.

3. 군대, 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후원 위홀 업무

1) 군대군인의 후원 위홀

위문대 181대

위문문 363통

2) 유가족의 후원 위홀

위문 횟수 2회

연 134호 소요경비 363원

주공기간 : 1939년 5월 18일 ~ 1940년 4월 28일, 계 11월 11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산업부장, 참여관 겸 도사무관

공적사항

1. 군수품 공출에 관한 업무

1939년 5월 경상북도 산업부장으로 부임한 이래, 조선 내 농산물 생산액에서 선도하는 관계상 군수 물자의 공출에 대해 타도에 비해 매우 많은 공출을 할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즉시 제일선에서 몸소 내무경찰 등 각 관계 기관과 긴밀히 연락하며 분골쇄신 업무에 몰두한 결과, 그 동안 계획의 차질이 오기도 하였으나 공출 상황에서 당사자가 진실로 거국일치, 보국정신의 발로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소 본인의 조치가 적절하여 그 공적이 진실로 크다고 인정됨. 주요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1) 말사료용 건초의 공출

공출할당수량 360,000kg

공출수량 360,000kg

기간 : 1939년 7월 6일 ~ 1939년 □월 30일

2) 말사료용 대맥의 공출

……(판독불가)……

기간 : 1939년 7월 5일 ~ 1939년 8월 15일

3) 군수용 대마의 공출

공출할당수량 32,500근

공출수량 39,950근

기간 : 1939년 8월 1일 ~ 1940년 1월 31일

4) 군수용 돈피(豚皮)의 공출

공출할당수량 30,200매

공출수량 31,398매

기간 : 1939년 5월 ~ 1940년 3월 30일

5) 군수용 양모(羊毛)의 공출

공출할당수량 2,300,000kg

공출수량 2,335,600kg

기간 : 1939년 6월 22일 ~ 1939년 7월 5일

6) 군수통조림용 생우의 공출

공출할당수량 2,600두

공출수량 2,600두

기간 : 1939년 9월 6일 ~ 1940년 3월 30일

7) 군수용 모피의 공출

	견(犬)모피	토(兔)모피	기 타
공출할당	39,000	4,030	200
공출수량	39,950	4,275	205
기 간	1939년 11월 14일 ~ 1940년 3월 20일		

8) 군수용 진면(眞綿)의 공출

공출할당수량	1,424조
공출수량	1,424조

9) 생선의 공출

영일군 포항읍 동보정 김동덕(金東德)과 울주군 감포읍 중매조합에서 1939년도 동계 군납품으로 절인 생선과 마른 생선의 납입을 인수하였으므로 군수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불량품을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1940년 1월부터 4월까지 감독 지도하여 인수수량 및 양품의 완납에 만전을 기하였음.

김동덕	절인 생선 2,013상자
	마른 생선 1,300상자
감포중매조합	마른 생선 300상자

기타 어업용 증유의 배급을 맡아 어업의 실태에 따른 공평한 배급을 하기 위해 기초조사로서 각종 어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것을 기본으로 배급 사정함으로써 어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2. 국내물가의 조정에 관한 업무

- 1) 1939년 9월 광산용 자재 배급을 위해 경상북도광산협회를 설치하여 자재의 배급에 노력함.
- 2) 또한 고무제품 배급 통제를 맡아 고무제품 제조업자 전반에 대한 수요액을 조사하여 배급할당의 공평을 기함.
- 3) 이어 석유소비규정에 의하여 주요 업자(교통운수업, 어업자)의 원활한 경영 지도를 담당함.

3. 9·18가격정지령에 대한 조치

1939년 9월 18일 칙령의 공포에 따라 도에서는 10월 27일 이후 발동하여 다음의 통제최고판매가격을 결정하였다.

통제품목		년월일	종목	점수
대분류	품목			
직유품	면제품	1939. 12. 1	29	70
금속품	알루미늄 제품	1939. 11. 6	13	66
	유리제품	1939. 12. 13	7	92
연료	나무껍질	1939. 12. 1	4	31
	석탄	1939. 12. 13	2	17
식료품	일용식료품	1939. 12. 21	18	19
농림수산물	쌀(소매)	1939. 11. 27	1	3

계				461
직유품	조선망건 면포	1940. 1. 18	18	40
	인조직물	1940. 1. 18		213
	스푸직물	1940. 1. 18		103
	조선산 제면	1940. 4. 1	3	18
화학공업품	세멘트	1940. 2. 3	1	4
	소비탄화소	1940. 3. 18	2	4
	양지	1940. 4. 1	8	38
연료	나무껍질	1940. 2. 3	1	4
식료품	조선주 기타	1940. 4. 1	6	28
	맥주 기타	1940. 4. 6	1	4
	사탕 기타	1940. 4. 6	6	28
농림수산물	쌀	1940. 2. 3	1	2
	대맥 기타	1940. 2. 15	3	3
잡품	조선가죽	1940. 2. 18	18	23
계				341
합계				1,002

4. 생산력 확충에 관한 업무

영천군 북안면 소재 유상공려수리조합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2일 공사에 착수하고 그 공사의 지도를 담당함.

몽리면적 133정보

공사비 74,300원

또한 한해대책 토지개발사업으로 수리조합 개량공사 5개소, 읍면사업 22개소, 제언보 준설사업 744개소, 만강정호 7295개소, 밭 개간 826개소, 총 몽리면적 27,272정보, 총공사비 3,430,644원의 대사업 실시계획을 세워 공사를 착수하고 그 지도를 맡음.

5. 기타 위 각 항에 준하는 업무

소관 감독하에 있는 도농회로 하여금 군수품의 공출 업무에 대한 공출의 독려 또는 예산의 편성 및 추가 입체자금의 조달 등에 구체적 계획을 수립케 하고 협력 원조하여 공출의 완수에 노력함.

〈출전 : 「功績調書(具滋嘽)」,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 권중환(權重煥)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3월 25일, 계 8개월 19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의성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의 공출

1) 말사료용 대맥 공출

공출할당	10,000석
공출수량	10,000석
공출기한	1937년 12월 10일
공출연월일	1937년 11월 30일

2) 말사료용 건초의 공출

공출할당	3,500관
공출수량	5,113관
공출기한	1937년 12월 31일
공출연월일	1937년 11월 30일

3) 군용 견피의 공출

공출할당	2,000매
공출수량	1,702매
공출기한	1937년 12월 31일
공출연월일	1937년 12월 31일

4) 군용 토끼모피의 공출

공출할당	100매
공출수량	100매
공출기한	1937년 12월 31일
공출연월일	1937년 12월 31일

2. 군대, 군인의 후원과 위휼에 관한 업무

1) 응소 입영군인의 송영

축기	15본
증정전별	104회
위문대	350개
격려전보	6통
군용식량 증정	10관 500문

3.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과 선전에 관한 업무

시국인식 강연회 15회
시국좌담회 3회

주공기간 : 1938년 3월 26일 ~ 1940년 3월 27일, 계 2년 2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청송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의 공출에 관한 업무

1) 1938년 3월 27일 말사료용 대맥의 공출

공출할당 600석
공출수량 600석
공출기한 1938년 7월 31일
공출연월일 1938년 7월 31일

2) 1938년 3월 27일 군용 돼지가죽의 공출

공출할당 160매
공출수량 160매
공출기한 1939년 1월 31일
공출연월일 1939년 1월 15일

3) 1939년 3월 7일 말사료용 대맥의 공출

공출할당 1,000석
공출수량 1,000석
공출기한 1939년 7월 31일
공출연월일 1939년 7월 31일

4) 1939년 12월 2일 군용 개가죽, 토끼가죽의 공출

공출할당 토끼가죽 200매, 돼지가죽 50매, 개가죽 75매
공출수량 토끼가죽 367매, 돼지가죽 50매, 개가죽 1,123매
공출기한 1939년 2월 26일
공출연월일 1939년 2월 16일

5) 대마 및 피마자의 공출

공출할당 대마 800관, 피마자 5석 6두
공출수량 대마 800관, 피마자 6석 4두
공출기한 대마 1939년 8월 31일, 피마자 1939년 11월 30일
공출연월일 대마 1939년 8월 31일, 피마자 1939년 11월 30일

- 6) 1940년 1월 10일 군용 토끼가죽, 개가죽의 공출
- | | |
|-------|-------------------------------------|
| 공출할당 | 토끼가죽 280매, 개가죽 1,000매 |
| 공출수량 | 토끼가죽 330매, 개가죽 667매 |
| 공출기한 | 토끼가죽 1940년 2월 29일, 개가죽 1940년 2월 29일 |
| 공출연월일 | 토끼가죽 1940년 3월 1일, 개가죽 1940년 3월 1일 |

2.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과 선전에 관한 업무

1) 사변 1주년 기념행사, 농산촌민 생업보국식, 육군기념일

1938년 5월부터 1주간 해군기념일을 중심으로 시국인식 강연회를 개최함(8회), 각 공려조합 단위의 좌담회를 개최함.

1938년 7월 7일 사변 1주년기념식을 거행하고 1938년 9월 21일 농산촌민 생업보국을 실시, 1,329원을 현금함.

1939년 3월 7일부터 1주간 3월 10의 육군기념일을 중심으로 국방사상 보급 강연회를 8회 개최함. 그 결과 국방헌금 820원과 황군위문금 300원을 각출함.

2) 1939년 9월 21일 농산촌민 생업보국운동을 실시하여 832원을 현금함.

1940년 1월 13일부터 1주간 유립에 대한 시국인식 좌담회를 개최한 결과 국방헌금 520원과 황군위문금 230원을 각출함.

3.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의 원호와 위훈에 관한 업무

1939년 1월 3일 유가족 위문 3호(9원)

1938년 11월 21일 황군에 위문대 증정 425개, 위문연초 카사도키 2,400개

1939년 11월 25일 위문문 780통, 위문작품 350점, 위문연초 3,200개, 위문대 420개

1939년 12월 31일 군사원호비 기부 630원

4. 부상군인 위문에 관한 업무

1940년 2월 20일 대구육군병원 위문 9명(50원)

5. 국방헌금 취전에 관한 업무

1939년 7월 3일 헌납 비단과 면(422원)

1939년 12월 25일 소비절약에 의한 국방헌금 850원, 폐품회수에 의한 국방헌금 230원

〈출전 : 「功績調書(權重煥)」,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4) 김규년(金圭年)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3월 25일, 계 8개월 19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영주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 공출에 관한 업무

1937년 8월 27일 말 사료용 건조의 공출명령이 내려와 공출업무를 완수함

공출할당 10,000kg

공출수량 8,264kg

공출기한 10월 상순

공출월일 10월 8일

1937년 10월 5일 말 사료용 보리 공출업무 완수

공출할당 1,600석

공출수량 1,600석

1938년 1월 4일 군용 토끼가죽, 개가죽 공출업무 완수

공출할당 개가죽 650장, 토끼가죽 70장

공출수량 개가죽 957장, 토끼가죽 82장

공출기한 1937년 3월 중순 ~ 1938년 2월 19일

공출월일 1937년 3월 중순 ~ 1938년 2월 19일

2. 국채소화, 저축장려에 관한 업무

국채소화 1937년 1,100원

저축장려 1937년 280,000원

3.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자금 모집 총괄 업무

국방헌금, 비행기 헌납금, 홀병금 12,000원

4. 군대 군인 및 그 유가족의 후원 위훈에 관한 업무

위문대 증정, 위문품 증정 1,680점

출정군인 유가족 위문 2회(76원)

5. 여론 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강연회, 시국좌담회, 영화회 등을 개최하여 그 선전보급에 노력함

주공기간 : 1938년 3월 26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1개월 2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상주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 공출에 관한 업무

1) 1939년 9월 22일 말사료용 건조 공출업무 완수

공출할당 120,000석
공출수량 165,000석
공출기한 1939년 9월 20일
공출월일 1939년 9월 20일

2) 1939년 4월 10일 말사료용 건조의 공출 및 피마자 공출업무 완수

공출할당 160,000kg
공출수량 160,000kg
공출기한 1939년 8월 1일
공출월일 1939년 8월 1일

(이상 건조)

공출할당 3석
공출수량 3석 4두
공출기한 1939년 8월 1일
공출월일 1939년 8월 1일

(이상 피마자)

3) 1939년 8월 5일 군용 견·토·양모·돈피 공출업무 완수

	개털가죽	돼지가죽	양털	토끼털가죽
공출할당	4,016장	4,007장	444원	140장
공출수량	4,016장	4,007장	444원	140장
공출기한	1939. 12. 30	1939. 12. 30	1939. 12. 30	1939. 12. 30
공출월일	1939. 12. 30	1939. 12. 30	1939. 12. 30	1939. 12. 30

2. 국방헌금 총괄에 관한 업무

군민의 절미 및 폐품 회수를 제창하여 그 실적으로 左記의 금액을 헌금함

국방헌금 계 600원

절미 500원

폐품회수 100원

3.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선전에 관한 업무

1) 강연회 개최

사업1주년 기념 국방사상 보급 강연회 개최

1938년 7월 1일부터 1938년 7월 7일까지 1주일간 220회

2) 영화회 개최

국방사상 보급 영화회 개최

1938년 7월 7일, 1938년 7월 9일, 1938년 7월 11일

효과

국방헌금 2,843원 96전

헌납 면 2,791원 71전

<출전 : 「功績調書(金圭年)」,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5) 김대우(金大羽)

주공기간 : 1939년 3월 15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1월 14일

주공관직 : 전라남도 참여관 겸 내무부장 도사무관

공적사항

1. 군의 계획 및 행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1) 제주도 비행장으로 통하는 도로, 항만 개수공사에 인부 혹은 자재에 많은 곤란이 있었지만, 훌륭하게 부하를 지휘하여 극력 빠른 진척에 노력한 결과, 1939년 6월말 공사를 준공하고 군의 행동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2) 평양과 나남에서 군부 측 공사에 대해 550명의 노동자를 알선하였다.

2.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1) 도영화교육연맹 이사장으로서, 국민정신총동원도연맹 이사장으로서 영화를 통하여, 혹은 연맹의 기관지인 『총후의 전남』 등의 인쇄물을 편집, 배부하여 시국인식의 철저와 국방사상 보급선전에 노력하였다.

순회시국영화 18회

인쇄물발행 1,335,000부

2) 각종 기념일 혹은 시국에 관한 각 주간을 맞이하여 도내 각지를 순회강연하거나 또는 시국표어 현상모집 등을 시행하여 일본정신의 발양, 시국인식 철저에 노력하였다.

3. □□□□□□에 관한 업무

1) ……(관독불가)…… 그 취급액은 84,356건으로 1,391,882원에 달했다.

2) 시국관계 제비용, 방공관계비용, 혹은 생산확충비 등의 전시 도비 예산을 편성하고 경리를 집행하고 시국대책에 만전을 기함.

이것의 취급예산총액 768,111원

3) 지출관 및 지불명령관의 아래에서 방공비, 임시군사비, 소집 제비용, 기타 시국에 관한 제비용의 출납 및 감독을 행하고 경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 취급건수는 819,480건으로 총액 418,437원에 이른다.

4. 국내 물가의 조정, 생산확충에 관한 업무

1) 경제 강조주년을 실시하여 저물가정책에 대한 일반의 이해, 소비절약의 시행 등의 보급선전에 노력함.

2) 도내 각 학교 근로봉국대를 총동원하여 농번기에 있어서 전식, 맥예, 도예, 목탄증산 수조 혹은 가마니짜기 등의 조력 등의 계획을 수립, 이것의 생산확충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그 지도에 응하였다.

5. 군대군인 및 유가족 등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

1) 항상 응소군인 유가족의 현황을 조사하여 후원에 만전을 기함.

(1) 군사부조 개시 수속의 취급 177건 13,276원

(2) 유가족 위홀 조문 회수 62회 1,927원

상이군인 좌담회 개최 혹은 위문문 6,600통을 취전하여 증정함.

2) 관내 청년을 시켜 유가족의 생업 수조의 계획 및 지도를 실행하였다.

6.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에 관한 업무

저축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위원회 개최, 저축장려, 영화회, 강습회 개최, 지방좌담회에서 혹은 인쇄물을 발행하여 오로지 후방저축의 장려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38년도 목표 1,500만 원에 대하여 1,680만 원, 1939년도 목표 1,600만 원에 대하여 1,640만 원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또한 각회 발행의 국고 및 저축채권 할당액의 소화에 노력하였다.

7. 전사전상병사자 조위 및 위문에 관한 업무

부군도읍면민장 혹은 위령제를 맡아 언제나 집행상의 지도를 행하고, 또 조위금을 보내 전몰자의 위령에 노력하였다.

취급한 부군도읍면민장 19회

위령제 회수 14회

8. 국방헌금 및 병기헌납금 등의 모집에 관한 업무

병기헌납자금, 국방헌금 혹은 위문금의 취전에 노력함.

<출전 : 『功績調書(金大羽)』,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6) 김동훈(金東勳)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9년 4월 16일까지, 계 1년 10월 10일

주공관직 : 충청북도지사

공적사항

1. 동원소집에 관한 업무
2. 방공방첩에 관한 업무
3. 첩보, 정보에 관한 업무
4. 군용물자의 조달, 군수품의 공출에 관한 업무
5. 차량수송, 경계에 관한 업무
6.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7. 총동원에 관한 업무
8. 국내 물가의 조정, 생산력 확충 및 자원개발에 관한 업무
9. 유언비어 그 외 시국범죄의 방지, 단속, 검거에 관한 업무
10. 신문 및 출판물의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11. 전사, 전상병자의 조위 및 전상병 환자의 취급 위문에 관한 업무
12. ……(판독불가)……
13. 공적조사 및 사변관계 기부 행상에 관한 업무
14. 사변관계법령의 심의 및 예산에 관한 업무
15. 국채소화, 저축장려 등에 관한 업무
16.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 자금 등의 모집 단속에 관한 업무

〈출전 : 「功績調書(金東勳)」,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7) 김병태(金秉泰)

주공기간 : 1937년 10월 27일 ~ 1938년 6월 22일, 계 7월 27일

주공관직 : 조선총독부 평안남도 참여관

공적사항

1.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선전에 관한 업무

만주사변이 더욱 진전하여 중일전쟁에 이르러 조선 민중에 대한 시국인식의 철저, 여론의 환기, 민심의 안정이 본도 주민의 사상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중요하므로 본인은 도참여관의 요직에

있으면서 또한 정보위원회 위원 등을 겸하여 지사의 특명을 받고 이의 보급 철저에 노력함으로써 이상의 목적달성에 진력하였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관내 민중은 더욱 애국지성을 받들었으므로 사변의 완수에 매진함. 본인의 활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시국강연회, 좌담회 출석

스스로 멀리 관내 일원을 순시하고 그때마다 시국좌담회를 개최하는 것 이외에 스스로 강사로 강연을 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시국의 철저에 노력함.

좌담회 출석회수 45회

강연회 출석회수 14회

전승기원제 참가 15회

2. 전사, 전상병자 조위 및 위문에 관한 업무

정무총감 대리로서 전사자 고별식에 참가한 것이 2회에 이르고, 조사를 대독한 것 외에 부대장, 부민장을 집행할 때마다 참가하고 평양육군병원을 위문한 것 전후 4회에 이름.

3. 군대군인 및 유가족의 위문에 관한 업무

전후 300회 정도에 걸쳐서 통과부대를 위문, 격려하고 또 군사후원연맹원으로 여러차례 유가족의 사택을 방문하여 위훈에 노력함.

4.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자금 등의 모집, 취전에 관한 업무

……(판독불가)…… 국방헌금 취전에 종사함.

주공기간 : 1938년 6월 23일 ~ 1939년 12월 27일, 계 1년 6월 5일

주공관직 : 조선총독부 평안남도 참여관 겸 평안남도 산업부장, 도사무관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공출 및 알선에 관한 업무

본도는 대륙 전진병참기지 제일선에 위치하여 각종 군관아의 소재지가 되어 군용물자의 공출, 알선 업무 또한 자못 큼.

본도에 산업부가 신설되자 곧바로 본인은 부하직원 및 그 관하 각 부군을 지도, 독려하고 그 공출에 노력하였는데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 군용모피 70,743매
- 2) 군용돈피 106,888매
- 3) 군용우육 63,409
- 4) 군용건축 1,566,426천
- 5) 군용생돈 145두
(2,025)

6) 군용양모	6,986천
7) 군용말사료(대맥)	18,536석
8) 군용말사료(고)	113,880천
9) 군용진면	5,000조
10) 군용목탄	31,873
11) 군용해피	34,900
12) 군용양말	5,316,500조

군용양말을 공출할 때에는 그 생산의 신속과 품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종래의 양말동업조합을 공업조합령에 기초하여 평양 내 대소공업조합에 조직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공출에 유감없도록 함.

2. 군의 계획 지원에 관한 업무

평양은 병기제조소 소재지로서 하청공장이 산재해 있어 사변 이래 그 유기적 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평양 및 진남포의 철공업자들로 임의로 조합을 조직하였으며, 국고와 도비에서 18,150원의 보조를 받아 병기 부분품의 생산을 원활히 하였고, 군의 병기제조에 대하여 지원함.

3. 자원개발에 관한 업무

본도는 탄갱, 광산이 많아 그 개발이 전시하 초미의 급무이므로 1939년에 독립광업강습소를 설립하고 부하인 산업과장을 소장으로, 기타 직원을 강사로 하여 광업전사의 양성에 노력하였는데 졸업생 150명을 배출하여 모두 각 광산 등에서 석탄, 철, 금 등의 지하자원 개발에 종사하고 있음.

4.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선전에 관한 업무

강연회, 좌담회 등에 스스로 출마하여 오직 조선민중의 애국심 양양에 노력함.

주공기간 : 1939년 12월 28 ~ 1940년 4월 28일, 계 4월 1일

주공관직 : 황해도지사

공적사항

위 기간 도지사로서 대기다단한 사변하 도정을 관리할 때 능히 부하직원을 통솔하여 각종 사무 수행의 완벽을 기하고 또 후방의 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동원, 소집

1939년 12월 21일부터 1940년 4월 29일까지 기간 동안 동원 1회, 소집 3인에 대한 명령을 내릴 때 부하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신속 정확한 동원업무의 수행에 만전을 기함.

2. 군사수송 경계

1939년 12월 21일부터 1940년 4월 29일까지 기간 동안 33회에 걸쳐 군사수송의 경계가 있을 때에 부하 직원을 지휘, 독려하여 수송에 만전을 기함.

3. 방공, 방첩, 군기보호

1) ……(판독불가)……

2) 방첩, 군기보호를 위해, 영화 포스터, 혹은 극 등을 통하여 도민에 대한 방첩인식을 심화시킴과 함께 이들 취체관을 강화하고 또한 불평불만이 없도록 국민방첩 및 군기보호상 유감이 없도록 기함.

4. 군용물자의 조달, 공출, 조변

사변의 장기화에 따른 군용물자의 원활한 공급적 견지에서 이의 면밀한 공출 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진두에 서거나 혹은 계원을 보내 이의 공출 독려, 지도를 담당하였는데, 군용 대맥, 건초, 모피, 통조림용 생돈, 해피, 목탄, 울충견, 진면 등 예정 수량 이상을 공출함.

5.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선전

도지사회의를 마치고 귀임할 때마다 도내 각 군수, 경찰서장을 소집하여 총독훈시의 취지를 부연 전달하고, 도민으로서 후방치안에 불평불만이 없게 조치를 취하도록 엄달하고, 계속해서 도내 유지의 참집을 구하고, 관민협력, 후방치안의 확보와 언론기관 관계자와 간담, 애국일치의 지도에 협력하였고, 또는 순회강연회, 좌담회, 영화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 시국인식을 강화하고 국방사상 보급과 선전에 노력함으로써 총후치안의 보지에 완벽을 기함.

6. 국내 물가의 조정, 생산력 확충

조선총독부 물가위원회와 밀접한 연계 아래 도물가위원회에서 물가양등 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여 공정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물가의 조정에 만전을 기하였고, 사변의 진전에 따라 생산력 확충이 급히 요망되므로 도에서도 산업제반의 개선을 도모하거나 혹은 산업경제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 구체적 방책을 정하여 생산력 확충에 만전을 기함.

7. 전사, 전상병사자의 조위 및 전상병환자의 취급, 방조, 위문

1) 관내에서 출정군인이 전병사한 때에는 곧바로 유족에게 정중한 조의를 표하고 조위금품을 증정함.

2) 상이군인에 대해서는 취직알선위원회에서 이를 알선토록 하며

3) 전몰용사의 유골이 개선한 때에는 곧바로 정중한 고별식을 집행하고 또 사변기념일에 합동위령제를 성대하고 엄숙하게 집행함.

8.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들의 후원 위훈

1) 황군위문에 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감격의 전보를 보내거나 혹은 위문금품의 각출, 취전을 행하여 송부하고 혹은 원대에 위문사를 보내 친히 위문하고 격려함.

2) 유가족에 대해서는 군인후원연맹회장으로 스스로 각 집을 방문하거나 또는 부회장을 보내 위로, 격려하거나 혹은 위안회를 개최하여 기념품과 함께 다과를 증정하는 등 위안에 노력함.

9.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

전시 재정경제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저축장려위원회를 개최하여 실행방책을 결정하고 각 부군에 할당하여 이의 독려에 노력하였는 전조선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올림.

10.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자금의 모집, 추진
 사변의 진전에 따라 국방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여 ……(판독불가)…… 1940년 1월부터 4월까지
 3,803원 17전.

〈출전 : 「功績調書(金村泰男)」,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8) 김영묵(金永默)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9년 6월 20일, 계 1년 2월 15일

주공관직 : 함경북도 온성군수

공적사항

1. 징발에 관한 업무(1938년 7월 11일 ~ 1939년 6월 20일)

장고봉사건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부하직원을 독려하여 신속 정확하게 말 46마리를 징발함.

2. 군대 및 군수품 등의 수송과 병참 제근무 숙영, 급양에 관한 업무(1938년 8월 14일 ~ 1938년 10월 4일)

장고봉사건 당시 온성, 훈용, 남양 3개소에 대기부대가 임시 주둔할 때, 청원을 파견하거나 혹은 면직원 등을 독려하여 숙영에 할당된 식량을 제공함. 또한 말사료, 신탄 등의 조달에 노력하여 만사에 유감이 없도록 함. 숙영기간 약 3개월 연 숙영인원 약 3천 명, 식량 3천 명분, 말사료 건조 약 10만kg, 부고 약 6만kg, 신탄 약 2만kg.

보병 제161연대장 육군보병대좌 이시다(石田義顯)의 ……(판독불가)……

3. 방공방위에 관한 업무(1938년 8월 3일 ~ 1938년 8월 18일)

장고봉사건 당시 군내에 방공령이 내려지자 곧바로 경찰관현과 밀접한 연락을 가지고 군직원 또는 면직원을 독려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민간단체 등을 지도하여 방공에 완벽을 기함.

4. 군대군인 및 유가족 등의 후원 위훈에 관한 업무(1937년 7월 7일 ~ 1939년 6월 20일)

장고봉사건 당시 온성, 훈용, 남양 3개소에 대기부대가 임시 주둔할 때, 약 5백여 원의 경비로 각지 1회씩 위로회를 개최하고 또 응소군인 20명의 가족에 대해 위문을 함.

5.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선전에 관한 업무(1937년 7월 7일 ~ 1939년 6월 20일)

중일전쟁 발발 이래 군내 각지를 순회하고 시국강연 ……(판독불가)……

6. 전사, 전병사자 등의 조위 및 전병환자의 취급, 방조, 위문에 관한 업무(1938년 8월 20일 ~ 1939년 6월 20일)

전사, 전병사자의 유골이 군내를 침수회 통과할 때마다 조위를 하고 또 위문 및 다과 제공 등을 함.

7. 군용물자의 조달, 군수품의 제조공출 및 수리조달에 관한 업무(1937년 7월 7일 ~ 1939년 6월 20일)
 군의 요구에 기초해 현미, 보리, 연맥, 개털가죽, 돼지가죽, 고(藁), 생돈 등의 배당 공출을 맡아 다
 대한 곤란을 배제하고 오로지 침식을 잊고 시종 헌신적 노력으로 군수의 충족에 유감이 없도록 한 실적
 은 다음과 같음.

- 1) 현미 2,400석
- 2) 보리 32,200kg
- 3) 연맥 15,000kg
- 4) 개털가죽 1,547장
- 5) 돼지가죽 937장
- 6) 고(藁) 56,900kg
- 7) 생돈 200마리

주공기간 : 1939년 6월 21일 ~ 1940년 3월 13일, 계 8월 23일

주공관직 : 함경북도 무산군수

공적사항

1.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 등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1939년 8월 11일 ~ 1940년 4월 28일)

이번 사변에 응소한 군인 유가족에 대해 위문을 함.

- 1) 유가족 25인
- 2) 위문회수 65회

2. 군용물자의 조달, 군수품의 제조공출 및 수리조달에 관한 업무(1939년 6월 21일 ~ 1940년 4월 28일)

군의 요구에 기초해 보리, 연맥, 돼지가죽의 공출을 당하여 시종 헌신적 노력으로 예정수량 이상의
 공출하였는데 그 실적은 다음과 같음.

- 1) 보리 179,350kg
- 2) 연맥 275,143kg
- 3) 돼지가죽 1,148장

3.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선전에 관한 업무(1939년 8월 5일 ~ 1940년 4월 20일)

사변 발발 이래 군내 각지에서 강화회, 좌담회를 개최하여 시국인식의 철저에 노력함.

4.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자금 등의 모집, 취전에 관한 업무(1939년 6월 21일 ~ 1940년 4월 28일)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자금, 홀병금 등 1만여 원을 모집 헌납함.

5.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 등에 관한 업무(1939년 6월 21일 ~ 1940년 4월 28일)

국채 및 저축 약 10만 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금융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갖고 각소에 저축조합을
 결성하여 이를 지도감독한 결과 예상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음.

6. 징발에 관한 업무(1939년 6월 21일 ~ 1940년 3월 13일)

시국에 따른 징발사무에 대해서는 특히 성의를 다하여 부하직원을 독려하고 항상 관내 마필 조사를 게을리 않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만반을 기함.

〈출전 : 『功績調書(金永默)』,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9) 김영배(金永培)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9년 5월 16일, 계 1년 10월 10일

주공관직 : 평안북도 의주군수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 군수품의 제조 공출 및 수리 조변에 관한 업무

군수품인 건초, 모피, 돼지가죽, 대맥 등의 공출을 명받고 그때마다 즉시 조달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부하직원을 지휘 독려하여 모두 예정 이상의 수량을 공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실적은 다음과 같음.

건초	131,864kg
모피	6,585매
돼지가죽	9,956매
대맥	26,650근

2. 전사, 전상병사자의 조위 및 전상병환자의 취급, 원조, 위문에 관한 업무

관내출신 전사 군인, 군속에 대하여는 각각 엄숙히 읍면장을 집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중히 조위금을 증정하고, 이와 함께 전몰 유가족의 생활상태를 조사하여 적당한 직업을 안선하는 등 위문 격려함.

3.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 등의 후원, 위훈에 관한 업무

출정 파견군대 군인의 편의 제공 및 후원에 노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군군사후원연맹으로 하여금 황군위문금품의 모집, 해당 유가족의 위문, 부조, 위안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여 그 후원, 위훈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음.

환송영 60회
위문대 2,700개

4.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판독불가)…… 함과 동시에 연극, 영화회의 개최, 기타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각읍면에 출장할 때 매번 강연회, 좌담회를 개최하게 한 바, 모두 불타오르는 것같은 적성을 나타내 애국기 도민호, 관리호의 자금으로 다액의 국방헌금을 내는 자가 속출하기에 이르렀음. (시국강연회 기타 개최 20회)

5.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에 관한 업무

저축의 할당 및 채권의 할당이 있을 때는 즉시 관계 각 기관과 밀접한 연락하에 목표달성 및 소화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을 총동원 독려함으로써 모두 계획 이상의 실적을 거두어 전시경제를 원활하게 함.

6.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자금 등의 모집에 관한 업무

시국의 올바른 인식과 애국의 적성으로 헌납된 국방 및 홀병 금품은 물론 도민호, 관리호인 애국기의 자금으로 다액의 헌금 모집에 노력하였는데 그 실적은 다음과 같음.

- 국방헌금 7,600원
- 애국기 헌납자금 2,500원

주공기간 : 1939년 5월 17일 ~ 1940년 4월 28일, 계 11월 12일

주공관직 : 황해도 산업부장, 도사무관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 군수품의 제조 공출 및 수리 조변에 관한 업무

군수자재인 모피, 돼지가죽, 건초, 양모, 새끼줄, 고(藁), 해피, 율충견 등의 공출 명령이 있을 때마다 즉시 그 조달계획을 수립함과 함께 스스로 진두에 나서서 관내 각 부군 및 도군 농회와 부하직원을 지휘 독려하여 모두 신속히 예정 이상의 수량을 공출함으로써 군수의 충족을 원활하도록 하였는데 그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모피 20,622매
- 돼지가죽 26,099매
- 건초 1,405,832kg
- 양모 7,742kg
- 새끼줄 121,937관
- 고(藁) 7억5천만kg
- 해피 398만근
- 율충견 2,452근

2.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 등의 후원, 홀병에 관한 업무

응소한 농여가의 군인 유가족에 대한 후원 위홀에 관해서는 부읍면은 물론 각종 단체로 하여금 항상 응소가족의 보고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과 동시에 부군 부락민, 학교아동, 생도로 하여금 작물 수확, 파종, 제초 등 농번기에 수시로 돕고 응원을 하도록 하고, 끊임없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증정하는 등 위로 격려에 유감이 없도록 함.

〈출전 : 「功績調書(金永培)」,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0) 김우용(金雨龍)

의서(擬敍) : 훈장 서8, 사금(賜金) 120

상격(賞格) : 훈로(勳勞) 을(乙)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3격

기초훈장 : 서(瑞) 1등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경흥(慶興)군 웅기(雄基)읍 부읍장

성명 : 김우용(金雨龍)

생년월일 : 1893년 10월 11일생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부터 1940년 4월 28일까지, 계 2년 9개월 22일

주공관직 :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읍 부읍장

주공관등 : 1940년 3월 31일 월 90원

공적사항

1. 임전(臨戰)지대에서 실전에 참가 혹은 관여한 것(1938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장고봉(張鼓峯)을 중심으로 일본과 소련 간의 분규사건이 발생하자 읍장을 보좌하고 부하직원을 지휘하여 관내 마필(馬匹)과 우차(牛車)의 현황을 조사하여 만전의 응징 준비를 갖추었다. 또한 출동부대에 대한 인마(人馬)와 우차의 공출(供出), 숙영(宿營)과 급양(給養), 도로와 교량의 수선 등에 편익을 도모하여 군 원호(援護)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3회에 걸쳐 군보급부 위원 및 각 부대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우차를 징발(徵發)할 때에는 부하직원을 잘 지휘독려하여 관내 웅상동(雄尙洞), 용수동(龍水洞), 송평동(松坪洞), 백학동(白鶴洞), 관곡동(寬谷洞)으로부터 우차 200대를 징용하여 적기의 습격이 격렬해 홍의(洪儀), 사회(四會) 부근은 적의 폭탄 낙하가 작렬하여 위험이 끝이 없었으나, 포연탄우(砲燃彈雨)를 무릅쓰고 제일선 부대에 공출하여 군의 행동에 기여하였다.

징용 우차 200대

2. 징발에 관한 업무(1938년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장고봉사건에 따라 제19사단 제5동원(2호 상)명령이 내려지자 군수의 지휘명령에 기반하여 읍장을 보좌하고 부하직원을 지도하여 징발 업무를 원조해 동원계획 수행에 기여하였다.

징발 마필 11마리

3. 군대 및 군수품 등의 수송 및 병참(兵站) 제 근무와 숙영 급양에 관한 업무(1938년 3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만주파견단 위부(圍部)부대, 모리모토(森本부대의 나진(羅津)상륙 후 웅기읍에 숙영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나진을 경유하여 내지(內地)로 귀환한 만주파견부대의 읍내 숙영을 마련하였다. 또한 장고봉사건 때 출동한 오키도(大城戶)부대, 사토(佐藤)부대의 웅기읍내 대기 주둔에 관해서는 부하직원과 함께 숙소 배치, 목탄과 기타의 알선(斡旋)에 분주(奔走)하여 숙영과 급양에 조금도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숙영 회수 3회

숙영 인원 약 3,600명

4. 방공 방위에 관한 업무(1938년 7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장고봉사건에 즈음하여 나진 지구에 방공 명령이 내려지자 웅기읍 방호단(防護團) 서무부장으로 단장을 보좌하여 부하를 잘 지도함으로써 국토방위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5. 군용물자의 공출에 관한 업무(1937년 7월 7일부터 1940년 4월 28일까지)

군용물자의 공출에는 극력 노력해 왔던 바 장고봉사건이 발발에 따라 본 읍이 임전지대에 속해 있는 관계상 그 공출 범위가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민심의 계도(啓導)에 힘써 극력 독려(督勵)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량을 공출하였다.

대맥(大麥) 30석

견피(犬皮) 150장

돈피(豚皮) 759장

가마니(帆布) 680장

6. 전사전상병자의 조위 및 전상환자의 취급 및 방조 위문에 관한 업무(1938년 8월 5일부터 1939년 10월 8일까지)

이번 사변으로 인하여 명예스럽게 전사하여 나진을 경유해서 내지로 귀환한 전몰자 유골 700주가 웅기역을 통과할 시에 역두에서 영송하며 경조(敬弔)의 뜻을 나타내었다. 또한 웅기 고야산(高野山)에 안치된 장고봉사건 관련 사토(佐藤)부대 전사자를 위해 성대한 위령제를 집행하고 공물(供物)을 제공하여 영령(英靈)의 명복을 기원하였다.

7. 군대 군인 및 그 유가족 등의 후원 위훈(慰恤)에 관한 업무(1938년 9월 15일부터 1939년 10월 1일까지)

웅기읍내에 거주하는 응소자 및 입영자의 출발 귀환을 맡아서는 부하직원과 함께 일반 읍민과 협력하여 성대한 송영(送迎)을 하여 그 사기를 고무시켰다. 또한 나진 상륙의 만주파견부대 및 나진을 경유하여 내지로 귀환한 만주 파견부대의 웅기역 통과에 있어서는 주야한서(晝夜寒暑) 할 것 없이 역두에서 송영하여 그 장도(壯途)를 축하하며 그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애국 국방 양부인회와 연락하여 중일전쟁과 장고봉사건 출정 응소(應召) 군인에 대한 위문품을 모집하여 군(郡) 군사후원연맹을 통해서 전선 장병에게 기증하며 그 위로에 노력하는 외에 읍내 거주자의 출정군인 가족과 전몰군인유족 상해군인의 후원에는 특히 마음을 써서 수시로 그 가족을 방문하여 친절하게 위문금품을 증정함과 함께 생활상 부자유가 없도록 알선해 주었다.

방문회수 8회

위문한 인원 20명

송영회수 64회

송영 인원 10,555명

위문품 모집 회수	4회
위문품 모집 수량	3,900개

8.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1937년 9월 1일부터 1940년 4월 28일까지)

사변이 발생하자 후방 국민의 여론 진작과 국방사상의 보급을 도모하여 시국강연회를 주최하고 군 당국의 강연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방에 관한 영화회(映畫會)를 개최하고 나아가 부하직원을 지도하여 종이연극을 상연함으로써 산촌벽지에 이르기까지 군사국방사상의 보급에 노력했다.

강연강화 및 영화회 개최 회수	8회
청강인원 약 회수	3,500명
종이연극 상연회수	35회
관람인원 약	4,500명

9. 전시하 피난민 구제 및 선후조치에 관한 업무

장고봉사건에 따른 재해민 중 가옥과 가재를 잃어버리고 피난한 사람들이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매우 동정할 만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읍내에서 낡은 옷을 모집하여 군을 통해서 해당 재해민에게 배급하여 구제에 기여하였다.

공출접수	1,819점
------	--------

10. 국채 소화와 저축 장려 등에 관한 업무(1938년 7월 7일부터 1940년 4월 28일까지)

후방 국민에게 저축보국을 역설한 결과 국채를 시작으로 각종 채권은 매기(每期) 제공기간 내에 소화할 수 있었으며, 또한 저축 증가 목표액 달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곤란에 처했는데 스스로 제일선에서 서거나 또는 부하직원을 지도 독려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목표액을 돌파하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국채 소화액	55,800원
저축, 보국채 소화액	25,650원
저축 실행액	2,697,000원

11.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자금 등의 모집 취전(取纏)에 관한 업무(1937년 7월 7일부터 1940년 4월 28일까지)

국방헌금 등의 모집에 있어서는 국민의 애국열성에 피력(披瀝)하여 다음과 같이 취전하여 이를 군(郡)을 통해 관계 당국에 각각 헌납하였다.

애국기 함복호 헌납자금	2,895원
조선군사후원연맹 자금	850원

<출전 : 「功績調書(金雨龍)」,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8,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1) 김창선(金昌善)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평안북도 의주군 월화(月華)면장

성명 : 금곡창선(金谷昌善)

생년월일 : 1906년 11월 21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부터 1940년 4월 28일까지, 합계 2년 9개월 22일

주공관직 : 평안북도 의주군 월화면장

주공관등 : 1936년 11월 26일 판(判)4등 대우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에 관한 업무
2.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3. 국채 소화, 저축 장려 등에 관한 업무

〈출전 : 「功績調書(金昌善)」,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卷132(朝鮮總督府 3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2) 박용섭(朴墉燮)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6월 22일, 계 11개월 16일

주공관직 : 전라남도 강진군수

공적사항

1. 군용물자 조달 공출에 관한 업무

일반 군민에 대한 시국인식의 철저에 노력하고, 조달 및 검수를 원조하여 소기 이상의 수량을 공출하여 군수 충족을 원활히 하였음. 그 실적은 별지와 같음.

2. 국방헌금 및 병기헌납금 등 모집 총괄에 관한 업무

군민의 열렬한 애국심에 호소하여 별지와 같이 각종 헌금을 취전함.

주공기간 : 1938년 6월 23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10월 7일

주공관직 : 전라남도 화순군수

공적사항

1. 다음 각 항을 제외한 것 외 위와 같음, 실적은 별지와 같음.

2. 전사자의 조위 위문, 입영, 응소군인 유가족 위문에 관한 업무
입영 응소군인의 환송영 혹은 유가족의 조문위안회 등 군사원호에 만전을 기함.
3. 여론의 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동양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국강연 혹은 영화회 등으로 일반 민중에게 전시하 국방사상의 보급 및 생산보국의 관념을 철저히 시킴. 그 실적은 별지와 같음.
4. 국채소화, 저축의 장려 등에 관한 업무
황군의 혁혁한 전공에 부응한 감사감격을 국채소화 저축으로 나타내어 별지와 같은 실적을 거양함.
5. 국방헌금 및 병기헌납 자금모집 총괄에 관한 업무
군민의 애국심으로 별지와 같이 각종 헌금을 취전하여 헌납함.

〈별지〉

강진군

1. 군용물자의 조달공출에 관한 업무
 - 1) 군용벼짚 1,640단
 - 2) 군용모피 2,094장
 - 3) 군용말사료용 대맥 600가마
2.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자금 등 모집 취전에 관한 업무
 - 1) 황군위문대 3,297개
 - 2) 국방헌금 2,300원
 - 3) 홀병금 334원
 - 4) 고사기관총 헌납자금 6,141원
 - 5) 전남애국호해군기 헌납자금 13,000원

화순군

1. 군용물자의 조달공출에 관한 업무
 - 1) 군용모피 1,828장
 - 2) 군용말사료용 건초 360,958kg
 - 3) 군용돈피 2,154장
 - 4) 군용통조림용 생돈 3,100마리
 - 5) 군용통조림용 생우 76마리
 - 6) 군용가마니 32,000장
 - 7) 군용말사료용 대맥 20,200석

- 8) 군용저마 4,165근
- 9) 견면헌납 43관
- 10) 군용통조림용 돈육 1,388관
- 2. 전사자의 조위 위문, 입영 응소군인 유가족 위문에 관한 업무
 - 1) 입영봉고제, 무운장구기원제 8회
 - 2) 환송환영회 10회
 - 3) 군민장 집행 1회
 - 4) 유가족 위문 조위 8회
 - 5) 가족위안회 4회
 - 6) 방공감시초소 위문 7회
- 3.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 국방사상의 선전보급에 관한 강연회, 좌담회, 영화회 개최 11회
- 4. 국채소화, 저축의 장려 등에 관한 업무
 - 1) 국채의 소화 5회 3,920원
 - 2) 저축채권의 소화 4회 855원
 - 3) 저축에 관한 협의회 개최 7회
- 5. 국방헌금 및 병기헌납 자금모집 총괄에 관한 업무
 - 1) 국방헌금 2,442원
 - 2) 홀병금 1,697원
 - 3) 병기헌납자금 2,216원
 - 4) 위문대 291개
 - 5) 군사원호자금 1,610원

〈출전 : 「功績調書(朴堉燮)」,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3) 박재홍(朴在弘)

주공기간 : 1937년 7월 10일 ~ 1939년 7월 10일, 계 2년

주공관직 : 함경남도 산업과장, 함경남도 상공과장, 도이사관

공적사항

1. 군수물자의 조달, 군수품의 제조 공출 및 수리 조변에 관한 사무
 - 군수품인 방한유번 및 편상군화의 조제 교육에 종사하여 다음과 같이 조달함.

방한유변 1,000조
편상군화 500족

주공기간 : 1938년 4월 1일 ~ 1940년 3월 31일, 계 2년

주공관직 : 함경남도 이재과장, 도이사관

2. 국채의 소화, 저축 장려에 관한 업무

이재과장으로 부하직원을 통솔하여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에 진력하여 다음의 성적을 거둬.

저축 39,890천 원
국채소화 1,234천 원

공적현인증

함경남도 상공과장 박재홍(朴在弘)

1937년 7월부터 1939년 7월간 아래의 업무에 복무함.

1. 군화 및 유변의 조제 교육에 관한 업무

방한유변 1,000조
편상화 500족

2. 기타 군인 유가족 위문에 관한 업무 및 전몰군인의 조문, 전병환자 위문에 관한 업무 등에 복무함.

1940년 4월 28일

제19사단 참모장 육군보병대좌 나쿠라(名倉栞)

〈출전 : 「功績調書(朴在弘)」,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4) 박제륜(朴濟輪)

주공기간 : 1937년 7월 20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월 9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예천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 공출에 관한 업무

1) 1937년 8월 30일부 군용 말사료용으로 도엽의 공출을 명받아 군내 1읍 11개면에서 할당 관계원

을 총동원하여 공출업무를 무사히 완수함.

공출 할당수량	4,912관
공출 수량	4,912관
공출 지정기한	1937년 9월 30일
공출완료 연월일	1937년 12월 16일

2) 1937년 9월 18일 군용 대맥 공출을 명받아 군내 각 읍면에 할당하여 공출업무를 완료함.

공출 할당수량	400석
공출 수량	400석
공출 지정기한	1937년 9월 30일
공출완료 연월일	1937년 9월 30일

3) 1937년 10월 4일 군내무주임회의에서 ……(판독불가)…… 긴급 읍면장회의를 개최하여 각각 할당을 주어 공출 업무를 완료함.

공출 할당수량	4,000석
공출 수량	4,000석
공출 지정기한	1937년 11월 30일
공출완료 연월일	1937년 11월 15일

4) 1938년 1월 2일 군용 모피 공출을 명받아 군내 1원에 걸쳐 할당하는 한편 경찰서와 연락하고 군 직원 전원을 동원하여 이의 공출을 독려하고 모피조사의 지도를 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완료함.

공출 할당수량	1,800매
공출 수량	1,950매
공출 지정기한	1938년 5월 31일
공출완료 연월일	1938년 5월 31일

5) 1938년 6월 1일 기술원회의에서 군용 대맥의 공출 방침을 명받아 1938년 6월 17일 읍면장회의를 개최하고 각 할당을 내려 공출 업무를 완료함.

공출 할당수량	3,600석
공출 수량	3,600석
공출 지정기한	1938년 8월 31일
공출완료 연월일	1938년 8월 19일

6) 1938년 7월 1일 군용 말사료 건조 공출을 명받아 군내 1읍 11개 면에 할당을 내리고 계원 전원을 동원해 이의 공출을 독려하여 공출을 완료함.

공출 할당수량	60,000kg
공출 수량	60,680kg
공출 지정기한	1938년 9월 30일
공출완료 연월일	1938년 9월 30일

7) 1938년 7월 1일 군수용 돼지가죽 공출을 명받아 군내 1읍 11개 면에 할당하여 공출 업무를 완수함.

공출 할당수량	750매
공출 수량	750매
공출 지정기한	1938년 11월 30일
공출완료 연월일	1938년 11월 30일

8) 1938년 11월 19일 군용 피마자 공출을 명받아 직접 각 읍면에 손수 배분하여 공출을 완수함.

공출 할당수량	351승
공출 수량	351승 4두 9합
공출 지정기한	1938년 12월 25일
공출완료 연월일	1938년 12월 25일

9) 1939년 6월 19일 긴급기술원회의에서 군용 대맥과 대마 공출을 명받아 1939년 6월 27일 군내 읍면장을 소집해서 할당함과 동시에 군직원을 총동원하여 공출업무를 완수를 기도함으로써 무사히 완료함.

(1) 군용 대맥

공출 할당수량	3,400석
공출 수량	3,608석
공출 지정기한	1939년 10월 31일
공출완료 연월일	1939년 10월 31일

(2) 군용 대마

공출 할당수량	652관
공출 수량	652관
공출 지정기한	1939년 10월 31일
공출완료 연월일	1939년 10월 31일

10) 1939년 10월 27일 군용 피마자 공출을 명받아 직접 각 읍에 할당하여 공출업무를 완료함.

공출 할당수량	11석 2두
공출 수량	12석 4두
공출 지정기한	1939년 11월 30일
공출완료 연월일	1939년 11월 23일

2. 군대 군인의 후원, 위문에 관한 업무

1) 1937년 7월 20일부터 1938년 3월 31일까지 8개월 2일 동안 부인층에 대해 시국인식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천인침을 모집함.

모집 실적수량	440매
---------	------

2) 1937년 7월 25일부터 1938년 6월 30일까지 11개월 6일 동안 황군위문을 위한 군 자체의 위문대를

모집함.

모집 실적수량 767개

3) 1938년 1월 1일부터 1938년 3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군 자체의 계획으로 황군위문 연초 '까치도끼'를 모집하여 향토부대에 증정함.

모집 실적수량 2,250개

4) 1939년 4월 1일부터 1939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황군위문을 위해 군 자체 위문대를 모집함.

모집 실적수량 541개

3.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 자금 등의 모집, 취전에 관한 업무

1) 군사 후원 업무 기부금 모집

1938년 8월 10일 ~ 1937년 10월 31일(2개월 21일간)

할당액 1,690원

모집 실적액 1,690원

1938년 11월 21일 ~ 1939년 3월 11일(3개월 20일간)

할당액 3,380원

모집 실적액 3,380원

1939년 9월 29일 ~ 1939년 12월 31일(3개월 2일간)

할당액 1,440원

모집 실적액 1,440원

2) 국방헌금 모금

1937년 8월 10일 ~ 1937년 10월 31일(2개월 21일간)

모금 실적액 7,294원 13전

1938년 1월 10일 ~ 1938년 5월 31일(4개월 21일간)

모금 실적액 1,256원 15전

1939년 1월 15일 ~ 1939년 5월 30일(4개월 15일간)

모금 실적액 284원 49전

1940년 1월 10일 ~ ……(판독불가)……

모금 실적액 1,866원 76전

3) 경북호 비행기 헌납자금 모집

1937년 8월 23일 ~ 1937년 9월 21일(29일간)

할당액 1,160원

모집 실적액 3,651원 34전

4) 중일전쟁 국고채권 소화 사업

제1차 할당액 : 2,220원 소화액 : 2,220원

제2차 할당액 : 2,000원 소화액 : 2,000원

제3차 할당액 : 5,860원 소화액 : 5,860원

제4차 할당액 : 2,070원 소화액 : 2,070원

〈출전 : 「功績調書(朴濟論)」,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공문서관 소장〉

15) 박철(朴澈)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7월 29일, 계 1년 23일

주공관직 : 충청남도 내무부 지방과 비서계 주임, 사회주사

공적사항

1. 군사원호에 관한 사항

상사의 뜻을 실행하고 부하직원을 지도 독려하여 도민에 대한 시국인식 및 군사원호 관념의 교화 철저를 도모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금품의 모집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응소군인, 개신군인에 대한 환송연, 접대 및 전사, 상이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조위, 부조를 하는 외에 출정통과부대의 사기 고무에 노력하고 기타 기원제, 위령제, 고별식, 위안회 등 각종 행사에 솔선 참가해 모범을 보여 제반 군사원호사업 실시에 추호의 유감이 없도록 함.

군사후원사업자금	27,051원	18전
위문대	22,091개	
위문환병금	7,832원	64전
위문연초	15,630개	
천인침	860개	

2.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선전에 관한 사항

상사의 뜻을 실행하고 도민의 올바른 여론의 환기를 ……(판독불가)…… 국방사상을 보급 선전하는 한편, 시국에 관한 인식의 철저를 도모하여 전시하 장기태세 각오를 강고히 함으로써 충후보국의 실을 거양하기 위하여 월간인쇄물 『충남진흥월보』 181,909부를 편집 배부하여 도민 각 개인부터 부락 애국반장에 걸쳐 공람하도록 하여 제증에 유감이 없도록 함.

더욱이 전력을 다해 진력한 결과 각지에서 애국미담이 속출하고 적성이 발로되어 국방헌금 2,612원 93전을 모집하게 됨.

3. 애국기 및 병기 등 헌납에 관한 사항

이번 사변 발생과 동시에 도민의 시국인식 보급 철저에 노력하고 특히 국방의 긴요성과 병기의 충족을 강조해오던 중, 1937년 8월 30일 애국기 충남호 헌납기성회를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조직하고 그

자금모집에 착수한 이래 도내 민중의 열렬한 애국열의 발로로 기타 병기자금과 아울러 185,371원 20전의 헌납을 거두어 1937년 7월 9일 다음과 같이 헌납함.

육군전투기 충남호 1기
해군전투기 충남호 1기
소형해군기 대전호 1기
고사기관총 2총
군용전화기 15대

주공기간 : 1938년 7월 30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9월

주공관직 : 충청남도 내무부 사회과장, 사회주사

공적사항

1. 군사원호에 관한 사항

상사의 뜻을 실행하고 부하직원을 지도 독려하여 도민에 대한 시국 인식에 군사원호 관념의 교화 철저를 도모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금품의 모집에 전력을 다함과 동시에 응소군인, 개선군인에 대한 환송연, 접대 및 전사 사상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조위, 부조를 하는 외에 출정 통과부대의 사기 고무에 노력하고 기타 기원제, 위령제, 고별식, 위안회 등 각종 행사에 솔선 참가해 모범을 보여 제반 군사원호사업에 실시상 추호도 유감이 없도록 함.

……(판독불가)……

위문환병금 9,288원 34전
위문연초 3,384개
천인침 599개

2.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선전에 관한 사항

상사의 뜻을 실행하고 도민의 올바른 여론의 환기를 촉구하는 한편, 국방의 긴요성과 병기의 충족 등 애국적 국방사상을 보급 선전하고, 시국에 관한 인식의 철저를 도모하고 전이하 장기 태세에 대한 각오를 강고히 하여 충후 보국의 실을 거양시키고자 『충남진흥월보』 153,923부, 『충남통보』 139,930부를 편집 배부하여 도민 각 개인부터 부락애국반장에 걸쳐 공람시켜 제증에 유감이 없도록 함.

더욱이 전력을 다해 진력한 결과 각지에서 애국미담이 속출하고 적성의 발로로 국방헌금 8,725원 45전을 모집함.

〈출전 : 「功績調書(朴澈)」,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6) 박호근(朴浩根)

주공기간 : 1937년 7월 12일 ~ 1938년 3월 25일, 계 8월 14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경산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의 공출에 관한 업무

- 1) 말사료용 건조 1937년 9월 20일 수량 64,960kg
- 2) 말사료용 대맥 1937년 11월 20일 수량 7,800석
- 3) 군수용 고(藁) 1937년 11월 20일 수량 4,912관

2. 징발에 관한 업무

- 1) 하령 마필 두수 11두 응징 마필 9두

3. 국방헌금 취전에 관한 업무

- 1) 취전헌납금 8,064원

4.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 1) 시국인식 강연회 32회
- 2) 시국인식 영화회 10회
- 3) 시국인식 좌담회 9회

5.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

- 1) 수송군대의 위홀 접대 111회
- 2) 유가족 위문 33회

주공기간 : 1938년 3월 26일 ~ 1939년 4월 25일, 계 1년 1월

주공관직 : 경상북도 영덕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의 공출에 관한 업무

.....(판독불가).....

2. 군대 군인 및 그 유가족의 후원, 위홀 업무

- 1) 유가족의 위문 5회
- 2) 위문대의 증정 20개
- 3) 출정군인 무운장구 기원제 1회

3.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선전에 관한 업무
 - 1) 시국강연회 2회
 - 2) 시국좌담회 7회
4. 국채의 소화와 저축 장려에 관한 업무
 - 1) 저축 보국주간 실시 - 1938년 6월 12일 ~ 1938년 6월 27일까지
실시사항 - 저축조합결성 장려
5. 국방헌금 및 기타 모집 취전 사업
 - 1) 96식 기관총의 헌납 1대(12,300원)
1939년 4월 24일 헌납식 거행
6. 군수품의 공출에 관한 업무
 - 1) 1939년 5월 10일 개가죽 공출
공출할당 800매
공출수량 935매
공출기간 1939년 10월 30일
공출완료 1939년 10월 30일
 - 2) 1939년 6월 30일 군용 대맥 공출
공출할당 12,800석
공출수량 12,800석
공출기간 1939년 8월 21일
공출완료 1939년 7월 16일
 - 3) 1939년 9월 3일 군용 소고기 통조림 원료 및 생우 공출
공출할당 133두
공출수량 133두
공출기한 1938년 3월 31일
공출완료 1939년 10월 30일
 - 4) 1939년 11월 21일 군용 토끼가죽, 개가죽 공출
공출할당 230매 2,800매
공출수량 201매 2,902매
공출기한 1938년 1월 20일
공출완료 1938년 2월 13일
7. 전사, 전상병사자의 조위와 전상병환자의 위문에 관한 업무
 - 1) ……(판독불가)……
공출할당 4,900관

- 공출수량 4,900관
- 공출기한 1937년 11월 20일
- 공출완료 1937년 11월 23일
- 2) 토끼가죽, 개가죽 공출
 - 공출할당 1,200매
 - 공출수량 1,282매
 - 공출기한 1937년 6월 20일
 - 공출완료 1937년 7월 8일
- 3) 돼지가죽 공출
 - 공출할당 208매
 - 공출수량 250매
 - 공출기한 1937년 11월 30일
 - 공출완료 1937년 11월 20일
- 8. 전사, 전상병사자의 조위와 전상병환자의 취급, 방조, 위문에 관한 업무
 - 1) 전사자유골 조위 2회
 - 2) 육군병원 위문 9회
 - 3) 위문금 130원
 - 4) 위문문 위문대 800개
 - 5) 군용기현납금 2,000원
 - 6) 유가족 부조비 290원
 - 7) 군사부조비 7620圓
- 9. 군대 군인 및 그 유가족 등의 후원, 위훈에 관한 업무
 - 1) 위문문 350회
 - 2) 위문대 800개
 - 3) 위문품 620점
 - 4) 군인 유가족 위문 40회
 - 5) 영화회 개최 9회
 - 6) 수송군대 위안 접대 280회
 - 7) 생활부조 10호
 - 8) ……(판독불가)……
 - 9) 1939년
 - 위령제 1회
 - 육군병원 위문 1회
 - 화환 및 제물공송장 10회

10) 1940년

위령제	1회
전사군인장례	1회
조선	2통

10.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

1) 1939년

응소군인 송영과 접대	5회
유가족위문	11회
가족에 대한 위문비	160원
위문대	120개
유가족 위안회	2회
유가족 위안 영화회	1회
기원제	3회

2) 1940년

응소군인 송영과 접대	2회
유가족위문	7회
가족에 대한 위문비	42원
위문대	100개
유가족 위안회	2회
유가족 위안 영화회	1회

11. 여론의 환기와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1) 강연회

1937년 6월 12일	1회
1937년 8월 29일	1회
1938년 3월 1일	1회
1938년 4월 22일	2회
1939년 9월 1일	1회

2) ……(판독불가)……

- 3) 영화회 개최 1939년 9월 1일 1회
- 4) 선전비라 배포 12,000매

12.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에 관한 업무

1) 국채의 소화

1939년 10,175원

1940년 2,140원

2) 저축장려

1939년 할당액 720,000원 실적 422,972원

1940년 할당액 620,000원 실적 122,790원

13. 국방헌금의 모집, 취전에 관한 업무

1) 국방헌금

1939년 66원

1940년 122원 2전

2) 군사후원연맹 기부금

1939년 300원

1940년 139원 62전

〈출전 : 「功績調書(朴浩根)」,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7) 손영목(孫永穆)

주공기간 : 1936년 7월 7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월 22일

주공관직 : 전라북도지사

공적사항

1. 사변이 발발하자 즉시 비상시국에 대처할 관리의 각오에 대해 전 청원에게 훈유하여 관하 각 관서에 전달하고, 민심의 안정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 각종 단체와 기관의 지도와 계급에 대한 민중의 지도 요향을 제시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연, 강화, 좌담, 영사회 등을 개최하거나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여 여론의 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철저에 노력한 결과 민심이 완전히 안정되고 내선일체, 거도일치, 충후보국에 매진함.

2. 동원소집령이 내려졌을 때 성실히 부하직원을 독려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함.

3. 군수품의 공출은 성실히 도내의 실정을 통찰하고, 관계 관헌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 수집, 검수, 수송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1939년도에는 미증유의 한해를 당했음에도 극히 민심의 안정을 도모하여 계획 이상의 실적을 거둠.

4. 사변 발발 이래 병기 충실에 대한 헌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가 속출함에 미루어 군용비행기를 헌납하는데 ……(판독불가)…… 육해군 각 3기를 1937년 10월 31일 조선에서 최초로 헌납함.

5. 국방헌금 및 홀병금, 각종 위문금품은 민중의 정성에 응하여 부하직원로 하여금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군인 파병 가족의 후원, 위훈, 군사부조에 유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함.

6. 방공에 대한 일체의 시설, 훈련을 통할하여 도내 방공의 완벽을 기함.

7. 도민으로 하여금 전시체제하에서 자계자숙생활을 확립하고, 본도의 실정에 맞는 미곡 절약에 대한 비범한 시책을 시달하여 오로지 식량증산에 전력을 경주하여 사변하 본도의 사명 수행에 만전을 기함.

8. 기타 사변 업무 전반에 걸쳐 동분서주 부하직원을 독려하고 관계 관현과 연락하에 모든 업무에서 조급의 실수도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함.

〈출전 : 「功績調書(孫永穆)」,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8) 송문헌(宋文憲)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6월 22일, 계 11월 16일

주공관직 : 경기도 산업과장 도이사관

공적사항

1. 군수품의 제조공출에 관한 업무

1) 포탄 부분품 등의 제조공출

중일전쟁의 발발에 따라 평양 병기제조소와 항상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 군수품의 제조하청(주로 포탄, 폭탄의 외피, 나사 그 외 부분품 및 포탄상자 등)을 경성부내 철공업자 약 20명에게 발주함과 동시에 본 사업의 완전한 수행을 기했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교부하고 기계와 그 외 제반 설비의 정비를 행하여 제조능률의 증가를 꾀함과 동시에 한편 평양병기제조소 및 평양항공지창 등에 위촉하여 공원을 양성하고, 이렇게 양성된 공원을 주요한 11개 공장에 배치해 하청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오로지 포탄의 제조작업과 기타 부분품의 제조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더욱이 1938년 8월 조선공업조합령이 시행되자 이들 관계 업자에게 더욱 주도면밀한 지도를 더하기 위해 경성부내의 각 철공업자를 망라해서 경성철공공업조합을 조직하고 또한 지도의 구체적 방책으로 공동작업장 등을 시설하고 직공의 양성, 훈련에 힘썼다. 또한 작업능률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 관계 중요 공장에 지도원을 배치하고 ……(판독불가)……

보조금교부 200,000원

숙련공양성 80명

위 배치공장 11개소

지도원급 보조 4,000원

2) 군수양말의 제조공출

관하 개성부에서 경영하는 군수양말의 제조공출의 지도 독려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다음과 같이 공출을 하여 군수의 충족에 공헌한 바가 매우 크다.

군수양말 제조공출 1,967,700족

2. 국내 물가, 물자의 조정, 생산력 확충 및 자원개발에 관한 업무

1) 국내 물가, 물자의 조정(도량형기의 단속)

도량형기는 물자교역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올바른 사용이 물가, 물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그 정확을 기하고자 관계과 및 관하 부군경찰서 등으로 하여금 그 취체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여 시국하 물가정책에 기반한 취인의 안정 및 물가, 물자의 조정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1) 계량기의 단속

단속연일수	2,064일
단속기물수	65,348점
불합격기물수	7,719점
위반건수	1,088건
고발건수	68건

(2) 계량물자의 단속

계량단속연일수	1,439일
조사건수	34,707건
계량위반건수	1,129건
고발건수	43건

(3) 계량기의 검정

검정기물수	13,703점
수복자수	9명

주공기간 : 1938년 6월 22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10월 6일

주공관직 : 강원도 산업부장 도참여관 겸 도사무관

공적사항

1. 군수품의 공출에 관한 업무

군수품 공출의 요구를 받자 지사의 뜻을 받아 부하직원을 지도하여 적절하고 면밀한 공출계획서를 수립해서 스스로 이의 지도 독려에 임함과 더불어 본 업무의 중요성을 철저히 강조하여 관내 민중의 이해를 촉진시켰다. 또한 군수품의 충족을 우선으로 하는 생산, 배급, 소비의 통제를 강화하여 이의 증산확보를 기하는 등 군수의 충족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

2. 물자, 물가의 조정, 생산력 확충에 관한 업무

대륙병참기지로써 부과된 중요사명인 생산력 확충을 저해하지 않도록 중요물자의 우선적 배급……(판독불가)…… 오직 부하직원을 지휘하여 생산력을 증대함과 함께 소비절약의 관념을 고취하여 구매력의 감소를 도모하였던 바 중요물자 사용의 법적 제한, 할당 배급, 공정가격 설정, 폭리 단속을 강행하여 전시 재정경제체제의 강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

3.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에 관한 업무

지사를 도와 내무부장과 협조해 부하직원을 지휘하여 사변의 추이 및 국제정세의 긴박화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스스로 각지에 출장하여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부여하고 후방에서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각오를 환기시켜 후방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국책 수행을 용이하게 했다. 부임한 시기는 사건이 더욱 치열해지던 때였으므로 관내 민중 중에는 앞날을 의심하는 자가 적지 않았는데 이후 오로지 민심을 영도하여 시국의 인식을 높이고 국방사상의 보급을 도모한 공적이 현저하다.

4. 식량수급 조정에 관한 업무

사변의 진전과 유럽 전란의 발전 등의 원인으로 물가 폭등, 물자부족, 배급의 원활치 못함 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던 바, 이에 더해 1939년 한해의 영향으로 식량작물의 현저한 감소는 관내 민중 생활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에 이르렀던 바, 부하 직원을 지휘하여 관내 민중에 대해 이웃끼리 서로 돕는 도덕심을 발휘하여 나락의 출하촉진, 대용식 혼식에 의한 쌀 절약을 강행함과 함께 매점매석 등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양곡수급조정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엄격히 하고 유언비어, 불온한 언동을 단속하는 등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치안상 우려할만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공적이 현저하다.

〈출전 : 「功績調書(宋文憲)」,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9) 송찬도(宋燦道)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12월 28일, 1년 5월 22일

주공관직 : 조선총독부관방 외사과 사무관

공적사항

1. 전시하 피난민의 구호 및 선후 조치에 관한 사무

1937년 7월 노구교사건이 발발하자 북중국일대의 치안이 어지러워져 포화와 비적의 습격을 피해 오지에서 북중국 천진(天津) 등 안전지대로 운집해오는 조선인이 수천 명에 달하여 이들의 구호는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부장을 보좌하여 부서의 중요 업무에 참여하고 피난 조선인에 대한 급식 구호 등 응급구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선인의 항구적 지도와 안전책을 위해 피난민

수용과 부정업자 전업을 목적으로 한 면적 3,500정보, 1,000호 수용의 노태(蘆台)안전농촌을 건설할 때, 누차 현지에 출장하여 비적 내습의 보고가 빈번한 위험에도 실지답사를 하고 또 파견원을 지휘 독려하여 계획의 진전에 노력하였으며 영사관, 군, 중국정부 등과 어려운 절충을 거듭하거나, 혹은 경비력의 증강에, 혹은 토지매수 등 관계기관……(판독불가)…… 1938년 1월 완고한 중국인 지주으로부터 매수 교섭에 성공하였는데 그 후 해당 농촌은 기초공사의 진행 중 홍수를 만나 그때문에 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재공사를 하는 등 많은 고초를 거듭하여 점차 제반 계획이 모두 궤도에 올라 현재 착착 사업이 완성에 이르렀지만 그간에 있었던 본인의 고충과 노고는 진실로 말로 다하기 어렵다.

또한 시국의 추이에 따른 재외 조선인 보호 사무의 확대 증가를 가져올 중국에 대한 중요 제정책의 수립과 재만주, 재중국 각 파견원에 대한 지도 독려, 기타 시국에 따른 주요 안전의 처리 해결을 맡아 부장을 보좌하고 부하 직원을 독려하여 격증하는 사무의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철주야 그것에 힘쓰고 동시에 나아가 신변상의 위험도 불사하고 치안 불량외 만주, 중국, 몽고 변경의 벽지를 순회하며 파견원에 대한 직접 지도와 관계 기관과의 교섭 연락을 맡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외 조선인의 보호 지도에 힘쓴 결과, 지금은 재외 조선인에 대한 종래의 악평은 거의 일소되어 만주에 있어서 조선인만으로 된 애국기 헌납, 다액의 국방헌금, 중국에 있어서 천진조선인의용대, 상해조선인민회 등의 황군에 대한 원조 등 기타 전선과 후방에서 수많은 애국미담이 속출하고, 내선일체의 좋은 성과를 이루어 조선인에 대한 내외 인식을 일신시킨 것은 본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가져다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2. 군용물자의 조달에 관한 업무

사면 발발 후 북중국 방면은 각지와의 교통 두절과 오지 민중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여러 물자가 극히 결핍되어 일반 민수는 고사하고 군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됨에 따라 군 당국과 연결하여 무역협회를 독려해서 조선 각지로부터 수습회에 이르는 식량, 신탄, 잡화류 등 각종의 총액 약 200만 원에 달하는 필수물자를 조달하여 이를 공급함.

주공기간 : 1938년 12월 29일 ~ 1939년 8월 2일, 계 7월 4일

주공관직 : 조선총독부관방 외사과 사무관

공적사항

1. ……(판독불가)……

1938년 12월 경성중화민국총영사 범한생(汎漢生)에 의해 시작된 신정권참가운동은 전조선 각지 영사관원 및 재류 5만의 화교에게 이상한 충동을 주어 찬부가 구구한 일대 파문을 야기하였는데, 당시 중앙정부는 아직 남경정부를 부인하지 않아서 재조선중국영사 등은 모두 남경정부의 임명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본 운동에 대한 처리를 잘못한다면 조선 내의 치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국제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예측불가능한 극도로 미묘한 상황이었는데, 그 간에 받은 지휘에 따라 중앙정부의 방침을 명심하여 저들의 동향을 관찰하고 선도하여 사태의 분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 것은

그 공적이 적지 않다.

기타 사변으로 인한 중국 철수 일본인 및 귀향자에 대한 배상과 차비의 할인, 귀향 여비의 지급, 귀국 중국인에 대한 일본 상인의 미수금 회수 알선, 혹은 재외 조선인에 대한 내선일체 정책의 취지 철저 등 각종 시국관계 중요 안전에 관하여 부장을 보좌해 선처 해결에 노력하여 시국 사무의 신속한 수행에 노력하였다.

주공기간 : 1939년 8월 3일 ~ 1940년 4월 18일, 계 8월 26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산업부 농촌진흥과장 도이사관

공적사항

1. 군수품 공출에 관한 업무

중일전쟁이 점점 장기화하고 대륙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사명이 중대해짐에 따라 본도에 대해 1939년 7월 대맥 150,000석의 공출을 명받았으므로 경상북도농회를 주체로 하여 계통 단체인 달성군 외 21개 군농회에 할당 의탁하였던 바, 미증유의 대한해에 직면하여 그 공출이 상당히 곤란해보였지만, 사무사업의 연락통제를 잘 행하여 본 사무의 신속 원활한 수행을 기하는 것을 제1의 요건으로 하고 복잡다기한 예산의 편성 추가 혹은 공출 입체 자금의 조달, 공출품의 독려, 정산 사무 등에 불철주야 침식을 잊고 정진한 결과, 대맥은 할당수보다 503석을 초과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에 이르고, 그 외 별표와 같이 면밀한 계획하에 사무 처리의 원활과 지도 독려의 만전을 기해 또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한 그 공적이 실로 현저하다.

〈별표〉 군수품공출조사서

품명	공출수량	
	1939년도	금액
말사료용 대맥	150,503석	1,670,802원 33
건초	360,000kg	5,962원 78
개가죽	36,908매	59,923원 00
토끼털가죽	4,144매	2,868원 00
돼지가죽	31,398매	45,906원 00
양털	2,355kg	5,528원 67
통조림용 소	2,600두	362,069원 31
대마	69,950근	32,724원 60
계		2,185,784원 60

〈출전 : 「功績調書(宋燦道)」,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0) 엄창섭(嚴昌燮)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6월 22일, 계 11월 12일

주공관직 : 경상남도 참여관 겸 산업부장, 도사무관

공적사항

1. 군용물자 조달에 관한 업무

군수용 필요 물자인 군용고, 군용마량 대맥, 건초 기타 군용으로서 견모피, 양말, 군수진면의 조달 요청에 대해 많은 업무 중에도 열심히 힘써 능히 관내의 생산상황을 정밀히 조사하고, 부하직원을 시켜 관계있는 여러 방면과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고, 민중에 대해 시국인식의 철저에 노력함으로써 예정 이상의 수량과 품질이 양호한 것들을 공출하여 군수의 충족에 유감이 없도록 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됨.

주공기간 : 1938년 6월 23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10월 5일

주공관직 : 함경남도 참여관 겸 내무부장, 도사무관

공적사항

1. 군의 계획에 대한 지원업무

함경남도 덕원군 현면 두남리 및 연두도리에 해군비행장, 함주군 연포면 및 정평군 선덕면에 조선 군비행장을 건설할 때 용지 매수, 지장을 주는 물건의 이전보상 지불 및 선후조치에 관하여 지사를 잘 보좌하고, 부하직원을 지도 독려하여 ……(판독불가)…… 업무에 원조하여 이것의 진척에 기여하고 공헌함.

2. 방공방위에 관한 업무

1938년 7월 장고봉사건 발발에 따라 전장 인접지인 본도에서는 즉시 제반에 걸친 긴급 만전의 임태세를 확립하고, 군부와 밀접한 연락협조를 유지하여 방공감시, 통신, 등화관제 등의 일체에 대해서 자진하여 지사를 잘 보좌하여 방공방위의 완벽을 기하고, 아울러 민심의 안정, 시국인식의 철저를 기한 공적이 현저함.

3.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군사후원연맹, 정보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시국인식, 국방사상의 보급철저, 강화에 각종 기관, 연맹의 결성과 아울러 운동에 급속한 진전을 도모하고 시국관계 각종 회의를 개최하여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그 실적 거양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후방신민의 실천수행에 유감이 없도록 한 공적이 적지 않음.

4. 저축의 장려, 국채소화에 관한 업무

저축의 장려 및 국채소화의 전시경제상 중요한 바를 향시 각종 기관을 통해서 철저히 하였는데,

그 실천에는 목표액을 설정하여 관내 제상황을 정밀히 조사해 할당하였으며, 각종 방안을 제안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장려한 결과, 항상 목표액을 돌파하였던 바, 부하직원을 잘 통솔 지휘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그 공적이 현저함.

5. 군대군인 및 유가족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

함경남도군사후원연맹의 활동을 지휘 독려하였으며, 특히 본도를 통과하는 부대의 접대, 전선장병 및 유가족 위홀업무 등에 후방 도민의 적성 거양에 유감이 없도록 함.

6. 국방헌금품의 모집 취전에 관한 업무

도내 민중의 국방헌금품 헌납 지향을 앙양함과 함께 그 취전에 부하직원을 독려하여 도민의 적성에 의해 애국육해군기, 국방헌금, 홀병금품 등 다액의 헌납 취전에 노력한 공적이 현저함.

7. 조선인의 지도 유액에 관한 업무

중일전쟁 발발에 따라 병참기지인 조선의 사명달성을 위한 국제명징, 사상 인고단련, 내선일체의 3대 정강을 설정할 때 조선의 특수사정에 비추어 도에서 유일의 조선인 간부로서 스스로 도민의 모범으로 실천공행하고, 지도에 매진하여 이번 성전의 ……(판독불가)…… 참여관으로서 지사를 잘 보좌하여 조선인으로 하여금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철저하게 하였던 이외에 그 은연한 공적이 진실로 현저한 바 있음.

공적현인서

함경남도 참여관 엄창섭(嚴昌燮)

위 사람은 1938년 7월 12일부터 193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의 업무에 복무하였다.

1. 제19사단에서 동원령이 내려지자 소집 제비용의 출납, 관리의 증명, 서류의 증명, 집행관의 업무.
2. 장고봉사건이 발발하여 함흥, 원산 양구에 방공령이 내려지자 함남방공본부원으로서 민간 제단체의 지도 업무.
3. 함경남도군사후원연맹 부회장으로서 군사후원업무.
4. 신설 육군비행장 용지에 관한 업무.

이상의 공적이 큰 것으로 인정됨.

1940년 4월 28일

제19사단 참모장 육군보병대좌 나쿠라(名倉棨)

〈출전 : 「功績調書(嚴昌燮)」,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1) 오종표(吳鍾表)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강원도 회양(淮陽)군 하북(下北)면장

성명 : 오종표(吳鍾表)

생년월일 : 1899년 4월 3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부터 1940년 4월 28일까지, 합계 2년 9개월 22일

주공관직 : 강원도 회양군 하북면장

주공관등 : 1936년 8월 6일 판(判)4등 대우

공적사항

1. 군수품 공출(供出)에 관한 업무

군수품 공출의 할당을 부여받자 부하직원을 잘 지도 독려해 관내 민중의 이해를 촉구하여 품질이 우수한 공출품을 할당량 이상으로 공출함으로써 군수(軍需)의 충족(充足)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공출 품목 수량

대맥(大麥) 60석

생돈(生豚) 47마리

돈피(豚皮) 187매

모피(毛皮) 625매

건초(乾草) 21,831kg

밀랍(蜜蠟) 54근

2. 군사 원호(援護)에 관한 업무

부하직원을 독려하고 관계 각 군사원호단체를 지도 유치하여 관내 응소(應召)입영군인의 남겨진 가족과 전몰군인 유족, 상병(傷病)병사의 원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3. 여론환기와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스스로 진두에 서서 벽원험로(僻遠險路)를 마다하지 않고, 한서(寒暑)를 무릅쓰고 시국인식의 철저와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을 위해 순회강연을 하고 관내의 민심을 잘 다스려 성전(聖戰) 수행으로의 열의를 양양하였다.

좌담회 17회 459명

4. 국채 소화와 저축 장려에 관한 업무

부하직원을 독려해 각 금융기관과 연락하여 충후보국저축조합을 조직하거나 혹은 스스로 순회강연을 하는 등 저축목표액의 돌파에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1938년도 20,756원

1939년도 50,878원

1940년도 2,900원

누계 74,534원

5. 국방 홀병(恤兵) 헌금품의 모집 취전(取纏)에 관한 업무

스스로 분주하여 관내 민중의 이해를 촉구하였으며, 군사원호 제 단체의 사변자금 혹은 군용기재 헌납자금의 기부 모집에 임하여 공적이 현저하다.

홀병금 808원

홀병품 18원

애국기헌납금 593원 52전

군사원호단체 사변자금 363원 80전

누계 1,783원 32전

〈출전 : 『功績調書(吳鍾表)』,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卷133(朝鮮總督府 34),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2) 원의상(元宜常)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7년 7월 15일, 계 9일

주공관직 : 충청남도 예산군수

공적사항

1.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사항

사변이 발발하자 군민에 대해 정당한 여론의 환기를 촉진하고, 국방사상을 보급 선전하는 것이 긴요함에 착안하여 즉시 면장회의를 개1940년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군 직원을 지도하는데 전념하였다. 더불어 각 면에 출장하여 시국강연회 및 각 리 좌담회에 참석하여 이번 사변의 인과와 전시하 후방 군민으로서의 임무완수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납득시키는데 조금의 유감도 없도록 하였다.

시국강연회 개최 2회

리 좌담회 개최 48회

주공기간 : 1937년 7월 16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개월 14일

주공관직 : 충청남도 천안군수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과 공출에 관한 사항

시국의 중대성과 군관민 일체의 정신을 체득하여 시종일관 헌신적으로 군내의 생산 분포상황과 생

산능력을 자세히 조사하고 공출기한 등 실정에 적용하여 조달 및 공출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각 관계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였다. 한편 군민의 시국인식의 교화 철저에 노력함과 동시에 조달공출품의 식별, 감정, 포장, 수송 등에 대해 부하직원을 독려함에 만전을 기하여 예정 이상의 수량과 품질이 양호한 다음의 물자를 조달 및 공출하고 군수동원 자재의 충족을 원활히 함에 조금의 염려도 없도록 하였다.

군용대맥	13,704석
군용울	95,000kg
군용가마니	259,384매
군용새끼줄	18,318관
군용돼지가죽	5,093매
군용모피	3,423매
군용양털	212,600kg
군용통조림용 소고기	45두
군용건초	290,552kg
군용울충견	457근

2. 군사원호에 관한 사항

부하직원을 독려하여 군민에게 군사원호 관념의 교화를 철저히 하도록 도모하고 다음과 같이 금품의 모집과 취전에 진력하였다. 일찍이 출정 통과부대에 대해 뜨거운 차와 기타를 급양 접대하여 사기고무와 격려에 노력하였고, 군마에 대해 신선한 풀 제공과 급수 알선에 진력하였다. 더불어 응소 및 개선 군인에 대해서 기원제를 집행하고 환송영 및 기타 유가족에 대해 조문, 부조 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여 제반 군사원호실시 상 조금의 염려도 없도록 하였다.

위문대	2,412개
위문홀병금	3,411원

3. 여론환기와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사항

부하직원을 지도, 독려하여 군내 각 읍면부락에서 시국에 관한 강연 및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또 종이연극을 공연하여 군민에게 시국인식의 철저를 도모하고 전시하 장기태세에서 각오를 강고하게 함으로써 충후보국의 성과를 드높이는 한편 정당한 여론의 환기와 국방사상의 보급과 선전에 진력하였다.

4. 국방헌금과 애국기헌납자금 등 모집, 취전에 관한 사항

시국강연회 및 기타 기회가 있을 때 군민에 대해 시국인식, 국방사상의 보급을 철저히 하는데 노력하였다. 특히 국방의 긴요성과 병기의 충족 등에 대해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취전에 헌신하였다.

국방헌금	2,124원
애국기 헌납자금	13,494원

〈출전 : 「功績調書(元宜常)」,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3) 원진희(元晋喜)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7년 7월 15일, 계 9일

주공관직 : 충청남도 부여군수

공적사항

1.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사항

사변이 발발하자 군민에 대하여 상당한 여론의 환기를 촉구하고 국방사상을 보급, 선전할 필요성에 착안하여 군내 면장회의를 개1940년이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부하 직원의 지도유익에 전념하였다. 총동원으로서 각 면으로 출장하여 시국강연회 또는 각 리 시국좌담회에 참석해서 이번 사변의 인과와 함께 전시하 후방군민으로서의 임무완수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납득시켜 조금도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시국강연회 개최 2회

리 좌담회 개최(연) 64회

주공기간 : 1937년 7월 16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월 14일

주공관직 : 충청남도 예산군수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 공출에 관한 사항

시국의 중대성과 군관민 일체의 정신을 체득하고, 시종일관 헌신적으로 군내의 생산분포상황과 생산능력을 자세히 조사하여 공출기한 등 실정에 맞는 조달, 공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각 관계 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도모하는 한편 군민의 시국인식의 교화철저에 노력함과 아울러 조달, 공출품의 식별, 감정, 포장, 수송 등에 대해 부하 직원을 독려하여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정 이상의 수량과 품질 양호한 다음의 물자를 조달, 공출하여 군수동원과 자재의 충족을 원활하게 하는데 조금도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군용대맥 16,534석 8

군용을 95,000kg

군용피마자 14석 75

군용돼지가죽 4,390매

군용모피 2,754매

군용건초 301,771kg

군용양모 228,900kg

군용통조림용소고기 37두

2. 군사원호에 관한 사항

부하직원을 독려하여 군민에게 군사원호 관념의 교화철저를 도모하고 다음과 같은 금품의 모집,

취전에 진력한 것 이외에 응소, 개선군인에 대한 환송영, 기원제, 접대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조위, 부조, 기원제 집행 등에 대해 만전을 기하여 군사원호사업 실시상 조금도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군사원호연맹자금	8,165원
위문대	2,296개
위문홀병금	840원
황군위문 진면방 조끼	40착
……(판독불가)……	

3. 애국기 헌납자금 등 모집, 취전에 관한 사항

시국강연회 기타의 기회에 군민에 대한 시국인식의 보급철저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국방의 긴요성과 병기의 충족에 대해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모집, 취전에 진력하였다.

애국기 헌납자금	10,848원
고사기관총 헌납자금	2,395원

1938년 7월 7일 사변 1주년기념일을 기하여 군민에 대하여 잉여노력의 가치 증가, 소비자 절약, 폐물이용, 후생 등에 의한 수익금의 일부로서 1호당 10전의 헌금으로 앞 글에서 밝힌 병기헌납을 하자고 발의하고 이것의 자금모집에 진력하였다. 1939년 2월 26일 92식 고사기관총 1정을 군민의 애국지성의 결과로 군에 헌납하였다.

조선방공기재비	1,263원 59전
---------	------------

4.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에 관한 사항

군민 각층에 각종 기회를 통해 전시하 국민저축이 가장 긴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더욱이 장기 경제전에 대한 각오를 굳게 하여 철석같은 단결로써 난국돌파에 더욱 매진하여 이번 사변의 궁극의 목적을 완수하도록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에 진력한 결과 다음과 같이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국채소화액	36,733원
일반저축액	939,983원

〈출전 : 『功績調書(元晋喜)』,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4) 유만겸(俞萬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6월 13일, 계 11월 16일

주공관직 : 충청남도 참여관

공적사항

1.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2. 전사전상병자의 조위 및 전상병환자의 취급, 방조, 위문에 관한 업무
3.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 등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
4. 국채소화, 저축장려 등에 관한 업무
5. 국방헌금 및 애국기헌납 등의 모집 취전에 관한 업무

주공기간 : 1938년 6월 23일 ~ 1939년 4월 25일, 계 10월 3일

주공관직 : 충청남도 산업부장 도사무관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 및 군수품의 제조 공출에 관한 업무
2. 국내물가 조절에 관한 업무
3.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4. 방공에 관한 업무
5. 전사전상병자의 조위 및 전상병환자의 취급, 방조, 위문에 관한 업무
6.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 등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
7. 국채소화, 저축장려 등에 관한 업무
8. 국방헌금 및 애국기헌납 등의 모집에 관한 업무

주공기간 : 1939년 4월 16일 ~ 1940년 4월 28일, 계 12월 3일

주공관직 : 충청북도지사

공적사항

1. 동원소집에 관한 업무
2. 방공방첩에 관한 업무
3. 첩보, 정보에 관한 업무
4. 군용물자의 조달, 군수품의 공출에 관한 업무
5. 군사수송 경계에 관한 업무
6.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7. 충동원에 관한 업무
8. 국내 물가의 조정, 생산력 확충 및 자원개발에 관한 업무
9. 유언비어 기타 시국적 범죄의 방지, 단속, 검거에 관한 업무
10. 신문 및 출판물의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11. 전사전상병자의 조위 및 전상병환자의 취급, 방조, 위문에 관한 업무
12.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 등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

13. 공적조사 및 사변관계 기부 행상에 관한 업무
14. 사변관계법령의 심의 및 예산에 관한 업무
15. 국채소화, 저축장려 등에 관한 업무
16.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자금 등의 모집 취진에 관한 업무

〈출전 : 「功績調書(俞萬兼)」,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5) 이기방(李基枋)

주공기간 : 1938년 6월 18일 ~ 1939년 5월 16일, 계 10월 29일

주공관직 : 황해도 산업부장 도사무관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에 관한 업무

군용물자의 조달 명령이 내려지자 곧바로 이의 조달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부하 직원을 통솔하여 스스로 진두에 서서 관내 각 관계 단체를 총동원하여 어느 것이나 다 민첩하고 신속히 예정 이상의 수량을 공출함으로써 군수의 충족을 원활하게 하였다.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모피	22,637매
돼지가죽	40,076매
생돼지	2,547두
건초	294,718kg
대맥	6,990석
고	262,500kg
진면	2,300착
목탄	27,600표

주공기간 : 1939년 5월 17일 ~ 1940년 4월 28일, 계 11월 12일

주공관직 : 함경북도 내무부장 참여관 겸 도사무관

공적사항

1. 전사전상병사자의 조위와 전상병환자 취급, 방조, 위문에 관한 업무(1939년 5월 17일 ~ 1940년 4월 28일)

도군사후원연맹 부회장으로서 전몰군인의 조위와 전상병장병의 위문에 특히 유념하여 부하 직원

과 각종 단체를 독려해서 이의 위문 혹은 조위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실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위령제	18회
조위금증정	6호 423원여
화륜공물공진	125건 311원여
조전	6건
육군병원 위문	25회
상병장병 위문 연예회	3회

2.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들의 후원위홀에 관한 업무(1939년 5월 17일 ~ 1940년 4월 28일)

도군사후원연맹 부회장으로서 출정응소군인 유가족의 원호위홀과 출동장병의 격려위문에 침식을 잊고 진력하였다.

위문대 증정	5회(1,850원)
유가족 위문	58회
유가족 위안 연예회, 영화회	3회
황군송영접대	30회
현지에 있는 군인위문	2회
생활부조	4건
의료부조	18건
호별방문	80회

3.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1939년 5월 17일 ~ 1940년 4월 28일)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이사장으로서 시국관계 사무의 지도에 있어서 부하 직원과 부군 관계 직원, 지방단체를 지도 독려하고 후방 국민 특히 반도동포의 시국인식과 국방사상의 보급 및 함양에 노력하였다. 또 이번 성전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함과 아울러 이를 주지하는데 철저를 기하였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기원제	60회
봉고제	35회
좌담회	8회
강연회	262회
축하회	5회
영화회	35회
종이연극	322회
시국관계 책자, 인쇄물 배부 수(3종)	2,320부

이상의 공적은 별지 제19사단 참모장 나구라(名倉栗)의 공적현인서와 같다.

공적현인서

도사무관 이기방(李基枋)

위 사람은 1939년 5월 18일부터 194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업무에 복무함.

1.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 등의 후원 위훈

중일전쟁 발생 이래 황해도 참여관으로서, 또 황해도 산업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군사후원을 하였는데, 1939년 5월 본도 내무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도 함경북도군사후원연맹 부회장으로서 연맹의 지도 주무자가 되어 출정응소군인유가족의 후원, 위훈과 출동장병의 격려, 위문에 침식을 잇고 진력함.

위문대 증정	5회
가족유족의 위문	58회
가족유족의 위안 연예회, 영화회	3회
황군영송 및 접대	30회
현지에 있는 군인위문	2회
생활부조	4건
의료부조	18건
호별방문	80회

2.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본도 내무부장으로, 도군사후원연맹 부회장,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이사장으로서, 함경북도에서 시국관계 사무의 지도자로서 부하 직원과 부군 관계 직원, 지방단체를 지도, 독려하고, 후방 국민 특히 반도동포의 시국인식과 국방사상의 보급, 함양에 노력하고, 또 이번 성전의 중대성 및 그 이상의 심원함을 강조함으로써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함과 아울러 이의 주지에 철저를 기함.

기원제	60회
봉고제	35회
좌담회	8회
강연회	262회
축하회	5회
영화회	35회
연극회	322회
시국관계 책자, 인쇄물 배포 수(3종)	2,320부

3. 전몰전병사 등의 조위와 전병환자의 취급 방조

1939년 5월 본도 내무부장에 임명된 이래 부장으로서, 또 함경북도군사후원연맹 부회장으로서 전몰전상병몰군인의 조위와 전상병장병의 위문에 특히 유념하여 부하 직원과 각종 단체를 독려해서 이의 위문 혹은 조위에 유감이 없도록 기함으로써 군무를 방조함.

- 1) 전몰전상병몰군인 조위

위령제	18회
조위금 증정	6호 423원여
화륜공물공진	125건 311원여
조전	6건
- 2) 전상병장병 위문

육군병원 위문	25회
상병장병 위문 연예회	3회
4. 그 밖의 사변업무에 복무함.

이상의 공적은 공로가 큰 것으로 인정됨.

1940년 4월 28일
제19사단 참모장 육군보병대좌 나쿠라(名倉栞)

〈출전 : 「功績調書(松村基弘)」,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6) 이성근(李聖根)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9년 5월 17일, 계 1년 10월 12일

주공관직 : 함경북도 내무부장 도참여관

공적사항

별지 공적현인서와 같음.

주공기간 : 1939년 5월 18일 ~ 1940년 4월 28일, 계 11월 11일

주공관직 : 충청남도지사

공적사항

1. 동원소집에 관한 사항

부하직원을 지도 독려하여 동원 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임중 동원령 6회, 영장매수 101매 등이 내려오자 언제나 신속 정확하게 영장의 교부를 완수하여 응소자 전원이 지정일시에 반드시 도착하도록 하여 동원소집에 추호도 유감이 없도록 함.

2. 군사수송경계에 관한 사항

출정부대 및 군수품의 대량수송을 맡아 특히 병참으로서 본도의 사명이 중대함을 통감하고 철도당국 및 헌병대 기타 각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락하여 수송 경계계획을 수립하고 대전, 조치원, 천안역을 중심으로 관내 연선 각 역 및 부근 도로와 철교에서 불심검문, 여행자의 검색, 부하직원의 독려 및 경계 감독에 종사한 것이 91회에 이르는 등 군사수송에 만전을 기함.

3. 군용물자의 조달, 공출에 관한 사항

군용물자의 조달 공출을 맡아 도내의 생산분포상황과 생산능력을 정밀 조사하여 공출기간 등 실정에 맞는 조달 공출 계획을 수립하고 각 관계기관(특히 경찰)과 밀접한 연락을 도모하여 일반 도민의 시국인식의 교화에 철저히 노력함과 동시에 군용물자 조달 공출품의 선별, 감정, 포장, 수송 등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공출 지정기간 내에 예정(할당량) 이상의 수량과 품질이 양호한 물자를 조달 공출하여 군수동원 자재의 충족을 원활히 하는데 추호도 유감이 없도록 함. 조달 공출 제품은 다음과 같음.

군용말사료용 대맥	65,423석
군용고	77,777kg
군용가마니	2,805,449매
군용새끼줄	83,227관
군용저마섬유	58,394근
군용돈피	5,083매
군용모피	16,431매
군용양피	835kg
군용통조림용 쇠고기	390두
군용건초	319,275kg
군용방수피부가공지	560,000매
군용외투진면	11,983착
군용울충견 해서	8,249근
군용울충견	2,400근
군용목탄	2,000표
군용피마자	102석

4. 군사원호에 관한 사항

군사원호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부임 이래 특히 부하직원 및 도민에게 강조하여 시국인식에 군사원호 관념의 교화 철저를 도모하여 아래와 같이 통상기 이상의 각종 금품 모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응소출동 군인, 개선군인에 대한 환송연 접대 및 전사전병전상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독려, 조위, 부조하는 외에 출정 통과부대의 사기고무 기타 기원제, 위령제, 고별식, 위안회 등 각종 행사에 솔선 참가하여 제반 군사원호사업의 실시에 추호도 유감이 없도록 함.

군사후원사업자금	14,673원 20전
위문대	12,897개
위문홍병금	5,731원 6전
위문연초	3,384개
천인침	400개

5.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선전에 관한 사항

도민의 정당한 여론의 환기를 촉구하여 애국적 국방사상을 보급 선전하기 위하여 시국강연회 좌담회를 개1940년은 한편, 시국에 관한 인식의 철저를 도모하여 전시하 장기태세에 대한 각오를 강고히 함으로써 충후보국의 실을 거양하기 위해 월간인쇄물 『충남진흥월보』 13,993부, 『충남통보』 139,930부를 편집하여 일반 도민, 각종 부락, 애국반장에 이르기까지 배부 공람하도록 함으로써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선전에 만전을 기함.

또한 기타 지도자용의 연술요강을 편집해 각 관계기관에 배부하여 시국인식의 이해계발을 도모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쳐 부윤, 군수, 경찰서장, 중등학교장 회의 및 도내 유력자의 회합을 개1940년여 특히 국민정신의 양양, 총력발휘 등 후방 본도의 태세강화에 대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 외에 재삼 시국강연 계획을 수립하여 도간부를 총동원 각지로 출장시켜 시국에 대처하는 도민의 결의를 더욱 견고하게 함으로써 민심의 안정과 정당한 여론의 환기와 국방사상의 보급 철저에 진력한 결과 각소에 애국미담이 속출하고 적성의 발로로 국방헌금 1,327원 26전을 모집 취전할 수 있었음.

6. 국채의 소화, 저축 장려에 관한 사항

도민 각층에 모든 기회를 통해 전시하 국민의 저축의 중요성을 모두 알리고, 장기경제전에 대한 본도민으로서의 각오를 견고히 하고, 철석같은 단결로 난국 돌파에 매진하여 이번 사변의 종국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채의 소화와 저축의 장려에 헌신 노력한 결과 아래와 같은 양호한 실적을 거둠.

국채 및 각종 채권 소화액	627,000원
일반저축액	4,908,000원

공적현인서

도내무부장 이성근(李聖根)

위 사람은 함경북도 내무부장으로 1937년 7월 7일부터 1939년 5월 17일까지 아래 업무에 복무함.

1. 동원소집 징발 및 군용 우차마 공출에 관한 업무

제19사단 동원령에 따라 부윤, 군수를 독려하여 소집업무 및 징발사무를 원조함.

소집 징발 실시횟수	18회
소집인원	2,628명

징용마필	250두
징용우마차	1,560대
징용인부	1,205명

2. 방공방위에 관한 업무

도간부로서 방공계획의 중추에 참여하여 도내 방공방위의 완벽을 위해 노력하였던 바, 1938년 7월 중순 소만국경에서 장고봉사건이 발발함에 8월 2일 함경북도방공본부가 설치되자 본부 서무부장으로 서 적극적으로 관내 관공서 및 민간 각 단체를 지도 독려하여 방공 방위의 실시에 만전을 기함.

3. 군용도로의 보수

국경 북쪽 도로망의 완성이 본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긴급함을 인식하고 착착 완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던 바, 장고봉사건의 발발로 한층 그 중요성이 배가되어 주야로 완성에 최선을 다함. 특히 임진 지구의 도로는 군대 병기 군수품의 수송상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상사와 협의하여 토목과장 이하 관계직원을 독려하여 포탄과 총탄이 쏟아지는 속에서 희유의 대수해를 무릅쓰고 도로의 보수에 전력을 경주함으로써 군용……(판독불가)…….

노선명	군	면	동	명칭	공종	공사개요	길이 (m)	높이 (m)	공비 (원)	비고
무산 경흥	경흥	상하	아오지	도로	도로	사리부	850	4.0	1,000	
	경성	견방	화운	도로	도로	일부 가도 정도에 보수	270	3.0	400	
회령 용기	경성	견방	녹야	망경교	교량	일경간 증설 교태 및 교각 수선	16	5.5	1,300	
		견방	녹야	녹야소교	교량	교태 석원 기타 수선	14	5.5	400	
		견방	유성	도로	도로	붕토 취제 복구, 사리부	300	5.5	300	
사회 고성	경흥	경흥	적지 고읍	도로	도로	사리부	1,000	3.0	600	
용기 고성	경흥	노서	와산	도로	도로	사리부	1,400	3.0	1,000	흥의 와산간
청학 적지	경흥	경흥	적지 청학	도로	토공	가도 정도에 보수	600	3.0	400	사회 경유
장로 고성	경흥	경흥	장로 고읍	도로	도로		300	3.0	500	
유성 경흥		경흥 용기	백학 청학 장로	도로	도로	노면 보수	10,000		600	
계									6,500	

4. 군대군인 및 유가족 등의 후원 위훈

군사 부조 원호에 대해서는 내무부장으로서 해당사무에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온 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부하직원 및 관내 각종 단체를 지휘 감독하여 완벽을 기함. 특히 장고봉사건 발발에 따라 제19사단의 응급과병이 실시되자 상사와 협의하여 현지위문을 계획하고 부하직원을 독려하여 위문품의 조달 수송 등 응급조치를 실시함. 이렇듯 일선 장병 및 경찰관, 군면직원을 위문 격려하고 위문품

을 증정함으로써 출동부대 등 기타의 사기 고무에 노력함. 옹기, 나진 등 임전지구의 애국부인회 기타 부인단체를 독려하여 전투부대의 양식 조달에 진력함.

또한 장고봉사건 발발과 함께 지방과장, 사회과장, 토목과장 외 다수 도직원을 현지로 급파하여 군부와 경찰관헌 및 지방관공서와 연락 협조를 도모하여 사변 관계사무의 응급조치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음. 또한 장고봉사건 정전협정이 성립되어 출동부대가 원대복귀하게 되자 상사와 협의해 도연맹 및 부읍을 지휘하여 사변후원의 활동을 하였는데, 특히 나남 및 회령에서는 개선장병의 일대 위로회를 개최함으로써 장병의 노고를 위로하여 군부와 후방의 일치화합에 노력하였음. 사변후원 상황은 다음과 같음.

1) 중일전쟁 관계

황군 환송 환영 및 접대	600회
현지 군인 위문	62회
가족 유족의 위문	80회
가족 유족 위안 연예회 영화회	29회
생활 부조	16건
조산	1건
의료 부조	81건
호별 방문	129회

2) 장고봉사건 관계

황군 환송 환영 접대 및 전승축하회	19회
황군 위문 연예회	7회
위문품 증정	36회

5.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후방 국민의 정신작흥 여하에 따라 이번 사변의 진전에 다대한 영향이 있음에 비추어 정동연맹 외 각종 단체를 독려하여 강연회, 좌담회, 영화회, 연극회로 혹은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후방 국민 특히 조선동포의 시국인식 및 국방사상의 보급 함양에 노력하고 또 이번 성전의 중대성 및 그 이상의 심원함을 강조함으로써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함과 동시에 주지하도록 철저를 기함.

기원제	89회
봉고제	70회
좌담회	6회
강연회	713회
간담회	18회
축하회	23회
기행렬	122회
제등행렬	164회

연극회	428회
시국관계 책자 인쇄물 배부수 13종	316,485부

6. 전몰전병사자 등의 조위 및 전병환자의 취급, 방조

이번 사변 발발 이래 내무부장으로서는 또 함경북도군사후원연맹 부회장으로서 전몰전상병 군인의 조위 및 전상병 장병의 위문에 특히 뜻을 품고 부하직원 및 각종 단체를 독려하여 위문 간호 혹은 조제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군무를 방조함. 그 실상황은 다음과 같음.

1) 전몰전상병 군인 조위

위령제	28회
조위금 증정	13호 916원
화륜공물공진	323건 799원
조전	4회

2) 전상병 장병 위문

육군병원 위문	29회
통과부대 상병병 위문	1회
상병 장병 위문 연예회	6회

7. 군용물자 공출상황은 다음과 같음

돈피	30,737매
건초	13,089,614kg
생돈	9,014두
견모피	14,958매
양모피	945매
산토끼모피	115매

8. 장고봉사건 임전지구 주민의 피난 및 선후조치에 관한 업무

장고봉사건 발발에 따라 본도 대안 만주령 방천항 주민이 조선 내로 피난한 것을 시작으로 전투가 확대되자 점차 경흥군 내 위험지구 주민의 피난자가 많이 생겨났으므로 지방과장, 사회과장 외 다수 직원을 응급 파견하여 군부 및 지방관헌과 연락 협조를 유지하고 난민의 피난 유도, 의식의 배급 및 보호에 만전을 다함과 함께 민심의 동요, 유연비어의 방지에 노력함.

1) 피난민, 이재민에 대한 응급조치

피난민 구제수	4,214명
식량 공여	조 727석
의복 모집	약 6,500점
의연금 모집	1,500원
구료약품 배급	연 27,000명분

2) 이재민에 대한 위로 및 복구 2건	
조난자에 대한 위로	65명 1,700원
피해가옥 보상	139호 10,200원
피해가재 보상	138호 2,760원
피해가축 보상	15,380원
피해농작물 보상	35,400원

이상의 공적이 우수함을 인정함.

1940년 4월 28일

제19사단 참모장 육군보병대좌 나쿠라(名倉棨)

〈출전 : 「功績調書(李聖根)」,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7) 이원보(李源甫)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9년 3월 14일, 계 1년 8월 8일

주공관직 : 조선총독부 전라남도 참여관

공적사항

1. 전라남도 참여관 겸 산업부장으로서 사변하의 도정에 참여하여 아래의 중요업무의 지도수행에 일단의 노력을 기함.

1) 군수품의 공출에 관한 사무

1937년 9월 ~ 12월 군용말사료용 대맥 22,840석 공출

1937년 12월 ~ 1938년 6월 군대외용진면 공출 알선

1938년 2월 ~ 6월 군용수산통조림 원료의 공출 알선

1937년 8월 ~ 9월 야채 및 과실류의 공출 알선

1937년 10월 ~ 1938년 3월 군용통조림용 쇠고기 제주도에서 7,678두, 지육 167,837관의 공출 알선

1937년 8월 ~ 11월 군용고 341,640kg 공출 알선

1937년 8월 ~ 12월 군용천초 604,800kg 공출 알선

2) 각종 현금위문금품의 모집 취급사무

1937년 9월 ~ 1938년 1월 비행기 전남생업보국호 헌납기금 48,000원 취전

1937년 9월 ~ 1938년 1월 비행기 전남면화호 헌납기금 44,900원 취전

1937년 9월 ~ 10월 방한조끼용 진면 54관 외 조제자금 2,500원 취전

- 1937년 9월 전투기 애국조선참사호 헌납기금 7,000원 모집 취전
- 1938년 1월 ~ 6월 양념김 1,300통(가격 2,700원) 및 구운김 2,500상자(가격 68,102원) 취전
- 1938년 6월 ~ 1939년 3월 각종 헌금 위문금의 출납 보관
- 1937년 7월 ~ 8월 군사후원연맹을 통해서 국방헌금 2,890원 및 홀병금 1,439원의 취전 외에 병기 헌납금 61,050원의 취전
- 1938년 7월 ~ 1939년 3월 군사후원연맹을 통해서 국방헌금 15,210원 및 홀병금 3,882원의 취전 외에 병기헌납금 517원의 취전
- 3) 제주도비행장에서 경계 및 원조사무
 - 1938년 6월 ~ 1939년 3월 해군의 위탁으로 비행장 도로 및 항만 개량공사 실시 총공비 185,426원
- 4) 사변관계 제비용의 경리 출납에 관한 사무
 - 1938년 6월 ~ 1939년 3월 군수품 비용 매상대금의 출납과 사변관계 제비용의 경리 및 지불
- 5)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 등의 후원 위문
 - 1937년 8월 ~ 9월 응소자 중 양잠양가 40명에 대하여 잠종 514매 무상증여방 알선(이의 가격 700원)
 - 1937년 8월 ~ 9월 출정군인에 대한 조선신궁 어수 및 특제위문대의 증정, 출정자 가족 중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위문금품의 증정(자금으로 감사업자로부터 550원을 모집 취전), 전사 상군인에 대한 조위 및 견무금 증정
 - 1938년 7월 ~ 1939년 3월 군사부조를 결정한 것 52건, 상이군인 의료보호를 행한 것 3건
- 6)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사무
 - 1937년 7월 ~ 10월 총후보국에 관한 농산어촌진흥위원회 연합협의 및 중견자강습회 개최 42개소
 - 1938년 6월 ~ 1939년 3월 도민의 시국인식 및 난국극복에 이용하기 위해 「총후의 전남」을 편집 발행
 - 1938년 6월 ~ 1939년 3월 식국선전용 각종 인쇄물의 발행 및 시국뉴스, 영화 개최
 - 1938년 7월 ~ 9월 국민정신충동원 전라남도연맹의 결성에 이어서 각 부군도연맹의 결성을 담당함

주공기간 : 1939년 3월 15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1월 14일

주공관직 : 조선총독부 사무관(학무국 사회교육과장)

공적사항

1.¹⁾ 1939년 3월 15일 학무국 사회교육과장으로 전임되어 불철주야 사변하에서 즉응에 필요한 사회교화사업 및 그 외 중요사무의 실천궁행에 전념함. 그 업적은 아래와 같음

- 1) 시국순회강연의 개최

(출전 : 「功績調書(李家源甫)」,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1,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 원문에는 '2'로 기록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아 수정하였다.

28) 이원창(李源昌)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4월 15일, 계 9월 9일

주공관직 : 전라남도 장흥군수

공적사항

1. 군용물자 조달 공출에 관한 업무

관내의 관민을 총동원해 군수물자의 공출에 노력하여 예정수량 이상을 공출하였다. 그 실적은 별지와 같다.

2. 국방헌금 및 애국기헌납자금 등 모집 총괄에 관한 업무

후방 국민의 감사와 감격의 표시로 기부된 각종 헌금을 모집 총괄한 실적은 별지와 같다.

3.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들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

제일선 장병에 감사의 성의를 바침과 함께 유가족에 대해서는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 군사원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실적은 별지와 같다.

4.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후방 국민의 철벽같은 결의를 굳게 하고 진충보국에 일로매진하도록 시국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계몽에 온힘을 다하였다. 그 실적은 별지와 같다.

주공기간 : 1938년 4월 16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14일

주공관직 : 전라남도 무안군수

공적사항

앞의 각항과 같고 그 실적은 별지와 같다.

<별지>

장흥군

1. 군용물자조달 공출에 관한 업무

- | | |
|-----------|------|
| 1) 보리공출 | 500석 |
| 2) 견모피 공출 | 456장 |
| 3) 묘피 공출 | 59장 |
| 4) 토피 공출 | 3장 |

2. 국방헌금 및 애국기헌납 자금 등의 모집 총괄에 관한 업무

- | | |
|---------|------|
| 1) 국방헌금 | 559원 |
|---------|------|

- 2) 비행기헌납 자금 3,773원
 - 3) 고사포 헌납금 4,029원
 - 4) 군사후원연맹사업비 1,872원
3. 군대 군인 및 그 유가족 등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
- 1) 입영 응소군인 환송영 접대 4회 소요경비 143원
 - 2) 황군위문금 1,029원
 - 3) 감시초위문금 181원
 - 4) 위문대대 48원
 - 5) 황군홀병금 2,942원
 - 6) 현지위문 7회 소요경비 333원
 - 7) 유가족 위문 19회 소요경비 64원
4. 여론환기, 국방사상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 1) 시국강연회 29회, 연청강인원 58,749인

무안군

1. 군용물자조달 공출에 관한 업무
- 1) 대맥공출 645석
 - 2) 모시공출 3,510근
 - 3) 생돈공출(통조림용) 2,410두
 - 4) 생우공출(통조림용) 5두
 - 5) 모피공출 3,450장
 - 6) 돈피공출 7,590장
2. 국방헌금 및 애국기헌납 자금 등 모집 총괄에 관한 업무
- 1) 국방헌금 823원
 - 2) 군사후원연맹사업비 6,439원
 - 3) 고사용기관총 헌납자금 7,895원
 - 4) 병기헌납자금 5,558원
 - 5) 방공감시초소비 240원
 - 6) 비행기헌납자금 238원
3. 군대 군인 및 그 유가족 등의 후원위홀에 관한 업무
- 1) 위문대대 1,723원
 - 2) 위문금 1,245원

- 3) 홀병금 425원
- 4) 위문연초대 153원
- 5) 유가족 위문금 636원
- 6) 유가족 위문 18회 38호

4.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 1) 시국강연회 25회 52,300인

〈출전 : 「功績調書(李源昌)」,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9) 이창근(李昌根)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9년 5월 16일, 계 1년 10월 10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산업부장 도참여관 겸 도사무관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 군수품의 제조공출 및 수리 조변에 관한 업무

1) 군용물자의 조달 및 공출

사변이 발발한 1937년 7월부터 1939년 5월에 이르는 1년 10개월 전기간의 약 2/3에 걸쳐 가장 긴 급한 시기에 산업부장으로서는 산업부 관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본 업무에 관여해 관계 과 및 부군, 그 외 관할 소속의 방침을 지도 독려하여 그 조달 및 공출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군수의 충족에 만전을 기하여 성전완수 상 기여한 바가 크다.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군용대맥	268,200석
군용거적	200,000관
군용건초	1,601,827kg
군용모피	103,066매 (돈피 21,367매, 견피 77,622매, 토피 4,077매)
군용풀솜	15,898조
군용통조림용소고기	9,476두

2) 군수품 제조 공출

(1) 군수용 양념고등어통조림 공출

중일전쟁 발발에 따라 관내 수산물통조림 제조업자에 대해 군수품으로 고등어통조림 납입에 관한 명령이 내려올 것을 알고 곧바로 도에 협의회를 조직하여 제조규격의 연구, 제조가능량 등의 협의를 하여 제조공출상 유감이 없도록 관계업자에게 준비하도록 해 두었다.

그런데 군부에서 먼저 류노(龍野二郎), 우라하마(浦濱秋吉), 나가가오(中川常太郎)의 3개 공장

을 지정하여 양념고등어통조림의 납입을 명령하였으므로 그 제조에 관해 때때로 계직원으로 하여금 관계공장을 순회 지도하게 함과 함께 부장 스스로 각 공장을 시찰하며 지도 독려하여 유감이 없도록 한 결과 각 공장 모두 납입기한 내에 할당량을 완납하여 군수의 충족에 기여하였다.

양념고등어통조림

29,000상자(1상자 4개씩)	1,392,000개
43,000상자(1상자 4개씩)	1,548,000개
계	2,940,000개

(2) 군수용 물고기야채통조림 공출

사변이 장기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군수품으로서 통조림 제조 공출량도 점차 증가하였으므로 앞의 3공장의 확충 준비를 도모함과 함께 다시 영일만어업주식회사, 조선수산물출주식회사 및 오쿠무라(奥村亮三) 3개 공장을 추가하여 양념통조림 외에 물고기야채통조림의 제조를 실시하였다. 각 공장은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할당량의 완납에 노력해 각 공장 모두 기간 내에 그 제조 공출을 완료하여 군수의 충족에 큰 공헌을 하였다.

물고기야채통조림

6,500상자(1상자 3개씩) 235,000개

(3) 수산가공품의 원료 알선

군수용 수산가공품으로 마른 대구, 청어 절임, 정어리 절임, 마른 정어리, 연어 절임, 마른 양념해초의 납입 명령이 내려왔으나 원료의 입수가 곤란하여 납입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므로 그 원료의 알선을 위해 원료공급자 측의 단체인 조선제3구기선저인망수산조합, 영일어업조합 및 감포어업조합과 사이에서 알선을 하고 또한 원료가격의 협정 등에 노력하여 원료를 입수하게 함으로써 이들 가공품의 납입에 유감이 없도록 하여 군수의 충족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

원료 알선

대구 161,000kg

2. 국내물가, 물자의 조정, 생산력 확충 자원개발에 관한 업무

1) 국내물가, 물자의 조정

(1) 물가 상승의 억제

1937년 8월 3일 폭리취체령이 발표되자 부윤, 군수, 경찰서장 회의에서 이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을 시달하고 더욱이 대구, 김천, 상주, 예천, 안동, 의성, 영천, 경주, 포항의 9개 부읍면에 걸쳐 관공리 및 관계업자의 좌담회를 개최하고 스스로 이에 참석하여 본 취지의 철저한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 물자수송의 조정

1937년 8월 1일 이후부터 12월 말일까지 사이에 철도국과 민간수송업자의 연락 조정에 노력하여 수송의 원활을 기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3) 중요물자의 사용제한

1937년 10월 25일 총독부령으로 철공공작물 건조의 제한, 1937년 11월 13일 총독부령으로 동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자 관계관서와 충분한 연락을 취해 지도와 취체, 위반자 단속 등에 만전을 기하였다.

(4) 중요물자의 배급 및 소비통제

가. 철망의 배급통제

1938년 중요물자의 배급통제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철망의 통제를 하여 할당량의 공평한 배급에 노력하였다.

나. 고무제품의 배급통제

고무제품의 제조업자에게 수요액을 조정하여 배급할당의 공평을 기하였다.

다. 석유의 소비 규정

교통, 운수, 어업자에 대해 석유의 공평한 배급 및 소비 규정에 노력하여 이들 업자의 원활한 경영지도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5) 각종 단체의 설치

가. 물자위원회의 설치

1938년 조선물품판매가격취체규칙이 발표되자 그 취체 및 지정물품의 기초조사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고, 경상북도물가위원회를 조직하여 적정가격의 준수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나. 광업협회의 설치

1939년 9월 광산용 자재 배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경상북도광업협회를 설치하여 광산 자재의 수급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다. 사배급통제조합 설치

실 종류의 배급통제를 기하기 위해 1938년 4월 7일 사배급통제조합을 조직하여 그 공평한 배급의 통제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2) 생산력 확충

군수 임산물의 생산을 다음과 같이 증가시켰다.

군수 오배자의 채취	6,663관(10,626원)
군수 아베마키의 증산	683,269관(56,237원)
군수 송진의 채취	375관(694원)

3) 자원의 개발

- (1) 1937년 3월 국내자원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자원애호전람회를 개최하였다.
- (2) 1938년 10월 자원개발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총후보국전람회를 개최하였다.
- (3) 1938년 10월 자원애호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대용품공업좌담회를 개최하였다.

3. 군대 및 군인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

북중국 파견 장병의 위문 및 북중국 녹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묘목 및 종자를 기증하고 현지 장병

의 위안 위홀에 공헌한 바가 크다.

1) 묘목 기증

요시노벳나무	1,000본
코노데가시하, 리키다마쓰, 버드나무, 네구시도에테 외 16종	225,630본
조선앵두나무	2,500본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리키다마쓰, 쿠루미 묘목	720,000본

2) 종자 기증

조선소나무, 단풍나무, 니세아카시아 외 7종류 종자	7석 2두 6승
------------------------------	----------

주공기간 : 1939년 5월 17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월 22일

주공관직 : 경기도 산업부장 도참여관 겸 도사무관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 군수품의 제조 공출 및 수리 조변에 관한 업무

1) 군용물자의 조달 및 공출

대륙병참기지 조선의 중추에 있는 조선군사령부를 시작으로 사단사령부, 각 부대, 육군창고, 육군병원 등 군부 각 기관 등이 본도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상 군용물자의 조달 공출에 대하여 본도는 특수한 입장과 사명을 가지고 이에 관여한 바, 특히 관련 산업부 소관 관여업무 중 가장 중요하고 이의 완수여부는 직접적으로 군의 작전상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군으로부터 조달 공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산업부장으로서 관계 과 및 관할 부군의 지도 ……(판독불가)…… 조달 공출을 하여 군수의 충족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군용대맥	134,287석
군용새끼	1,374,094관
군용가마니	5,526,948매
군용폴	1,650,500매
군용거적	898,110kg
군용건축초	3,533,070kg
군용모피	35,820매
군용양모	3,064kg
군용통조림용 생우	427두
군용방한외투용 가공진면	16,000착
군용해수피	117,000근
군용울충견	2,488근

2) 군용품의 제조 공출

(1) 포탄부분품 등의 제조 공출

사변이 장기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종래부터 제조 공출해 온 군수품(주로 포탄, 폭약의 외부, 볼트 그 외 부분품 및 포탄용 상자 등)의 제조 공출은 점차 그 종류 및 제조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인하여 제조 공출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 과, ……(판독불가)…… 제조소, 평양항공지창 등과 연락을 긴밀히 하여 군수품의 제조 하청 수주, 숙련공의 양성 배치 등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보조금 교부에 의하여 기계 그 외 여러 시설의 정비를 꾀하는 등 작업능률의 증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본 군수 부분품의 제조 공출 상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보조금 교부

1939년도 년액	80,000원
1940년도 교부액	26,200원
(년액)	80,000원

숙련공 양성

1939년도	20명
1940년도	20명

(미배치 양성중)

위 배치공장 11개소

(2) 군수 양말의 제조 공출

관하 개성부에서 경영하는 군수 양말의 제조 공출 지도 독려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다음과 같이 공출을 하였다.

군수 양말 제조공출 1,363,830족

2. 국내물가, 물자의 조정, 생산력 확충 및 자원개발에 관한 업무

1) 국내물가, 물자의 조정

(1) 공정가격의 설정

국내 물가 등귀의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 물자의 공정 ……(판독불가)…… 경제의 중추에 있으므로 각도 본도에서 공정가격의 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고 각각 그 도의 공정가격을 설정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산업부장으로서는 그 가격 결정에 대한 특단의 주의를 기울여 반도 경제의 통제를 꾀함에 공헌한 바가 크다.

물품명	공정가격	설정건수
소주		2
은분태		3
청주		21
약주 탁주		4
일용식료품		112

쇠고기	4
양념	4
일본우산	62
맥주	8
청량음료	14
사탕	10
서양종이	33
일본종이	77
기와	8
계	364

(2) 철류 및 비철금속류의 수급 조정

군수산업 생산력의 확대에 따라 국내 생활필수물자가 부족해져 그 배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산업부장으로서 특단의 주의를 기울여 철강선재 제품 ……(판독불가)……를 실시하는 반면 이들 중요 자재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백금, 금, 동, 선철, 주물의 사용과 제조를 제한함으로써 시국하 국민생활상 필수적인 이들 물자의 수급 조정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3) 도량형기의 취체

도량형기는 물자교역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이 물가, 물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그 정확을 기하기 위해 관계 과 및 관하 부군 경찰서 등으로 하여금 그 취체를 엄격히 하도록 하여 시국하 물가정책에 기반한 취인의 안전과 물가, 물자의 조정에 큰 공헌을 하였다.

가. 계량기의 취체

취체연일수	278
취체기물수	3,939
불합격기물수	522
위반건수	126
고발건수	4

나. 계량물자의 취체

계량취체연일수	1,268
조사건수	17,080
계량위반건수	2,198
고발건수	121

다. 계량기의 검정

검정물건수	8,385
……(판독불가)……	

2) 생산력 확충

(1) 필수주요식량작물 및 섬유작물 축산의 증산 증식

사변이 장기화하고 확대됨에 대처하여 농촌생산력의 확충은 성전 수행상은 물론 후방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데 긴요한 사무이므로 그 증산 확보에 유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설정된 계획에 기반하여 쌀, 잡곡 등 필수주요식량작물 및 국책에 따른 면, 대마 등 섬유작물 등의 증산과 축산의 증식 등에 대해 산업부장으로서 관계 과 및 관하 소속 관공서의 지도 독려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음에 기재된 것과 같이 미증유의 대한해를 만났음에도 그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게 하여 작전수행상 필요한 군용물자의 조달 공출상은 물론 국내에 필요한 물자의 수급 조절에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면작은 해마다 확장을 거듭하여 미증유의 대한해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대증수를 가져옴으로써 이 작물이 한해에 강함을 여실히 실증하였고 국책에 따른 이 작물의 증산 장려상 공헌한 바가 큰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작물생산상황

종류	경작면적	수확고
쌀	……(관독불가)……	……(관독불가)……
대맥	97,353	1,024,800
소맥	28,579	193,268
겉보리	969	7,628
속	29,924	118,378
대두	74,591	168,600
소두	11,100	13,545
면	253,186	210,336,124
대마	21,895	3,471,567

(2) 지도적 중심인물의 양성

생산력 확충의 강화와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부락중견지도자의 양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농사훈련소의 증설과 강습회의 개최 등에 대해 관계 과 및 관하 소속관공서를 지도 독려하며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농촌민의 자력극복, 각성분기를 촉진하여 미증유의 한해에 대처하고 도민의 정신적 방면에서 대책과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난국타개에 기여한 바가 크다.

가. 농사훈련소의 증설

1개소, 수용인원 208명, 년경비 5,350원

나. 강습회의 개최

부락간부강습회 91개소, 수용인원 4,283명

주부강습회 606개소, 수용인원 18,926명

(3) 한해 대책

1939년 남조선지방이 미증유의 대한해를 맞았는데 본도 또한 그 권내에 들어 각종 농작물의

피해가 심대하고 도민의 생활상 물심양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은 민심에 불안, 동요를 일으키고 각종 행정집행상 영향을 미치는 바가 커서 시국하 후방 실무의 완수에 유감이 없도록 하기 어려우므로 그 구제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자 1939년 8월 7일 도에 임시재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한해대책요강의 수립과 각종 구제조치의 설치에 대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재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제하는데 만전을 기한 결과 성전하 시국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민심의 불안, 동요 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난국을 타개할 수 있었으니 후방 실무의 완수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3) 자원개발

도가 소유한 임야 중 이미 이용기에 달한 것으로 운반시설이 없어 미개발로 방치된 것에 대해 도로를 개설하여 시국하 임산물재의 수급조절상은 물론 임야자원의 개발에 기여한 바가 크다.

가. 임도개설

개설연장	28km
공사비	49,000원
개발면적	12,390정보
개발증진이익	397,000원

나. 위에 따라 생산 및 반출된 자재

목탄 생산 반출	49,414표
쟁목 생산 반출	18,380척

3.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선전에 관한 업무

사변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심의 긴장 쇄신을 견고하게 하고자 도정 집행상의 최고간부의 입장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 기간 중 미증유의 대한해를 맞았으므로 그 구제조치로써 정신적 방면에서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소속 관공서를 지도 독려하여 시국적 강연, 강화, 강습, 좌담, 간담회 및 종이연극, 영화회 등의 개최 또는 각종 강조강화주간의 실시 등 시국인식과 국방사상의 보급 선전에 노력하여 난국의 극복과 후방실무의 완수에 기여한 바가 크다.

1) 시국정 강연, 강화, 강습회의 개최

도 주최	102회
부군 주최	238회
각정 각읍면 각부락 각단체별	85,100회
계	85,440회

2) 각종 강조강화주간의 실시

……(판독불가)……	1939년 10월 3일 ~ 10월 9일 1주간
국민정신자흥주간	1939년 11월 7일 ~ 11월 13일 1주간
경제전강조운동	1939년 12월 1일 ~ 12월 말일 1개월간

4. 군대, 군인 및 그 유가족 등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

산업부장으로서 혹은 도참여관으로서 도정 집행상의 최고간부 입장이었으므로 주로 내무부의 주관에 속한 본 업무에 관해서는 원조와 협력에 대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군사원호의 철저를 기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5. 전사전상병자의 조위 및 전상병환자의 취급, 보조, 위문에 관한 업무

앞의 항과 같이 내무부의 주관에 속한 본 업무에 대해 산업부장으로서 특단의 원조와 협력을 하여 군사원호의 철저를 기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6. 국채소화, 저축장려 등에 관한 업무

국가전시경제정책에 협력하는 성전목적 수행상 후방 국민의 책무인 국채소화의 원활, 저축장려의 철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특히 산업부의 소관사항으로 가장 관계가 깊은 농림생산물 공동판매 때 천인저축 또는 시국산업 ……(판독불가)…… 농촌부락저축조합 또는 도시시국산업방면에서 전시 이득자 등에 대해 저축조합의 확충강화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음과 같은 실적을 보여 후방실무의 완수에 기여한 바가 크다.

1) 1939년도 저축증가목표액에 대한 실적

목표액	105,000,000원
12월 말 실적	98,340,200원
년도 말 실적	129,154,920원
저축비율	123% 목표 돌파

2) 1940년 저축목표액의 설정 및 중간실적

목표액	158,000,000원
4월말 실적	2,396,106원
저축비율	1.5%

3) 국채채권소화상황

국채	3,587,145원
저축채권	1,567,345원
계	5,154,490원

4) 저축조합의 확충 강화

가. 1939년 12월 말

조합수	8,715조합
조합원수	420,294명
저축액	15,405,839원

나. 1940년 4월 말

조합수	8,790조합
조합원수	447,044명
저축액	19,433,781원

7.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 자금 등의 모집 취전에 관한 업무

……(판독불가)…… 원조협력을 하여 다음과 같은 모집취전을 보아 군사원호의 철저를 기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국방헌금모집취전	271,823원(일반국방헌금 및 애국기헌납자금 모두 포함)
군사후원사업비취전	323,968원
계	593,751원

〈출전 : 「功績調書(平松昌根)」,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0) 이희순(李熙淳)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9년 6월 20일, 계 1년 2월 14일

주공관직 : 함경북도 경원군수

공적사항

1. 임전지대에서 실전에 참가 또는 관여한 것(1938년 8월 5일 ~ 10일)

장고봉사건이 발발하자 국경수비대 및 경원헌병분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징용인부 2백여 명 및 우차 3백여 대를 전후 4회에 걸쳐 아오지병참사령부에 보냄과 동시에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주로 청학, 사회, 경흥 방면으로 인솔할 때 때마침 호우에 의해서 교통이 두절되어 불편을 겪는 가운데 전지에서는 포탄과 총탄에도 불구하고 공중폭격하에 드러내게 하였던 바 자칫하면 도망하려고 하는 인부, 우차부를 철저히 감시 독려하여 군수품 수송 임무를 완수하였다.

2. 징발에 관한 업무(1938년 7월 7일 ~ 1939년 6월 20일)

1) 장고봉사건에 동원령이 내려지자 ……(판독불가)…… 평소 민속하고 매우 적절한 조치하에서 말 24두를 징발하여 군사행동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2) 또한 제1선인 전지로 인부 205명, 우차 376대, 우차부 376명, 축우 376두를 4회에 걸쳐 임시 징발하고 차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긴급을 요하고 용이치 않은 사무임에도 각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철저히 노력하여 조금의 지장도 없이 소기의 징발을 완수하였다.

3. 군대 및 군수품 등의 수송과 병참 제근무, 숙영 급양에 관한 업무(1938년 7월 12일 ~ 8월 31일)

국경수비대에 필요한 군수품의 수송곤란으로 인하여 면내 우차를 징용하여 1리 떨어진 경원역 혹

은 인접한 훈용지방의 수송을 극력 원조하고 군내에 대기부대가 주둔할 때에는 관계된 군면 직원을 독려하여 숙사의 알선, 필요물자의 공급 등에 진력하고 ……(판독불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원조하여 모두 유감이 없도록 함.

4. 방공, 방위, 방첩 군기보호에 관한 업무(1938년 7월 31일 ~ 8월 31일)

소련과의 국경지로서 이전부터 방공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던 바, 장고봉사건이 발발하자 적기 습래의 위협이 커졌으므로 경찰관현과 긴밀한 연락하에 부하직원을 동원하여 옥상을 플로 덮어 공중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는 등 방공조치의 완벽을 기하여 민심의 동요를 막고 치안의 확보에 노력하였다.

5. 전시하 피난민 구호에 관한 업무(1938년 7월 12일 ~ 10월 31일)

장고봉사건이 발발하자 교전지역인 경흥군 호서방면에 이재민이 속출하여 피난을 시작해 친척과 연고를 찾아 경원군 내에 들어온 피난민이 302명이라는 많은 수에 달하였다. 이들 피난민을 유도, 보호하고자 각 방면과 연락, 협조하여 훌륭히 위무함과 동시에 식량배급, 구제복구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6. 군용물자 공출에 관한 업무(1937년 7월 7일 ~ 1939년 6월 20일)

군의 요구에 기반하여 군용대맥, 속, 현미, 견피 등의 공출을 맡아서는 오로지 부락민과 계원을 지도 독려하여 불면불휴 노력한 결과 예정수량 이상을 공출할 수 있었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대맥	3,500kg
속	1,05,000kg
현미	2,600석
견피	1,200매

7. 군대 군인 및 유가족의 후원 위홀에 관한 업무(1937년 7월 7일 ~ 1939년 6월 20일)

경원수비대, 경흥 경원 대기주둔부대에 대해 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위문금(220원), 위문대(1,014개)를 취전하여 현지에 가지고 가 증정하였고, 장고봉으로부터 귀환한 경원수비대 장병 약 50명을 초대하여 위로연을 개최하고 노고를 위로하였으며 응원유가족의 농작물 취입 때 부락민 약 50명을 동원하여 6천 평 이상의 논의 수확을 원조하는 등 후원 위홀에 노력하였다.

출정군인 유가족 방문	22회
출정군인 송별연 개최	4회
출동 귀환부대 위안연 개최	3회
각종 위문품 모집	3,247개
연초 취전	8,057개

8. 국방헌금 및 애국기헌납자금 등의 모집취전에 관한 업무(1937년 7월 7일 ~ 1939년 6월 20일)

국방헌금, 애국기헌납자금의 취전에 노력한 결과 ……(판독불가)……
 각종 헌금 7,318원

주공기간 : 1939년 6월 21일 ~ 1940년 4월 28일, 계 10월 8일

주공관직 : 함경북도 명천군수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공출에 관한 업무(1939년 6월 21일 ~ 1940년 4월 28일)

군수품의 공출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을 독려해 불면불휴 계속하여 할당된 수량 이상의 공출에 노력한 결과 예정된 수량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대맥	341,500kg
속	373,140kg
생돈	605두
견피	2,671매
건초	397,310kg
돈피	248매

2. 군대군인 및 유가족 등의 후원 위훈에 관한 업무(1939년 6월 21일 ~ 1940년 4월 28일)

전사자 및 응소군인 유가족의 위문에 대하여 특히 성의를 다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 각 가구를 방문하여 위문하고, 이와 더불어 제일선 장병의 노고에 감사하고자 부인단체와 협력하여 위문대를 취합해 보냈다.

위문회수	3회
위문대	981개

3. 국채의 소화에 관한 업무(1939년 8월 21일 ~ 1940년 4월 28일)

국채소화에 관한 취지의 선전에 노력하는 한편 군 및 각 면의 관계직원을 독려해 항상 할당수량 이상의 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국채 및 기타 채권소화액 6,773원

4. 국방현금 및 애국기헌납자금 등의 모집 총괄에 관한 업무(1939년 6월 21일 ~ 1940년 4월 28일)

……(판독불가)…… 다음과 같이 총괄해 헌납하였다.

각종 현금 4,517원

5. 징발에 관한 업무(1939년 6월 21일 ~ 1940년 4월 28일)

시국에 따른 징발사무에 대하여 특히 부하직원을 독려하여 항상 관내 마필의 조사를 태만히 하지 않고 유사시에 대비해 모두 유감이 없게 하였다.

〈출전 : 「功績調書(李熙淳)」,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1) 장수길(張壽吉)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1938년 10월 31일

주공관직 :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 조선총독부속

공적사항

1. 육해군에 이입하는 군용휘발유의 비과세 취급

군에 이입하는 군용휘발유에 대해 특별히 휘발유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취급한 결정과 함께 통관의 간편을 도모함으로써 군용품의 수송공급을 원활히 하여 군의 행동에 기여하였다(1937년 7월 9일 ~ 1938년 10월 31일).

2. 세관구내 기타 설비의 군용 제공 및 단속

세관과 군당국 사이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협정상 각종 세관설비와 보호지역에서의 군의 사용품에 관하여 그것들을 공용하도록 수배하고, 또한 이들 수화물의 관리 및 방첩모략행위방지를 세관에서 함께 취급하도록 하였다.(1937년 7월 10일 ~ 1938년 10월 31일).

3. 군사수송용 철도 차량 등의 관세 면제.

군사수송의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철도차량 및 그 비품, 부속품에 대해 사변 직후의 사태에 대응하여 7월 15일 취급한 관세를 면제하고 각 세관장에 통첩을 보내 군사수송의 민활한 운송에 기여하였다.

4. 연료용 휘발유, 혼입 알콜의 주세 면제.

육해군이 보유한 연료용 휘발유에 혼입하기 위해 보관하였거나 또는 배급을 받아 군에서 이입하는 알콜의 주세는 특별히 과세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군수품의 수송공급을 원활하게 하였다.

5. 군용선의 세관, 철교 등 사용료 면제

사변에 따라 군대 및 군수품 수송용 선박에 대하여(판독불가).....

6. 추락군용기 수사 원조

추락 군용비행기 수사를 위해 인천세관 소속선 팔미환과 승조원을 군에 제공하여 해상수사를 원조 하였다.(1937년 7월 30일).

7. 철수 피난민, 소속 하물의 간이 통관.

중일전쟁으로 인해 철수한 피난민이 가지고 온 하물, 휴대품 등에 대해 통관상 편의를 제공하였다.

8. 철도수송화물의 수용기간 연기.

군사수송화물의 폭주에 따라 일반화물이 수송을 제한받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 화물이 세관구 내에 쌓여있던 것을 관련세법에 따라 수용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여 군사수송에 민활함을 도모하였다.(1937년 8월 9일 ~ 12월 31일).

9. 세관소속 선박의 군용제공.

군용선박의 항만 취급 작업 폭주에 대응하여 군의 요구에 따라 세관소속 예선 호남환을 임시로 군용으로 대여하여 군사수송을 원조하였다.(1937년 8월 10일).

10. 조선북지사건특별세령의 실시 및 조선출항세령의 개정

사변의 군사비 조달을 위해 조선북지사건특별세령을 신설하고 그 물품세 시행에 관한 예산의 편성 실시 준비 등을 하였으며, 또 물품세의 시행에 수반하여 출항세령을 개정하여 사변비 조달에 기여하였다.(1937년 8월 12일 ~ 1938년 3월 30일)

11. 육군이 수입하는 병기 탄약의 수입세 면제

육군이 수입하는 에칠액(테트라 에칠 후드) 등 항공병기의 관세를 면제하여 군사행동을 원활하게 하였다.

12. 피난민 수송 선박의 □세 면제

중일전쟁으로 발생한 피난민 선박에 대해 특별 □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세관장에 통첩하여 선박의 항행을 민활하게 함으로써 현지의 군사행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13. 군용선의 세관설비사용료 면제, 수속의 간편

전시 군용선의 철교, 예선 등 세관설비사용료 면제에 대해서는 세관장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수속을 간소화하여 군용선의 행동과 하역을 민활하게 하였다.

14. 토끼 모피의 수출 금지

군용 토끼 모피의 공급확보를 위해 세관에서 수출면허를 유보하고 요항을 속보로 본부에서 군과 연락하여 군의 구입을 용이하게 하여 군수품 조달을 원조하였다.

15. 중국인의 금제품 휴대 출국을 단속

사변과 함께 재조선 중국인으로 순금제품을 구입 수집하여 본국을 향해 출국하는 것이 증가였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단속할 것을 각 세관에 수배하여 적군의 전투력 증강 억제에 노력하였다.

16. 보리 및 귀리의 수출 방지

군용마량 확보를 위해 보리와 귀리의 수출에 대해 군과 연락하여 군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수배하였다.

17. 육군창고사무의 원조(1937년 10월 5일 ~ 12월 31일)

사변과 관련하여 육군창고의 항만에서의 군수품 수송사무 처리를 위해 세관청사를 임시로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수배하였다.

18. 군용품의 세관수출수속의 간편

군량 및 기타 군용물자에 대해 그 수출과 관련한 세관수속을 간편하게 하였다.

19. 군용미곡 또는 목재의 수출제한 해제
 군이 보유하여 수출하려는 미곡과 목재는 미곡통제법 또는 수출제한법령에 의거한 제한을 해제하여 군수품의 공급수송을 원활하게 하였다.
20. ……(판독불가)……
21. 대중국 적군 경제봉쇄를 위해 중국방면 화물의 취급 자제
 군수자재로 획득한 물품이 적군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중국쪽으로는 수출 자유를 제한하고 기타 물품의 취급을 자제하도록 중용하였다.
22. 군용수송선의 세관수속 간소
 군용수송선의 세관 처리를 간략하게 처리하고 헌병과 기타 군부의 협력하에 이행하는 등 특별히 취급하도록 하였다.(1937년 1월 11일 ~ 10월 31일)
23. 육군 군수동원관제공장에서 이입하는 병기재료의 간이 통관
 육군 군수동원관제공장에서 이입하는 병기 구성재료에 대해 특별히 민활한 통관으로 수배하였다(1937년 1월 12일 ~ 10월 31일).
24. 견모피의 수출 억제
 사변이 진전됨에 따라 군용 견모피의 공급을 확보하려는 조선군의 요구에 따라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육군 창고에 납입하였다(1937년 1월 20일 ~ 10월 31일).
25. 군용 말사료용 수수의 무관세
 육군에서 군용 말사료로 수입하는 수수에 대해 특별히 무관세로 취급하도록 하였다.(1937년 1월 24일 ~ 10월 31일)
26. 출정 군대 등에 하사하는 위문 연초의 수이입 간이 통관
 출정 또는 해외 주둔 군대에 황족 또는 왕공족이 하사하는 위문 연초를 받는 군인이나 그 관계자가 수이입하는 경우에는 수량 제한 없이 통관시켰다.(1937년 3월 11일 ~ 10월 31일)
27. 중일전쟁특별세령의 제정 실시 및 조선출항세령의 개정
 중일전쟁에 물자를 조달할 목적으로 중일전쟁특별세령 중 물품세를 창설, 실시하고 그 예산편성 및 그에 따른 조선출항세령의 개정 시행에 종사하였다.(1937년 4월 1일 ~ 10월 31일)

주공기간 : 1938년 11월 1일 ~ 1940년 5월 28일, 계 1년 5월 28일

주공관직 : 조선총독부 재무국 이재과 사무관

공적사항

1. 임시자금조정법에 관련된 업무.

임시자금조정법에 의거한 인허가사무를 취급하고 물자 및 자금의 수급을 조정하여 급하지 않고 긴

요하지 않은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중지시키고 시국하 긴급한 군수 및 기타 생산력 증원자원의 개발에 노력하였다.

2. 저축장려에 관한 업무.

저축장려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실시에 노력하여 매년 저축목표액을 돌파하는 성적을 내어 전시재정경제 국책의 수행에 기여하였다.

3. 생산력 확충에 관한 업무.

생산력 확충계획의 입안을 분담하여 자금계획을 세움과 함께 대장성 예금부 자금의 존입, 식산채권의 발행, 공공단체의 기체 등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여 자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력 확충을 도모하였다.

4. 시국관계법령의 입안, 심의에 관한 업무

다음 시국관계법령의 입안, 심의를 담당해 시행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임시자금조정법개정 1939년 4월 공포

1940년도 국내자금조사규칙 1940년 1월 15일 공포

임시자금조정법 중 개정 1940년 3월 공포

〈출전 : 「功績調書(張壽吉)」,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1,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2) 정연기(鄭然基)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1월 9일, 계 6월 3일

주공관직 : 강원도 강릉군 군수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 군수품의 제조공출 및 수리조변에 관한 업무

군용 말사료인 대맥의 공출독려에 있어 시기도 수확기로부터 상당한 날짜가 경과하여 공출에 대단히 불편하고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하직원들을 잘 독려 지도하고 관계 읍면과 연락 협조하여 할당예정 이상의 수량을 공출할 수 있었던 것은 침식을 잊고 불면불휴 노력하였기 때문으로 그 공적이 현저하다.

공출품목 수량

예정 대맥 220석

공출실적 224석

2.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사변 발발과 함께 시국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반민중의 시국에 대한 인식의 철저와 국방사

상의 보급 선전에 힘쓴 공적이 현저하다.

강연회 24회
청강인원 3,600명
국방헌금 850원

주공기간 : 1938년 1월 10일 ~ 1938년 6월 22일, 계 5월 13일

주공관직 : 전라북도 참여관

공적사항

1. 도민의 시국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각 부군을 순회하며 유림층 및 기타 지도계급에게 강연을 하여 많은 성과를 낸 공적이 현저하다.

주공기간 : 1938년 6월 22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10월 6일

주공관직 : 전라북도 산업부장 도사무관

공적사항

전라북도 산업부장으로서는 군용자재인 밤, 보리, 아마, 대마, 건초, 돼지가죽, 돼지, 모피, 통조림용 소, 풀솜 등의 할당 공출에 있어 도내의 생산능력을 정밀히 조사하고 특히 1939년 미증유의 한발에 의해 각종 농산물 생산이 격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국의 어려움 극복을 도모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정에 입각해서 공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방면과 연락 협조를 긴밀히 하여 민중의 시국인식 양양에 노력하여, 부하 직원을 독려하고 시종일관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예정 이상의 성과를 얻어 군수품 공출의 원활과 군수자재 충족에 만전을 기하였다.

〈출전 : 「功績調書(鄭然基)」,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3) 정운성(鄭雲成)

주공기간 : 1938년 7월 7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월 23일

주공관직 : 충청남도 대덕군수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 공출에 관한 사항

시국의 중대성과 군관민 일체의 정신을 체득하여 시종일관 헌신적으로 군내의 생산분포 상황과 생산능력을 잘 조사하여 공출기한 등 실정에 적응한 조달공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관계기관과 밀접

한 연락을 취하는 한편 군민의 시국인식 교화의 철저에 노력함과 동시에 조달 공출품의 식별, 감정, 포장, 수송 등에 대하여 부하직원을 독려하고 만전을 기하였으므로 예정 이상의 수량과 품질이 양호한 다음의 물자를 조달공출하고 군수동원 자재의 충족을 원활히 함에 조금의 유감도 없도록 하였다.

군용대맥	13,950석
군용고	55,080kg
군용저마섬유	9,897근
군용피마자	4석 5두
군용건초	316,145kg
군용돈피	5,579매
군용모피	2,747매
군용양모	73,900kg
군용통조림 소고기	49두
군용가마니	79,830매
군용올충견	425근

그리고 군부가 출정 수송 군마에 대한 사료로서 청초를 요구하자 곧바로 공출대책을 수립하고 부하직원을 독려하여 매일 아침 5시까지 1,480kg를 대전역 홈에 공출하는 것을 7일간에 걸쳐 수송하여 군마 급양에 노력하였다.

2. 군사원호에 관한 사항

부하직원을 독려하고 군민에게 군사원호 관념의 교화 철저를 꾀하여 다음과 같이 금품모집 취전에 진력한 것 외 응소, 개선 군인에 대한 환송연, 접대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훈, 작업부조, 기원제 집행 등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군사원호 사업 실시상 조금의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변이 발발하자 북면지구 내 금강철교에 경비병을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감시 초소를 설치 제공함과 동시에 특지 기부금을 모아 모기장, 모피, 식료품을 구입 급양하는 등 숙영 경비병에게 편리를 제공하여 임무 경계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군사원호사업 자금모집	2,080원 48전
위문금 모집	1,835원 25전
위문봉투 취전	3,960개
위문편지 취전	600통
위문담배 취전	1,250개
상병병 위문	3회
유가족 위문	21회

3.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선전에 관한 사항

군내 각 면 부락에서 시국에 관한 연설 및 간담회, 영화회 등을 개최하고 그리고 인형극을 연출하여 군민의 시국인식 철저를 기하고 전시하 장기태세에서 각오를 강고하게 하여 충후보국의 성과를 거

양함에 진력하였다.

시국강연회 개최	60회
시국영화회 개최	7회

4. 국방헌금 및 애국기헌납자금 등 모집 취전에 관한 사항

시국강연회 및 기타 기회에 군민에 대하여 시국인식과 국방사상의 보급 철저에 노력하였는데 특히 국방의 긴요성과 병기의 충족과 방공에 대해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모집 취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애국기 헌납자금	6,193원 61전
국방헌금	2,437원 26전
방호감시소 설치비	1,253원

5. 비행장 설치 원조에 관한 사항

유천면 탄방리 대전비행장 설치에 임하여 해당지역 군수로서 참여하고 용지기부 교섭 130건, 노무자 공출 18,500인(연), 묘지 이전 300기 등에 대해 진력하여 사업 완성에 유감이 없도록 함.

〈출전 : 功績調書(鄭雲成)〉,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4) 정찬선(鄭燦先)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9년 1월 23일, 계 1년 6월 17일

주공관직 : 황해도 황주군 군수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에 관한 업무

군수자재인 모피, 돈피, 생돈, 건초 대맥 등 공출의 명령을 받아 그때마다 곧바로 관계있는 각 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조달계획을 수립함과 함께 부하를 지휘감독하여 모두 예정 이상의 수량을 공출함으로써 군수의 충족을 원활히 하였는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1) 모피의 공출	
1938년	1,968매
1939년	2,334매
2) 돈피의 공출	
1938년	4,818매
3) 생돈의 공출	
1938년	254두
4) 건초의 공출	
1937년	80,339천

5) 대맥의 공출

1937년	288석
1938년	200석

2. 군사원호

군(郡)군사후원연맹으로서 황군위문금품을 모집하고 혹은 출정군인 유가족에 대해서 누차 사택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등 군사원호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3.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선전

군민의 시국인식을 철저히 하고자 시국인식 강화 주간을 계획하거나 혹은 강연회, 좌담회를 개최하고 또는 선전삐라를 배포하는 등 시국인식 철저에 노력하였다.

4.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

국채의 할당을 직접 관계기관과 연락을 하여 소화에 노력하거나 혹은 저축의 장려 등 전시재정운영에 기여하였다.

5. 국방헌금 및 애국기헌납자금 수집 추진

시국인식의 철저와 애국심 양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군민의 참된 정성으로 국방헌금의 취전에 종사하였다.

주공기간 : 1939년 1월 24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3월 5일

주공관직 : 황해도 송화군 군수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에 관한 업무

군수자재인 모피, 돈피, 건초, 대맥, 율충견 등 공출의 명령을 받고 그때마다 곧바로 관계되는 각 기관과 밀접하게 연락하여 조달계획을 수립함과 함께 부하를 지휘감독하여 모두 예정 이상의 수량을 공출함으로써 군수의 충족을 원활히 하였는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 1) 모피의 공출 1940년 982매
- 2) 돈피의 공출 1939년 957매
- 3) 건초의 공출 1939년 110,000kg
- 4) 대맥의 공출 1939년 400석
- 5) 율충견 공출 1939년 29근

2. 이하 등

<출전 : 「功績調書(鄭燦先)」,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5) 조경하(趙鏡夏)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9년 4월 26일, 계 1년 9월 21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달성군수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공출에 관한 사항

군사용 물자의 조달 공출을 맡아 군내의 생산분포 상황과 생산능력을 정밀히 조사하여 공출기간 등 실정에 맞는 조달공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관계 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도모하여 일반 군민의 시국인식의 교화철저에 노력함과 함께 조달 공출품의 식별, 감정, 포장, 수송 등에 대하여 만전을 기함으로써 공출지정기간 내에 예정(할당) 이상의 수량과 품질이 양호한 물자를 조달 공출하여 군수동원 자재의 충족을 원활하게 하는데 아무런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조달공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군용말사료 대맥	14,900석
군용고	9,999kg
군용생돈	485두
군용돼지가죽	6,119매
군용개가죽	3,287매

2. 군사원호에 관한 사항

군사후원사업, 기부금 모집을 시작으로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 향토부대의 노고를 위문하기 위해 대구병사부를 경유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증정에 헌신 진력하였다.

군사후원사업자금	870원
월중곤	4,133매
위문대	522개

3.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선전에 관한 업무

1) 시국강연회 개최

(1) 군 간부를 동원하여 각 면 단위에 개최된 것

실시연회수	13회
청강자총수	1,300명

(2) 명륜당 강사 안인식씨를 초빙, 군내 추요지에서 개최된 것

실시연회수	3회
청강자총수	1,300명

(3) 특별히 부인의 각오를 촉구하기 위해 도축탁 임숙재를 초빙, 옥포면에 각 면에서 지도적 계급에 속하는 부인을 초집, 개최한 것

청강자총수	500명
-------	------

(4) 명륜당 강사 나방우씨를 초빙, 군내 지도적 계급에 속하는 남자를 회원면에 초집, 개최한 것

청강자총수 1,500명

2) 국방사상보급 영화회의 개최

……(판독불가)…… 철저에 노력하였다.

실사회수 2회

관람인수 3,500명

4. 국방헌금 취전에 관한 사항

군민 전체의 절미 및 폐품모집에 관한 매상 925원 32전을 취전하여 국방헌금하였다.

주공기간 : 1939년 4월 27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2일)

주공관직 : 충청남도 참여관 겸 산업부장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 공출에 있어서 도내의 생산분포 상황과 생산능력을 정밀히 조사하여 공출기간 등 실정에 맞는 조달공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관계기관(특히 경찰)과 밀접한 연락을 도모하여 일반 도민의 시국인식의 교화철저에 노력함과 함께 조달 공출품의 식별, 감정, 포장, 수송 등에 대하여 만전을 기함으로써 공출지정기간 내에 예정(할당) 이상의 수량과 품질 양호한 물자를 조달공출함으로써 군수동원자재의 충족을 원활하게 하는데 아무런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조달공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군용마량 대맥	65,423석 6
군용고	116,660kg
군용가마니	2,805,449매
군용새끼줄	83,227관
군용저마섬유	35,707근
군용돈피	29,960매
군용모피	18,113매
군용양모	835kg 2
군용통조림용 소고기	390두
군용건초	319,275kg
군용방수피부가공지	560,000매
군용외투진면	12,776착
군용올충견	2,400근
군용목탄	2,000표
군용피마자	102석 5

〈출전 : 「功績調書(青橋鏡夏)」, 『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